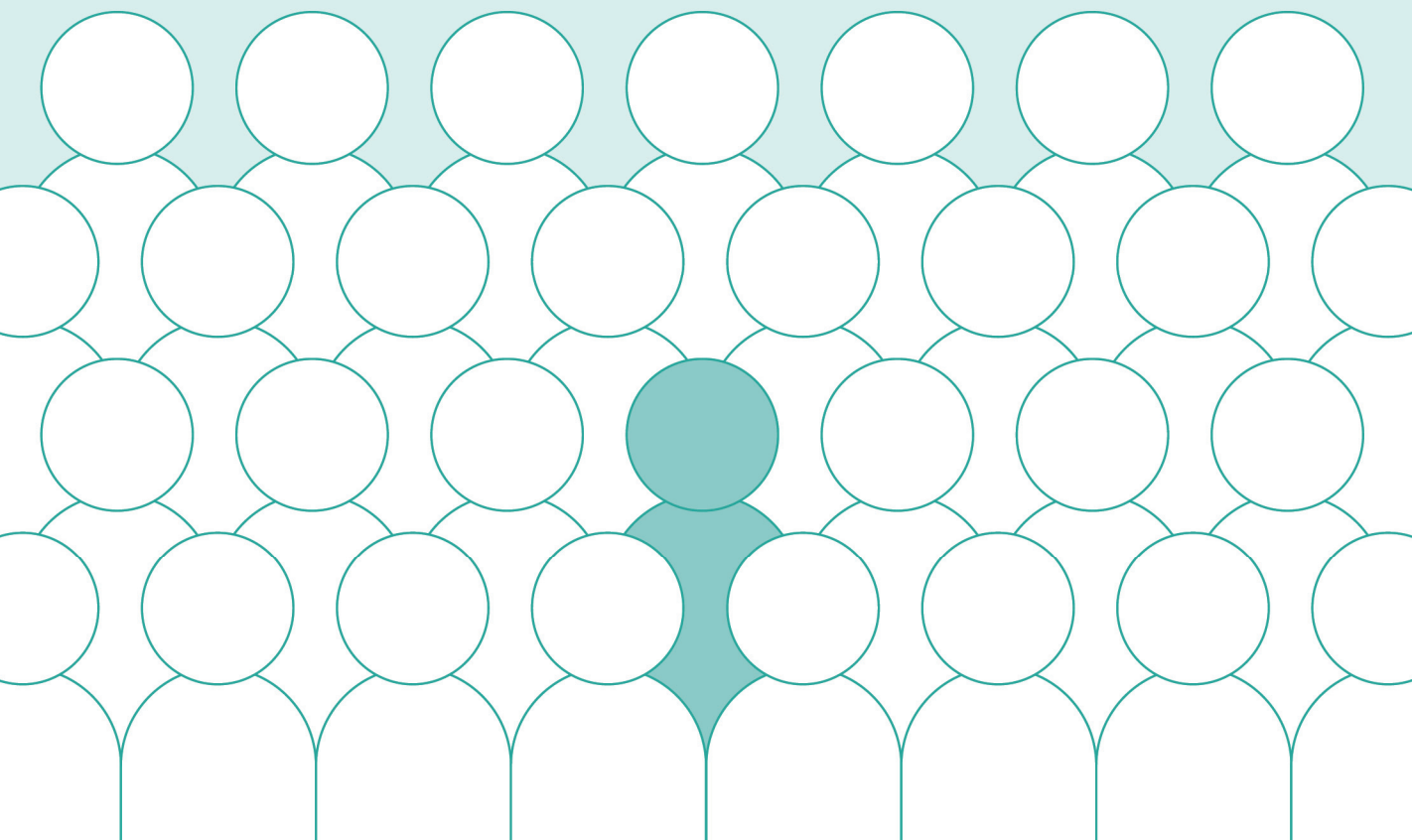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2-1071800-000065-01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2024. 11.



발간등록번호
12-1071800-000065-01

#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저 자 김지현, 유해미, 김문정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 지 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유 해 미**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문 정**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본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연구 과제의 결과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 출 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옥경

# 목차


**요약** 1

**Ⅰ. 서론** 15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7
2. 연구방법 ····· 19

**Ⅱ. 결혼 및 출산 관련 인식** 25
1. 응답자 특성 ····· 27
2. 결혼에 대한 인식 ····· 27
3. 출산에 대한 인식 ····· 44

**Ⅲ. 양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75
1. 돌봄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 77
2.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 ····· 85

**Ⅳ.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대한 인식과 수요** 95
1. 저출생 대책 발표에 대한 인지도와 중요도 ····· 97
2. 저출생 대책 3대 분야의 인지도 및 기대효과 인식 ····· 117
3. 3대 분야 정책 강화의 필요도 ····· 144

**Ⅴ. 결론 및 시사점** 159
1. 결혼·출산·자녀 양육 인식과 이유에 대한 시사점 ····· 161
2.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과 수요에 대한 시사점 ····· 163
3. 종합적 분석 및 제안 ····· 166

**참고문헌** 169

**부록** 171

부록 1. 설문지 ····· 171
부록 2.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표 ····· 198

# 표 목차


〈표 1〉 정책별 정책 중요도 ····· 8
〈표 2〉 저출생 대책 정책별 인지도 ····· 10
〈표 3〉 저출생 대책 정책별 정책효과 기대 정도 ····· 12
〈표 Ⅰ-2-1〉 모집단 연령별·성별 모집단 인구수 ····· 19
〈표 Ⅰ-2-2〉 모집단 비율 할당한 조사표본 구성(최종) ····· 20
〈표 Ⅰ-2-3〉 조사 내용 ····· 21
〈표 Ⅰ-2-4〉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제활동 여부(20-49세 기준) ····· 22
〈표 Ⅰ-2-5〉 2024년 9월 결혼·출산·양육 및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 취업률 ····· 22
〈표 Ⅰ-2-6〉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교육 정도(20-49세 기준) ····· 22
〈표 Ⅰ-2-7〉 2024년 9월 결혼·출산·양육 및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 교육 정도 ····· 23
〈표 Ⅱ-2-1〉 응답자 특성 ····· 28
〈표 Ⅱ-2-1〉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29
〈표 Ⅱ-2-2〉 결혼의향 ····· 32
〈표 Ⅱ-2-3〉 결혼의향이 있으나 현재 미혼인 이유
– 각 이유에 동의하는 비율(전체) ····· 34
〈표 Ⅱ-2-4〉 결혼의향이 있으나 현재 미혼인 이유
– 각 이유에 동의하는 비율 ····· 36
〈표 Ⅱ-2-5〉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 – 각 이유에 동의하는 비율(전체) ····· 38
〈표 Ⅱ-2-6〉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 – 각 이유에 동의하는 비율 ····· 39
〈표 Ⅱ-2-7〉 조건이 더해졌을 때 결혼의향 – 긍정비율(전체) ····· 41
〈표 Ⅱ-2-8〉 조건이 더해졌을 때 결혼의향 – 긍정비율 ····· 42
〈표 Ⅱ-3-1〉 자녀의 필요성 ····· 45
〈표 Ⅱ-3-2〉 이상적인 자녀 수 ····· 48
〈표 Ⅱ-3-3〉 무자녀 응답자의 자녀 출산 계획 ····· 52
〈표 Ⅱ-3-4〉 무자녀 응답자의 자녀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전체) ····· 54
〈표 Ⅱ-3-5〉 무자녀 응답자의 자녀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1순위) ····· 55
〈표 Ⅱ-3-6〉 유자녀 응답자의 자녀 추가 출산 계획 ····· 58

〈표 Ⅱ-3-7〉 유자녀 응답자의 자녀 추가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전체) ····· 61
〈표 Ⅱ-3-8〉 유자녀 응답자의 자녀 추가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1순위) ····· 62
〈표 Ⅱ-3-9〉 다음 조건이 더해졌을 때 (추가) 출산의향 여부 ····· 65
〈표 Ⅱ-3-10〉 다음 조건이 더해졌을 때 추가 출산의향 여부1 ····· 66
〈표 Ⅱ-3-11〉 다음 조건이 더해졌을 때 추가 출산의향 여부2 ····· 69
〈표 Ⅱ-3-12〉 다음 조건이 더해졌을 때 추가 출산의향 여부3 ····· 71
〈표 Ⅲ-1-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 없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희망하는 자녀 연령 ····· 77
〈표 Ⅲ-1-2〉 맞벌이 가구에서 일·가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1순위) ····· 80
〈표 Ⅲ-1-3〉 맞벌이 가구에서 일·가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1순위) - 맞벌이 응답자만 ····· 83
〈표 Ⅲ-2-1〉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85
〈표 Ⅲ-2-2〉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88
〈표 Ⅲ-2-3〉 초등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91
〈표 Ⅳ-1-1〉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전반적 인지도(전체) ····· 98
〈표 Ⅳ-1-2〉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전반적 인지도 - 인지비율 ··· 99
〈표 Ⅳ-1-3〉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인지 경로 ····· 101
〈표 Ⅳ-1-4〉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주요 영역별 중요도 인식(전체) ····· 103
〈표 Ⅳ-1-5〉 저출생 대책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도 - 긍정비율 ··· 103
〈표 Ⅳ-1-6〉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전체) ····· 105
〈표 Ⅳ-1-7〉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방안별 중요도 - 긍정비율 ····· 107
〈표 Ⅳ-1-8〉 돌봄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전체) ····· 108
〈표 Ⅳ-1-9〉 0-11세 돌봄환경 조성방안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도 - 긍정비율 ····· 109
〈표 Ⅳ-1-10〉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환경조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전체) · 111
〈표 Ⅳ-1-11〉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대책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도 - 긍정비율 ····· 113
〈표 Ⅳ-1-12〉 국민 인식과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중요도 인식(전체) ····· 115
〈표 Ⅳ-1-13〉 사회구조적 원인별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도 - 긍정비율 ··· 115

〈표 Ⅳ-2-1〉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주요 3대 분야에 대한 인지 여부(전체) ····· 117
〈표 Ⅳ-2-2〉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주요 3대 분야에 대한 인지 여부 ····· 118
〈표 Ⅳ-2-3〉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 세부정책의 인지비율 ····· 122
〈표 Ⅳ-2-4〉 일·가정 양립지원 분야 세부정책의 기대효과 인식 - 긍정비율 126
〈표 Ⅳ-2-5〉 교육·돌봄지원 분야 세부정책의 인지비율 ····· 129
〈표 Ⅳ-2-6〉 교육·돌봄 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인식 - 긍정비율 ····· 133
〈표 Ⅳ-2-7〉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지원 분야 세부정책의 인지비율 ····· 137
〈표 Ⅳ-2-8〉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인식 - 긍정비율 141
〈표 Ⅳ-3-1〉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별 강화·확대의 필요성 - 긍정비율 ····· 145
〈표 Ⅳ-3-2〉 교육·돌봄 지원 정책별 강화·확대의 필요성 - 긍정비율1 ····· 149
〈표 Ⅳ-3-3〉 교육·돌봄 지원 정책별 강화·확대의 필요성 - 긍정비율2 ····· 151
〈표 Ⅳ-3-4〉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정책별 향후 강화·확대 필요성 - 긍정비율 ····· 155

# 그림 목차


[그림 1]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별 인지도 ····· 9
[그림 2]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별 정책 기대효과 ····· 11
[그림 Ⅱ-2-1]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긍정비율) ····· 29
[그림 Ⅱ-2-2] 결혼의향 ····· 32
[그림 Ⅱ-2-3] 결혼의향이 있으나 현재 미혼인 이유
- 각 이유에 동의하는 비율(전체) ····· 35
[그림 Ⅱ-2-4]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 - 각 이유에 동의하는 비율(전체) ····· 38
[그림 Ⅱ-3-1]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긍정비율) ····· 45
[그림 Ⅱ-3-2] 성×연령별 무자녀 응답자의 자녀 출산 계획 ····· 51
[그림 Ⅱ-3-3] 무자녀가구 자녀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
(1+2+3순위) ····· 54
[그림 Ⅱ-3-4] 성×연령별 유자녀 가구 자녀 출산 계획 ····· 58
[그림 Ⅱ-3-5] 유자녀 가구 자녀 추가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1+2+3순위) ····· 61
[그림 Ⅳ-1-1]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인지 여부 ····· 97
[그림 Ⅳ-1-2]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중요도 - 긍정비율(전체) ····· 106
[그림 Ⅳ-2-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인지 여부(전체) ····· 121
[그림 Ⅳ-2-2]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인식 - 긍정비율(전체) ·· 125
[그림 Ⅳ-2-3] 교육·돌봄 지원정책의 인지 여부(전체) ····· 129
[그림 Ⅳ-2-4] 교육·돌봄 지원정책의 기대효과 인식 - 긍정비율(전체) ····· 133
[그림 Ⅳ-2-5]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정책의 인지 여부(전체) ····· 136
[그림 Ⅳ-2-6]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정책의 기대효과 인식
- 긍정비율(전체) ····· 140
[그림 Ⅳ-2-7]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별 정책 인지도 및 기대효과 비교 ····· 144
[그림 Ⅳ-3-1]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별 강화·확대 필요성
- 긍정비율(전체) ····· 145
[그림 Ⅳ-3-2] 교육·돌봄지원 분야의 강화·확대 필요성 - 긍정비율(전체) ···· 148
[그림 Ⅳ-3-3]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지원 분야의 강화·확대 필요성
- 긍정비율(전체) ····· 154
[그림 Ⅴ-3-1] 조사내용별 결과 요약 및 향후 제안 ····· 168

# 부록 표 목차

〈부록표 1〉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인지 경로 ····· 198
〈부록표 2〉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주요 영역별 중요도 인식 (7점 척도 점수별) ····· 200
〈부록표 3〉 저출생 대책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도 – 긍정비율(그룹별) ····· 200
〈부록표 4〉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7점척도 점수별) ····· 201
〈부록표 5〉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_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방안별 중요도 – 긍정비율(그룹별) ····· 201
〈부록표 6〉 돌봄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7점척도 점수별) ····· 202
〈부록표 7〉 0-11세 돌봄환경 조성 방안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도 – 긍정비율(그룹별) ····· 202
〈부록표 8〉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환경조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 (7점척도 점수별) ····· 203
〈부록표 9〉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대책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도 – 긍정비율(그룹별) ····· 203
〈부록표 10〉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중요도 인식(7점척도 점수별) ····· 204
〈부록표 11〉 사회구조적 원인별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도 – 긍정비율(그룹별) ····· 204
〈부록표 12〉 결혼의향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책인지도 ····· 205
〈부록표 13〉 출산의향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책인지도 ····· 206

# 요약

## 1. 서론

###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2023년 합계 출산율 0.72)로 극심한 저출생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음.

- '일·가정양립', '교육 및 돌봄', '주거' 등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1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러한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 시점에서 정책수요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25-49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 대상 홍보를 위해 인지 정도와 효과성 인식 파악이 필요함.

### 나. 설문방법 및 조사설계

□ 만25세 이상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2,500명 대상 조사를 목표로 2024년 7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해당연령의 인구를 성별, 연령별, 17개 시도별로 모집단의 인원수를 파악하여 그 비율로 표집하였음.

□ 조사 내용은 결혼·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저출산 대책발표 내용에 대한 인식 및 효과성, 기본 배경 등을 포함함.

### 다. 조사대상 추출방법

□ 본 조사는 한국리서치 MS 패널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음.

- 성별, 연령별 비율은 2024년 2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그 비율을 모집단의 비율에 맞추어 표집 할당하였음.
- 취업률, 최종학력 등은 패널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 취업률 및 최종학업 등을 대한민국 모집단 비율과 비교하여 할당함.

## 2. 결혼·출산·자녀 양육 인식조사 결과

### 가. 응답자 특성

□ 본 조사는 만25-49세 대한민국 국민 2,500명을 목표로 표집하였으며, 최종 2,59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음.

- 응답자 중 남성은 51.6%, 여성은 48.4%이며, 만25-29세는 18.9%, 30대는 37.2%, 40대는 43.9%를 차지하였음.
- 미혼응답자 46.6%, 기혼 응답자 50.2%, 이혼/사별 응답자 3.2%로 구성됨.
- 전체 조사응답자 중 취업중인 응답자는 68.8%[1], 학업중 3.9%, 구직중 16.1%, 미취업 11.4%로 나타남.
- 자녀유무는 유자녀 43.3%, 무자녀 56.7%로 구성되었으며, 유자녀 응답자의 자녀 연령은 막내자녀 기준으로 영아가 22.7%, 유아 14.9%, 초등 저학년 21.7%, 초등 고학년 16.8%로 나타났음.

### 나. 결혼에 대한 인식

#### 1)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 '결혼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전체응답자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 4점 척도로 물었고, 15.3%가 매우 긍정적, 56.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71.5%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남성 긍정응답은 76.5%, 여성 긍정응답은 66.2%로 나타나 남성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음.
- 만30-39세 남성이 긍정응답이 78.5%로 가장 높았고, 만25-29세 여성 긍정응답이 57.4%로 나타남.

1) 취업중 응답자 비율은 69.6%로 경제활동인구조사(2024.2)에서의 고용률(만25-49세 기준 72.3%~73.2%, 표 Ⅰ-3-1 참고)과 유사한 수준임.

### 2) 결혼의향 및 이유

□ 결혼의향

- 미혼 응답자에게 '결혼할 의향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한 결과,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가 50.4%,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가 19.2%,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15.4%로 나타남.

□ 결혼의향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이유

- 각 항목에 대한 동의비율이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려고' 74.1%,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72.8%, '결혼 후 일상생활이나 역할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54.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지금은 다른 일(학업이나 직업 등)에 더 열중하고 싶어서' 38.4%, '아직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32.2%로 동의비율이 낮게 나타남.

## 다.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 1) 자녀의 필요성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가 44.3%, '매우 그렇다'가 23.8%로 긍정응답이 68.2%로 나타남(4점 척도 중 평균 2.9점).

- 2024년 3월 조사에서는 '대체로 그렇다'가 42.1%, '매우 그렇다'가 18.9%로 긍정응답이 61.1%로 나타났음.
- 성별 간 차이를 살펴보면, 4점 척도에서 남성은 3.0점, 여성은 2.7점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자녀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 성별×연령별 차이를 보면, 30대 남성은 3.1점, 만25-29세 여성은 2.4점으로 그룹별 차이를 보임.

□ 이상적인 자녀수를 물은 질문에는 2024년 3월 조사와 동일하게 평균 1.8명으로 응답하였고, 남성(1.9명)이 여성(1.7명)보다 높으며, 40대(1.9명)〉30대(1.8명)〉만25-29세(1.6명) 순으로 이상적인 자녀수를 높게 응답함.

- 성별×연령별 차이를 보면, 3,40대 남성 그룹이 1.9명으로 가장 높고, 만25-29세 여성 그룹이 1.4명으로 가장 낮아 차이를 보임.

### 2) 자녀 출산 계획

#### 가) 무자녀 응답자의 자녀 출산 계획

□ 무자녀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낳을 생각이 있다' 37.7%, '낳지 않을 생각이다' 24.8%,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26.9%, '생각해본 적이 없다' 10.6%로 나타남.

- 남성이 여성보다, (무자녀 응답자 중) 기혼이 미혼보다, 공무원과 관리/연구/전문직이 타 직무 유형보다, 가구소득 900만원 이상 가구가 그 이하가구보다 출산의향이 높게 나타남.
- 또한 결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출산의향이 높음.

□ 무자녀 응답자가 자녀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양육이 막연히 어렵게 느껴져서'로 나타났으며(1순위, 1+2순위, 1+2+3순위 모두), 이는 여성, 남성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녀계획이 없거나 결정 못한 이유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여성과 남성이 달랐는데, 여성의 경우 '행복하기 힘든 사회여서', 남성의 경우 '양육비 부담' 으로 나타남.

#### 나) 유자녀 응답자의 자녀 추가 출산 계획

□ 유자녀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를 더 출산할 계획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낳을 생각이 있다' 9.3%, '낳지 않을 생각이다' 68.8%,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14.2%, '생각해본 적이 없다' 7.7%로 나타남.

- 성별간 차이를 살펴보면, '낳지 않을 생각이다'의 응답에 남성은 64.4%, 여성은 72.6%로 여성이 남성보다 8.2%p 높음.
- 유자녀 응답자의 자녀 추가 출산의향은 막내 자녀 연령대가 낮을수록 '낳을 생각이 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비율이 높음.

□ 유자녀 응답자에 대해 자녀 추가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를 주어진 보기 중 1, 2, 3순위로 선택하게 한 결과, 1순위 기준 '자녀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 25.0%, '나/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 24.8%, '자녀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 18.5%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유자녀 추가 출산의향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성별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연령차이가 크게 나타남.
- 막내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영유아의 경우 '양육의 어려움'. '양육비 부담'이 높게 나타났고, 막내자녀 초등 이상의 경우 '나이가 많아서'의 이유가 많았음.

3) 조건 변화에 따른 출산의향

□ 전체 응답자에게 15가지 조건에 대하여 '다음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드십니까?'의 질문을 한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이 59.5~79.6%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소득이 좀 더 많다면' 79.6%,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78.2%, '일자리가 좀 더 안정적이라면' 75.9%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자녀 출산의향'에서 무자녀의 경우 '낳을 생각이 있다'가 37.7%인데 반해 유자녀의 추가출산의향은 9.3%로 현저히 차이가 있어, 조건이 더해졌을 때 출산의향도 미혼이 기혼보다, 무자녀가 유자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3.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 가. 돌봄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1) 직접 양육 희망하는 자녀연령

□ 자녀가 있는 경우와 무자녀 중 자녀를 낳을 계획인 응답자에게 '자녀를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어린이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언제까지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기를 희망하십니까?'의 질문을 한 결과, 31~36개월 27.1%, 19~24개월 26.2%, 37개월 이후 21.9%로 높게 나타났고, 평균 29.8개월이었음.

2)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전체 응답자에게 '맞벌이 가구에서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을 질문한 결과, 육아시간 확보가 4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16.2%, 배우자 간 평등한 육아분담 14.4%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남녀 모두 육아시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특히 남성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하였음.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한 것이 남성은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인 한편 여성은 배우자 간 평등한 육아 분담으로 차이가 있었음.
-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육아시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와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 상대적으로 배우자 간 평등한 육아 분담에 대한 요구가 높아 차이가 있었음.

## 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

### 1)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게 최근 3개월 이내에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여부와 서비스(이용시간, 이용비용, 서비스 내용과 질) 만족도를 질문하였음.

- 그 결과 72.0%가 이용 경험이 있었고, 서비스 만족도는 5점 척도 중 3.9~4.1점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게 최근 3개월 이내에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시간제 보육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여부와 서비스(이용시간, 이용비용, 서비스 내용과 질) 만족도를 질문하였음.

- 그 결과 15.7%만이 이용 경험이 있었고, 서비스 만족도는 5점 척도 중 3.5~3.6점으로 보통에서 만족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음.

### 3) 초등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게 최근 3개월 이내에 초등돌봄서비스(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여부와 서비스(이용시간, 이용비용, 서비스 내용과 질) 만족도를 질문하였음.

- 그 결과 39.5%만이 이용 경험이 있었고, 서비스 만족도는 5점 척도 중 3.6~3.7점으로 보통에서 만족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음.

## 4.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대한 인식과 수요

### 가. 저출생 대책 발표에 대한 인지도

#### 1)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지도와 경로

□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을 잘 모른다’ 54.4%,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10.2%로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64.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인구국가비상사태 선언’과 ‘(가칭)인구 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는 각각 76.2%와 46.0%가 인지함.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알게 된 경로는 포털이나 커뮤니티 등 인터넷 45.2%, TV 33.6%, 소셜 미디어(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13.1%, 신문 3.4% 순으로 응답함.

- 만40-49세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TV가 40.7%와 41.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만24-29세 남성과 유자녀 가구는 인터넷이 47.4%와 48.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 저출생 대책에 대한 세부 정책별 중요도 인식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주요 영역 중 일·가정 양립, 양육지원, 주거 등 결혼·출산지원의 중요도를 7점 척도로 물었을 때, 5점 이상 응답 비율은 각각 85.7%, 85.6%, 84.1%로 모두 높게 응답함.

□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중요도

- 가장 중요도가 높은 세가지가 일·가정양립 영역이며,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88.1%,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87.5%,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 87.5% 순으로 긍정비율이 높게 나타남.

□ 교육·돌봄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도

- ‘출·퇴근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 82.1%,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등 돌봄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81.4%, ‘교육·돌봄을 0~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79.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도

-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가 83.3%로 가장 높고, '결혼 친화적 세금지원을 통한 결혼에 대한 메리트 확대'는 72.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국민 인식과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중요도

- '좋은 일자리 창출' 83.3%, '사교육비 부담 완화' 81.8% 순으로 높고, '수도권 집중 완화'는 72.1%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1〉 정책별 정책 중요도**

단위: %, (명), 점

| 구분 | | 부정 | 보통 | 긍정 | 계 | (수) | 평균 |
|---|---|---|---|---|---|---|---|
|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 | 4.1 | 8.4 | 87.5 | 100.0 | (2,592) | 6.0 |
| |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3.6 | 8.9 | 87.5 | 100.0 | (2,592) | 6.1 |
| |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3.2 | 8.7 | 88.1 | 100.0 | (2,592) | 6.1 |
| 돌봄 환경 조성 | 교육·돌봄을 0~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7.8 | 13.0 | 79.2 | 100.0 | (2,592) | 5.7 |
| |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 | 6.4 | 11.5 | 82.1 | 100.0 | (2,592) | 5.8 |
| |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등 돌봄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 6.4 | 12.2 | 81.4 | 100.0 | (2,592) | 5.7 |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환경조성 |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 확대 | 7.9 | 10.7 | 81.4 | 100.0 | (2,592) | 5.8 |
| | 결혼 친화적 세금지원을 통해 결혼에 대한 메리트 확대 | 13.5 | 14.5 | 72.1 | 100.0 | (2,592) | 5.3 |
| |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 | 7.7 | 11.3 | 81.0 | 100.0 | (2,592) | 5.7 |
| |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 9.1 | 11.5 | 79.4 | 100.0 | (2,592) | 5.7 |
| |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 6.5 | 10.1 | 83.3 | 100.0 | (2,592) | 5.8 |
| 국민인식과 사회구조적 문제 |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8.0 | 12.6 | 79.3 | 100.0 | (2,592) | 5.7 |
| | 기업, 지자체 등의 주도적인 참여 | 6.8 | 12.1 | 81.1 | 100.0 | (2,592) | 5.7 |
| | 좋은 일자리 창출 | 5.7 | 11.0 | 83.3 | 100.0 | (2,592) | 5.8 |
| | 수도권 집중 완화 | 7.9 | 14.7 | 77.5 | 100.0 | (2,592) | 5.6 |
|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7.0 | 11.2 | 81.8 | 100.0 | (2,592) | 5.8 |

주: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부정은 1~3점 응답 합산 비율, 보통은 4점 응답 비율, 긍정은 5~7점 응답 합산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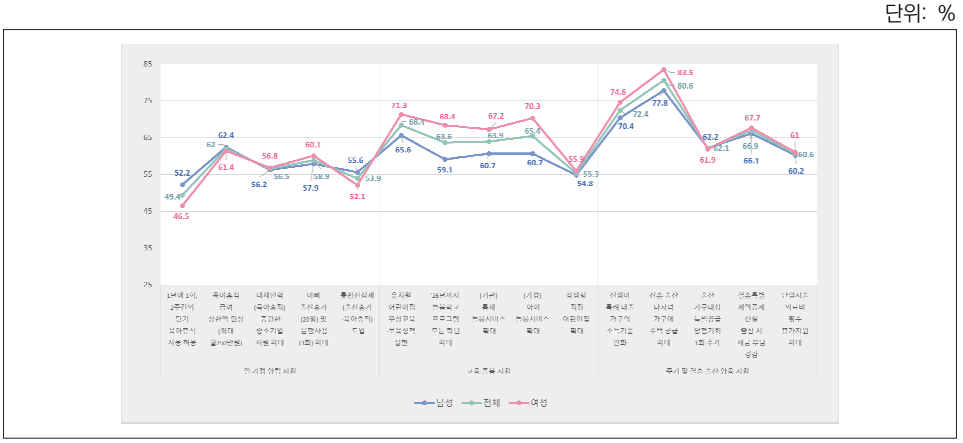
## 나. 저출생 대책 3대 분야의 인지도 및 정책 기대효과

### 1) 저출생 대책 3대 분야의 인지도

□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 주택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 보육정책 실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순으로 나타남.

**[그림 1]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별 인지도**

단위: %




□ 일·가정양립 지원에 대한 인지도

-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150만원에서 최대 월250만원으로 인상'이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가 20.0%, 전체 인지도 61.9%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음.

□ 교육·돌봄 지원에 대한 인지도

- 교육·돌봄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유치원·어린이집(미취학 아동) 비용 부담이 없도록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 68.3%,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65.4% 등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음.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인지도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80.5%, '주택구입·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 72.5%를 비롯하여,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영역의 모든 정책이 60%이상으로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음.

**〈표 2〉 저출생 대책 정책별 인지도**

단위: %, (명)

| 전체값 | | 전혀 모른다 | 들어본적 있으나 내용 잘 모른다 |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 인지 비율 | 계 | 사례수 |
|---|---|---|---|---|---|---|---|
|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인지도 | 봄방학 등 단기에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1년에 1회,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 허용 | 50.6 | 41.1 | 8.3 | 49.4 | 100.0 | (2,592) |
|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150만원에서 최대 월250만원으로 인상 | 38.0 | 41.9 | 20.0 | 61.9 | 100.0 | (2,592) |
| |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확대 | 43.5 | 41.9 | 14.6 | 56.5 | 100.0 | (2,592) |
| |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분할사용은 1회에서 3회까지로 확대 | 41.1 | 41.6 | 17.3 | 58.9 | 100.0 | (2,592) |
| | 회사 눈치보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제 도입 | 46.1 | 40.5 | 13.5 | 54.0 | 100.0 | (2,592) |
| 교육·돌봄 지원에 대한 인지도 | 유치원·어린이집(미취학 아동) 비용 부담이 없도록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 | 31.6 | 47.9 | 20.4 | 68.3 | 100.0 | (2,592) |
|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26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 | 36.4 | 42.9 | 20.7 | 63.6 | 100.0 | (2,592) |
| | 등하원시간 전후, 야간, 휴일, 방학과 같은 틈새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확대 | 36.1 | 46.1 | 17.8 | 63.9 | 100.0 | (2,592) |
| |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34.6 | 46.3 | 19.1 | 65.4 | 100.0 | (2,592) |
| | 협력기업 직원과 인근 주민의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 44.7 | 42.6 | 12.8 | 55.4 | 100.0 | (2,592) |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인지도 | 주택구입·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 | 27.6 | 51.3 | 21.2 | 72.5 | 100.0 | (2,592) |
| |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 19.4 | 52.3 | 28.2 | 80.5 | 100.0 | (2,592) |
| | 신규 출산가구에 분양주택 특별공급 당첨 기회 1회 추가 허용 | 37.9 | 43.7 | 18.3 | 62.0 | 100.0 | (2,592) |
| | 결혼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 출산 시 세금 부담 경감 | 33.1 | 48.4 | 18.4 | 66.8 | 100.0 | (2,592) |
| |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금액과 횟수 확대, 난임휴가를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 | 39.4 | 44.3 | 16.2 | 60.5 | 100.0 | (2,59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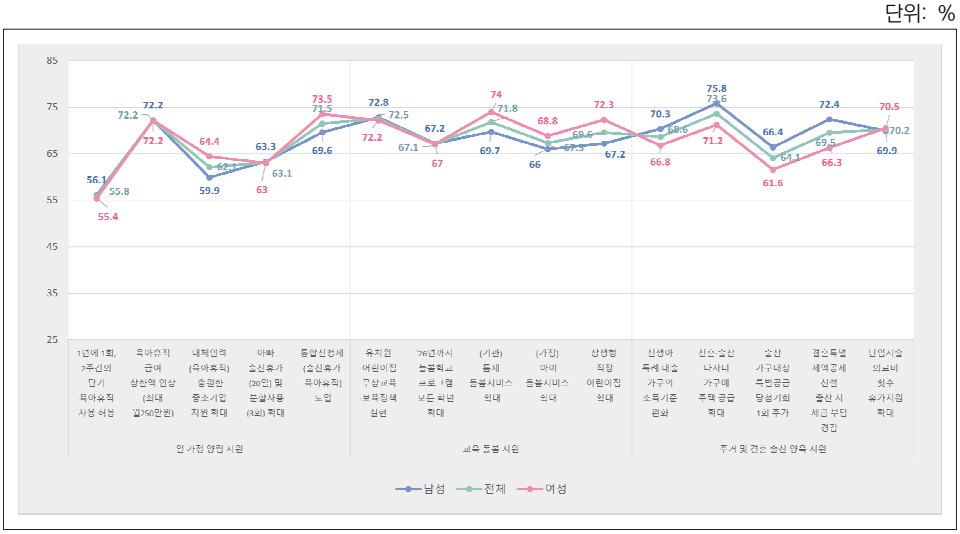
주: 인지비율은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 잘 모른다'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응답을 합한 비율임.

### 2) 저출생 대책 3대 분야의 정책 기대효과 정도

□ 저출생 대책 3대 분야의 정책 기대효과 정도에서 전체 기준 신혼출산 다자녀가구의 주택공급확대, 통합신청제(출산휴가,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금액상한액 인상, 틈새 돌봄서비스 확대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1년에 1회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 허용, 출산가구대상 특별공급 당첨기회 1회 추가 등은 정책 기대효과 정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남.

**[그림 2]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별 정책 기대효과**

단위: %




□ 일·가정양립 지원에 대한 정책효과 기대 정도

-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정책효과 기대 정도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150만원에서 최대 월250만원으로 인상' 72.2%, '회사 눈치보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제 도입' 71.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교육·돌봄 지원에 대한 정책효과 기대 정도

- 교육·돌봄 지원에 대한 정책효과 기대 정도는 '유치원·어린이집(미취학 아동) 비용 부담이 없도록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 72.5%, '등하원시간 전후, 야간, 휴일, 방학과 같은 틈새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확대' 71.8%로 높게 나타났고, 영역 내 타 정책도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정책효과 기대 정도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정책효과 기대 정도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73.6%,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금액과 횟수 확대, 난임휴가를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 70.2%로 높게 나타났고,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영역의 모든 정책이 60%이상으로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음.

**〈표 3〉 저출생 대책 정책별 정책효과 기대 정도**

단위: %, (명), 점

| 전체값 | | 부정 | 긍정 | 계 | 사례수 | 평균 |
|---|---|---|---|---|---|---|
|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정책효과 기대 정도 | 봄방학 등 단기에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1년에 1회,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 허용 | 44.2 | 55.8 | 100.0 | (2,592) | 2.6 |
|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150만원에서 최대 월250만원으로 인상 | 27.8 | 72.2 | 100.0 | (2,592) | 3.0 |
| |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확대 | 37.9 | 62.1 | 100.0 | (2,592) | 2.8 |
| |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분할 사용은 1회에서 3회까지로 확대 | 36.9 | 63.1 | 100.0 | (2,592) | 2.8 |
| | 회사 눈치보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제 도입 | 28.5 | 71.5 | 100.0 | (2,592) | 3.0 |
| 교육·돌봄 지원에 대한 정책효과 기대 정도 | 유치원·어린이집(미취학 아동) 비용 부담이 없도록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 | 27.5 | 72.5 | 100.0 | (2,592) | 3.0 |
|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26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 | 32.9 | 67.1 | 100.0 | (2,592) | 2.9 |
| | 등하원시간 전후, 야간, 휴일, 방학과 같은 틈새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확대 | 28.2 | 71.8 | 100.0 | (2,592) | 3.0 |
| |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32.7 | 67.3 | 100.0 | (2,592) | 2.9 |
| | 협력기업 직원과 인근 주민의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 30.4 | 69.6 | 100.0 | (2,592) | 2.9 |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정책효과 기대 정도 | 주택구입·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 | 31.4 | 68.6 | 100.0 | (2,592) | 2.9 |
| |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 26.4 | 73.6 | 100.0 | (2,592) | 3.0 |
| | 신규 출산가구에 분양주택 특별공급 당첨 기회 1회 추가 허용 | 35.9 | 64.1 | 100.0 | (2,592) | 2.8 |
| | 결혼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 출산 시 세금 부담 경감 | 30.5 | 69.5 | 100.0 | (2,592) | 2.9 |
| |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금액과 횟수 확대, 난임휴가를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 | 29.8 | 70.2 | 100.0 | (2,592) | 3.0 |

주: 1) '효과 없음' 1점~'효과 있음' 4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임.
2) 부정은 1~2점 응답을 합산 비율, 긍정은 3~4점 응답을 합산한 비율임.

## 다. 3대 분야 정책 강화의 필요도

### 1)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지원정책별 향후 강화·확대 필요도 인식

□ ‘일·가정 양립’ 분야의 다섯 개 세부정책에 대해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얼마나 강화 또는 확대되어야 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3점 이상 긍정 응답은 74.1~84.4%로 나타남.

- 그 중 부모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정책의 강화·확대 필요도 84.4%, 임산부 근로단축 추가확대 80.8%, 육아휴직 기간 확대가 긍정비율 80.7%로 높게 나타남.

### 2) 교육·돌봄 지원에 대한 지원정책별 향후 강화·확대 필요도 인식

□ ‘교육·돌봄’ 분야의 아홉 개 세부정책에 대해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얼마나 강화 또는 확대되어야 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3점 이상 긍정 응답은 72.9~83.0%로 고른 수요를 보임.

- 그 중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83.0%, ‘긴급 이용자를 위한 돌봄기관 서비스 확대’ 81.3%, ‘취약아동 보호체계 지원 강화(한부모·조손가구·학대피해아동 등에 대한 보호시설, 돌봄지원 등)’가 80.7%로 높게 나타남.

### 3) 주거 및 결혼·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정책별 향후 강화·확대 필요도 인식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분야의 다섯 개 세부정책에 대해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얼마나 강화 또는 확대되어야 하는 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3점 이상 긍정 응답은 77.1~78.9%로 고른 수요를 보임.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서 강화·확대 필요도가 나타난 영역은 없었으나,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 강화(대출 소득요건 완화, 금리 인하, 대출금 확대 등)’ 78.9%, ‘임신·출산 가정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 확대(가정방문 산후도우미 지원 등)’ 78.5%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 I

# 서 론

01 연구목적 및 필요성

02 연구방법

# Ⅰ.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2023년 합계 출산율 0.72)로 극심한 저출생 현상을 보이고 있음.[2)]

- 2018년 0.98의 출산율로 최초 1명 선을 넘어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대한민국 만25-49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연구(김지현 외, 2024)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0%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90.8%가 그간 시행해 온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함.

□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는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함(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4. 6.).

-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는 저출생 정책에 투입된 예산을 재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직접적으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즉, 양육, 일·가정양립, 자산형성, 임신출산 지원만 포함했을 때, 2021년 20.3조원, 2022년 21.1조원, 2023년 23.5조원을 지출하였음.
- 효과성이 높은 일·가정양립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4. 6.).

2)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2014-2023년)

단위: 천명, 가임여성 1명당 명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출생아 수 | 435.4 | 438.4 | 406.2 | 357.8 | 326.8 | 302.7 | 272.3 | 260.6 | 249.1 | 230.0 |
| 합계 출산율 | 1.21 | 1.24 | 1.17 | 1.05 | 0.98 | 0.92 | 0.84 | 0.81 | 0.78 | 0.72 |

출처: 통계청 2023년 출생통계: 지표누리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2024. 11. 6.인출).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3대 분야 15대 핵심과제는 저출생의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일·가정양립’, ‘교육 및 돌봄’, ‘주거’ 등의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15대 핵심과제를 제안하였음.

- ‘일·가정 양립’ 영역에서의 핵심 과제는 1) 육아휴직을 2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2) 육아휴직 급여에서 150만원이었던 최대상한을 250만원으로 상향,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을 신설하고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
- ‘교육·돌봄’ 영역에서는 1)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2) 틈새 돌봄 확대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등 교육과 함께 이루어지는 돌봄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영역에서는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폐지(3년간 소득기준 2억→2.5억) 및 2) 출산가구 주택공급확대 등 주거지원을 제공함.
- 또한 결혼 특별세액공제 등 결혼을 한 부부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난임시술 대폭 지원 등 출산을 원하나 출산하지 못한 부부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기존에 진행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이윤경·변수정·김은정·진화영·주보혜·남궁은하 외, 2020)에서는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고,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 연구’(이소영·오신휘·황남희·최경덕·임준경, 2023)에서는 만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에 관련하여 저출산에 대한 인식과 욕구 등을 파악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2023년 통계 기준 남성 초혼연령 34세, 여성 초혼연령 31.5세[3] (통계청, 2024)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결혼 및 출산·양육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수요자 층인 만25-49세로 조사 대상 연령을 설정함.

□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 시점에서 결혼 및 출산·양육 정책의 정책수요자인 만25-49세를 대상으로 저출생 대책 발표에 대한 인지 정도와 효과성 파악이 필요함.

- 또한, 효과성 인지 대비 실제 정책 인지정도가 낮은 정책을 파악하고 주 수요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지 경로를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정책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신설된 정책들이 실수요자 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

3) 통계청 시도별 평균초혼연령(2024년 3월 자료갱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heckFlag=N (2024. 11. 6. 출)

□ 이에 저출생 대책에 대한 수요자 중심 대국민 정책인식 동향을 파악하고, 현재 발표된 대책과 더불어 수요자의 추가 정책 발굴이 필요함.

## 2. 연구방법

### 가. 설문 조사

#### 1) 조사대상 및 규모

□ 만25-49세 대한민국 국민 2,592명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조사를 진행하였음.[4)]

□ 해당연령의 인구를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2024년 7월 주민등록인구통계[5)] 기준으로 그 비율을 모집단의 비율에 맞추어 표집 할당하였음.

**〈표 Ⅰ-2-1〉 모집단 연령별·성별 모집단 인구수**

단위: 명

| 구분 | 남성 | | | 여성 | | | 합계 |
|---|---|---|---|---|---|---|---|
| | 만25-29세 | 만30-39세 | 만40-49세 | 만25-29세 | 만30-39세 | 만40-49세 | |
| 서울특별시 | 374,777 | 717,919 | 690,772 | 413,356 | 717,328 | 706,423 | 3,620,575 |
| 부산광역시 | 102,104 | 201,045 | 240,730 | 96,683 | 188,821 | 235,722 | 1,065,105 |
| 대구광역시 | 76,053 | 150,237 | 173,109 | 68,684 | 131,238 | 175,899 | 775,220 |
| 인천광역시 | 103,957 | 218,666 | 245,625 | 96,646 | 200,337 | 232,063 | 1,097,294 |
| 광주광역시 | 51,229 | 89,889 | 111,189 | 47,054 | 83,760 | 111,874 | 494,995 |
| 대전광역시 | 56,374 | 100,319 | 107,834 | 50,181 | 88,916 | 107,878 | 511,502 |
| 울산광역시 | 38,029 | 74,560 | 90,388 | 28,200 | 61,994 | 84,720 | 377,891 |
| 세종특별자치시 | 9,700 | 29,166 | 38,036 | 9,864 | 29,924 | 39,121 | 155,811 |
| 경기도 | 484,603 | 988,974 | 1,137,398 | 430,387 | 904,427 | 1,092,371 | 5,038,160 |
| 강원특별자치도 | 46,380 | 84,694 | 103,627 | 36,039 | 73,509 | 99,900 | 444,149 |
| 충청북도 | 53,982 | 103,334 | 117,878 | 42,550 | 84,859 | 109,159 | 511,762 |
| 충청남도 | 66,718 | 137,263 | 170,604 | 50,799 | 114,370 | 150,145 | 689,899 |
| 전북특별자치도 | 51,184 | 89,998 | 122,107 | 42,985 | 82,404 | 116,454 | 505,132 |
| 전라남도 | 50,039 | 89,418 | 124,890 | 39,353 | 79,438 | 110,949 | 494,087 |
| 경상북도 | 72,131 | 140,510 | 181,716 | 53,031 | 116,721 | 167,272 | 731,381 |

4) 2024년 3월에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와 표본할당을 동일하게 실시하였으나 동일 샘플은 아님. 조사 내용 중 결혼 및 출산인식 등 일부문항은 동일 문항을 사용함(김지현·배윤진·김문정, 2024).

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4년 7월 기준). https://jumin.mois.go.kr/#. (2024. 8. 20. 인출)

| 구분 | 남성 | | | 여성 | | | 합계 |
|---|---|---|---|---|---|---|---|
| | 만25-29세 | 만30-39세 | 만40-49세 | 만25-29세 | 만30-39세 | 만40-49세 | |
| 경상남도 | 91,339 | 184,435 | 254,715 | 71,336 | 162,839 | 240,790 | 1,005,454 |
| 제주특별자치도 | 19,765 | 39,528 | 53,989 | 17,888 | 38,270 | 52,416 | 221,856 |
| 합계 | 1,748,364 | 3,439,955 | 3,964,607 | 1,595,036 | 3,159,155 | 3,833,156 | 17,740,273 |
| 만 25~49세 인구 분포: 주민등록인구현황 24년 7월 기준 | | | | | | | |

**〈표 Ⅰ-2-2〉 모집단 비율 할당한 조사표본 구성(최종)**

단위: 명

| 구분 | 남성 | | | 여성 | | | 합계 |
|---|---|---|---|---|---|---|---|
| | 만25-29세 | 만30-39세 | 만40-49세 | 만25-29세 | 만30-39세 | 만40-49세 | |
| 서울특별시 | 56 | 105 | 101 | 60 | 105 | 103 | 530 |
| 부산광역시 | 15 | 29 | 35 | 14 | 28 | 34 | 155 |
| 대구광역시 | 11 | 22 | 25 | 10 | 19 | 26 | 113 |
| 인천광역시 | 15 | 32 | 36 | 14 | 29 | 34 | 160 |
| 광주광역시 | 7 | 13 | 16 | 7 | 12 | 16 | 71 |
| 대전광역시 | 8 | 15 | 16 | 7 | 13 | 16 | 75 |
| 울산광역시 | 6 | 11 | 13 | 4 | 9 | 12 | 55 |
| 세종특별자치시 | 1 | 4 | 6 | 1 | 4 | 6 | 22 |
| 경기도 | 71 | 144 | 166 | 64 | 132 | 160 | 737 |
| 강원특별자치도 | 7 | 12 | 15 | 5 | 11 | 15 | 65 |
| 충청북도 | 8 | 15 | 17 | 6 | 12 | 16 | 74 |
| 충청남도 | 10 | 20 | 25 | 8 | 17 | 22 | 102 |
| 전북특별자치도 | 7 | 13 | 18 | 6 | 12 | 17 | 73 |
| 전라남도 | 7 | 13 | 18 | 6 | 12 | 16 | 72 |
| 경상북도 | 11 | 21 | 27 | 8 | 17 | 24 | 108 |
| 경상남도 | 13 | 27 | 37 | 10 | 24 | 35 | 146 |
| 제주특별자치도 | 3 | 6 | 8 | 3 | 6 | 8 | 34 |
| 합계 | 256 | 502 | 579 | 233 | 462 | 560 | 2,592 |

□ 그 외 취업여부, 교육수준을 고려함.

- 취업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집없이 자연표집하였음.[6)]
-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대학교 이상' 학력 비율기준을 참고하여 soft 할당함.[7)]

6) 2024년 3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별도 할당없이, 모집단과 유사한 취업비율 나타남.

### 2) 조사 내용

□ 조사 내용은 Ⅰ.결혼·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Ⅱ.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Ⅲ. 저출산 대책발표내용에 대한 인식 및 효과성으로 나눔.

- Ⅰ. 결혼·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문항의 경우 2024년 3월에 실시한 결혼·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 연구(김지현 외, 2024)[8]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함.

**〈표 Ⅰ-2-3〉 조사 내용**

| 구분 | 조사 내용 | 비고 |
|---|---|---|
| Ⅰ. 결혼·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 결혼에 대한 전반적 생각, 결혼의향(미혼대상), 이유, 정책조건에 따른 결혼의향 여부, 자녀의 필요성, 이상적인 자녀 수, 자녀 출산의향(무자녀/유자녀 각각), 자녀 출산의향이 없는 이유(무자녀/유자녀 각각), 정책조건에 따른 출산의향 | 2024년 3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진행한 조사와 동일문항 |
| Ⅱ.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 직접 양육 희망하는 연령, 맞벌이 가구에서 일·가정균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여부 및 만족도,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초등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 |
| Ⅲ. 저출산 대책발표내용에 대한 인식 및 효과성 | - 6.19. 대책발표에 대한 내용 인지 여부, 인지 경로 세부 내용에 대한 중요도, 효과에 대한 기대<br>- 주요 분야/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br>- 3대 영역/15대 핵심과제에 대한 인식<br>・ 각 핵심과제에 대한 인지 정도<br>・ 각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기대효과 정도<br>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강화·확대 필요 정도 | 2024년 6월 19일에 발표된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 |
| 기본 배경질문 | 지역, 혼인상태, 자녀유무, 자녀수, 가족구성, 본인(배우자)취업유무, 본인 (배우자)최종학력, 본인(배우자)종사상지위, 본인(배우자) 소득, 가구소득 등 | - |

## 나. 조사 대상자 특성

□ 본 조사는 한국리서치 MS 패널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취업률, 최종학력 등을 중심으로 모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음.

---

7) 2024년 3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학교 이상' 학력 비율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대학교 이상' 학력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8) 2024년 3월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서도 만25세이상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연령별, 성별, 지역별 전체인구에 비례하게 할당하여 표집함(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 취업 여부: 본 조사의 항목이 상이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 취업상태에서의 '일하였음' 비율과 본 조사의 취업중과 학업중을 더한 비율을 같은 개념으로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모집단의 비율과 본 조사 샘플 간 취업률 비율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남.

**〈표 Ⅰ-2-4〉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제활동 여부(20-49세 기준)**

| 구분 | 합계 | 일하였음 | | | | 일하지 않았음 |
|---|---|---|---|---|---|---|
| | | | 주로 일하였음 | 틈틈이 일하였음 | 일시 휴직 | |
| 인구수(명) | 21,171,884 | 15,208,285 | 13,545,899 | 1,167,891 | 494,495 | 5,963,599 |
| 비율 | 100.0% | 71.8% | 64.0% | 5.5% | 2.3% | 28.2% |

주: 인구주택총조사의 취업상태 중 경제활동 비율을 고려함.[9)]

**〈표 Ⅰ-2-5〉 2024년 9월 결혼·출산·양육 및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 취업률**

| 구분 | 합계 | 취업 중 | 학업 중 | 구직 중 | 미취업 |
|---|---|---|---|---|---|
| 사례수(명) | 2,592 | 1,778 | 102 | 416 | 295 |
| 비율 | 100.0% | 68.8% | 3.9% | 16.1% | 11.4% |

주: 2024년 3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의 취업률에서 취업중 비율은 69.6%를 차지함.

- 교육 정도: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20% 표본조사) 기준, 20~49세의 고등학교 이하 학력은 25.9%, 대학교 이상은 74.1% 정도 나타나며, 9월 본 조사에서는 soft 할당으로 모집단 분포와 유사한 비율로 표집함.

**〈표 Ⅰ-2-6〉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교육 정도(20-49세 기준)**

| 구분 | 합계 | 고등학교 이하 | 대학교 이상 |
|---|---|---|---|
| 인구수 (명) | 21,197,217 | 5,491,899 | 15,705,318 |
| 비율 (%) | 100.0% | 25.9% | 74.1% |

주: 인구주택총조사의 20~49세 기준 교육정도 비율을 고려함[10)].

9) 통계청(2020). 202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제1-4권 취업상태. 통계청, p. 28. 통계청 홈페이지〉온라인간행물〉인구〉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https://kosis.kr/search/search.do (2024. 8. 20. 인출).

10) 통계청(2020). 202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제1-1권 기본항목. 통계청, pp. 28-31. 통계청 홈페이지〉온라인간행물〉인구〉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https://kosis.kr/search/search.do (2024. 8. 20. 인출).

**〈표 Ⅰ-2-7〉 2024년 9월 결혼·출산·양육 및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 교육 정도**

| 구분 | 합계 | 고등학교 이하 | 대학교 이상 |
|---|---|---|---|
| 사례수 (명) | 2,592 | 650 | 1,943 |
| 비율 (%) | 100.0% | 25.1% | 74.9% |

주: 2024년 3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의 교육정도에서 대학교 이상 비율은 87.5%를 차지함.

# Ⅱ

# 결혼 및 출산 관련 인식

01 응답자 특성
02 결혼에 대한 인식
03 출산에 대한 인식

# Ⅱ. 결혼 및 출산 관련 인식

## 1. 응답자 특성

□ 본 조사는 만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비율로 성별, 연령, 지역으로 인구 비례 할당하였음(표 Ⅱ-1-1 참고).

- 남성이 51.6%, 여성 48.4%를 차지하고, 만25-29세 18.9%, 30대 37.2%, 40대 43.9%를 차지함.
- 응답자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1%, 대학교 재학/졸업 64.3%, 대학원 재학/졸업 10.6%로 구성됨.
- 미혼 응답자 46.6%, 기혼 응답자 50.2%, 이혼/사별 응답자 3.2%로 구성됨.
- 자녀유무는 유자녀 43.3%, 무자녀 56.7%로 구성되었으며, 유자녀 응답자의 자녀 연령은 막내자녀 기준으로 영아가 22.7%, 유아 14.9%, 초등 저학년 21.7%, 초등 고학년 16.8%로 나타났음.

## 2. 결혼에 대한 인식

### 가.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 ‘결혼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전체응답자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 4점 척도로 물었고, 15.3%가 매우 긍정적, 56.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71.5%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남성 긍정응답은 76.5%, 여성 긍정응답은 66.2%로 나타나 남성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음.
- 만30-39세 남성이 긍정응답이 78.5%로 가장 높았고, 만25-29세 여성 긍정응답이 57.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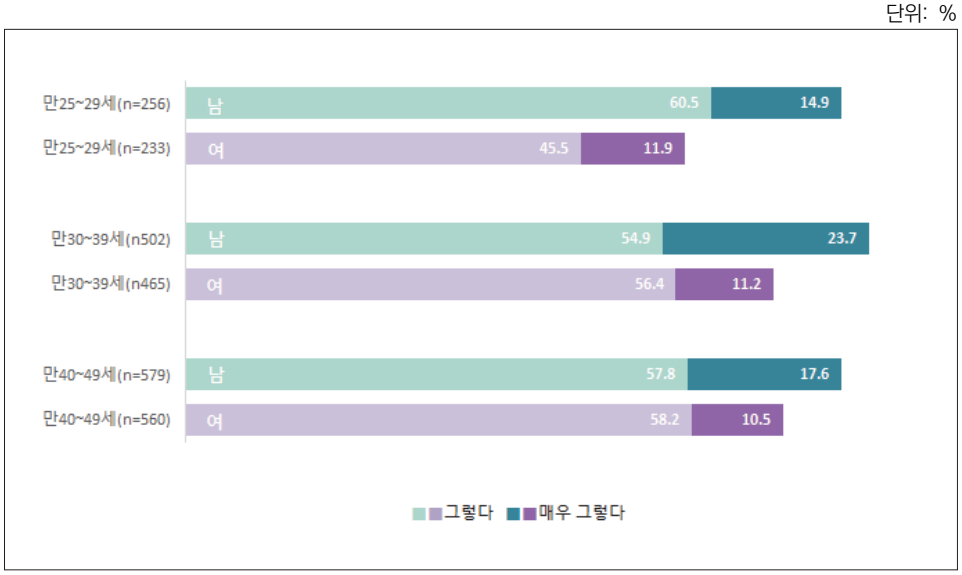
**〈표 Ⅱ-2-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 구분 | 사례수 | 비율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전체 | (2,592) | 100.0 | 응답자 학력 | | |
| 응답자 성별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650) | 25.1 |
| 남성 | (1,337) | 51.6 | 대학교 재학 이상 | (1,668) | 64.3 |
| 여성 | (1,255) | 48.4 | 대학원 재학 이상 | (275) | 10.6 |
| 응답자 연령 | | | 거주지역 | | |
| 만25-29세 | (489) | 18.9 | 대도시 | (1,132) | 43.7 |
| 만30-39세 | (964) | 37.2 | 중소도시 | (1,140) | 44.0 |
| 만40-49세 | (1,139) | 43.9 | 농어촌 | (320) | 12.3 |
| 응답자 성별*연령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만25-29세 남성 | (256) | 9.9 | 200만원 미만 | (178) | 6.9 |
| 만25-29세 여성 | (233) | 9.0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659) | 25.4 |
| 만30-39세 남성 | (502) | 19.4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822) | 31.7 |
| 만30-39세 여성 | (462) | 17.8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377) | 14.6 |
| 만40-49세 남성 | (579) | 22.3 | 900만원 이상 | (556) | 21.4 |
| 만40-49세 여성 | (560) | 21.6 | 취업 여부 | | |
| 맞벌이 여부 | | | 취업중 | (1,778) | 68.8 |
| 맞벌이 가구 | (724) | 27.9 | 학업중 | (102) | 3.9 |
| 외벌이 가구 | (578) | 22.3 | 구직중 | (416) | 16.1 |
| 기타(미혼) | (1,290) | 49.8 | 미취업 | (295) | 11.4 |
| 결혼 상태 | | | 본인 직무 | | |
| 미혼 | (1,207) | 46.6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251) | 14.1 |
| 기혼 | (1,302) | 50.2 | 경영/행정/사무직 | (627) | 35.3 |
| 이혼/사별 | (82) | 3.2 | 영업/판매직 | (76) | 4.3 |
| 자녀유무/막내자녀연령 | | | 서비스직 | (244) | 13.7 |
| 영아(1~4세) | (254) | 9.8 | 관리/연구직/전문직 | (322) | 18.1 |
| 유아(5~7세) | (167) | 6.4 | 단순직 등 기타 | (107) | 6.0 |
| 초등 저학년 | (243) | 9.4 | 근로자 외 | (151) | 8.5 |
| 초등 고학년 | (189) | 7.3 | 본인 직장 유형 | | |
| 중학생 | (137) | 5.3 | 공무원 | (162) | 9.1 |
| 고등학생 | (82) | 3.2 | 공공기관 | (182) | 10.2 |
| 성인 | (49) | 1.9 | 대기업 | (186) | 10.5 |
| 무자녀 | (1470) | 56.7 | 중소기업 | (859) | 48.3 |
| | | | 기타 | (238) | 13.4 |

**[그림 Ⅱ-2-1]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긍정비율)**

단위: %




**〈표 Ⅱ-2-1〉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단위: %, (명), 점

| 전체 | 부정응답 | | | 긍정응답 | | | 계 | 사례수 | 평균 |
|---|---|---|---|---|---|---|---|---|---|
| | 매우 부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 부정 응답합 | 긍정적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긍정 응답합 | | | |
| 2024년 3월 전체 | 5.8 | 23.3 | 29.1 | 58.2 | 12.7 | 70.9 | 100.0 | (2,011) | 2.8 |
| 2024년 9월 전체 | 5.2 | 23.3 | 28.5 | 56.2 | 15.3 | 71.5 | 100.0 | (2,592) | 2.8 |
| 응답자 성별 | | | | | | | | | |
| 남성 | 3.7 | 19.8 | 23.5 | 57.2 | 19.3 | 76.5 | 100.0 | (1,337) | 2.9 |
| 여성 | 6.7 | 27.1 | 33.8 | 55.2 | 11.0 | 66.2 | 100.0 | (1,255) | 2.7 |
| $X^2$(df)/t | 55.418(3)*** | | | | | | | | 7.4*** |
| 응답자 연령 | | | | | | | | | |
| 만25-29세 | 8.2 | 25.0 | 33.2 | 53.4 | 13.5 | 66.8 | 100.0 | (489) | 2.7 |
| 만30-39세 | 5.6 | 21.1 | 26.7 | 55.6 | 17.7 | 73.3 | 100.0 | (964) | 2.9 |
| 만40-49세 | 3.5 | 24.4 | 27.9 | 58.0 | 14.1 | 72.1 | 100.0 | (1,139) | 2.8 |
| $X^2$(df)/F | 24.789(6)*** | | | | | | | | 5.3**(a)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 |
| 만25-29세 남성 | 3.8 | 20.9 | 24.6 | 60.5 | 14.9 | 75.4 | 100.0 | (256) | 2.9 |
| 만25-29세 여성 | 13.0 | 29.6 | 42.6 | 45.5 | 11.9 | 57.4 | 100.0 | (233) | 2.6 |
| 만30-39세 남성 | 4.7 | 16.7 | 21.5 | 54.9 | 23.7 | 78.5 | 100.0 | (502) | 3.0 |
| 만30-39세 여성 | 6.6 | 25.8 | 32.4 | 56.4 | 11.2 | 67.6 | 100.0 | (462) | 2.7 |
| 만40-49세 남성 | 2.8 | 21.9 | 24.7 | 57.8 | 17.6 | 75.3 | 100.0 | (579) | 2.9 |
| 만40-49세 여성 | 4.2 | 27.1 | 31.3 | 58.2 | 10.5 | 68.7 | 100.0 | (560) | 2.8 |
| $X^2$(df)/F | 102.347(15)*** | | | | | | | | 14.2***(a) |

| 전체 | 부정응답 | | | 긍정응답 | | | 계 | 사례수 | 평균 |
|---|---|---|---|---|---|---|---|---|---|
| | 매우 부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 부정 응답합 | 긍정적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긍정 응답합 | | | |
| 학력 | | |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6.2 | 28.6 | 34.8 | 53.1 | 12.1 | 65.2 | 100.0 | (650) | 2.7 |
| 대학교 재학 이상 | 4.8 | 22.6 | 27.5 | 56.8 | 15.8 | 72.5 | 100.0 | (1,668) | 2.8 |
| 대학원 재학 이상 | 4.8 | 14.9 | 19.8 | 60.3 | 19.9 | 80.2 | 100.0 | (275) | 3.0 |
| $X^2$(df)/F | | | | 27.750(6)*** | | | | | 11.6***(a) |
| 자녀 유무 | | | | | | | | | |
| 유자녀 | 2.2 | 17.2 | 19.4 | 60.5 | 20.1 | 80.6 | 100.0 | (1,122) | 3.0 |
| 무자녀 | 7.5 | 28.0 | 35.4 | 52.9 | 11.6 | 64.6 | 100.0 | (1,470) | 2.7 |
| $X^2$(df)/t | | | | 102.655(3)*** | | | | | 10.5*** |
| 취업 여부 | | | | | | | | | |
| 취업중 | 4.7 | 21.7 | 26.4 | 56.5 | 17.1 | 73.6 | 100.0 | (1,778) | 2.9 |
| 학업중 | 3.0 | 24.9 | 27.9 | 58.3 | 13.8 | 72.1 | 100.0 | (102) | 2.8 |
| 구직중 | 7.2 | 28.1 | 35.2 | 54.9 | 9.9 | 64.8 | 100.0 | (416) | 2.7 |
| 미취업 | 6.2 | 25.5 | 31.7 | 55.5 | 12.8 | 68.3 | 100.0 | (295) | 2.8 |
| $X^2$(df)/F | | | | 26.412(9)** | | | | | 8.2***(a)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맞벌이 가구 | 1.6 | 13.1 | 14.6 | 63.6 | 21.8 | 85.4 | 100.0 | (724) | 3.1 |
| 외벌이 가구 | 1.6 | 17.0 | 18.6 | 61.7 | 19.6 | 81.4 | 100.0 | (578) | 3.0 |
| 기타 | 8.8 | 31.9 | 40.7 | 49.6 | 9.7 | 59.3 | 100.0 | (1,290) | 2.6 |
| $X^2$(df)/F | | | | 221.001(6)*** | | | | | 115.4***(a) |
| 혼인 상태 | | | | | | | | | |
| 미혼 | 9.0 | 31.7 | 40.7 | 49.5 | 9.9 | 59.3 | 100.0 | (1,207) | 2.6 |
| 기혼 | 1.6 | 14.8 | 16.4 | 62.7 | 20.8 | 83.6 | 100.0 | (1,302) | 3.0 |
| 이혼/사별 | 6.2 | 34.6 | 40.8 | 51.8 | 7.4 | 59.2 | 100.0 | (82) | 2.6 |
| $X^2$(df)/F | | | | 211.893(3)*** | | | | | -14.8*** |
| 거주 지역 | | | | | | | | | |
| 대도시 | 6.1 | 23.9 | 30.0 | 56.0 | 14.0 | 70.0 | 100.0 | (1,132) | 2.8 |
| 중소도시 | 4.3 | 22.8 | 27.1 | 56.7 | 16.2 | 72.9 | 100.0 | (1,140) | 2.9 |
| 농어촌 | 5.0 | 23.2 | 28.2 | 55.1 | 16.7 | 71.8 | 100.0 | (320) | 2.8 |
| $X^2$(df)/F | | | | 6.504(6) | | | | | 2.6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 |
| 공무원 | 4.3 | 11.5 | 15.8 | 59.1 | 25.1 | 84.2 | 100.0 | (162) | 3.1 |
| 공공기관 | 2.2 | 14.8 | 17.0 | 65.3 | 17.7 | 83.0 | 100.0 | (182) | 3.0 |
| 대기업 | 5.9 | 18.3 | 24.2 | 57.4 | 18.3 | 75.8 | 100.0 | (186) | 2.9 |
| 중소기업 | 4.5 | 25.0 | 29.5 | 55.4 | 15.1 | 70.5 | 100.0 | (859) | 2.8 |
| 기타 | 6.5 | 27.9 | 34.3 | 48.4 | 17.3 | 65.7 | 100.0 | (238) | 2.8 |
| 근로자 외 | 4.8 | 16.8 | 21.6 | 61.0 | 17.4 | 78.4 | 100.0 | (151) | 2.9 |
| $X^2$(df)/F | | | | 41.298(15)*** | | | | | 4.8***(a) |
| 본인 직무 | | |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2.4 | 25.3 | 27.7 | 57.0 | 15.3 | 72.3 | 100.0 | (251) | 2.9 |
| 경영/행정/사무직 | 5.0 | 20.7 | 25.7 | 57.7 | 16.6 | 74.3 | 100.0 | (627) | 2.9 |
| 영업/판매직 | 5.4 | 28.9 | 34.2 | 52.6 | 13.2 | 65.8 | 100.0 | (76) | 2.7 |
| 서비스직 | 4.2 | 29.7 | 33.8 | 55.1 | 11.1 | 66.2 | 100.0 | (244) | 2.7 |
| 관리/연구직/전문직 | 5.3 | 13.3 | 18.6 | 55.9 | 25.4 | 81.4 | 100.0 | (322) | 3.0 |
| 단순직 등 기타 | 6.6 | 28.4 | 35.0 | 50.3 | 14.7 | 65.0 | 100.0 | (107) | 2.7 |
| 근로자 외 | 4.8 | 16.8 | 21.6 | 61.0 | 17.4 | 78.4 | 100.0 | (151) | 2.9 |
| $X^2$(df)/F | | | | 50.466(18)*** | | | | | 4.5*** |

| 전체 | 부정응답 | | | 긍정응답 | | | 계 | 사례수 | 평균 |
|---|---|---|---|---|---|---|---|---|---|
| | 매우 부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 부정 응답합 | 긍정적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긍정 응답합 | |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
| 200만원 미만 | 6.7 | 35.1 | 41.8 | 48.9 | 9.3 | 58.2 | 100.0 | (178) | 2.6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8.9 | 25.5 | 34.4 | 52.8 | 12.8 | 65.6 | 100.0 | (659) | 2.7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3.6 | 24.4 | 28.0 | 57.2 | 14.8 | 72.0 | 100.0 | (822) | 2.8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2.9 | 20.9 | 23.8 | 60.1 | 16.1 | 76.2 | 100.0 | (377) | 2.9 |
| 900만원 이상 | 4.2 | 16.9 | 21.1 | 58.5 | 20.4 | 78.9 | 100.0 | (556) | 3.0 |
| $X^2$(df)/F | 70.927(12)*** | | | | | | | | 13.6***(a)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 |
| 부정적 | 18.2 | 81.8 | 100.0 | 0.0 | 0.0 | 0.0 | 100.0 | (738) | 1.8 |
| 긍정적 | 0.0 | 0.0 | 0.0 | 78.6 | 21.4 | 100.0 | 100.0 | (1,854) | 3.2 |
| $X^2$(df)/t | 2,592.000(3)*** | | | | | | | | -81.6*** |
| 자녀 계획 | | |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0.9 | 6.5 | 7.4 | 65.8 | 26.8 | 92.6 | 100.0 | (658) | 3.2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8.5 | 28.0 | 36.5 | 50.7 | 12.8 | 63.5 | 100.0 | (1,136) | 2.7 |
| 미정 | 4.0 | 30.4 | 34.4 | 56.2 | 9.4 | 65.6 | 100.0 | (798) | 2.7 |
| $X^2$(df)/F | 255.226(6)*** | | | | | | | | 117.3***(a)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 |
| 영아(1-4세) | 1.2 | 7.6 | 8.7 | 62.8 | 28.5 | 91.3 | 100.0 | (254) | 3.2 |
| 유아(5-7세) | 0.0 | 19.4 | 19.4 | 54.1 | 26.6 | 80.6 | 100.0 | (167) | 3.1 |
| 초등 저학년 | 2.9 | 19.0 | 21.9 | 61.3 | 16.8 | 78.1 | 100.0 | (243) | 2.9 |
| 초등 고학년 | 1.6 | 18.8 | 20.4 | 65.8 | 13.7 | 79.6 | 100.0 | (189) | 2.9 |
| 중학생 | 6.0 | 20.2 | 26.2 | 57.5 | 16.4 | 73.8 | 100.0 | (137) | 2.8 |
| 고등학생 | 2.5 | 24.9 | 27.4 | 61.2 | 11.3 | 72.6 | 100.0 | (82) | 2.8 |
| 성인자녀 | 2.1 | 23.2 | 25.3 | 53.8 | 20.8 | 74.7 | 100.0 | (49) | 2.9 |
| $X^2$(df)/F | 58.878(18)*** | | | | | | | | 7.1*** |

주: 평균은 '매우 부정적이다' 1점~'매우 긍정적이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01

## 나. 결혼의향 및 이유

### 1) 결혼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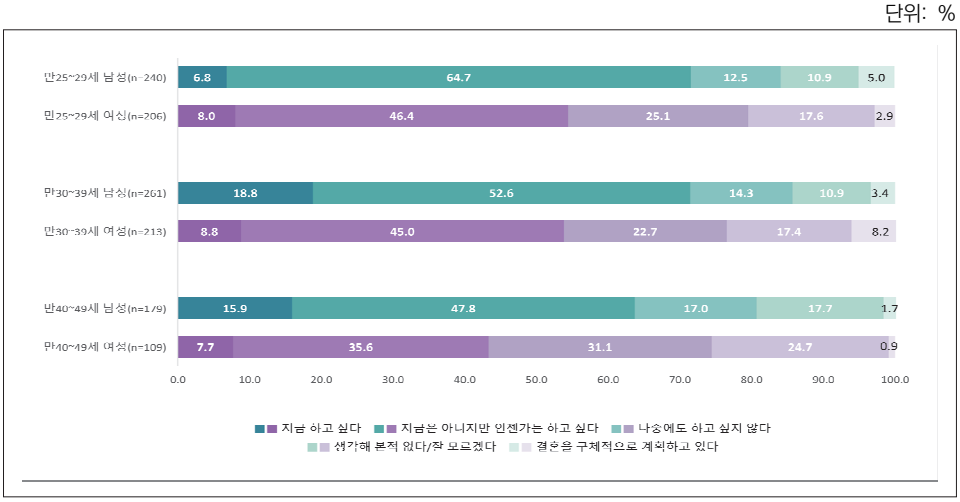
□ 미혼 응답자에게 '결혼할 의향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한 결과,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가 50.4%,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가 19.2%,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15.4%로 나타남.

- 성별 간 차이를 보았을 때, 남성은 55.6%, 여성은 43.6%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로 응답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남.

- 연령간 차이를 보았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에 대해 만25-29세 56.3%, 만30-39세 49.2%, 만40-49세 43.2%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결혼에 대한 의향이 높게 나타났음.
- 또한, 결혼에 대한 긍정의향인 ‘지금 하고 싶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 ‘결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의 합산비율이 65.4%로 나타남.

**[그림 Ⅱ-2-2] 결혼의향**

단위: %




**〈표 Ⅱ-2-2〉 결혼의향**

단위: %, (명)

| 미혼 | 지금 하고 싶다 |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 |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 |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 계 | 사례수 |
|---|---|---|---|---|---|---|---|
| 2024년 3월 전체 | 10.8 | 46.5 | 22.8 | 16.3 | 3.7 | 100.0 | (956) |
| 2024년 9월 전체 | 11.0 | 50.4 | 19.2 | 15.4 | 4.0 | 100.0 | (1,207) |
| 응답자 성별 | | | | | | | |
| 남성 | 13.8 | 55.6 | 14.4 | 12.7 | 3.5 | 100.0 | (681) |
| 여성 | 7.5 | 43.6 | 25.3 | 19.0 | 4.6 | 100.0 | (527) |
| $X^2$(df) | 46.656(4)*** | | | | | | |
| 응답자 연령 | | | | | | | |
| 만25-29세 | 7.4 | 56.3 | 18.3 | 14.0 | 4.0 | 100.0 | (445) |
| 만30-39세 | 13.4 | 49.2 | 18.1 | 13.8 | 5.5 | 100.0 | (474) |
| 만40-49세 | 12.8 | 43.2 | 22.3 | 20.3 | 1.4 | 100.0 | (288) |
| $X^2$(df) | 30.446(8)*** | | | | | | |

| 미혼 | 지금 하고 싶다 |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 |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 |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 계 | 사례수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 만25-29세 남성 | 6.8 | 64.7 | 12.5 | 10.9 | 5.0 | 100.0 | (240) |
| 만25-29세 여성 | 8.0 | 46.4 | 25.1 | 17.6 | 2.9 | 100.0 | (206) |
| 만30-39세 남성 | 18.8 | 52.6 | 14.3 | 10.9 | 3.4 | 100.0 | (261) |
| 만30-39세 여성 | 6.8 | 45.0 | 22.7 | 17.4 | 8.2 | 100.0 | (213) |
| 만40-49세 남성 | 15.9 | 47.8 | 17.0 | 17.7 | 1.7 | 100.0 | (179) |
| 만40-49세 여성 | 7.7 | 35.6 | 31.1 | 24.7 | 0.9 | 100.0 | (109) |
| $X^2$(df) | 98.772(20)*** | | | | | | |
| 학력 | | | | | | | |
| 고졸 이하 | 9.9 | 45.2 | 21.9 | 20.0 | 3.0 | 100.0 | (306) |
| 대학 재/졸 | 10.7 | 52.4 | 18.9 | 13.6 | 4.3 | 100.0 | (800) |
| 대학원 재/졸 | 16.8 | 49.5 | 12.6 | 16.4 | 4.7 | 100.0 | (102) |
| $X^2$(df) | 16.230(8)* | | | | | | |
| 자녀 유무 | | | | | | | |
| 유자녀 | 27.9 | 42.8 | 0.0 | 14.6 | 14.8 | 100.0 | (7) |
| 무자녀 | 10.9 | 50.4 | 19.3 | 15.5 | 3.9 | 100.0 | (1,200) |
| $X^2$(df) | 5.237(4) | | | | | | |
| 취업 여부 | | | | | | | |
| 취업중 | 13.8 | 49.0 | 18.7 | 13.3 | 5.1 | 100.0 | (787) |
| 학업중 | 3.9 | 67.5 | 15.4 | 11.5 | 1.8 | 100.0 | (48) |
| 구직중 | 7.2 | 54.9 | 17.0 | 18.7 | 2.1 | 100.0 | (278) |
| 미취업 | 3.3 | 39.4 | 30.8 | 25.4 | 1.1 | 100.0 | (94) |
| $X^2$(df) | 49.998(12)*** | | | | | | |
| 거주 지역 | | | | | | | |
| 대도시 | 10.7 | 51.7 | 18.5 | 15.9 | 3.2 | 100.0 | (577) |
| 중소도시 | 11.1 | 50.7 | 18.1 | 15.0 | 5.1 | 100.0 | (514) |
| 농어촌 | 12.5 | 42.1 | 26.8 | 15.2 | 3.4 | 100.0 | (117) |
| $X^2$(df) | 9.500(8) | | | | |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 공무원 | 27.0 | 38.3 | 13.5 | 8.6 | 12.6 | 100.0 | (71) |
| 공공기관 | 15.9 | 51.2 | 14.5 | 10.4 | 8.0 | 100.0 | (88) |
| 대기업 | 7.2 | 49.2 | 20.3 | 18.9 | 4.3 | 100.0 | (70) |
| 중소기업 | 11.8 | 51.3 | 19.5 | 13.5 | 3.9 | 100.0 | (396) |
| 기타 | 12.8 | 46.3 | 23.2 | 14.9 | 2.9 | 100.0 | (108) |
| 근로자 외 | 17.7 | 48.0 | 16.0 | 12.9 | 5.4 | 100.0 | (56) |
| $X^2$(df) | 32.612(20)* | | | | | | |
| 본인 직무 |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14.4 | 53.2 | 12.8 | 16.5 | 3.2 | 100.0 | (117) |
| 경영/행정/사무직 | 13.1 | 51.4 | 17.9 | 11.0 | 6.6 | 100.0 | (291) |
| 영업/판매직 | 5.9 | 48.3 | 18.3 | 24.5 | 3.0 | 100.0 | (33) |
| 서비스직 | 12.3 | 46.6 | 24.1 | 15.4 | 1.6 | 100.0 | (121) |
| 관리/연구직/전문직 | 18.5 | 42.9 | 18.7 | 12.0 | 7.8 | 100.0 | (124) |
| 단순직 등 기타 | 8.5 | 47.8 | 28.4 | 10.9 | 4.3 | 100.0 | (46) |

| 미혼 | 지금 하고 싶다 |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 |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 |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 계 | 사례수 |
|---|---|---|---|---|---|---|---|
| 근로자 외 | 17.7 | 48.0 | 16.0 | 12.9 | 5.4 | 100.0 | (56) |
| $X^2$(df) | 26.100(24) | | | | |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200만원 미만 | 7.1 | 48.4 | 22.3 | 20.1 | 2.1 | 100.0 | (140)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11.8 | 50.1 | 18.5 | 16.3 | 3.4 | 100.0 | (43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10.8 | 49.7 | 19.9 | 14.7 | 4.8 | 100.0 | (333)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9.1 | 49.7 | 21.4 | 14.6 | 5.2 | 100.0 | (131) |
| 900만원 이상 | 14.3 | 54.6 | 15.0 | 11.5 | 4.7 | 100.0 | (165) |
| $X^2$(df) | 14.556(16) | | | | |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 부정적 | 0.6 | 24.4 | 43.7 | 29.3 | 2.1 | 100.0 | (491) |
| 긍정적 | 18.2 | 68.2 | 2.4 | 6.0 | 5.3 | 100.0 | (717) |
| $X^2$(df) | 564.696(4)*** | | | | | | |
| 자녀 계획 |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23.1 | 68.4 | 0.7 | 1.5 | 6.4 | 100.0 | (426)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3.4 | 20.6 | 57.5 | 17.6 | 1.0 | 100.0 | (297) |
| 미정 | 5.1 | 52.8 | 11.9 | 26.4 | 3.7 | 100.0 | (484) |
| $X^2$(df) | 595.280(8)*** | | | | | | |

* p 〈 .05, *** p 〈 .001

## 2) 결혼의향은 있지만 미혼인 이유

□ 결혼의향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이유 중 주어진 응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문함.

- 각 항목에 대한 동의비율이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려고' 74.1%,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72.8%, '결혼 후 일상생활이나 역할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54.2%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지금은 다른 일(학업이나 직업 등)에 더 열중하고 싶어서' 38.4%, '아직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32.2%는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표 Ⅱ-2-3〉 결혼의향이 있으나 현재 미혼인 이유 - 각 이유에 동의하는 비율(전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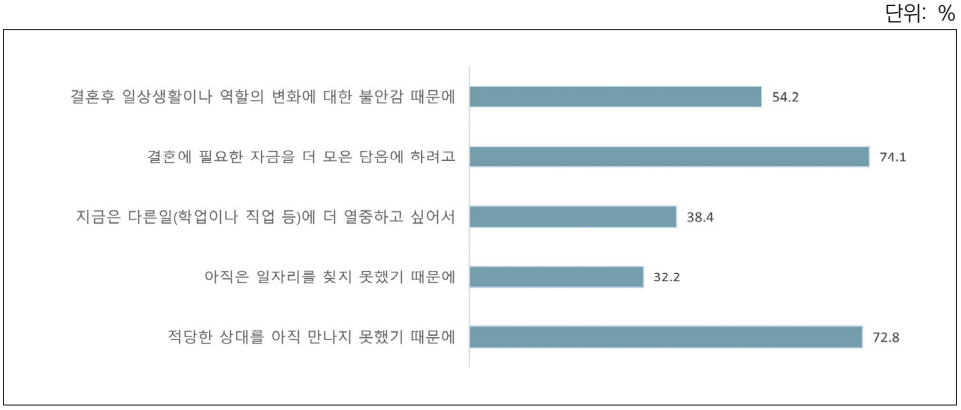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 사례수 | 전체 | 응답자 성별×연령 | | | | | | $X^2$(df) |
|---|---|---|---|---|---|---|---|---|---|
| | | | 만25-29세 | | 만30-39세 | | 만40-49세 | |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려고 | (741) | 74.1 | 90.2 | 87.1 | 77.8 | 72.2 | 48.4 | 36.7 | 107.793(5)*** |
|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 (741) | 72.8 | 66.5 | 61.0 | 75.0 | 71.1 | 85.9 | 87.1 | 25.807(5)*** |

| 전체 응답자 | 사례수 | 전체 | 응답자 성별×연령 | | | | | | $X^2$(df) |
|---|---|---|---|---|---|---|---|---|---|
| | | | 만25-29세 | | 만30-39세 | | 만40-49세 | |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 결혼 후 일상생활이나 역할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 (741) | 54.2 | 43.5 | 67.5 | 50.7 | 65.8 | 47.6 | 64.9 | 26.116(5)*** |
| 지금은 다른 일(학업이나 직업 등)에 더 열중하고 싶어서 | (741) | 38.4 | 56.0 | 43.7 | 35.5 | 37.2 | 19.7 | 21.3 | 47.088(5)*** |
| 아직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 (741) | 32.2 | 54.0 | 29.2 | 25.8 | 24.9 | 27.8 | 13.0 | 52.926(5)*** |

주: 1) 무자녀 중 '결혼의향' 질문에 대해 '지금하고 싶다' 또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에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임.
2) 각 항목에 대한 '그렇다' 응답비율임.

**[그림 Ⅱ-2-3] 결혼의향이 있으나 현재 미혼인 이유 - 각 이유에 동의하는 비율(전체)**

단위: %




□ 결혼의향이 있으나 현재 미혼인 이유 5가지에 대한 동의 비율을 물어본 결과를 그룹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

- 성별간 차이를 살펴봤을 때, '아직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11.9%p 높은 동의율을 보였으며, '결혼 후 변화에 대한 불안 때문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19.1%p 높은 동의율을 보였음.
- 연령간 차이를 보았을 때, '결혼 후 변화에 대한 불안 때문에'라는 응답에는 연령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해'의 경우 40대가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여 연령간 차이를 크게 나타내었음. 특히, 만25-29세의 경우 '결혼에 필요한 자금 등을 모은 후에 하려고'라는 응답이 89.0%를 보여, 40대(45.0%)보다 44.0%p 높게 나타남.

**〈표 Ⅱ-2-4〉 결혼의향이 있으나 현재 미혼인 이유 – 각 이유에 동의하는 비율**

단위: %, (명)

| 미혼 응답자 | 적당한 상대 만나지 못해 |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 학업, 직업 등에 더 열중하고 싶어서 | 결혼에 필요한 자금 모은 후에 | 결혼후 변화에 대한 불안때문에 | 사례수 |
|---|---|---|---|---|---|---|
| 2024년 3월 전체 | 78.2 | 35.8 | 42.9 | 75.5 | 54.2 | (547) |
| 2024년 9월 전체 | 72.8 | 32.2 | 38.4 | 74.1 | 54.2 | (741)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74.5 | 36.5 | 39.1 | 75.2 | 47.3 | (472) |
| 여성 | 69.7 | 24.6 | 37.1 | 72.2 | 66.4 | (269) |
| $X^2$(df) | 2.013(1) | 11.294(1)** | 0.397(1) | 0.943(1) | 24.417(1)***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64.3 | 44.2 | 51.1 | 89.0 | 53.0 | (284) |
| 만30-39세 | 73.6 | 25.5 | 36.1 | 75.7 | 56.3 | (297) |
| 만40-49세 | 86.2 | 23.5 | 20.2 | 45.0 | 52.6 | (161) |
| $X^2$(df) | 24.095(2)*** | 30.835(2)*** | 42.412(2)*** | 104.107(2)*** | 0.823(2) | |
| 응답자 성별*연령 | | | | | | |
| 만25-29세 남성 | 66.5 | 54.0 | 56.0 | 90.2 | 43.5 | (172) |
| 만25-29세 여성 | 61.0 | 29.2 | 43.7 | 87.1 | 67.5 | (112) |
| 만30-39세 남성 | 75.0 | 25.8 | 35.5 | 77.8 | 50.7 | (187) |
| 만30-39세 여성 | 71.1 | 24.9 | 37.2 | 72.2 | 65.8 | (110) |
| 만40-49세 남성 | 85.9 | 27.8 | 19.7 | 48.4 | 47.6 | (114) |
| 만40-49세 여성 | 87.1 | 13.0 | 21.3 | 36.7 | 64.9 | (47) |
| $X^2$(df) | 25.807(5)*** | 52.926(5)*** | 47.088(5)*** | 107.793(5)*** | 26.116(5)*** | |
| 학력 | | | | | | |
| 고졸 이하 | 77.7 | 37.0 | 30.8 | 74.9 | 54.2 | (169) |
| 대학 재/졸 | 71.8 | 30.5 | 39.3 | 74.8 | 54.3 | (505) |
| 대학원 재/졸 | 67.8 | 33.0 | 51.0 | 67.1 | 53.5 | (67) |
| $X^2$(df) | 3.475(2) | 2.217(2) | 9.030(2)* | 1.771(2) | 0.051(2) | |
| 자녀 유무 | | | | | | |
| 유자녀 | 40.4 | 0.0 | 39.6 | 79.1 | 39.5 | (5) |
| 무자녀 | 73.0 | 32.4 | 38.4 | 74.1 | 54.3 | (736) |
| $X^2$(df) | 2.721(1) | 2.417(1) | 0.004(1) | 0.084(1) | 0.409(1)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72.6 | 10.3 | 31.2 | 71.9 | 56.3 | (494) |
| 학업중 | 80.8 | 88.7 | 81.4 | 91.5 | 57.9 | (34) |
| 구직중 | 73.0 | 75.0 | 50.2 | 79.8 | 48.1 | (172) |
| 미취업 | 67.3 | 69.6 | 39.3 | 62.1 | 52.5 | (40) |
| $X^2$(df) | 1.679(3) | 334.218(3)*** | 48.641(3)*** | 12.679(3)** | 3.489(3) | |
| 거주지역 | | | | | | |
| 대도시 | 72.5 | 33.4 | 42.7 | 73.6 | 53.6 | (360) |
| 중소도시 | 72.0 | 31.0 | 36.0 | 75.1 | 55.7 | (317) |
| 농어촌 | 78.5 | 31.2 | 26.1 | 72.1 | 50.5 | (64) |
| $X^2$(df) | 1.189(2) | 0.505(2) | 7.872(2)* | 0.521(2) | 0.570(2)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62.9 | 6.6 | 27.8 | 57.1 | 58.3 | (46) |
| 공공기관 | 66.3 | 10.0 | 33.3 | 69.4 | 49.9 | (59) |

| 미혼 응답자 | 적당한 상대 만나지 못해 |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 학업, 직업 등에 더 열중하고 싶어서 | 결혼에 필요한 자금 모은 후에 | 결혼후 변화에 대한 불안때문에 | 사례수 |
|---|---|---|---|---|---|---|
| 대기업 | 68.0 | 7.4 | 25.3 | 66.7 | 63.0 | (39) |
| 중소기업 | 78.4 | 7.8 | 30.4 | 74.1 | 55.6 | (250) |
| 기타 | 64.7 | 16.6 | 31.5 | 80.2 | 52.0 | (63) |
| 근로자 외 | 73.7 | 24.2 | 43.7 | 70.6 | 68.3 | (37) |
| $X^2$(df) | 9.703(5) | 13.373(5)* | 3.725(5) | 8.312(5) | 3.987(5) |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79.8 | 9.9 | 32.5 | 78.4 | 52.8 | (79) |
| 경영/행정/사무직 | 78.3 | 8.9 | 29.8 | 72.6 | 60.4 | (187) |
| 영업/판매직 | 61.5 | 5.6 | 10.4 | 38.5 | 44.2 | (18) |
| 서비스직 | 56.0 | 13.3 | 37.0 | 79.5 | 54.7 | (71) |
| 관리/연구직/전문직 | 64.5 | 3.8 | 27.1 | 67.2 | 53.1 | (76) |
| 단순직 등 기타 | 84.4 | 15.7 | 30.0 | 64.9 | 41.7 | (26) |
| 근로자 외 | 73.7 | 24.2 | 43.7 | 70.6 | 68.3 | (37) |
| $X^2$(df) | 21.143(6)** | 13.671(6)* | 8.041(6) | 14.952(6)* | 7.127(6)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69.0 | 70.9 | 41.1 | 66.5 | 41.5 | (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72.0 | 28.7 | 32.6 | 74.6 | 48.2 | (271)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71.5 | 30.4 | 42.9 | 74.7 | 58.1 | (201)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79.8 | 27.3 | 38.4 | 77.6 | 64.5 | (77) |
| 900만원 이상 | 74.8 | 20.6 | 42.5 | 74.7 | 63.7 | (113) |
| $X^2$(df) | 3.171(4) | 63.045(4)*** | 6.868(4) | 2.960(4) | 17.403(4)**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84.5 | 31.9 | 44.4 | 73.1 | 84.9 | (123) |
| 긍정적 | 70.4 | 32.3 | 37.2 | 74.3 | 48.2 | (619) |
| $X^2$(df) | 10.643(1)** | 0.002(1) | 2.088(1) | 0.075(1) | 55.586(1)*** | |
| 자녀 계획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71.9 | 33.0 | 35.8 | 73.4 | 45.4 | (389)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69.4 | 27.1 | 33.7 | 67.9 | 66.4 | (71) |
| 미정 | 74.8 | 32.5 | 43.1 | 76.7 | 63.4 | (281) |
| $X^2$(df) | 1.312(2) | 1.218(2) | 4.076(2) | 2.857(2) | 25.308(2)***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영아(1~4세) | 0.0 | 0.0 | 0.0 | 100.0 | 100.0 | (1) |
| 유아(5~7세) | 51.0 | 0.0 | 49.0 | 49.0 | 0.0 | (2) |
| 성인자녀 | 50.0 | 0.0 | 50.0 | 100.0 | 50.0 | (2) |
| $X^2$(df) | 0.833(2) | - | 0.833(2) | 1.875(2) | 2.917(2) | |

주: 각 항목에 대해 '그렇다' 응답 비율임.
* $p < .05$, ** $p < .01$, *** $p < .001$

### 3) 결혼의향 없는 이유

□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 중 주어진 응답에 대한 동의여부를 질문하였는데, 동의율이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91.2%,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가족 부양 등 역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90.7%,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78.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Ⅱ-2-5〉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 - 각 이유에 동의하는 비율(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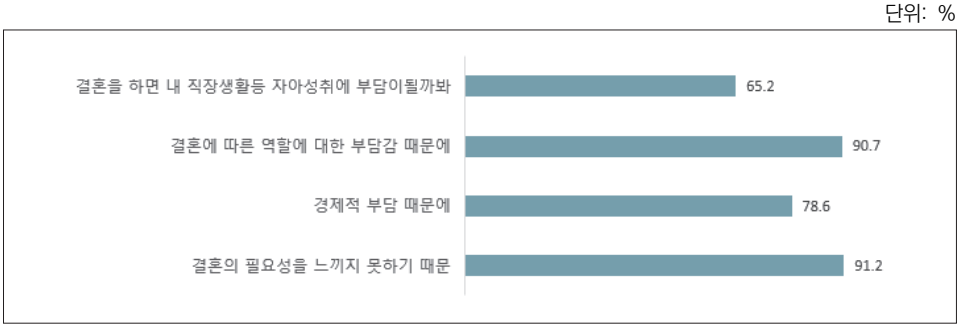
단위: (명), %

| 미혼 응답자 | 사례수 | 전체 | 응답자 성별×연령 | | | | | | $X^2$(df) |
|---|---|---|---|---|---|---|---|---|---|
| | | | 만25-29세 | | 만30-39세 | | 만40-49세 | |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 (418) | 91.2 | 89.6 | 94.8 | 88.0 | 96.4 | 82.0 | 93.1 | 11.605(5)* |
|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 | (418) | 90.7 | 83.0 | 97.7 | 93.9 | 96.4 | 80.5 | 86.5 | 22.376(5)*** |
|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혼수 준비 등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 (418) | 78.6 | 86.3 | 77.2 | 94.0 | 77.9 | 82.0 | 54.2 | 33.110(5)*** |
| 결혼을 하면 내 직장생활 등 자아성취에 부담이 될까봐 | (418) | 65.2 | 47.9 | 84.5 | 56.8 | 85.2 | 42.7 | 57.6 | 52.889(5)*** |

주 : 1) 무자녀 응답자 중 '결혼의향' 질문에 대해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 또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에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질문함.
2) 각 보기에 대한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에 '그렇다' 응답비율임.
* p 〈 .05, *** p 〈 .001

**[그림 Ⅱ-2-4]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 - 각 이유에 동의하는 비율(전체)**

단위: %




□ 결혼의향 없는 이유 4가지에 대한 동의 비율을 물어본 결과를 그룹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

- 성별 간 차이를 살펴봤을 때, '경제적 부담 때문에'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16.2%p 높은 동의율을 보여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고, 나머지 항목(결혼필요성 못 느낌, 결혼 후 역할 부담, 자아성취에 부담)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8.2%p 이상 높은 동의율을 보임. 특히, 자아성취에 부담이 될까봐는 여성이 남성보다 28.5%p 높은 동의율을 보여, 여성의 경우 결혼 후 개인의 자아성취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령 간 차이를 보았을 때, 2,30대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의 '결혼 후 역할에 따른 부담 때문에'에 동의비율이 40대보다 높았고, '직장생활 등 자아성취에 부담이 될까봐'의 경우 동의비율이 40대가 2,30대보다 20%p이상 높게 나타남.

**〈표 Ⅱ-2-6〉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 - 각 이유에 동의하는 비율**

단위: %, (명)

| 미혼 응답자 | 결혼의 필요성 느끼지 못해서 | 경제적 부담 때문에 | 결혼 후 역할에 따른 부담 때문에 | 직장생활 등 자아성취에 부담이 될까봐 | 사례수 |
|---|---|---|---|---|---|
| 2024년 3월 전체 | 88.8 | 80.8 | 91.2 | 67.7 | (374) |
| 2024년 9월 전체 | 91.2 | 78.6 | 90.7 | 65.2 | (418) |
| 응답자 성별 | | | | | |
| 남성 | 86.5 | 87.6 | 86.1 | 49.3 | (184) |
| 여성 | 94.9 | 71.4 | 94.3 | 77.8 | (234) |
| $X^2$(df) | 8.558(1)** | 17.069(1)*** | 8.367(1)** | 36.279(1)*** | |
| 응답자 연령 | | | | | |
| 만25-29세 | 92.8 | 80.7 | 92.0 | 29.8 | (144) |
| 만30-39세 | 92.8 | 84.9 | 95.3 | 27.2 | (151) |
| 만40-49세 | 87.5 | 68.2 | 83.5 | 50.0 | (123) |
| $X^2$(df) | 2.780(2) | 11.126(2)** | 11.805(2)** | 16.498(2)***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만25-29세 남성 | 89.6 | 86.3 | 83.0 | 47.9 | (56) |
| 만25-29세 여성 | 94.8 | 77.2 | 97.7 | 84.5 | (88) |
| 만30-39세 남성 | 88.0 | 94.0 | 93.9 | 56.8 | (66) |
| 만30-39세 여성 | 96.4 | 77.9 | 96.4 | 85.2 | (85) |
| 만40-49세 남성 | 82.0 | 82.0 | 80.5 | 42.7 | (62) |
| 만40-49세 여성 | 93.1 | 54.2 | 86.5 | 57.6 | (61) |
| $X^2$(df) | 11.605(5)* | 33.110(5)*** | 22.376(5)*** | 52.889(5)*** | |
| 학력 | | | | | |
| 고졸 이하 | (128) | 85.3 | 89.0 | 67.9 | (128) |
| 대학 재/졸 | (260) | 76.6 | 92.0 | 64.4 | (260) |

| 미혼 응답자 | 결혼의 필요성 느끼지 못해서 | 경제적 부담 때문에 | 결혼 후 역할에 따른 부담 때문에 | 직장생활 등 자아성취에 부담이 될까봐 | 사례수 |
|---|---|---|---|---|---|
| 대학원 재/졸 | (29) | 67.0 | 86.7 | 60.8 | (29) |
| $X^2$(df) | 5.168(2) | 6.242(2)* | 1.508(2) | 0.853(2) | |
| 취업 여부 | | | | | |
| 취업중 | 93.6 | 75.8 | 92.0 | 64.3 | (253) |
| 학업중 | 92.3 | 90.0 | 87.3 | 64.9 | (13) |
| 구직중 | 92.1 | 85.7 | 89.0 | 70.2 | (99) |
| 미취업 | 78.0 | 75.3 | 88.5 | 60.3 | (53) |
| $X^2$(df) | 14.571(3)** | 4.984(3) | 1.604(3) | 1.589(3) | |
| 거주 지역 | | | | | |
| 대도시 | 92.8 | 83.1 | 91.4 | 65.4 | (199) |
| 중소도시 | 91.3 | 75.8 | 90.7 | 65.8 | (170) |
| 농어촌 | 84.1 | 69.7 | 87.6 | 62.8 | (49) |
| $X^2$(df) | 3.880(2) | 5.528(2) | 0.521(2) | 0.201(2)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공무원 | 93.7 | 62.2 | 100.0 | 68.9 | (16) |
| 공공기관 | 95.3 | 69.5 | 95.4 | 60.6 | (22) |
| 대기업 | 95.6 | 74.4 | 96.2 | 73.7 | (27) |
| 중소기업 | 92.4 | 77.5 | 91.5 | 62.7 | (131) |
| 기타 | 100.0 | 80.7 | 92.8 | 71.3 | (41) |
| 근로자 외 | 81.0 | 74.5 | 74.7 | 44.6 | (16) |
| $X^2$(df) | 7.750(5) | 3.033(5) | 8.834(5) | 5.383(5) | |
| 본인 직무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90.8 | 85.8 | 91.2 | 47.0 | (34) |
| 경영/행정/사무직 | 96.5 | 71.8 | 98.8 | 72.4 | (84) |
| 영업/판매직 | 85.8 | 79.2 | 85.6 | 63.7 | (14) |
| 서비스직 | 98.0 | 84.9 | 89.4 | 70.7 | (48) |
| 관리/연구직/전문직 | 94.4 | 60.3 | 92.0 | 69.3 | (38) |
| 단순직 등 기타 | 88.7 | 83.4 | 89.2 | 50.4 | (18) |
| 근로자 외 | 81.0 | 74.5 | 74.7 | 44.6 | (16) |
| $X^2$(df) | 9.278(6) | 10.096(6) | 13.219(6)* | 11.931(6)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200만원 미만 | 86.7 | 88.1 | 84.7 | 63.3 | (60)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90.7 | 84.8 | 90.2 | 63.6 | (152)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92.4 | 69.2 | 92.3 | 66.8 | (115)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91.7 | 76.8 | 91.5 | 68.3 | (47) |
| 900만원 이상 | 95.4 | 70.5 | 95.7 | 66.1 | (44) |
| $X^2$(df) | 2.835(4) | 14.919(4)** | 4.066(4) | 0.666(4)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부정적 | 92.3 | 79.0 | 92.2 | 67.6 | (358) |
| 긍정적 | 84.8 | 76.1 | 81.6 | 50.8 | (60) |
| $X^2$(df) | 3.282(1) | 0.135(1) | 6.713(1)* | 6.760(1)** | |

| 미혼 응답자 | 결혼의 필요성 느끼지 못해서 | 경제적 부담 때문에 | 결혼 후 역할에 따른 부담 때문에 | 직장생활 등 자아성취에 부담이 될까봐 | 사례수 |
|---|---|---|---|---|---|
| 자녀 계획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89.0 | 68.1 | 89.0 | 78.1 | (9)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91.6 | 74.0 | 93.3 | 73.0 | (223) |
| 미정 | 90.8 | 84.6 | 87.6 | 55.3 | (186) |
| $X^2$(df) | 0.106(2) | 8.564(2)* | 3.847(2) | 14.780(2)** | |

주: 각 항목에 대해 '그렇다' 응답 비율임.
* p 〈 .05, ** p 〈 .01, *** p 〈 .001

### 4) 조건 변화에 따른 결혼의향 여부

□ 미혼 대상으로 결혼의향을 물었고, 다음의 정책적 조건이 더해졌을 때 결혼의향을 질문하여, '결혼할 의향이 있다'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긍정 응답을 파악함.

- 그 결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의 약 90%를 제외하고, '결혼 후에도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의 경우 76.0%로 가장 높았고, '만족할만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75.7%, '결혼 후 결혼 전보다 제도적 혜택이 많다면' 71.5% 의 순서로 나타남.

**〈표 Ⅱ-2-7〉 조건이 더해졌을 때 결혼의향 - 긍정비율(전체)**

단위: (명), %, 점

| 미혼 응답자 | 사례수 | 전체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X(df) | 평균 |
|---|---|---|---|---|---|---|---|---|---|---|
| | | | 만25-29세 | | 만30-39세 | | 만40-49세 | | |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
|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 (1,207) | 90.2 | 93.5 | 86.1 | 93.2 | 87.5 | 89.2 | 90.5 | 39.105(15)** | 3.5 |
| 결혼 후에도 일에 열중할 수 있다면 | (1,207) | 76.0 | 76.4 | 77.0 | 85.2 | 76.8 | 69.3 | 60.3 | 68.636(15)*** | 3.0 |
| 만족할만한 일자리를 갖고 있다면 | (1,207) | 75.7 | 85.1 | 69.6 | 87.0 | 67.8 | 77.2 | 51.9 | 109.257(15)*** | 3.0 |
| 결혼 후 결혼 전보다 제도적 혜택이 많다면 | (1,207) | 71.5 | 79.7 | 65.1 | 80.0 | 65.3 | 73.5 | 53.6 | 65.021(15)*** | 3.0 |
| 주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면 | (1,207) | 70.4 | 83.1 | 64.3 | 86.0 | 61.0 | 67.2 | 40.5 | 135.360(15)*** | 2.9 |
| 결혼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 (1,207) | 66.4 | 75.2 | 60.3 | 77.7 | 62.4 | 66.7 | 39.4 | 100.772(15)*** | 2.8 |

주: 1) 각 항목에 대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응답을 합한 비율임.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01

□ 각 6가지의 보기에 대해 조건이 더해졌을 때 결혼의향을 4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 중 긍정의향 비율에 대해 그룹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

- 성별 간 차이를 살펴보면, 2,30대 남성의 경우 '만족할만한 일자리를 갖고 있다면', '주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면'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결혼할 의향이 85% 전후로 높게 나타났고, 2,30대 여성의 경우 '결혼 후에도 일에 열중할 수 있다면'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결혼의향이 75%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연령 간 차이를 살펴보면, 2,30대의 경우 모든 조건에 대해 조건이 더해졌을 때 결혼의향이 40대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 취업상태 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학업중>구직중, 취업중>미취업의 순으로 조건이 더해졌을 때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임.
- 하지만, 조건이 더해졌을 때의 결혼의향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그룹에 비해 긍정적인 그룹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기존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조건이 더해졌을 때의 결혼의향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표 Ⅱ-2-8〉 조건이 더해졌을 때 결혼의향 - 긍정비율**

단위: %, (명)

| 미혼 응답자 | 주거비용 마련 | 만족할만한 일자리 | 결혼비용 지원 | 결혼후 제도적 혜택 | 결혼후에도 일에 열중할 수 있다면 |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 사례수 |
|---|---|---|---|---|---|---|---|
| 2024년 3월 전체 | 67.6 | 75.8 | 65.0 | 70.0 | 76.5 | 91.1 | (956) |
| 2024년 9월 전체 | 70.4 | 75.7 | 66.4 | 71.5 | 76.0 | 90.2 | (1,207) |
| 응답자 성별 | | | | | | | |
| 남성 | 80.0 | 83.7 | 73.9 | 78.2 | 77.9 | 92.3 | (681) |
| 여성 | 58.0 | 65.2 | 56.8 | 62.8 | 73.5 | 87.6 | (527) |
| $X^2$(df) | 78.168(3)*** | 69.187(3)*** | 54.283(3)*** | 46.060(3)*** | 15.689(3)** | 14.164(3)** | |
| 응답자 연령 | | | | | | | |
| 만25-29세 | 74.4 | 77.9 | 68.3 | 73.0 | 76.7 | 90.1 | (445) |
| 만30-39세 | 74.8 | 78.4 | 70.8 | 73.4 | 81.4 | 90.7 | (474) |
| 만40-49세 | 57.1 | 67.6 | 56.4 | 66.0 | 65.9 | 89.7 | (288) |
| $X^2$(df) | 45.683(6)*** | 25.990(6)*** | 32.456(6)*** | 10.855(6) | 37.158(6)*** | 13.159(6)*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 만25-29세 남성 | 83.1 | 85.1 | 75.2 | 79.7 | 76.4 | 93.5 | (240) |
| 만25-29세 여성 | 64.3 | 69.6 | 60.3 | 65.1 | 77.0 | 86.1 | (206) |
| 만30-39세 남성 | 86.0 | 87.0 | 77.7 | 80.0 | 85.2 | 93.2 | (261) |
| 만30-39세 여성 | 61.0 | 67.8 | 62.4 | 65.3 | 76.8 | 87.5 | (213) |
| 만40-49세 남성 | 67.2 | 77.2 | 66.7 | 73.5 | 69.3 | 89.2 | (179) |
| 만40-49세 여성 | 40.5 | 51.9 | 39.4 | 53.6 | 60.3 | 90.5 | (109) |
| $X^2$(df) | 135.360(15)*** | 109.257(15)*** | 100.772(15)*** | 65.021(15)*** | 68.636(15)*** | 39.105(15)** | |

| 미혼 응답자 | 주거비용 마련 | 만족할만한 일자리 | 결혼비용 지원 | 결혼후 제도적 혜택 | 결혼후에도 일에 열중할 수 있다면 |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 사례수 |
|---|---|---|---|---|---|---|---|
| 학력 | | | | | | | |
| 고졸 이하 | 66.1 | 69.5 | 64.1 | 67.6 | 69.1 | 83.9 | (306) |
| 대학 재/졸 | 71.7 | 77.8 | 66.7 | 72.4 | 77.4 | 92.0 | (800) |
| 대학원 재/졸 | 73.3 | 77.2 | 71.5 | 76.3 | 85.7 | 95.5 | (102) |
| $X^2$(df) | 15.868(6)* | 16.845(6)* | 8.160(6) | 11.720(6) | 23.537(6)** | 38.078(6)*** | |
| 자녀 유무 | | | | | | | |
| 유자녀 | 100.0 | 85.2 | 70.7 | 100.0 | 85.2 | 85.8 | (7) |
| 무자녀 | 70.2 | 75.6 | 66.4 | 71.3 | 75.9 | 90.3 | (1,200) |
| $X^2$(df) | 3.375(3) | 2.860(3) | 1.070(3) | 7.292(3) | 2.251(3) | 2.212(3) | |
| 취업 여부 | | | | | | | |
| 취업중 | 70.8 | 74.6 | 67.1 | 70.9 | 77.6 | 89.9 | (787) |
| 학업중 | 80.5 | 89.8 | 78.3 | 78.2 | 83.8 | 99.0 | (48) |
| 구직중 | 71.4 | 78.3 | 68.3 | 74.8 | 75.2 | 92.1 | (278) |
| 미취업 | 59.4 | 69.3 | 49.8 | 62.8 | 60.5 | 83.1 | (94) |
| $X^2$(df) | 11.237(9) | 19.705(9)* | 27.517(9)** | 14.599(9) | 22.216(9)** | 16.523(9) | |
| 거주 지역 | | | | | | | |
| 대도시 | 70.4 | 75.4 | 67.2 | 71.3 | 75.4 | 90.0 | (577) |
| 중소도시 | 71.4 | 77.2 | 67.1 | 72.8 | 77.7 | 91.2 | (514) |
| 농어촌 | 66.2 | 70.3 | 59.6 | 66.3 | 71.3 | 87.3 | (117) |
| $X^2$(df) | 6.260(6) | 3.645(6) | 8.689(6) | 7.751(6) | 5.487(6) | 6.443(6)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 공무원 | 78.8 | 80.6 | 75.0 | 76.0 | 88.0 | 93.5 | (71) |
| 공공기관 | 70.8 | 71.0 | 69.6 | 72.5 | 80.2 | 88.7 | (88) |
| 대기업 | 60.9 | 66.7 | 58.9 | 62.0 | 67.9 | 83.9 | (70) |
| 중소기업 | 71.1 | 77.5 | 66.5 | 71.3 | 76.4 | 91.3 | (396) |
| 기타 | 68.5 | 66.1 | 65.6 | 73.3 | 77.9 | 87.8 | (108) |
| 근로자 외 | 75.2 | 78.4 | 69.7 | 66.2 | 80.8 | 88.9 | (56) |
| $X^2$(df) | 14.267(15) | 14.874(15) | 8.429(15) | 16.210(15) | 19.216(15) | 20.881(15) | |
| 본인 직무 |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78.5 | 75.3 | 66.1 | 74.4 | 72.6 | 90.4 | (117) |
| 경영/행정/사무직 | 68.6 | 78.7 | 66.7 | 70.1 | 78.6 | 91.2 | (291) |
| 영업/판매직 | 51.7 | 61.1 | 54.5 | 60.6 | 69.5 | 75.8 | (33) |
| 서비스직 | 73.9 | 71.1 | 69.7 | 73.3 | 77.3 | 89.1 | (121) |
| 관리/연구직/전문직 | 71.6 | 74.0 | 69.9 | 72.6 | 84.1 | 91.0 | (124) |
| 단순직 등 기타 | 62.9 | 62.8 | 63.0 | 69.6 | 69.4 | 91.2 | (46) |
| 근로자 외 | 75.2 | 78.4 | 69.7 | 66.2 | 80.8 | 88.9 | (56) |
| $X^2$(df) | 48.455(18)*** | 29.260(18)* | 18.458(18) | 18.411(18) | 32.523(18)* | 39.063(18)**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200만원 미만 | 68.2 | 74.3 | 61.9 | 70.8 | 71.3 | 86.3 | (140)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73.3 | 77.2 | 70.2 | 74.3 | 76.8 | 89.8 | (43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67.7 | 73.3 | 65.6 | 70.6 | 75.8 | 90.5 | (333)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67.5 | 79.4 | 62.6 | 67.2 | 80.0 | 92.2 | (131) |
| 900만원 이상 | 72.5 | 74.6 | 65.0 | 69.7 | 74.9 | 92.7 | (165) |
| $X^2$(df) | 12.713(12) | 20.323(12) | 20.149(12) | 12.492(12) | 10.950(12) | 19.112(12) | |

| 미혼 응답자 | 주거비용 마련 | 만족할만한 일자리 | 결혼비용 지원 | 결혼후 제도적 혜택 | 결혼후에도 일에 열중할 수 있다면 |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 사례수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 부정적 | 43.4 | 52.9 | 42.1 | 48.5 | 57.9 | 79.6 | (491) |
| 긍정적 | 88.9 | 91.2 | 83.1 | 87.2 | 88.4 | 97.5 | (717) |
| $X^2$(df) | 330.377(3)*** | 262.219(3)*** | 262.624(3)*** | 257.963(3)*** | 171.103(3)*** | 163.381(3)*** | |
| 자녀 계획 |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92.0 | 91.7 | 86.7 | 89.4 | 89.3 | 97.5 | (426)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37.0 | 48.3 | 36.8 | 45.0 | 53.5 | 74.4 | (297) |
| 미정 | 72.0 | 78.4 | 66.9 | 71.9 | 78.0 | 93.6 | (484) |
| $X^2$(df) | 306.977(6)*** | 216.161(6)*** | 230.498(6)*** | 203.635(6)*** | 160.865(6)*** | 143.666(6)***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 영아(1~4세)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 |
| 유아(5~7세) | 100.0 | 49.0 | 49.0 | 100.0 | 49.0 | 51.0 | (2) |
| 중학생 | 100.0 | 100.0 | 50.4 | 100.0 | 100.0 | 100.0 | (2) |
| 성인자녀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2) |
| $X^2$(df) | 4.550(3) | 9.800(6) | 7.583(6) | 2.917(3) | 5.600(6) | 9.333(6) | |

주: 1) 각 항목에 대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응답을 합한 비율임.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3. 출산에 대한 인식

## 가. 자녀의 필요성

### 1)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에서(한 사람의 인생에서)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여, '대체로 그렇다'가 44.3%, '매우 그렇다'가 23.8%로 긍정응답이 68.2%로 나타남(4점 척도 중 평균 2.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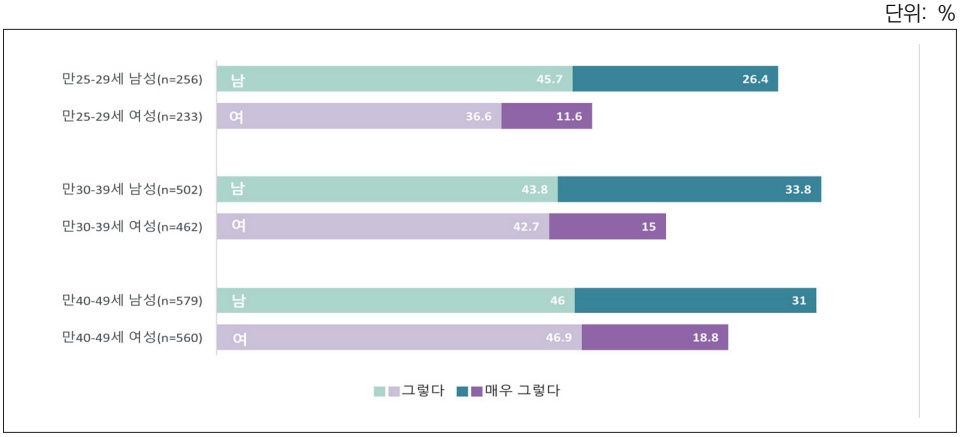
- 2024년 3월 조사에서는 '대체로 그렇다'가 42.1%, '매우 그렇다'가 18.9%로 긍정응답이 61.1%로 나타난 반면, 이에 비해 2024년 9월 조사에서는 7.1%p 높게 나타났음.[11]

11) 2024년 3월 조사(n=2,011, 오차범위±2.2%)와 2024년 9월 조사(n=2,595, 오차범위±1.9%)간 비율 비교 시, 차이가 비교단위별 오차범위 밖에 있을 경우 높다/낮다 표현을 사용하였음. 단, 두 시기의 조사가 표본추출방식동일하나 조사대상이 다르므로 차이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성별 간 차이를 살펴보면, 4점 척도에서 남성은 3.0점, 여성은 2.7점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자녀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 연령 간 차이를 살펴보면, 4점 척도에서 3,40대는 2.9점, 만25-29세는 2.7점으로 3,40대가 만25-29세보다 자녀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 성별×연령별 차이를 보면, 30대 남성은 3.1점, 만25-29세 여성은 2.4점으로 그룹별 차이를 보임.

**[그림 Ⅱ-3-1]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긍정비율)**

단위: %




**〈표 Ⅱ-3-1〉 자녀의 필요성**

단위: %, (명), 점

| 전체 응답자 | 부정응답 | | | 긍정응답 | | | 계 | 사례수 | 평균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부정 응답합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긍정 응답합 | | | |
| 2024년 3월 전체 | 9.6 | 29.3 | 38.9 | 42.1 | 18.9 | 61.1 | 100.0 | (2,011) | 2.7 |
| 2024년 9월 전체 | 6.8 | 25.0 | 31.8 | 44.3 | 23.8 | 68.2 | 100.0 | (2,592) | 2.9 |
| 응답자 성별 | | | | | | | | | |
| 남성 | 4.4 | 19.3 | 23.7 | 45.1 | 31.1 | 76.3 | 100.0 | (1,337) | 3.0 |
| 여성 | 9.3 | 31.2 | 40.5 | 43.5 | 16.0 | 59.5 | 100.0 | (1,255) | 2.7 |
| $X^2$(df)/t | 121.689(3)*** | | | | | | | | 11.1*** |
| 응답자 연령 | | | | | | | | | |
| 만25-29세 | 11.8 | 27.5 | 39.3 | 41.4 | 19.3 | 60.7 | 100.0 | (489) | 2.7 |
| 만30-39세 | 6.4 | 25.5 | 31.9 | 43.3 | 24.8 | 68.1 | 100.0 | (964) | 2.9 |
| 만40-49세 | 5.0 | 23.6 | 28.6 | 46.5 | 25.0 | 71.4 | 100.0 | (1,139) | 2.9 |
| $X^2$(df)/F | 31.574(6)*** | | | | | | | | 12.0***(a) |

| 전체 응답자 | 부정응답 | | | 긍정응답 | | | 계 | 사례수 | 평균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부정 응답합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긍정 응답합 | |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 |
| 만25-29세 남성 | 4.6 | 23.3 | 27.9 | 45.7 | 26.4 | 72.1 | 100.0 | (256) | 2.9 |
| 만25-29세 여성 | 19.7 | 32.2 | 51.9 | 36.6 | 11.6 | 48.1 | 100.0 | (233) | 2.4 |
| 만30-39세 남성 | 3.7 | 18.6 | 22.4 | 43.8 | 33.8 | 77.6 | 100.0 | (502) | 3.1 |
| 만30-39세 여성 | 9.3 | 33.0 | 42.3 | 42.7 | 15.0 | 57.7 | 100.0 | (462) | 2.6 |
| 만40-49세 남성 | 4.9 | 18.1 | 23.0 | 46.0 | 31.0 | 77.0 | 100.0 | (579) | 3.0 |
| 만40-49세 여성 | 5.1 | 29.2 | 34.3 | 46.9 | 18.8 | 65.7 | 100.0 | (560) | 2.8 |
| $X^2$(df)/F | 189.815(15)*** | | | | | | | | 33.7***(a) |
| 학력 | | | | | | | | | |
| 고졸 이하 | 6.9 | 28.0 | 34.9 | 44.9 | 20.2 | 65.1 | 100.0 | (650) | 2.8 |
| 대학 재/졸 | 7.0 | 24.1 | 31.1 | 45.0 | 23.9 | 68.9 | 100.0 | (1,668) | 2.9 |
| 대학원 재/졸 | 5.3 | 23.8 | 29.1 | 38.8 | 32.1 | 70.9 | 100.0 | (275) | 3.0 |
| $X^2$(df)/t | 17.213(6)** | | | | | | | | 4.7** |
| 자녀 유무 | | | | | | | | | |
| 유자녀 | 1.8 | 16.9 | 18.7 | 47.6 | 33.7 | 81.3 | 100.0 | (1,122) | 3.1 |
| 무자녀 | 10.6 | 31.2 | 41.9 | 41.8 | 16.3 | 58.1 | 100.0 | (1,470) | 2.6 |
| $X^2$(df)/F | 208.125(3)*** | | | | | | | | 15.4*** |
| 취업 여부 | | | | | | | | | |
| 취업중 | 6.7 | 22.9 | 29.6 | 44.8 | 25.6 | 70.4 | 100.0 | (1,778) | 2.9 |
| 학업중 | 4.5 | 26.6 | 31.0 | 39.3 | 29.7 | 69.0 | 100.0 | (102) | 2.9 |
| 구직중 | 7.1 | 30.7 | 37.8 | 43.6 | 18.6 | 62.2 | 100.0 | (416) | 2.7 |
| 미취업 | 8.1 | 29.2 | 37.3 | 44.4 | 18.3 | 62.7 | 100.0 | (295) | 2.7 |
| $X^2$(df)/F | 24.510(9)** | | | | | | | | 6.2***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맞벌이 가구 | 2.4 | 20.0 | 22.4 | 47.2 | 30.5 | 77.6 | 100.0 | (724) | 3.1 |
| 외벌이 가구 | 2.8 | 20.8 | 23.5 | 46.0 | 30.5 | 76.5 | 100.0 | (578) | 3.0 |
| 기타 | 11.1 | 29.8 | 40.9 | 42.0 | 17.1 | 59.1 | 100.0 | (1,290) | 2.7 |
| $X^2$(df)/F | 141.243(6)*** | | | | | | | | 72.0***(a) |
| 혼인 상태 | | | | | | | | | |
| 미혼 | 11.6 | 29.8 | 41.4 | 41.8 | 16.8 | 58.6 | 100.0 | (1,207) | 2.6 |
| 기혼 | 2.6 | 20.3 | 22.9 | 46.6 | 30.5 | 77.1 | 100.0 | (1,302) | 3.1 |
| 이혼/사별 | 3.6 | 29.8 | 33.5 | 44.7 | 21.9 | 66.5 | 100.0 | (82) | 2.9 |
| $X^2$(df)/F | 145.652(3)*** | | | | | | | | -12.1*** |
| 거주지역 | | | | | | | | | |
| 대도시 | 8.1 | 27.2 | 35.3 | 43.8 | 20.9 | 64.7 | 100.0 | (1,132) | 2.8 |
| 중소도시 | 5.6 | 22.9 | 28.5 | 44.8 | 26.7 | 71.5 | 100.0 | (1,140) | 2.9 |
| 농어촌 | 6.4 | 24.9 | 31.3 | 44.5 | 24.2 | 68.7 | 100.0 | (320) | 2.9 |
| $X^2$(df)/F | 17.916(6)** | | | | | | | | 9.0***(a)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 |
| 공무원 | 3.7 | 19.3 | 23.0 | 44.9 | 32.1 | 77.0 | 100.0 | (162) | 3.1 |
| 공공기관 | 3.9 | 25.0 | 28.8 | 49.9 | 21.2 | 71.2 | 100.0 | (182) | 2.9 |

| 전체 응답자 | 부정응답 | | | 긍정응답 | | | 계 | 사례수 | 평균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부정 응답합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긍정 응답합 | | | |
| 대기업 | 5.6 | 20.2 | 25.8 | 45.2 | 29.0 | 74.2 | 100.0 | (186) | 3.0 |
| 중소기업 | 7.6 | 23.1 | 30.7 | 45.4 | 23.9 | 69.3 | 100.0 | (859) | 2.9 |
| 기타 | 9.5 | 26.8 | 36.3 | 39.2 | 24.5 | 63.7 | 100.0 | (238) | 2.8 |
| 근로자 외 | 4.7 | 20.8 | 25.5 | 43.2 | 31.3 | 74.5 | 100.0 | (151) | 3.0 |
| $X^2$(df)/F | 24.171(15) | | | | | | | | 3.1**(a) |
| 본인 직무 | | |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4.1 | 20.2 | 24.3 | 45.9 | 29.8 | 75.7 | 100.0 | (251) | 3.0 |
| 경영/행정/사무직 | 7.6 | 24.4 | 32.0 | 44.2 | 23.7 | 68.0 | 100.0 | (627) | 2.8 |
| 영업/판매직 | 8.0 | 20.9 | 28.9 | 46.0 | 25.1 | 71.1 | 100.0 | (76) | 2.9 |
| 서비스직 | 7.8 | 27.3 | 35.1 | 47.7 | 17.2 | 64.9 | 100.0 | (244) | 2.7 |
| 관리/연구직/전문직 | 6.2 | 19.2 | 25.4 | 43.0 | 31.6 | 74.6 | 100.0 | (322) | 3.0 |
| 단순직 등 기타 | 7.6 | 26.5 | 34.1 | 45.5 | 20.5 | 65.9 | 100.0 | (107) | 2.8 |
| 근로자 외 | 4.7 | 20.8 | 25.5 | 43.2 | 31.3 | 74.5 | 100.0 | (151) | 3.0 |
| $X^2$(df)/F | 28.989(18)* | | | | | | | | 4.0**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
| 200만원 미만 | 10.7 | 32.7 | 43.5 | 40.5 | 16.0 | 56.5 | 100.0 | (178) | 2.6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9.0 | 27.1 | 36.1 | 42.5 | 21.4 | 63.9 | 100.0 | (659) | 2.8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5.9 | 22.8 | 28.7 | 48.5 | 22.8 | 71.3 | 100.0 | (822) | 2.9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5.7 | 29.2 | 34.9 | 39.3 | 25.8 | 65.1 | 100.0 | (377) | 2.9 |
| 900만원 이상 | 5.1 | 20.6 | 25.7 | 44.9 | 29.4 | 74.3 | 100.0 | (556) | 3.0 |
| $X^2$(df)/F | 46.076(12)*** | | | | | | | | 8.4***(a)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 |
| 부정적 | 19.1 | 46.6 | 65.7 | 29.8 | 4.5 | 34.3 | 100.0 | (738) | 2.2 |
| 긍정적 | 1.9 | 16.5 | 18.4 | 50.1 | 31.5 | 81.6 | 100.0 | (1,854) | 3.1 |
| $X^2$(df)/t | 632.952(3)*** | | | | | | | | -27.0*** |
| 자녀 계획 | | |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0.2 | 7.2 | 7.3 | 50.8 | 41.9 | 92.7 | 100.0 | (658) | 3.3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11.7 | 28.2 | 39.9 | 38.7 | 21.4 | 60.1 | 100.0 | (1,136) | 2.7 |
| 미정 | 5.2 | 35.3 | 40.5 | 47.0 | 12.5 | 59.5 | 100.0 | (798) | 2.7 |
| $X^2$(df)/F | 362.390(6)*** | | | | | | | | 162.6***(a)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 |
| 영아(1~4세) | 1.9 | 13.6 | 15.5 | 43.7 | 40.7 | 84.5 | 100.0 | (254) | 3.2 |
| 유아(5~7세) | 0.6 | 14.1 | 14.7 | 50.3 | 35.1 | 85.3 | 100.0 | (167) | 3.2 |
| 초등 저학년 | 2.4 | 18.7 | 21.1 | 46.9 | 32.0 | 78.9 | 100.0 | (243) | 3.1 |
| 초등 고학년 | 0.6 | 14.7 | 15.2 | 50.9 | 33.9 | 84.8 | 100.0 | (189) | 3.2 |
| 중학생 | 3.0 | 19.4 | 22.4 | 48.8 | 28.8 | 77.6 | 100.0 | (137) | 3.0 |
| 고등학생 | 1.3 | 26.2 | 27.4 | 47.1 | 25.4 | 72.6 | 100.0 | (82) | 3.0 |
| 성인자녀 | 4.2 | 21.2 | 25.4 | 47.6 | 27.0 | 74.6 | 100.0 | (49) | 3.0 |
| $X^2$(df)/F | 23.497(18) | | | | | | | | 2.6* |

주: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2) 이상적인 자녀수

□ 이상적인 자녀수는 '귀하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값으로, 2024년 3월 조사와 동일하게 평균 1.8명으로 응답함.

- 남성(1.9명)이 여성(1.7명)보다 높으며, 40대(1.9명)〉30대(1.8명)〉만25-29세(1.6명) 순으로 이상적인 자녀수를 높게 응답함.
- 성별×연령별 차이를 보면, 3,40대 남성 그룹이 1.9명으로 가장 높고, 만25-29세 여성 그룹이 1.4명으로 가장 낮아 차이를 보임.
- 낳을 생각이 있는 경우 이상 자녀수 평균 2.1명, 낳을 생각이 없는 경우 이상 자녀수 평균 1.6명으로 자녀출산의향에 따라 이상 자녀수에 차이를 보였음.

**〈표 Ⅱ-3-2〉 이상적인 자녀 수**

단위: %, (명), 명

| 전체 응답자 | 0명 | 1명 | 2명 | 3명 이상 | 계 | 사례수 | 평균 |
|---|---|---|---|---|---|---|---|
| 2024년 3월 전체 | 7.3 | 19.4 | 64.8 | 8.5 | 100.0 | (2,011) | 1.8 |
| 2024년 9월 전체 | 7.0 | 18.0 | 65.8 | 9.2 | 100.0 | (2,592) | 1.8 |
| 응답자 성별 | | | | | | | |
| 남성 | 5.7 | 13.7 | 68.7 | 12.0 | 100.0 | (1,337) | 1.9 |
| 여성 | 8.5 | 22.5 | 62.7 | 6.3 | 100.0 | (1,255) | 1.7 |
| $X^2$(df)/t | 60.611(3)*** | | | | | | 7.1*** |
| 응답자 연령 | | | | | | | |
| 만25-29세 | 14.0 | 16.9 | 62.8 | 6.3 | 100.0 | (489) | 1.6 |
| 만30-39세 | 6.1 | 18.6 | 66.6 | 8.8 | 100.0 | (964) | 1.8 |
| 만40-49세 | 4.9 | 17.9 | 66.3 | 10.9 | 100.0 | (1,139) | 1.9 |
| $X^2$(df)/F | 49.874(6)*** | | | | | | 14.7***(a)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 만25-29세 남성 | 8.4 | 10.9 | 72.3 | 8.4 | 100.0 | (256) | 1.8 |
| 만25-29세 여성 | 20.1 | 23.6 | 52.4 | 4.0 | 100.0 | (233) | 1.4 |
| 만30-39세 남성 | 4.1 | 15.4 | 69.3 | 11.2 | 100.0 | (502) | 1.9 |
| 만30-39세 여성 | 8.3 | 22.0 | 63.6 | 6.1 | 100.0 | (462) | 1.7 |
| 만40-49세 남성 | 5.8 | 13.4 | 66.5 | 14.3 | 100.0 | (579) | 1.9 |
| 만40-49세 여성 | 3.9 | 22.6 | 66.1 | 7.4 | 100.0 | (560) | 1.8 |
| $X^2$(df)/F | 143.205(15)*** | | | | | | 19.8***(a) |
| 학력 | | | | | | | |
| 고졸 이하 | 7.7 | 18.0 | 63.1 | 11.2 | 100.0 | (650) | 1.8 |
| 대학 재/졸 | 7.2 | 18.0 | 66.7 | 8.1 | 100.0 | (1,668) | 1.8 |
| 대학원 재/졸 | 4.5 | 17.7 | 66.1 | 11.7 | 100.0 | (275) | 1.9 |
| $X^2$(df)/F | 11.053(6) | | | | | | 2.9 |
| 자녀 유무 | | | | | | | |
| 유자녀 | 2.1 | 17.4 | 68.9 | 11.6 | 100.0 | (1,122) | 1.9 |

| 전체 응답자 | 0명 | 1명 | 2명 | 3명 이상 | 계 | 사례수 | 평균 |
|---|---|---|---|---|---|---|---|
| 무자녀 | 10.8 | 18.4 | 63.4 | 7.4 | 100.0 | (1,470) | 1.7 |
| $X^2$(df)/F | | | 83.735(3)*** | | | | 8.0*** |
| 취업 여부 | | | | | | | |
| 취업중 | 6.3 | 17.8 | 66.7 | 9.2 | 100.0 | (1,778) | 1.8 |
| 학업중 | 5.7 | 20.4 | 63.7 | 10.2 | 100.0 | (102) | 1.8 |
| 구직중 | 8.7 | 17.4 | 66.4 | 7.5 | 100.0 | (416) | 1.7 |
| 미취업 | 9.5 | 19.1 | 60.0 | 11.4 | 100.0 | (295) | 1.8 |
| $X^2$(df)/F | | | 11.923(9) | | | | 0.9(a) |
| 맞벌이 여부 | | | | | | | |
| 맞벌이 가구 | 3.3 | 17.6 | 68.8 | 10.2 | 100.0 | (724) | 1.9 |
| 외벌이 가구 | 3.3 | 17.7 | 67.8 | 11.1 | 100.0 | (578) | 1.9 |
| 기타 | 10.8 | 18.2 | 63.1 | 7.8 | 100.0 | (1,290) | 1.7 |
| $X^2$(df)/F | | | 58.876(6)*** | | | | 20.6***(a) |
| 혼인 상태 | | | | | | | |
| 미혼 | 11.2 | 17.9 | 63.3 | 7.6 | 100.0 | (1,207) | 1.7 |
| 기혼 | 3.3 | 17.7 | 68.4 | 10.6 | 100.0 | (1,302) | 1.9 |
| 이혼/사별 | 5.0 | 23.7 | 60.3 | 11.0 | 100.0 | (82) | 1.8 |
| $X^2$(df)/F | | | 61.979(3)*** | | | | -6.5*** |
| 거주 지역 | | | | | | | |
| 대도시 | 7.6 | 19.0 | 65.2 | 8.1 | 100.0 | (1,132) | 1.8 |
| 중소도시 | 6.3 | 16.7 | 67.5 | 9.5 | 100.0 | (1,140) | 1.8 |
| 농어촌 | 7.8 | 18.5 | 61.4 | 12.4 | 100.0 | (320) | 1.8 |
| $X^2$(df)/F | | | 11.150(6) | | | | 2.0(a)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 공무원 | 3.6 | 15.4 | 71.7 | 9.3 | 100.0 | (162) | 1.9 |
| 공공기관 | 5.8 | 16.8 | 67.1 | 10.3 | 100.0 | (182) | 1.8 |
| 대기업 | 7.8 | 16.9 | 69.5 | 5.8 | 100.0 | (186) | 1.8 |
| 중소기업 | 6.8 | 18.2 | 66.0 | 8.9 | 100.0 | (859) | 1.8 |
| 기타 | 7.1 | 18.3 | 62.5 | 12.1 | 100.0 | (238) | 1.8 |
| 근로자 외 | 4.1 | 18.9 | 67.7 | 9.3 | 100.0 | (151) | 1.8 |
| $X^2$(df)/F | | | 11.564(15) | | | | 0.9(a) |
| 본인 직무 |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3.3 | 15.7 | 71.3 | 9.7 | 100.0 | (251) | 1.9 |
| 경영/행정/사무직 | 6.9 | 17.4 | 68.9 | 6.7 | 100.0 | (627) | 1.8 |
| 영업/판매직 | 7.8 | 19.5 | 61.1 | 11.6 | 100.0 | (76) | 1.8 |
| 서비스직 | 7.1 | 20.4 | 62.7 | 9.7 | 100.0 | (244) | 1.8 |
| 관리/연구직/전문직 | 6.8 | 14.8 | 67.8 | 10.6 | 100.0 | (322) | 1.8 |
| 단순직 등 기타 | 8.5 | 24.7 | 50.6 | 16.2 | 100.0 | (107) | 1.7 |
| 근로자 외 | 4.1 | 18.9 | 67.7 | 9.3 | 100.0 | (151) | 1.8 |
| $X^2$(df)/F | | | 30.919(18)* | | | | 1.1(a)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200만원 미만 | 14.0 | 14.3 | 59.4 | 12.3 | 100.0 | (178) | 1.7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7.8 | 16.3 | 65.6 | 10.3 | 100.0 | (659) | 1.8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6.8 | 18.7 | 66.6 | 7.9 | 100.0 | (822) | 1.8 |

| 전체 응답자 | 0명 | 1명 | 2명 | 3명 이상 | 계 | 사례수 | 평균 |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6.8 | 20.6 | 65.1 | 7.5 | 100.0 | (377) | 1.7 |
| 900만원 이상 | 4.3 | 18.2 | 67.3 | 10.2 | 100.0 | (556) | 1.9 |
| $X^2$(df)/F | | | 30.531(12)** | | | | 2.0(a)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 부정적 | 19.4 | 26.4 | 49.4 | 4.8 | 100.0 | (738) | 1.4 |
| 긍정적 | 2.1 | 14.6 | 72.3 | 11.0 | 100.0 | (1,854) | 1.9 |
| $X^2$(df)/t | | | 328.757(3)*** | | | | -15.4*** |
| 자녀 계획 |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0.3 | 9.9 | 75.6 | 14.2 | 100.0 | (658) | 2.1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12.2 | 20.3 | 59.8 | 7.7 | 100.0 | (1,136) | 1.6 |
| 미정 | 5.3 | 21.3 | 66.2 | 7.3 | 100.0 | (798) | 1.8 |
| $X^2$(df)/F | | | 164.035(6)*** | | | | 71.7***(a)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 영아(1~4세) | 1.9 | 14.8 | 69.8 | 13.4 | 100.0 | (254) | 2.0 |
| 유아(5~7세) | 2.4 | 18.6 | 66.7 | 12.3 | 100.0 | (167) | 1.9 |
| 초등 저학년 | 2.1 | 18.2 | 72.2 | 7.5 | 100.0 | (243) | 1.9 |
| 초등 고학년 | 1.6 | 10.4 | 75.2 | 12.8 | 100.0 | (189) | 2.0 |
| 중학생 | 1.5 | 26.2 | 62.6 | 9.7 | 100.0 | (137) | 1.8 |
| 고등학생 | 1.3 | 24.8 | 59.2 | 14.8 | 100.0 | (82) | 1.9 |
| 성인자녀 | 6.3 | 12.4 | 64.7 | 16.6 | 100.0 | (49) | 2.0 |
| $X^2$(df)/F | | | 31.078(18)* | | | | 1.5(a) |

* $p < .05$, ** $p < .01$, *** $p < .001$

## 나. 자녀 출산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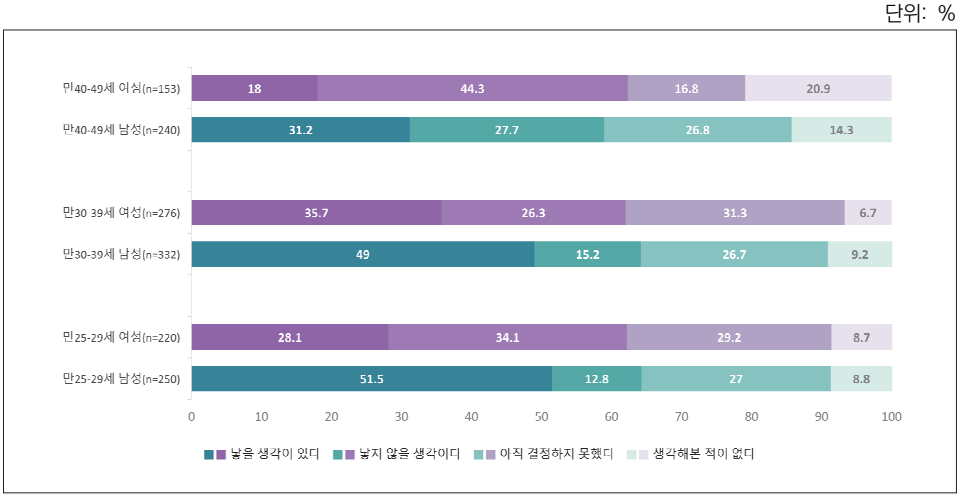
□ 본 인식조사에서는 자녀 출산계획을 현재 무자녀인 응답자와 유자녀인 응답자로 나누어 질문하였음.

## 1) 무자녀 응답자의 자녀 출산 계획과 이유

### 가) 무자녀 응답자의 자녀 출산 계획

**[그림 Ⅱ-3-2] 성×연령별 무자녀 응답자의 자녀 출산 계획**

단위: %




□ [그림 Ⅱ-3-2]를 통해 성별×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만25-29세, 30대 남성의 경우 '낳을 생각이 있다'가 50% 전후로 높게 나타난 반면, 40대, 만25-29세 여성의 경우 '낳지 않을 생각이다'가 각각 44.3%, 34.1%로 높게 나타났고, 30대 여성의 경우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가 31.3%로 높게 나타남.

□ 무자녀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낳을 생각이 있다' 37.7%, '낳지 않을 생각이다' 24.8%,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26.9%, '생각해본 적이 없다' 10.6%로 나타남.

- 성별간 차이를 살펴보면, '낳을 생각이 있다'의 응답에 남성은 44.5%, 여성은 29.0%로 남성이 여성보다 15.5%p 높고, '낳지 않을 생각이다'의 응답에는 여성 33.2%, 남성 18.1%로 여성이 남성보다 15.1%p 높아, 남녀 차이가 큼.
- 자녀출산의향은 다양한 세부그룹의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혼인 상태가 기혼(50.7%), 직장 유형이 공무원(60.0%), 직무 유형이 관리/연구직/전문직(47.8%), 월평균 가구소득이 900만원 이상(47.1%)인 경우 '낳을 생각이 있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또한, 자녀출산의향은 결혼에 대한 생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결혼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집단은 '낳을 생각이 있다'가 54.0%, '낳지 않을 생각이다'가 11.7%인 반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집단은 '낳을 생각이다'가 7.8%, '낳지 않을 생각이다'가 48.6%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음.

**〈표 Ⅱ-3-3〉 무자녀 응답자의 자녀 출산 계획**

단위: %, (명)

| 무자녀 응답자 | 낳을 생각이 있다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 생각해본 적이 없다 | 계 | 사례수 |
|---|---|---|---|---|---|---|
| 2024년 3월 전체 | 32.6 | 29.7 | 27.8 | 9.9 | 100.0 | (1,244) |
| 2024년 9월 전체 | 37.7 | 24.8 | 26.9 | 10.6 | 100.0 | (1,470)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44.5 | 18.1 | 26.8 | 10.6 | 100.0 | (821) |
| 여성 | 29.0 | 33.2 | 27.1 | 10.7 | 100.0 | (649) |
| $X^2$(df) | 58.031(3)*** | | | |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40.5 | 22.8 | 28.0 | 8.7 | 100.0 | (470) |
| 만30-39세 | 42.9 | 20.2 | 28.7 | 8.1 | 100.0 | (608) |
| 만40-49세 | 26.1 | 34.1 | 22.9 | 16.9 | 100.0 | (392) |
| $X^2$(df) | 62.973(6)*** | | | |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만25-29세 남성 | 51.5 | 12.8 | 27.0 | 8.8 | 100.0 | (250) |
| 만25-29세 여성 | 28.1 | 34.1 | 29.2 | 8.7 | 100.0 | (220) |
| 만30-39세 남성 | 49.0 | 15.2 | 26.7 | 9.2 | 100.0 | (332) |
| 만30-39세 여성 | 35.7 | 26.3 | 31.3 | 6.7 | 100.0 | (276) |
| 만40-49세 남성 | 31.2 | 27.7 | 26.8 | 14.3 | 100.0 | (240) |
| 만40-49세 여성 | 18.0 | 44.3 | 16.8 | 20.9 | 100.0 | (153) |
| $X^2$(df) | 140.658(15)*** | | | | | |
| 학력 | | | | | | |
| 고졸 이하 | 29.6 | 28.1 | 27.4 | 15.0 | 100.0 | (365) |
| 대학 재/졸 | 40.2 | 23.3 | 27.1 | 9.4 | 100.0 | (971) |
| 대학원 재/졸 | 41.3 | 26.5 | 24.6 | 7.6 | 100.0 | (134) |
| $X^2$(df) | 20.437(6)** | | | |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39.8 | 24.7 | 25.7 | 9.8 | 100.0 | (995) |
| 학업중 | 44.8 | 19.2 | 30.1 | 5.9 | 100.0 | (49) |
| 구직중 | 33.3 | 23.5 | 32.4 | 10.8 | 100.0 | (305) |
| 미취업 | 27.9 | 30.7 | 21.9 | 19.5 | 100.0 | (121) |
| $X^2$(df) | 37.255(6)*** | | | | |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가구 | 51.6 | 24.3 | 21.4 | 2.7 | 100.0 | (157) |
| 외벌이 가구 | 49.1 | 29.8 | 17.7 | 3.4 | 100.0 | (92) |

| 무자녀 응답자 | 낳을 생각이 있다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 생각해본 적이 없다 | 계 | 사례수 |
|---|---|---|---|---|---|---|
| 기타 | 35.0 | 24.4 | 28.4 | 12.2 | 100.0 | (1,222) |
| $X^2$(df) | 30.049(15)* | | | | | |
| 혼인 상태 | | | | | | |
| 미혼 | 35.4 | 24.3 | 28.4 | 11.9 | 100.0 | (1,200) |
| 기혼 | 50.7 | 26.4 | 20.0 | 2.9 | 100.0 | (248) |
| 이혼/사별 | 14.5 | 28.5 | 28.4 | 28.7 | 100.0 | (22) |
| $X^2$(df) | 34.622(3)*** | | | | | |
| 거주 지역 | | | | | | |
| 대도시 | 35.2 | 25.0 | 27.9 | 11.9 | 100.0 | (685) |
| 중소도시 | 40.3 | 25.0 | 25.6 | 9.1 | 100.0 | (622) |
| 농어촌 | 37.6 | 22.9 | 28.2 | 11.3 | 100.0 | (163) |
| $X^2$(df) | 5.967(6) | | | |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60.8 | 14.5 | 21.4 | 3.3 | 100.0 | (88) |
| 공공기관 | 44.3 | 18.4 | 27.3 | 9.9 | 100.0 | (111) |
| 대기업 | 39.0 | 22.5 | 26.6 | 11.9 | 100.0 | (93) |
| 중소기업 | 34.6 | 28.6 | 26.6 | 10.3 | 100.0 | (500) |
| 기타 | 42.9 | 22.7 | 22.4 | 12.0 | 100.0 | (125) |
| 근로자 외 | 39.4 | 26.1 | 26.9 | 7.5 | 100.0 | (78) |
| $X^2$(df) | 19.187(18) | | | | |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38.2 | 19.5 | 28.3 | 14.1 | 100.0 | (135) |
| 경영/행정/사무직 | 38.9 | 26.5 | 27.5 | 7.1 | 100.0 | (370) |
| 영업/판매직 | 40.7 | 26.6 | 19.5 | 13.3 | 100.0 | (45) |
| 서비스직 | 35.4 | 30.1 | 23.9 | 10.6 | 100.0 | (142) |
| 관리/연구직/전문직 | 47.8 | 20.3 | 21.1 | 10.8 | 100.0 | (167) |
| 단순직 등 기타 | 37.6 | 20.8 | 29.6 | 12.0 | 100.0 | (59) |
| 근로자 외 | 39.4 | 26.1 | 26.9 | 7.5 | 100.0 | (78) |
| $X^2$(df) | 59.140(12)*** | | | |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30.9 | 20.8 | 25.5 | 22.8 | 100.0 | (150)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4.1 | 24.4 | 28.2 | 13.3 | 100.0 | (487)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40.9 | 23.6 | 27.3 | 8.2 | 100.0 | (424)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33.3 | 28.1 | 33.6 | 4.9 | 100.0 | (182) |
| 900만원 이상 | 47.1 | 27.6 | 19.2 | 6.1 | 100.0 | (228) |
| $X^2$(df) | 444.781(3)*** | | | |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7.8 | 48.6 | 23.9 | 19.6 | 100.0 | (521) |
| 긍정적 | 54.0 | 11.7 | 28.6 | 5.7 | 100.0 | (950) |
| $X^2$(df) | 2,958.000(6)*** | | | | | |

* $p < .05$, ** $p < .01$, *** $p < .001$

### 나) 무자녀 응답자의 자녀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

□ 무자녀 응답자 중 출산의향 응답에 '낳지 않을 생각이다' 또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에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1~3순위로 물었음.

- 자녀 출산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1순위 기준으로 '양육이 막연히 어렵게 느껴져서'가 35.8%, '아이가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가 19.5%, '자녀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가 14.4%로 나타났고, '양육이 막연히 어렵게 느껴져서'는 1+2순위(55.2%), 1+2+3순위(70.2%)에서도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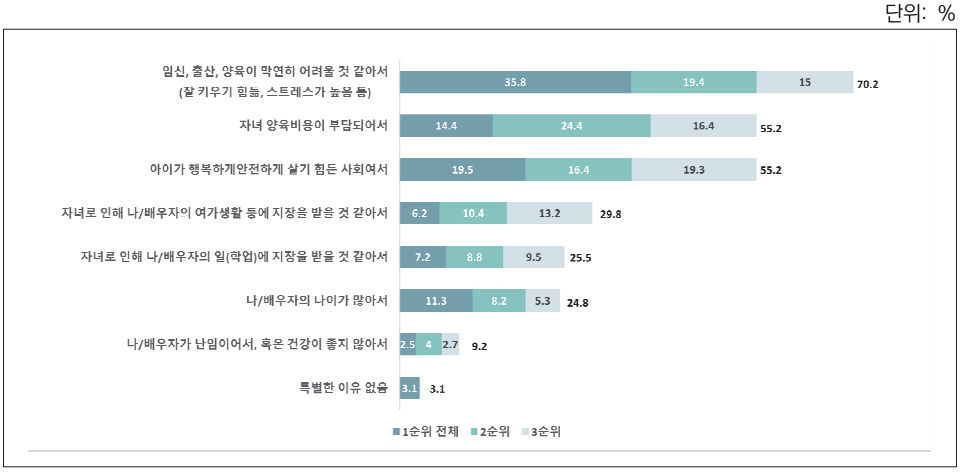
**〈표 Ⅱ-3-4〉 무자녀 응답자의 자녀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전체)**

단위: (명), %

| 무자녀 응답자 | 사례수 | 1순위 전체 | 1+2순위 전체 | 1+2+3순위 전체 |
|---|---|---|---|---|
| 임신, 출산, 양육이 막연히 어려울 것 같아서 | (760) | 35.8 | 55.2 | 70.2 |
| 아이가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 (760) | 19.5 | 35.9 | 55.2 |
| 자녀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 | (760) | 14.4 | 38.8 | 55.2 |
| 나/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 | (760) | 11.3 | 19.5 | 24.8 |
| 일(학업)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 (760) | 7.2 | 16.0 | 25.5 |
| 여가생활 등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 (760) | 6.2 | 16.6 | 29.8 |
| 나/배우자가 난임이어서 | (760) | 2.5 | 6.5 | 9.2 |
| 특별한 이유 없음 | (760) | 3.1 | 3.1 | 3.1 |

**[그림 Ⅱ-3-3] 무자녀가구 자녀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 (1+2+3순위)**

단위: %



□ 무자녀 응답자에 대해 자녀 출산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룹별 차이를 살펴보았음.

- 성별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출산·양육이 막연히 어려울 것 같아서', '자녀양육비가 부담이 되어서'가 높았던 반면, 여성의 경우 '출산·양육이 막연히 어려울 거 같아서',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가 높게 나타남.

**〈표 Ⅱ-3-5〉 무자녀 응답자의 자녀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1순위)**

단위: (명), %

| 무자녀이면서 자녀 출산 계획 없음 응답자 | 사례수 | 양육 어려움 | 일/학업 지장 | 여가 활동 지장 | 나이가 많아서 | 난임 | 양육비 부담 | 행복하게 살기힘든 사회 | 특별한 이유 없음 |
|---|---|---|---|---|---|---|---|---|---|
| 2024년 3월 1순위 전체 | (715) | 40.0 | 7.6 | 7.1 | 15.0 | 2.9 | 12.7 | 10.8 | 3.8 |
| 2024년 9월 1순위 전체 | (760) | 35.8 | 7.2 | 6.2 | 11.3 | 2.5 | 14.4 | 19.5 | 3.1 |
| 응답자 성별 | | | | | | | | | |
| 남성 | (369) | 30.0 | 5.8 | 9.1 | 13.0 | 2.2 | 20.1 | 16.1 | 3.8 |
| 여성 | (391) | 41.2 | 8.6 | 3.4 | 9.8 | 2.7 | 9.0 | 22.7 | 2.5 |
| $X^2$(df) | | 41.940(7)*** | | | | | | | |
| 응답자 연령 | | | | | | | | | |
| 만25-29세 | (239) | 39.0 | 10.7 | 4.8 | 0.0 | 0.9 | 16.4 | 23.3 | 4.9 |
| 만30-39세 | (298) | 38.0 | 7.4 | 5.7 | 5.1 | 3.2 | 16.1 | 23.3 | 1.3 |
| 만40-49세 | (224) | 29.4 | 3.2 | 8.3 | 31.8 | 3.2 | 10.0 | 10.5 | 3.6 |
| $X^2$(df) | | 163.893(14)*** | | | | | |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 |
| 만25-29세 남성 | (99) | 39.7 | 5.5 | 6.6 | 0.0 | 1.0 | 22.4 | 17.9 | 6.9 |
| 만25-29세 여성 | (139) | 38.5 | 14.5 | 3.5 | 0.0 | 0.7 | 12.2 | 27.1 | 3.5 |
| 만30-39세 남성 | (139) | 28.5 | 7.9 | 9.2 | 5.8 | 3.5 | 24.9 | 19.7 | 0.7 |
| 만30-39세 여성 | (159) | 46.4 | 7.1 | 2.6 | 4.4 | 2.8 | 8.4 | 26.4 | 1.9 |
| 만40-49세 남성 | (131) | 24.3 | 3.9 | 11.0 | 30.5 | 1.6 | 13.2 | 10.9 | 4.7 |
| 만40-49세 여성 | (93) | 36.5 | 2.2 | 4.4 | 33.7 | 5.6 | 5.5 | 9.9 | 2.2 |
| $X^2$(df) | | 221.081(35)*** | | | | | | | |
| 학력 | | | | | | | | | |
| 고졸 이하 | (203) | 32.0 | 5.4 | 7.8 | 19.7 | 2.0 | 15.1 | 13.0 | 5.0 |
| 대학 재/졸 | (489) | 37.0 | 7.6 | 5.5 | 7.8 | 2.8 | 15.1 | 21.4 | 2.8 |
| 대학원 재/졸 | (69) | 38.2 | 10.2 | 5.9 | 11.9 | 1.4 | 7.2 | 25.2 | 0.0 |
| $X^2$(df) | | 36.331(14)** | | | | | | | |
| 취업 여부 | | | | | | | | | |
| 취업중 | (502) | 36.3 | 7.2 | 6.1 | 12.7 | 2.9 | 13.3 | 18.9 | 2.9 |
| 학업중 | (24) | 33.7 | 20.2 | 4.2 | 0.0 | 0.0 | 14.2 | 23.5 | 0.0 |
| 구직중 | (171) | 36.8 | 7.1 | 5.2 | 9.5 | 1.2 | 14.7 | 21.5 | 1.2 |
| 미취업 | (63) | 29.7 | 3.0 | 9.6 | 9.7 | 3.3 | 22.3 | 17.7 | 3.3 |
| $X^2$(df) | | 33.516(14)** | | | | | | | |

| 무자녀이면서 자녀 출산 계획 없음 응답자 | 사례수 | 양육 어려움 | 일/학업 지장 | 여가 활동 지장 | 나이가 많아서 | 난임 | 양육비 부담 | 행복하게 살기힘든 사회 | 특별한 이유 없음 |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맞벌이 가구 | (72) | 30.4 | 9.4 | 5.5 | 19.4 | 8.4 | 14.0 | 12.9 | 0.0 |
| 외벌이 가구 | (44) | 27.6 | 4.6 | 11.8 | 14.0 | 7.1 | 20.9 | 11.7 | 2.3 |
| 기타 | (645) | 36.9 | 7.2 | 5.9 | 10.3 | 1.5 | 14.0 | 20.7 | 3.5 |
| $X^2$(df) | | 36.948(35) | | | | | | | |
| 혼인 상태 | | | | | | | | | |
| 미혼 | (633) | 36.7 | 7.1 | 6.0 | 10.1 | 1.4 | 13.9 | 21.2 | 3.6 |
| 기혼 | (115) | 29.4 | 7.6 | 7.9 | 17.4 | 7.9 | 16.6 | 12.5 | 0.9 |
| 이혼/사별 | (12) | 49.6 | 8.4 | 0.0 | 16.8 | 8.7 | 16.6 | 0.0 | 0.0 |
| $X^2$(df) | | 30.171(7)*** | | | | | | | |
| 거주 지역 | | | | | | | | | |
| 대도시 | (363) | 34.0 | 8.4 | 6.4 | 13.0 | 1.7 | 14.9 | 18.9 | 2.8 |
| 중소도시 | (314) | 36.4 | 6.5 | 5.7 | 10.2 | 3.1 | 13.6 | 20.7 | 3.8 |
| 농어촌 | (83) | 41.2 | 4.8 | 6.9 | 8.6 | 3.6 | 15.0 | 17.6 | 2.2 |
| $X^2$(df) | | 7.782(14) | | | | | |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 |
| 공무원 | (32) | 43.2 | 5.8 | 9.4 | 9.8 | 3.2 | 2.9 | 22.6 | 3.1 |
| 공공기관 | (51) | 28.2 | 10.0 | 5.8 | 11.4 | 3.0 | 15.6 | 20.0 | 5.9 |
| 대기업 | (46) | 34.9 | 13.2 | 11.0 | 4.4 | 2.1 | 12.8 | 19.4 | 2.2 |
| 중소기업 | (276) | 35.0 | 6.6 | 5.8 | 14.4 | 2.6 | 15.7 | 19.3 | 0.7 |
| 기타 | (57) | 43.3 | 6.8 | 1.5 | 14.5 | 5.2 | 7.1 | 18.0 | 3.6 |
| 근로자 외 | (41) | 41.7 | 2.5 | 7.5 | 12.4 | 2.4 | 11.7 | 12.4 | 9.4 |
| $X^2$(df) | | 64.358(42)* | | | | | | | |
| 본인 직무 | | |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65) | 33.9 | 3.2 | 6.0 | 21.8 | 1.6 | 19.8 | 10.5 | 3.2 |
| 경영/행정/사무직 | (200) | 38.5 | 6.9 | 5.5 | 9.5 | 2.8 | 15.6 | 19.2 | 2.0 |
| 영업/판매직 | (21) | 42.1 | 0.0 | 18.4 | 9.8 | 0.0 | 10.0 | 19.6 | 0.0 |
| 서비스직 | (77) | 39.6 | 9.1 | 1.3 | 13.4 | 5.3 | 11.6 | 17.1 | 2.6 |
| 관리/연구직/전문직 | (69) | 30.3 | 14.6 | 5.9 | 8.8 | 4.3 | 4.3 | 30.4 | 1.4 |
| 단순직 등 기타 | (30) | 20.3 | 6.9 | 13.6 | 24.5 | 0.0 | 13.9 | 20.8 | 0.0 |
| 근로자 외 | (41) | 41.7 | 2.5 | 7.5 | 12.4 | 2.4 | 11.7 | 12.4 | 9.4 |
| $X^2$(df) | | 33.700(28) | | | | | |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
| 200만원 미만 | (69) | 22.7 | 8.9 | 6.0 | 10.4 | 1.5 | 21.8 | 21.6 | 1.5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256) | 37.5 | 7.8 | 5.5 | 12.8 | 2.4 | 16.2 | 15.2 | 2.4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216) | 37.2 | 4.6 | 18.4 | 12.7 | 2.6 | 11.9 | 22.2 | 2.6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13) | 39.0 | 6.3 | 1.3 | 7.2 | 2.6 | 13.8 | 22.3 | 2.6 |
| 900만원 이상 | (106) | 33.8 | 10.9 | 5.9 | 10.1 | 2.9 | 11.1 | 19.9 | 2.9 |
| $X^2$(df) | | 40.563(7)*** | | | | | |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 |
| 부정적 | (378) | 36.8 | 6.9 | 7.7 | 7.5 | 2.0 | 9.7 | 25.6 | 3.7 |

| 무자녀이면서 자녀 출산 계획 없음 응답자 | 사례수 | 양육 어려움 | 일/학업 지장 | 여가 활동 지장 | 나이가 많아서 | 난임 | 양육비 부담 | 행복하게 살기힘든 사회 | 특별한 이유 없음 |
|---|---|---|---|---|---|---|---|---|---|
| 긍정적 | (382) | 34.8 | 7.5 | 4.6 | 15.1 | 2.9 | 19.0 | 13.4 | 2.6 |
| $X^2$(df) | | 35.004(7)*** | | | | | | | |
| 자녀 계획 | | | | | | | | |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364) | 32.3 | 7.8 | 7.2 | 12.5 | 3.5 | 8.7 | 23.7 | 4.4 |
| 미정 | (396) | 38.9 | 6.7 | 5.2 | 10.3 | 1.5 | 19.7 | 15.7 | 2.0 |
| $X^2$(df) | | 32.690(7)*** | | | | | | | |

* p 〈 .05, ** p 〈 .01, *** p 〈 .001

### 2) 유자녀 응답자의 자녀 추가 출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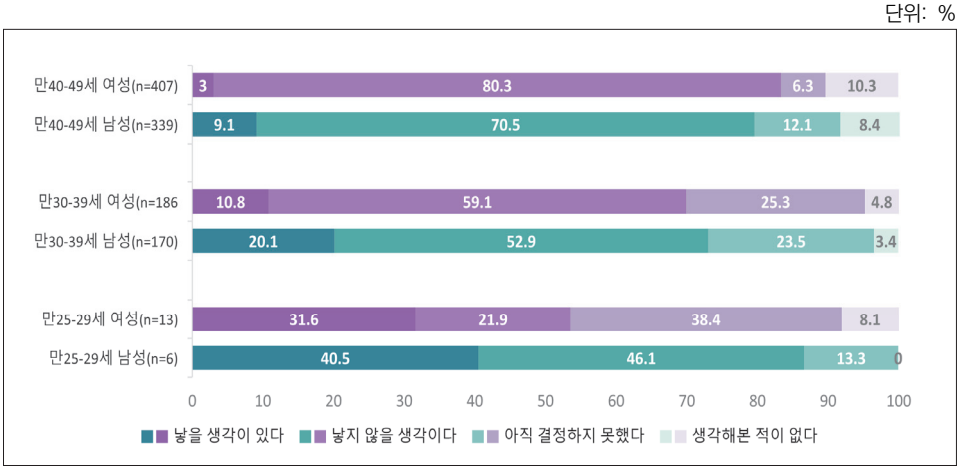
#### 가) 유자녀 응답자의 자녀 추가 출산 계획

□ 유자녀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를 더 출산할 계획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낳을 생각이 있다' 9.3%, '낳지 않을 생각이다' 68.8%,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14.2%, '생각해본 적이 없다' 7.7%로 나타남.

- 성별간 차이를 살펴보면, '낳지 않을 생각이다'의 응답에 남성은 64.4%, 여성은 72.6%로 여성이 남성보다 8.2%p 높음.
- 자녀 추가출산의향에 차이를 보인 세부그룹의 조건은 응답자 연령이 만25-29세의 경우 34.6%, 30대 15.2%, 40대 5.8%로 연령의 영향이 컸으며, 막내 자녀 연령대가 영아인 경우 '낳을 생각이 있다'가 20.2%, 유아인 경우 12.6%로 높게 나타났고, 막내자녀 연령대가 초등이상일 경우 추가 자녀출산의향이 낮게 나타났음.

**[그림 Ⅱ-3-4] 성×연령별 유자녀 가구 자녀 출산 계획**

단위: %




**〈표 Ⅱ-3-6〉 유자녀 응답자의 자녀 추가 출산 계획**

단위: %, (명)

| 유자녀 응답자 | 낳을 생각이 있다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 생각해본 적이 없다 | 계 | 사례수 |
|---|---|---|---|---|---|---|
| 2024년 3월 전체 | 10.0 | 67.1 | 15.4 | 7.5 | 100.0 | (767) |
| 2024년 9월 전체 | 9.3 | 68.8 | 14.2 | 7.7 | 100.0 | (1,122)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13.1 | 64.4 | 15.9 | 6.6 | 100.0 | (516) |
| 여성 | 6.0 | 72.6 | 12.8 | 8.6 | 100.0 | (606) |
| $X^2$(df) | 21.562(3)*** | | | |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34.6 | 30.0 | 30.0 | 5.4 | 100.0 | (19) |
| 만30-39세 | 15.2 | 56.1 | 24.5 | 4.2 | 100.0 | (356) |
| 만40-49세 | 5.8 | 75.9 | 8.9 | 9.4 | 100.0 | (747) |
| $X^2$(df) | 109.814(6)*** | | | |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만25-29세 남성 | 40.5 | 46.1 | 13.3 | 0.0 | 100.0 | (6) |
| 만25-29세 여성 | 31.6 | 21.9 | 38.4 | 8.1 | 100.0 | (13) |
| 만30-39세 남성 | 20.1 | 52.9 | 23.5 | 3.4 | 100.0 | (170) |
| 만30-39세 여성 | 10.8 | 59.1 | 25.3 | 4.8 | 100.0 | (186) |
| 만40-49세 남성 | 9.1 | 70.5 | 12.1 | 8.4 | 100.0 | (339) |
| 만40-49세 여성 | 3.0 | 80.3 | 6.3 | 10.3 | 100.0 | (407) |
| $X^2$(df) | 137.105(15)*** | | | | | |
| 학력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0.0 | 64.0 | 16.0 | 10.1 | 100.0 | (284) |
| 대학교 재학 이상 | 8.8 | 70.3 | 13.3 | 7.6 | 100.0 | (697) |

| 유자녀 응답자 | 낳을 생각이 있다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 생각해본 적이 없다 | 계 | 사례수 |
|---|---|---|---|---|---|---|
| 대학원 재학 이상 | 10.0 | 71.4 | 15.1 | 3.5 | 100.0 | (140) |
| $X^2$(df) | 7.579(6) | | | |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9.9 | 68.9 | 14.1 | 7.1 | 100.0 | (782) |
| 학업중 | 7.4 | 67.7 | 13.5 | 11.4 | 100.0 | (53) |
| 구직중 | 10.3 | 61.9 | 17.8 | 10.0 | 100.0 | (111) |
| 미취업 | 6.3 | 73.1 | 12.6 | 8.0 | 100.0 | (175) |
| $X^2$(df) | 7.126(9) | | | | |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가구 | 9.5 | 70.0 | 14.2 | 6.3 | 100.0 | (567) |
| 외벌이 가구 | 9.3 | 68.8 | 13.9 | 8.1 | 100.0 | (487) |
| 기타 | 7.3 | 59.6 | 16.5 | 16.5 | 100.0 | (68) |
| $X^2$(df) | 9.368(6) | | | | | |
| 혼인 상태 | | | | | | |
| 미혼* | 14.8 | 71.4 | 0.0 | 13.8 | 100.0 | (7) |
| 기혼 | 9.4 | 69.4 | 14.1 | 7.1 | 100.0 | (1,054) |
| 이혼/사별 | 6.5 | 58.3 | 18.4 | 16.9 | 100.0 | (61) |
| $X^2$(df) | 1.653(3) | | | | | |
| 거주 지역 | | | | | | |
| 대도시 | 10.4 | 69.1 | 15.0 | 5.5 | 100.0 | (446) |
| 중소도시 | 8.1 | 70.6 | 13.4 | 7.8 | 100.0 | (518) |
| 농어촌 | 10.0 | 62.2 | 14.3 | 13.5 | 100.0 | (157) |
| $X^2$(df) | 12.107(6) | | | |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13.4 | 62.5 | 17.8 | 6.4 | 100.0 | (74) |
| 공공기관 | 8.3 | 67.4 | 13.3 | 11.1 | 100.0 | (71) |
| 대기업 | 10.6 | 69.9 | 14.2 | 5.4 | 100.0 | (93) |
| 중소기업 | 8.0 | 69.1 | 15.4 | 7.5 | 100.0 | (359) |
| 기타 | 12.5 | 70.7 | 10.0 | 6.9 | 100.0 | (112) |
| 근로자 외 | 12.5 | 72.4 | 10.9 | 4.3 | 100.0 | (73) |
| $X^2$(df) | 9.918(15) | | | | |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9.5 | 69.5 | 13.8 | 7.2 | 100.0 | (116) |
| 경영/행정/사무직 | 8.8 | 70.7 | 12.4 | 8.1 | 100.0 | (257) |
| 영업/판매직 | 9.5 | 58.1 | 22.5 | 9.9 | 100.0 | (31) |
| 서비스직 | 14.7 | 62.9 | 16.8 | 5.5 | 100.0 | (102) |
| 관리/연구직/전문직 | 7.0 | 71.5 | 15.0 | 6.5 | 100.0 | (155) |
| 단순직 등 기타 | 12.6 | 64.5 | 14.7 | 8.2 | 100.0 | (48) |
| 근로자 외 | 12.5 | 72.4 | 10.9 | 4.3 | 100.0 | (73) |
| $X^2$(df) | 11.144(18) | | | |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14.3 | 54.0 | 10.5 | 21.2 | 100.0 | (28) |

| 유자녀 응답자 | 낳을 생각이 있다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 생각해본 적이 없다 | 계 | 사례수 |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12.3 | 60.2 | 19.2 | 8.3 | 100.0 | (172)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7.5 | 72.8 | 12.4 | 7.3 | 100.0 | (398)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7.2 | 70.5 | 14.2 | 8.2 | 100.0 | (195) |
| 900만원 이상 | 10.6 | 68.9 | 14.1 | 6.4 | 100.0 | (328) |
| $X^2$(df) | 21.231(12)* | | | |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3.6 | 74.3 | 10.0 | 12.1 | 100.0 | (217) |
| 긍정적 | 10.6 | 67.5 | 15.2 | 6.6 | 100.0 | (904) |
| $X^2$(df) | 19.631(3)*** | | | |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영아(1-4세) | 20.2 | 47.6 | 29.5 | 2.7 | 100.0 | (254) |
| 유아(5-7세) | 12.6 | 66.7 | 15.1 | 5.5 | 100.0 | (167) |
| 초등 저학년 | 5.0 | 77.2 | 9.7 | 8.1 | 100.0 | (243) |
| 초등 고학년 | 1.6 | 81.0 | 8.1 | 9.3 | 100.0 | (189) |
| 중학생 | 6.6 | 75.3 | 8.2 | 9.8 | 100.0 | (137) |
| 고등학생 | 3.7 | 80.2 | 7.3 | 8.7 | 100.0 | (82) |
| 성인자녀 | 8.4 | 60.3 | 6.3 | 25.1 | 100.0 | (49) |
| $X^2$(df) | 169.027(18)*** | | | | | |

* p < .05, *** p < .001

### 나) 유자녀 응답자의 자녀 추가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

□ 유자녀 응답자에게 자녀 추가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를 주어진 보기 중 1,2,3 순위로 선택하게 한 결과, 1순위 기준 '자녀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 25.0%, '나/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 24.8%, '자녀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 18.5%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유자녀 가구의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를 1+2+3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녀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 64.0%, '임신, 출산, 양육이 막연히 어려울 것 같아서' 52.5%, '나/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 47.0% 순으로 나타남.
- 무자녀 가구와 비교할 때 1+2+3순위 기준으로 무자녀 가구는 '자녀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가 70.0%로 가장 높은 반면, 유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64.0%로 출산계획이 없거나 결정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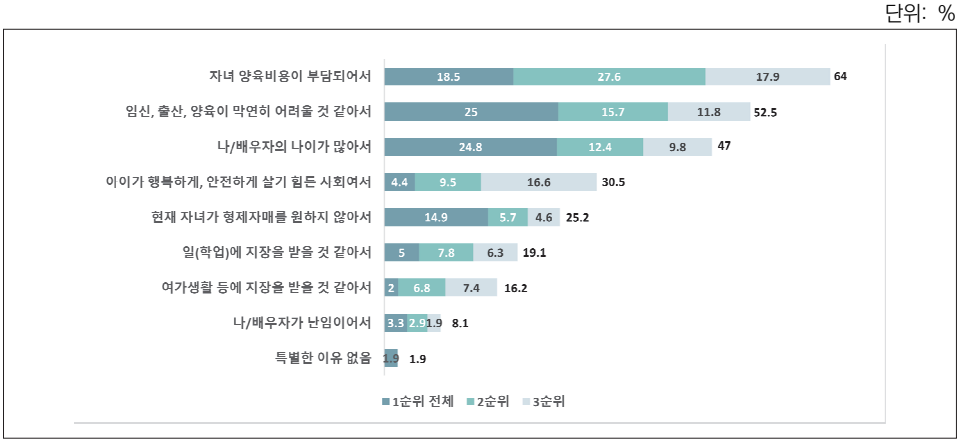
**〈표 Ⅱ-3-7〉 유자녀 응답자의 자녀 추가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전체)**

단위: (명), %

| 유자녀 응답자 | 사례수 | 1순위 전체 | 1+2순위 전체 | 1+2+3순위 전체 |
|---|---|---|---|---|
| 임신, 출산, 양육이 막연히 어려울 것 같아서 | (931) | 25.0 | 40.7 | 52.5 |
| 나/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 | (931) | 24.8 | 37.2 | 47.0 |
| 자녀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 | (931) | 18.5 | 46.1 | 64.0 |
| 현재 자녀가 형제자매를 원하지 않아서 | (931) | 14.9 | 20.6 | 25.2 |
| 일(학업)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 (931) | 5.0 | 12.8 | 19.1 |
| 아이가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 (931) | 4.4 | 13.9 | 30.5 |
| 나/배우자가 난임이어서 | (931) | 3.3 | 6.2 | 8.1 |
| 여가생활 등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 (931) | 2.0 | 8.8 | 16.2 |
| 특별한 이유 없음 | (931) | 1.9 | 1.9 | 1.9 |

**[그림 Ⅱ-3-5] 유자녀 가구 자녀 추가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1+2+3순위)**

단위: %




□ 유자녀 응답자에 대해 자녀 추가출산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룹별 차이를 살펴보았음.

- 성별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만25-29세의 경우 30대의 경우 '임신, 출산, 양육이 막연히 어려울 것 같아서' 26.6%, '자녀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 26.2%로 높게 나타났고, 40대의 경우 '나이가 많아서' 31.7%, '임신, 출산, 양육이 막연히 어려울 것 같아서' 24.5%로 높게 나타났음.[12)]

12) 만25-29세의 경우 응답대상이 11명으로 해석하지 않음.

- 막내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영유아의 경우 '양육의 어려움'. '양육비 부담'이 높게 나타났고, 막내자녀 초등 이상의 경우 '나이가 많아서'의 이유가 많았음.

**〈표 Ⅱ-3-8〉 유자녀 응답자의 자녀 추가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1순위)**

단위: (명), %

| 유자녀이면서 자녀 출산 계획 없음 응답자 | 사례수 | 양육 어려움 | 일/학업 지장 | 여가 활동 지장 | 나이가 많아서 | 난임 | 양육비 부담 | 행복하게 살기힘든 사회 | 현재 자녀 의견 | 이유 없음 |
|---|---|---|---|---|---|---|---|---|---|---|
| 2024년 3월 1순위 전체 | (633) | 25.5 | 4.7 | 1.7 | 22.4 | 3.0 | 21.0 | 3.3 | 17.0 | 1.3 |
| 2024년 9월 1순위 전체 | (931) | 25.0 | 5.0 | 2.0 | 24.8 | 3.3 | 18.5 | 4.4 | 14.9 | 1.9 |
| 응답자 성별 | | | | | | | | | | |
| 남성 | (414) | 25.6 | 5.2 | 1.8 | 24.8 | 2.7 | 20.6 | 4.1 | 13.3 | 1.9 |
| 여성 | (517) | 24.6 | 4.9 | 2.3 | 24.8 | 3.8 | 16.9 | 4.7 | 16.2 | 1.8 |
| $X^2$(df) | | 4.747(8) | | | | | | | | |
| 응답자 연령 | | | | | | | | | | |
| 만25-29세 | (11) | 16.5 | 7.4 | 19.5 | 7.4 | 0.0 | 8.7 | 8.7 | 31.7 | 0.0 |
| 만30-39세 | (287) | 26.6 | 9.3 | 2.2 | 10.4 | 2.9 | 26.2 | 5.6 | 15.4 | 1.3 |
| 만40-49세 | (633) | 24.5 | 3.0 | 1.6 | 31.7 | 3.5 | 15.2 | 3.9 | 14.4 | 2.1 |
| $X^2$(df) | | 88.431(16)*** | | | | | | |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 | |
| 만25-29세 남성 | (4) | 23.4 | 22.4 | 31.8 | 22.4 | 0.0 | 0.0 | 0.0 | 0.0 | 0.0 |
| 만25-29세 여성 | (8) | 13.1 | 0.0 | 13.5 | 0.0 | 0.0 | 13.1 | 13.1 | 47.3 | 0.0 |
| 만30-39세 남성 | (130) | 22.6 | 9.6 | 1.5 | 11.3 | 2.2 | 24.7 | 6.9 | 19.0 | 2.2 |
| 만30-39세 여성 | (157) | 29.9 | 9.1 | 2.9 | 9.6 | 3.5 | 27.5 | 4.4 | 12.5 | 0.7 |
| 만40-49세 남성 | (280) | 27.0 | 2.9 | 1.5 | 31.2 | 2.9 | 19.0 | 2.8 | 10.9 | 1.9 |
| 만40-49세 여성 | (353) | 22.5 | 3.2 | 1.7 | 32.1 | 4.0 | 12.2 | 4.7 | 17.2 | 2.3 |
| $X^2$(df) | | 118.214(40)*** | | | | | | | | |
| 학력 | | | |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28) | 17.8 | 4.8 | 1.8 | 25.1 | 4.5 | 23.3 | 5.4 | 15.5 | 1.8 |
| 대학교 재학 이상 | (582) | 27.6 | 5.1 | 1.8 | 24.1 | 2.8 | 17.7 | 4.3 | 14.5 | 2.1 |
| 대학원 재학 이상 | (121) | 26.6 | 5.1 | 3.5 | 27.7 | 3.3 | 13.5 | 3.4 | 16.0 | 0.9 |
| $X^2$(df) | | 15.151(16) | | | | | | | | |
| 취업 여부 | | | | | | | | | | |
| 취업중 | (650) | 26.2 | 5.6 | 1.9 | 23.5 | 3.3 | 18.7 | 4.2 | 14.5 | 2.0 |
| 학업중 | (43) | 33.7 | 4.8 | 4.7 | 23.6 | 4.7 | 14.3 | 4.8 | 9.5 | 0.0 |
| 구직중 | (89) | 22.5 | 6.3 | 0.0 | 20.6 | 3.4 | 25.3 | 6.9 | 13.8 | 1.2 |
| 미취업 | (150) | 19.0 | 1.9 | 2.8 | 33.6 | 2.8 | 14.9 | 4.1 | 18.9 | 2.1 |
| $X^2$(df) | | 26.090(24) | | | | | | | |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맞벌이 가구 | (477) | 26.3 | 6.5 | 2.2 | 23.7 | 3.2 | 17.3 | 4.2 | 15.1 | 1.5 |
| 외벌이 가구 | (402) | 22.7 | 3.7 | 2.1 | 27.4 | 3.6 | 19.7 | 3.8 | 15.6 | 1.5 |
| 기타 | (52) | 31.4 | 2.0 | 0.0 | 15.7 | 2.0 | 21.1 | 11.9 | 7.9 | 8.0 |
| $X^2$(df) | | 30.202(16)* | | | | | | | | |

| 유자녀이면서 자녀 출산 계획 없음 응답자 | 사례수 | 양육 어려움 | 일/학업 지장 | 여가 활동 지장 | 나이가 많아서 | 난임 | 양육비 부담 | 행복하게 살기힘든 사회 | 현재 자녀 의견 | 이유 없음 |
|---|---|---|---|---|---|---|---|---|---|---|
| 혼인 상태 | | | | | | | | | | |
| 미혼 | (5) | 0.0 | 0.0 | 0.0 | 60.0 | 0.0 | 0.0 | 0.0 | 40.0 | 0.0 |
| 기혼 | (880) | 24.7 | 5.2 | 2.2 | 25.4 | 3.4 | 18.4 | 4.0 | 15.3 | 1.5 |
| 이혼/사별 | (47) | 34.8 | 2.2 | 0.0 | 10.9 | 2.2 | 23.4 | 13.2 | 4.4 | 8.9 |
| $X^2$(df) | | 7.286(8) | | | | | | | | |
| 거주 지역 | | | | | | | | | | |
| 대도시 | (375) | 27.1 | 5.7 | 2.0 | 23.1 | 3.8 | 16.3 | 3.8 | 16.5 | 1.7 |
| 중소도시 | (436) | 22.6 | 4.1 | 2.2 | 26.4 | 2.1 | 22.7 | 5.5 | 12.3 | 2.1 |
| 농어촌 | (120) | 27.6 | 6.4 | 1.6 | 24.4 | 5.9 | 10.5 | 2.6 | 19.5 | 1.6 |
| $X^2$(df) | | 23.980(16) | | | | | | |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 | |
| 공무원 | (59) | 30.5 | 3.4 | 0.0 | 14.7 | 6.9 | 22.1 | 1.8 | 20.7 | 0.0 |
| 공공기관 | (58) | 31.6 | 9.6 | 0.0 | 20.6 | 1.9 | 19.0 | 1.7 | 15.6 | 0.0 |
| 대기업 | (78) | 24.5 | 7.9 | 5.1 | 26.2 | 3.9 | 15.4 | 1.2 | 13.1 | 2.6 |
| 중소기업 | (304) | 27.1 | 4.8 | 2.2 | 23.9 | 3.0 | 18.7 | 5.6 | 12.3 | 2.3 |
| 기타 | (91) | 19.3 | 6.8 | 2.2 | 19.3 | 3.4 | 22.8 | 2.2 | 20.5 | 3.4 |
| 근로자 외 | (61) | 24.9 | 3.3 | 0.0 | 35.3 | 1.6 | 13.2 | 8.3 | 11.6 | 1.7 |
| $X^2$(df) | | 45.726(40) | | | | | | | | |
| 본인 직무 | | | |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97) | 26.3 | 5.0 | 3.1 | 28.0 | 2.1 | 23.0 | 3.1 | 8.4 | 1.0 |
| 경영/행정/사무직 | (214) | 24.3 | 6.4 | 1.7 | 18.2 | 4.6 | 19.8 | 5.6 | 17.1 | 2.4 |
| 영업/판매직 | (25) | 19.9 | 11.4 | 0.0 | 19.7 | 0.0 | 32.4 | 4.2 | 4.0 | 8.3 |
| 서비스직 | (81) | 22.4 | 8.8 | 5.0 | 16.3 | 2.4 | 22.9 | 3.5 | 16.2 | 2.5 |
| 관리/연구직/전문직 | (134) | 34.9 | 3.7 | 0.8 | 28.0 | 4.6 | 9.2 | 1.5 | 16.0 | 1.4 |
| 단순직 등 기타 | (38) | 20.9 | 2.6 | 2.8 | 24.4 | 1.3 | 26.3 | 2.7 | 18.9 | 0.0 |
| 근로자 외 | (61) | 24.9 | 3.3 | 0.0 | 35.3 | 1.6 | 13.2 | 8.3 | 11.6 | 1.7 |
| $X^2$(df) | | 62.949(48) | | | | | | |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 |
| 200만원 미만 | (18) | 23.1 | 0.0 | 0.0 | 27.8 | 5.6 | 15.9 | 0.0 | 27.6 | 0.0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136) | 19.3 | 3.4 | 1.6 | 22.4 | 6.0 | 26.1 | 4.5 | 12.1 | 4.5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339) | 25.7 | 6.0 | 1.3 | 26.2 | 2.2 | 18.2 | 4.4 | 14.7 | 1.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 | 23.9 | 4.6 | 2.5 | 26.4 | 1.9 | 21.2 | 4.9 | 14.1 | 0.6 |
| 900만원 이상 | (272) | 28.0 | 5.3 | 3.0 | 23.3 | 4.0 | 13.7 | 4.4 | 16.2 | 2.2 |
| $X^2$(df) | | 33.307(32) | | | | | | |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 | |
| 부정적 | (183) | 36.9 | 6.4 | 1.6 | 15.1 | 5.6 | 17.2 | 6.7 | 10.0 | 0.6 |
| 긍정적 | (748) | 22.2 | 4.7 | 2.1 | 27.2 | 2.7 | 18.8 | 3.9 | 16.1 | 2.2 |
| $X^2$(df) | | 33.602(8)*** | | | | | | | | |

| 유자녀이면서 자녀 출산 계획 없음 응답자 | 사례수 | 양육 어려움 | 일/학업 지장 | 여가 활동 지장 | 나이가 많아서 | 난임 | 양육비 부담 | 행복하게 살기힘든 사회 | 현재 자녀 의견 | 이유 없음 |
|---|---|---|---|---|---|---|---|---|---|---|
| 자녀 계획 | | | | | | | | | |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772) | 24.6 | 4.1 | 2.2 | 25.6 | 3.3 | 17.2 | 4.6 | 16.5 | 1.9 |
| 미정 | (159) | 27.1 | 9.4 | 1.3 | 21.1 | 3.2 | 24.7 | 3.8 | 7.5 | 1.9 |
| $X^2$(df) | | 21.798(8)** | | | | | | |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 | |
| 영아(1-4세) | (196) | 28.2 | 9.9 | 2.2 | 15.6 | 3.1 | 22.9 | 2.1 | 13.6 | 2.5 |
| 유아(5-7세) | (137) | 22.1 | 5.8 | 2.5 | 17.1 | 4.7 | 26.1 | 4.2 | 16.6 | 0.8 |
| 초등 저학년 | (211) | 26.4 | 3.1 | 1.9 | 22.3 | 1.7 | 19.4 | 5.8 | 18.4 | 1.0 |
| 초등 고학년 | (168) | 23.0 | 4.2 | 1.9 | 31.8 | 2.5 | 15.1 | 5.4 | 14.5 | 1.8 |
| 중학생 | (114) | 23.4 | 2.6 | 3.6 | 34.6 | 2.7 | 12.5 | 2.7 | 15.2 | 2.7 |
| 고등학생 | (72) | 25.6 | 4.2 | 0.0 | 36.0 | 7.1 | 14.3 | 2.7 | 7.2 | 2.9 |
| 성인자녀 | (33) | 25.0 | 0.0 | 0.0 | 34.4 | 6.3 | 3.2 | 15.7 | 12.3 | 3.1 |
| $X^2$(df) | | 88.207(48)*** | | | | | | | | |

* p < .05, ** p < .01, *** p < .001

## 다. 조건 변화에 따른 출산의향

□ 전체 응답자에게 15가지 조건에 대하여 '다음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드십니까?'의 질문을 한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긍정 응답률이 59.5~79.6%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소득이 좀 더 많다면' 79.6%,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78.2%, '일자리가 좀 더 안정적이라면' 75.9%로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 간 차이를 보았을 때, '일찍 결혼한다면'과 '좀 더 건강하다면'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만25-29세와 30대가 40대보다 (추가) 출산에 대해 긍정 응답이 더 높았음. 만25-29세와 30대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과 '소득이 좀 더 많다면' 조건에 대하여 유사하게 긍정적인 한편, 40대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보다 '소득이 좀 더 많다면' 조건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만25-29세와 30대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과 '소득이 좀 더 많다면' 조건에 대하여 유사하게 긍정적인 한편, 40대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보다 '소득이 좀 더 많다면' 조건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남녀간 차이를 보면,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다면' 조건에 대해서는 만25-29세와 40대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추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그 외 모든 조건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긍정적이었음.
- '자녀 출산의향'에서 무자녀의 경우 '낳을 생각이 있다'가 37.7%인데 반해 유자녀의 추가출산의향은 9.3%로 현저히 차이가 있어, 조건이 더해졌을 때 출산의향도 미혼이 기혼보다, 무자녀가 유자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표 Ⅱ-3-9〉 다음 조건이 더해졌을 때 (추가) 출산의향 여부**

단위: (명), %, 점

| 전체 응답자 | 사례수 | 전체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평균 |
|---|---|---|---|---|---|---|---|---|---|
| | | | 만25-29세 | | 만30-39세 | | 만40-49세 | |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 배우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한다면 | (2,592) | 59.5 | 72.0 | 70.0 | 69.0 | 65.8 | 48.0 | 47.7 | 2.7 |
|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면 | (2,592) | 64.7 | 76.1 | 67.5 | 76.2 | 69.9 | 57.4 | 51.1 | 2.8 |
|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다면 | (2,592) | 67.0 | 75.3 | 76.3 | 75.4 | 75.1 | 55.8 | 56.6 | 2.8 |
|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 (2,592) | 70.9 | 79.3 | 76.0 | 81.0 | 76.3 | 62.2 | 60.4 | 3.0 |
|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면 | (2,592) | 68.2 | 77.2 | 72.9 | 78.8 | 73.2 | 58.7 | 58.0 | 2.9 |
| 유연근무를 할 수 있다면 | (2,592) | 70.3 | 81.5 | 73.4 | 82.0 | 73.5 | 62.2 | 59.4 | 2.9 |
|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 (2,592) | 70.4 | 77.6 | 72.3 | 79.6 | 76.2 | 64.7 | 59.0 | 2.9 |
|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시간이 주어진다면 | (2,592) | 72.1 | 83.4 | 76.5 | 82.5 | 75.5 | 63.7 | 61.4 | 2.9 |
|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 (2,592) | 78.2 | 85.4 | 77.9 | 88.8 | 82.6 | 73.1 | 67.0 | 3.1 |
| 정부의 육아 수당이 늘어난다면 | (2,592) | 72.0 | 78.0 | 71.7 | 83.3 | 74.3 | 68.7 | 60.6 | 3.0 |
| 출산 후 혜택이 늘어난다면 | (2,592) | 70.4 | 80.2 | 67.8 | 83.0 | 72.4 | 66.0 | 58.6 | 3.0 |
| 소득이 좀 더 많다면 | (2,592) | 79.6 | 87.4 | 77.6 | 87.3 | 82.7 | 76.7 | 70.6 | 3.2 |
| 일자리가 좀 더 안정적이라면 | (2,592) | 75.9 | 84.5 | 75.6 | 83.1 | 78.2 | 73.4 | 66.2 | 3.1 |
| 일찍 결혼한다면(지금 나이가 좀 더 어리다면) | (2,592) | 60.0 | 57.3 | 38.8 | 68.6 | 52.4 | 65.6 | 62.8 | 2.7 |
| 좀 더 건강하다면 | (2,592) | 66.9 | 72.5 | 56.2 | 74.5 | 64.0 | 67.1 | 64.1 | 2.8 |

주: 1) 각 항목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을 합산한 비율임.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면’,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다면’,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면’, ‘배우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한다면’의 순으로 조건에 따른 (추가) 출산의향은 긍정비율이 75%이상 85%이하 사이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모든 조건에서 40대보다는 만25-29세와 30대가, 유자녀인 경우보다 무자녀인 경우, 결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경우보다 긍정적인 경우, 막내자녀가 영아인 경우 (추가) 출산의향이 긍정적임.
- 남녀간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다면’은 유일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비율이 높은 문항으로 나타남.

**〈표 Ⅱ-3-10〉 다음 조건이 더해졌을 때 추가 출산의향 여부1**

단위: %, (명)

| 전체 응답자 | 배우자 육아참여 | 믿고 맡길만한 기관/사람 | 경력단절 안된다면 | 자유로운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무 가능 | 사례수 |
|---|---|---|---|---|---|---|
| 2024년 3월 전체 | 68.1 | 76.4 | 77.4 | 83.2 | 79.4 | (294) |
| 2024년 9월 전체 | 59.5 | 64.7 | 67.0 | 70.9 | 68.2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60.5 | 68.1 | 66.9 | 72.6 | 69.8 | (1,337) |
| 여성 | 58.5 | 61.1 | 67.1 | 69.2 | 66.4 | (1,255) |
| $X^2$(df) | 14.942(3)** | 18.337(3)*** | 13.716(3)** | 10.718(3)* | 11.476(3)**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71.1 | 72.0 | 75.8 | 77.7 | 75.2 | (489) |
| 만30-39세 | 67.5 | 73.2 | 75.3 | 78.8 | 76.1 | (964) |
| 만40-49세 | 47.8 | 54.3 | 56.2 | 61.3 | 58.4 | (1,139) |
| $X^2$(df) | 125.954(6)*** | 120.020(6)*** | 128.810(6)*** | 114.067(6)*** | 106.792(6)***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만25-29세 남성 | 72.0 | 76.1 | 75.3 | 79.3 | 77.2 | (256) |
| 만25-29세 여성 | 70.0 | 67.5 | 76.3 | 76.0 | 72.9 | (233) |
| 만30-39세 남성 | 69.0 | 76.2 | 75.4 | 81.0 | 78.8 | (502) |
| 만30-39세 여성 | 65.8 | 69.9 | 75.1 | 76.3 | 73.2 | (462) |
| 만40-49세 남성 | 48.0 | 57.4 | 55.8 | 62.2 | 58.7 | (579) |
| 만40-49세 여성 | 47.7 | 51.1 | 56.6 | 60.4 | 58.0 | (560) |
| $X^2$(df) | 153.419(15)*** | 140.087(15)*** | 150.483(15)*** | 136.274(15)*** | 127.944(15)*** | |
| 학력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58.3 | 63.1 | 63.9 | 68.6 | 67.0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60.0 | 65.3 | 67.7 | 71.7 | 68.8 | (1,668) |
| 대학원 재학 이상 | 59.6 | 64.8 | 69.6 | 71.7 | 66.7 | (275) |
| $X^2$(df) | 11.323(6) | 9.372(6) | 16.254(6)* | 11.620(6) | 11.388(6) | |

| 전체 응답자 | 배우자 육아참여 | 믿고 맡길만한 기관/사람 | 경력단절 안된다면 | 자유로운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무 가능 | 사례수 |
|---|---|---|---|---|---|---|
| 자녀 유무 | | | | | | |
| 유자녀 | 46.5 | 54.8 | 58.5 | 63.5 | 60.4 | (1,122) |
| 무자녀 | 69.5 | 72.2 | 73.5 | 76.5 | 74.1 | (1,470) |
| $X^2$(df) | 149.035(3)*** | 94.776(3)*** | 67.998(3)*** | 60.373(3)*** | 62.521(3)***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59.6 | 66.3 | 67.6 | 71.4 | 68.1 | (1,778) |
| 학업중 | 62.2 | 65.0 | 67.9 | 70.6 | 66.8 | (102) |
| 구직중 | 66.8 | 68.3 | 73.6 | 76.7 | 74.5 | (416) |
| 미취업 | 47.7 | 49.4 | 53.8 | 60.0 | 59.7 | (295) |
| $X^2$(df) | 36.163(9)*** | 43.142(9)*** | 35.711(9)*** | 32.740(9)*** | 32.631(9)*** |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가구 | 51.9 | 62.1 | 65.2 | 69.4 | 66.3 | (724) |
| 외벌이 가구 | 47.1 | 53.9 | 56.9 | 63.4 | 59.9 | (578) |
| 기타 | 69.4 | 71.0 | 72.5 | 75.2 | 72.9 | (1,290) |
| $X^2$(df) | 111.395(6)*** | 66.166(6)*** | 49.053(6)*** | 35.065(6)*** | 41.612(6)*** | |
| 혼인 상태 | | | | | | |
| 미혼 | 24.9 | 72.0 | 73.6 | 76.1 | 73.7 | (1,207) |
| 기혼 | 18.5 | 58.4 | 61.5 | 66.7 | 63.5 | (1,302) |
| $X^2$(df) | 116.078(3)*** | 54.366(3)*** | 43.848(3)*** | 30.566(3)*** | 35.242(3)*** | |
| 거주 지역 | | | | | | |
| 대도시 | 60.6 | 65.2 | 68.5 | 72.2 | 70.1 | (1,132) |
| 중소도시 | 58.3 | 64.2 | 65.9 | 70.3 | 66.9 | (1,140) |
| 농어촌 | 60.0 | 64.5 | 65.4 | 68.6 | 65.5 | (320) |
| $X^2$(df) | 4.222(6) | 4.640(6) | 2.048(6) | 3.016(6) | 7.424(6)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66.4 | 71.1 | 68.9 | 73.6 | 71.9 | (162) |
| 공공기관 | 62.8 | 68.0 | 68.3 | 69.8 | 65.5 | (182) |
| 대기업 | 61.1 | 67.6 | 69.2 | 70.4 | 69.6 | (186) |
| 중소기업 | 56.6 | 64.2 | 66.0 | 71.4 | 68.0 | (859) |
| 기타 | 59.7 | 65.2 | 68.9 | 68.9 | 67.1 | (238) |
| 근로자 외 | 63.9 | 71.5 | 70.2 | 76.2 | 68.1 | (151) |
| $X^2$(df) | 22.675(15) | 18.005(15) | 20.056(15) | 12.767(15) | 18.754(15) |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60.0 | 66.7 | 66.6 | 70.6 | 70.6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59.5 | 65.6 | 67.0 | 69.6 | 67.2 | (627) |
| 영업/판매직 | 48.3 | 55.3 | 54.1 | 68.7 | 61.7 | (76) |
| 서비스직 | 59.7 | 66.5 | 67.7 | 69.4 | 66.9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61.3 | 70.4 | 72.2 | 75.1 | 70.8 | (322) |
| 단순직 등 기타 | 56.2 | 57.9 | 64.7 | 72.2 | 67.4 | (107) |
| 근로자 외 | 63.9 | 71.5 | 70.2 | 76.2 | 68.1 | (151) |
| $X^2$(df) | 15.983(18) | 22.753(18) | 25.294(18) | 26.433(18) | 21.219(18) | |

| 전체 응답자 | 배우자 육아참여 | 믿고 맡길만한 기관/사람 | 경력단절 안된다면 | 자유로운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무 가능 | 사례수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63.2 | 65.0 | 60.5 | 66.6 | 69.9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65.5 | 69.0 | 71.3 | 74.6 | 72.2 | (65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58.0 | 63.5 | 66.7 | 71.3 | 66.7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53.3 | 61.4 | 65.3 | 67.2 | 63.2 | (377) |
| 900만원 이상 | 57.7 | 63.3 | 65.5 | 69.9 | 68.4 | (556) |
| $X^2$(df) | 29.070(12)** | 24.756(12)* | 25.995(12)* | 23.060(12)* | 35.971(12)***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42.9 | 47.6 | 53.2 | 55.7 | 53.6 | (738) |
| 긍정적 | 66.1 | 71.5 | 72.4 | 77.0 | 73.9 | (1,854) |
| $X^2$(df) | 137.376(3)*** | 160.737(3)*** | 112.587(3)*** | 142.434(3)*** | 139.440(3)*** | |
| 자녀 계획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92.0 | 93.4 | 90.8 | 93.7 | 92.0 | (658)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34.7 | 42.7 | 48.0 | 53.6 | 49.8 | (1,136) |
| 미정 | 68.1 | 72.2 | 74.4 | 76.7 | 74.7 | (798) |
| $X^2$(df) | 732.094(6)*** | 617.824(6)*** | 448.180(6)*** | 419.232(6)*** | 449.393(6)***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영아(1-4세) | 59.3 | 69.4 | 73.3 | 76.2 | 76.3 | (254) |
| 유아(5-7세) | 50.1 | 58.3 | 59.4 | 66.7 | 61.9 | (167) |
| 초등 저학년 | 40.2 | 50.4 | 56.0 | 61.4 | 55.6 | (243) |
| 초등 고학년 | 41.3 | 45.8 | 51.8 | 55.8 | 52.6 | (189) |
| 중학생 | 41.8 | 50.0 | 49.3 | 60.4 | 58.2 | (137) |
| 고등학생 | 37.8 | 46.7 | 51.5 | 51.5 | 46.6 | (82) |
| 성인자녀 | 46.0 | 52.1 | 54.2 | 56.4 | 56.4 | (49) |
| $X^2$(df) | 54.712(18)*** | 82.513(18)*** | 62.615(18)*** | 84.272(18)*** | 72.382(18)*** | |

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을 합산한 비율임.
* $p < .05$, ** $p < .01$, *** $p < .001$

□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부의 육아 수당이 늘어난다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유연근무를 할 수 있다면' 순으로 조건에 따른 (추가) 출산의향은 모두 긍정비율이 75%이상 90%이하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모든 조건에 대하여 40대보다는 만25-29세와 30대가, 유자녀인 경우보다 무자녀인 경우, 결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경우보다 긍정적인 경우, 막내자녀가 영아인 경우 (추가) 출산의향이 긍정적임.
- 성별차이로는 모든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비율이 5~9%p 높게 나타남.

**〈표 Ⅱ-3-11〉 다음 조건이 더해졌을 때 추가 출산의향 여부2**

단위: %, (명)

| 전체 응답자 | 유연근무 가능 | 재택근무 가능 | 근무시간 감소/육아 시간 증가 | 육아지원 제도 활용 시 급여층분 | 정부의 육아수당 증대 | 사례수 |
|---|---|---|---|---|---|---|
| 2024년 3월 전체 | 77.0 | 81.1 | 85.2 | 88.3 | 81.9 | (294) |
| 2024년 9월 전체 | 70.3 | 70.4 | 72.1 | 78.2 | 72.0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73.3 | 72.8 | 74.5 | 81.3 | 76.0 | (1,337) |
| 여성 | 67.2 | 67.8 | 69.4 | 74.8 | 67.7 | (1,255) |
| $X^2$(df) | 23.862(3)*** | 17.133(3)** | 15.280(3)** | 30.664(3)*** | 25.708(3)***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77.6 | 75.1 | 80.1 | 81.8 | 75.0 | (489) |
| 만30-39세 | 77.9 | 78.0 | 79.2 | 85.9 | 79.0 | (964) |
| 만40-49세 | 60.8 | 61.9 | 62.6 | 70.1 | 64.7 | (1,139) |
| $X^2$(df) | 113.341(6)*** | 91.656(6)*** | 113.853(6)*** | 94.644(6)*** | 89.407(6)***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만25-29세 남성 | 81.5 | 77.6 | 83.4 | 85.4 | 78.0 | (256) |
| 만25-29세 여성 | 73.4 | 72.3 | 76.5 | 77.9 | 71.7 | (233) |
| 만30-39세 남성 | 82.0 | 79.6 | 82.5 | 88.8 | 83.3 | (502) |
| 만30-39세 여성 | 73.5 | 76.2 | 75.5 | 82.6 | 74.3 | (462) |
| 만40-49세 남성 | 62.2 | 64.7 | 63.7 | 73.1 | 68.7 | (579) |
| 만40-49세 여성 | 59.4 | 59.0 | 61.4 | 67.0 | 60.6 | (560) |
| $X^2$(df) | 151.461(15)*** | 115.749(15)*** | 134.850(15)*** | 131.245(15)*** | 125.803(15)*** | |
| 학력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69.6 | 67.5 | 69.5 | 74.3 | 72.9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70.9 | 71.5 | 73.1 | 79.3 | 72.0 | (1,668) |
| 대학원 재학 이상 | 68.8 | 70.5 | 71.8 | 80.6 | 69.8 | (275) |
| $X^2$(df) | 11.470(6) | 19.428(6)** | 21.747(6)** | 19.433(6)** | 5.856(6) | |
| 자녀 유무 | | | | | | |
| 유자녀 | 62.4 | 63.7 | 65.1 | 73.3 | 67.1 | (1,122) |
| 무자녀 | 76.3 | 75.4 | 77.4 | 81.9 | 75.6 | (1,470) |
| $X^2$(df) | 64.986(3)*** | 49.085(3)*** | 53.720(3)*** | 36.913(3)*** | 25.987(3)***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70.4 | 70.6 | 71.9 | 79.5 | 72.9 | (1,778) |
| 학업중 | 67.6 | 69.7 | 71.5 | 71.6 | 69.6 | (102) |
| 구직중 | 77.1 | 76.1 | 78.4 | 82.9 | 75.9 | (416) |
| 미취업 | 61.5 | 61.2 | 64.0 | 65.4 | 61.3 | (295) |
| $X^2$(df) | 30.018(9)*** | 25.663(9)** | 27.263(9)** | 48.772(9)*** | 29.675(9)*** |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가구 | 69.1 | 67.4 | 69.7 | 79.4 | 71.2 | (724) |
| 외벌이 가구 | 61.8 | 66.0 | 66.1 | 72.1 | 69.6 | (578) |
| 기타 | 74.9 | 74.0 | 76.0 | 80.2 | 73.4 | (1,290) |
| $X^2$(df) | 37.513(6)*** | 26.010(6)*** | 28.143(6)*** | 25.559(6)*** | 11.408(6) | |
| 혼인 상태 | | | | | | |
| 미혼 | 75.8 | 74.6 | 76.9 | 81.1 | 74.1 | (1,207) |

| 전체 응답자 | 유연근무 가능 | 재택근무 가능 | 근무시간 감소/육아 시간 증가 | 육아지원 제도 활용 시 급여층분 | 정부의 육아수당 증대 | 사례수 |
|---|---|---|---|---|---|---|
| 기혼 | 65.8 | 66.7 | 68.1 | 76.2 | 70.5 | (1,302) |
| $X^2$(df) | 31.198(3)*** | 24.845(3)*** | 27.863(3)*** | 17.931(3)*** | 9.205(3)* | |
| 거주지역 | | | | | | |
| 대도시 | 71.8 | 73.9 | 73.4 | 80.1 | 73.6 | (1,132) |
| 중소도시 | 69.8 | 68.4 | 71.7 | 77.1 | 71.7 | (1,140) |
| 농어촌 | 67.2 | 65.0 | 68.6 | 75.1 | 67.0 | (320) |
| $X^2$(df) | 5.962(6) | 18.849(6)** | 9.915(6) | 7.482(6) | 6.379(6)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73.7 | 74.6 | 76.0 | 83.5 | 73.2 | (162) |
| 공공기관 | 67.1 | 70.7 | 72.1 | 79.9 | 75.3 | (182) |
| 대기업 | 65.7 | 71.2 | 71.6 | 82.2 | 71.4 | (186) |
| 중소기업 | 71.3 | 70.1 | 72.2 | 78.4 | 72.6 | (859) |
| 기타 | 69.8 | 65.5 | 68.2 | 74.9 | 68.7 | (238) |
| 근로자 외 | 72.2 | 76.7 | 72.0 | 85.3 | 80.1 | (151) |
| $X^2$(df) | 16.697(15) | 15.306(15) | 12.507(15) | 28.319(15)* | 19.977(15) |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69.8 | 68.1 | 72.1 | 78.8 | 73.6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68.7 | 71.2 | 73.0 | 80.3 | 71.8 | (627) |
| 영업/판매직 | 70.9 | 65.7 | 68.3 | 71.3 | 71.4 | (76) |
| 서비스직 | 68.9 | 68.5 | 69.0 | 77.5 | 75.6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73.2 | 72.7 | 73.6 | 80.3 | 71.0 | (322) |
| 단순직 등 기타 | 73.2 | 66.5 | 69.4 | 77.0 | 68.6 | (107) |
| 근로자 외 | 72.2 | 76.7 | 72.0 | 85.3 | 80.1 | (151) |
| $X^2$(df) | 22.554(18) | 21.351(18) | 21.944(18) | 26.010(18) | 29.946(18)*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71.1 | 71.4 | 72.2 | 72.1 | 67.7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75.1 | 74.0 | 76.9 | 80.9 | 76.7 | (65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69.2 | 69.8 | 70.6 | 77.8 | 72.8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67.4 | 68.3 | 69.6 | 78.5 | 69.2 | (377) |
| 900만원 이상 | 68.0 | 68.0 | 70.1 | 77.2 | 68.3 | (556) |
| $X^2$(df) | 31.193(12)** | 31.894(12)** | 27.810(12)** | 22.293(12)* | 23.646(12)*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55.7 | 56.8 | 58.4 | 64.1 | 54.8 | (738) |
| 긍정적 | 76.1 | 75.8 | 77.5 | 83.7 | 78.8 | (1,854) |
| $X^2$(df) | 141.527(3)*** | 119.149(3)*** | 134.867(3)*** | 153.045(3)*** | 196.170(3)*** | |
| 자녀 계획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94.0 | 89.8 | 93.6 | 96.7 | 93.2 | (658)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52.0 | 54.7 | 55.1 | 64.7 | 56.5 | (1,136) |
| 미정 | 76.9 | 76.6 | 78.5 | 82.0 | 76.4 | (798) |
| $X^2$(df) | 474.706(6)*** | 348.195(6)*** | 434.875(6)*** | 323.838(6)*** | 375.446(6)***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영아(1-4세) | 79.0 | 76.8 | 79.2 | 86.4 | 83.7 | (254) |
| 유아(5-7세) | 65.5 | 70.9 | 68.5 | 78.2 | 67.2 | (167) |

| 전체 응답자 | 유연근무 가능 | 재택근무 가능 | 근무시간 감소/육아 시간 증가 | 육아지원 제도 활용 시 급여층분 | 정부의 육아수당 증대 | 사례수 |
|---|---|---|---|---|---|---|
| 초등 저학년 | 56.4 | 57.0 | 59.4 | 69.1 | 61.8 | (243) |
| 초등 고학년 | 53.6 | 59.4 | 58.1 | 71.2 | 63.7 | (189) |
| 중학생 | 60.3 | 59.7 | 64.3 | 65.8 | 59.0 | (137) |
| 고등학생 | 49.0 | 47.7 | 51.6 | 59.0 | 56.6 | (82) |
| 성인자녀 | 58.5 | 60.6 | 60.6 | 62.7 | 60.7 | (49) |
| $X^2$(df) | 85.325(18)*** | 71.754(18)*** | 94.404(18)*** | 91.056(18)*** | 108.262(18)*** | |

주: 각 항목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을 합산한 비율임.
* p 〈 .05, ** p 〈 .01, *** p 〈 .001

□ '소득이 좀 더 많다면', '일자리가 좀 더 안정적이라면', '출산 후 혜택이 늘어난다면', '좀 더 건강하다면', '일찍 결혼한다면(지금 나이가 좀 더 어리다면)' 조건에 따른 (추가) 출산의향은 긍정비율이 78% 이상 90%이하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모든 조건에 대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유자녀인 경우보다 무자녀인 경우, 결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경우보다 긍정적인 경우, 막내자녀가 영아(1-4세)인 경우 (추가) 출산의향이 긍정적임.
- 연령간 차이를 보았을 때 '출산 후 혜택이 늘어난다면', '소득이 좀 더 많다면', '일자리가 좀 더 안정적이라면'에 대해서는 40대보다는 만25-29세와 30대가 더 긍정적인 한편, '일찍 결혼한다면(지금 나이가 좀 더 어리다면)', '좀 더 건강하다면' 조건에 대해서는 만25-29세보다는 30대와 40대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남.

**〈표 Ⅱ-3-12〉 다음 조건이 더해졌을 때 추가 출산의향 여부3**

단위: %, (명)

| 전체 응답자 | 출산 후 혜택 늘어난다면 | 소득 더 많다면 | 일자리 더 안정적 이라면 | 일찍 결혼한다면 | 좀 더 건강하다면 | 사례수 |
|---|---|---|---|---|---|---|
| 2024년 3월 전체 | 80.1 | 89.7 | 85.6 | 78.4 | 79.8 | (294) |
| 2024년 9월 전체 | 70.4 | 79.6 | 75.9 | 60.0 | 66.9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75.1 | 82.7 | 79.2 | 65.2 | 70.9 | (1,337) |
| 여성 | 65.4 | 76.3 | 72.4 | 54.5 | 62.6 | (1,255) |
| $X^2$(df) | 32.601(3)*** | 20.059(3)*** | 19.228(3)*** | 41.109(3)*** | 27.353(3)***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74.3 | 82.8 | 80.3 | 48.5 | 64.7 | (489) |
| 만30-39세 | 77.9 | 85.1 | 80.8 | 60.8 | 69.5 | (964) |
| 만40-49세 | 62.4 | 73.7 | 69.9 | 64.3 | 65.6 | (1,139) |
| $X^2$(df) | 88.203(6)*** | 81.542(6)*** | 73.698(6)*** | 47.834(6)*** | 17.981(6)** | |

| 전체 응답자 | 출산 후 혜택 늘어난다면 | 소득 더 많다면 | 일자리 더 안정적이라면 | 일찍 결혼한다면 | 좀 더 건강하다면 | 사례수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만25-29세 남성 | 80.2 | 87.4 | 84.5 | 57.3 | 72.5 | (256) |
| 만25-29세 여성 | 67.8 | 77.6 | 75.6 | 38.8 | 56.2 | (233) |
| 만30-39세 남성 | 83.0 | 87.3 | 83.1 | 68.6 | 74.5 | (502) |
| 만30-39세 여성 | 72.4 | 82.7 | 78.2 | 52.4 | 64.0 | (462) |
| 만40-49세 남성 | 66.0 | 76.7 | 73.4 | 65.6 | 67.1 | (579) |
| 만40-49세 여성 | 58.6 | 70.6 | 66.2 | 62.8 | 64.1 | (560) |
| $X^2$(df) | 133.455(15)*** | 113.203(15)*** | 102.764(15)*** | 117.568(15)*** | 62.866(15)*** | |
| 학력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71.8 | 78.3 | 76.2 | 62.7 | 67.8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70.0 | 79.8 | 75.9 | 58.1 | 65.8 | (1,668) |
| 대학원 재학 이상 | 69.9 | 82.1 | 75.2 | 64.9 | 71.3 | (275) |
| $X^2$(df) | 2.289(6) | 6.593(6) | 1.588(6) | 11.230(6) | 8.000(6) | |
| 자녀 유무 | | | | | | |
| 유자녀 | 65.1 | 75.5 | 69.7 | 60.2 | 63.5 | (1,122) |
| 무자녀 | 74.5 | 82.8 | 80.6 | 59.8 | 69.5 | (1,470) |
| $X^2$(df) | 27.475(3)*** | 21.406(3)*** | 43.220(3)*** | 1.768(3) | 12.082(3)**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71.3 | 80.6 | 76.0 | 61.5 | 67.2 | (1,778) |
| 학업중 | 65.1 | 74.6 | 68.5 | 52.7 | 66.3 | (102) |
| 구직중 | 76.0 | 84.6 | 84.4 | 59.0 | 70.5 | (416) |
| 미취업 | 58.6 | 68.6 | 65.5 | 54.8 | 59.8 | (295) |
| $X^2$(df) | 36.891(9)*** | 35.351(9)*** | 38.923(9)*** | 13.225(9) | 15.377(9) |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가구 | 69.9 | 80.8 | 74.1 | 62.2 | 67.1 | (724) |
| 외벌이 가구 | 66.7 | 75.9 | 71.3 | 60.1 | 63.2 | (578) |
| 기타 | 72.3 | 80.7 | 79.0 | 58.7 | 68.4 | (1,290) |
| $X^2$(df) | 15.299(6)* | 6.754(6) | 15.123(6)* | 7.401(6) | 5.727(6) | |
| 혼인 상태 | | | | | | |
| 미혼 | 73.3 | 81.5 | 79.8 | 59.0 | 69.1 | (1,207) |
| 기혼 | 68.5 | 78.6 | 72.8 | 61.3 | 65.4 | (1,302) |
| $X^2$(df) | 12.061(3)** | 3.559(3) | 17.173(3)** | 3.785(3) | 4.302(3) | |
| 거주지역 | | | | | | |
| 대도시 | 72.2 | 81.7 | 77.0 | 59.4 | 66.7 | (1,132) |
| 중소도시 | 70.3 | 78.9 | 75.5 | 60.2 | 67.3 | (1,140) |
| 농어촌 | 64.3 | 74.8 | 73.2 | 61.5 | 65.6 | (320) |
| $X^2$(df) | 9.054(6) | 10.281(6) | 7.420(6) | 1.420(6) | 1.443(6)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74.9 | 82.1 | 73.4 | 62.9 | 72.3 | (162) |
| 공공기관 | 68.9 | 78.4 | 68.8 | 60.1 | 66.1 | (182) |
| 대기업 | 70.3 | 82.7 | 73.2 | 67.3 | 63.9 | (186) |
| 중소기업 | 70.7 | 80.4 | 78.1 | 60.5 | 66.6 | (859) |
| 기타 | 70.1 | 77.3 | 73.7 | 58.2 | 65.8 | (238) |
| 근로자 외 | 77.4 | 85.2 | 83.3 | 65.8 | 73.2 | (151) |
| $X^2$(df) | 18.375(15) | 16.532(15) | 22.704(15) | 10.971(15) | 15.512(15) | |

| 전체 응답자 | 출산 후 혜택 늘어난다면 | 소득 더 많다면 | 일자리 더 안정적이라면 | 일찍 결혼한다면 | 좀 더 건강하다면 | 사례수 |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75.8 | 80.3 | 76.4 | 67.7 | 72.5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69.6 | 80.5 | 76.5 | 61.0 | 64.2 | (627) |
| 영업/판매직 | 65.9 | 76.0 | 73.6 | 53.9 | 57.8 | (76) |
| 서비스직 | 71.2 | 80.8 | 74.7 | 56.5 | 66.9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69.8 | 80.5 | 72.9 | 62.4 | 68.5 | (322) |
| 단순직 등 기타 | 71.4 | 78.1 | 76.2 | 58.3 | 67.6 | (107) |
| 근로자 외 | 77.4 | 85.2 | 83.3 | 65.8 | 73.2 | (151) |
| $X^2$(df) | 30.092(18)* | 15.172(18) | 20.434(18) | 16.658(18) | 26.695(18)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65.8 | 75.0 | 71.7 | 58.2 | 66.2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74.7 | 81.9 | 80.0 | 62.0 | 70.9 | (65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70.5 | 79.4 | 76.6 | 59.8 | 66.9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67.8 | 81.6 | 76.0 | 60.2 | 63.6 | (377) |
| 900만원 이상 | 68.3 | 77.4 | 71.1 | 58.5 | 64.5 | (556) |
| $X^2$(df) | 15.589(12) | 16.897(12) | 26.347(12)* | 13.005(12) | 21.151(12)*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51.9 | 66.2 | 63.0 | 42.0 | 50.5 | (738) |
| 긍정적 | 77.8 | 85.0 | 81.0 | 67.2 | 73.4 | (1,854) |
| $X^2$(df) | 206.235(3)*** | 151.633(3)*** | 127.102(3)*** | 187.711(3)*** | 155.930(3)*** | |
| 자녀 계획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93.7 | 95.2 | 93.0 | 77.8 | 86.9 | (658)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54.8 | 67.6 | 62.4 | 49.8 | 53.7 | (1,136) |
| 미정 | 73.4 | 84.0 | 81.0 | 59.9 | 69.1 | (798) |
| $X^2$(df) | 392.684(6)*** | 276.007(6)*** | 299.849(6)*** | 180.727(6)*** | 282.644(6)***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영아(1-4세) | 78.8 | 85.4 | 77.3 | 66.2 | 71.4 | (254) |
| 유아(5-7세) | 70.6 | 76.8 | 70.4 | 59.0 | 62.6 | (167) |
| 초등 저학년 | 57.0 | 77.6 | 68.8 | 57.9 | 56.6 | (243) |
| 초등 고학년 | 60.2 | 72.5 | 69.9 | 63.5 | 65.1 | (189) |
| 중학생 | 57.5 | 70.8 | 64.0 | 53.0 | 62.8 | (137) |
| 고등학생 | 59.0 | 59.0 | 60.2 | 56.7 | 59.0 | (82) |
| 성인자녀 | 64.8 | 62.7 | 62.7 | 58.5 | 62.7 | (49) |
| $X^2$(df) | 108.588(18)*** | 87.662(18)*** | 45.386(18)*** | 32.247(18)* | 48.175(18)*** | |

주: 각 항목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을 합산한 비율임.
* $p < .05$, ** $p < .01$, *** $p < .001$

# III

# 양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01 돌봄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02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

# Ⅲ. 양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 1. 돌봄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 가. 직접 양육 희망하는 자녀연령

□ 자녀가 있는 경우와 무자녀 중 자녀를 낳을 계획인 응답자에게 '자녀를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어린이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언제까지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기를 희망하십니까?'의 질문을 한 결과, 31~36개월 27.1%, 19~24개월 26.2%, 37개월 이후 21.9%로 높게 나타났고, 평균 29.8개월이었음.

- 응답자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았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약간 더 길게 응답하였고(남 30.6개월, 여 29.0개월), 남녀를 연령에 따라 비교해보면 만25-29세 남성 33.4개월, 40대 남성 32.7개월, 40대 여성 30.0개월 순으로 길게 응답하여 차이가 있었음.
-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면, 무자녀인 경우 31.3개월로 유자녀 29.1개월보다 더 길게 나타났고, 외벌이인 경우 31.7개월로 맞벌이 가구 28.2개월보다 길었음.

**〈표 Ⅲ-1-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 없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희망하는 자녀 연령**

단위: %, (명), 개월

| 전체 | 0~6 개월 | 7~12 개월 | 13~18 개월 | 19~24 개월 | 25~30 개월 | 31~36 개월 | 37개월 이상 | 계 | 사례수 | 평균 |
|---|---|---|---|---|---|---|---|---|---|---|
| 2024년 9월 전체 | 2.7 | 14.7 | 5.1 | 26.2 | 2.4 | 27.1 | 21.9 | 100.0 | (1,675) | 29.8 |
| 응답자 성별 | | | | | | | | | | |
| 남성 | 3.3 | 14.6 | 3.6 | 24.3 | 1.8 | 27.5 | 24.9 | 100.0 | (881) | 30.6 |
| 여성 | 2.0 | 14.7 | 6.7 | 28.3 | 3.0 | 26.6 | 18.6 | 100.0 | (794) | 29.0 |
| $X^2$(df)/t | 22.016(6)** | | | | | | | | | 2.5* |
| 응답자 연령 | | | | | | | | | | |
| 만25-29세 | 5.6 | 11.7 | 2.2 | 22.7 | 1.9 | 23.6 | 32.2 | 100.0 | (209) | 31.6 |
| 만30-39세 | 2.5 | 19.1 | 7.2 | 28.1 | 3.1 | 26.1 | 13.9 | 100.0 | (617) | 27.2 |
| 만40-49세 | 2.1 | 12.2 | 4.2 | 25.7 | 2.0 | 28.7 | 25.2 | 100.0 | (849) | 31.3 |
| $X^2$(df)/F | 67.938(12)*** | | | | | | | | | 21.1***(a)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 | |
| 만25-29세 남성 | 7.4 | 9.5 | 0.7 | 16.0 | 2.2 | 27.5 | 36.7 | 100.0 | (135) | 33.4 |

| 전체 | 0~6 개월 | 7~12 개월 | 13~18 개월 | 19~24 개월 | 25~30 개월 | 31~36 개월 | 37개월 이상 | 계 | 사례수 | 평균 |
|---|---|---|---|---|---|---|---|---|---|---|
| 만25-29세 여성 | 2.6 | 15.7 | 5.0 | 34.9 | 1.3 | 16.4 | 24.1 | 100.0 | (75) | 28.5 |
| 만30-39세 남성 | 3.3 | 22.2 | 5.8 | 26.8 | 2.1 | 24.5 | 15.2 | 100.0 | (332) | 26.8 |
| 만30-39세 여성 | 1.7 | 15.5 | 8.8 | 29.6 | 4.2 | 27.9 | 12.3 | 100.0 | (285) | 27.6 |
| 만40-49세 남성 | 2.0 | 10.1 | 2.7 | 25.0 | 1.5 | 29.9 | 28.9 | 100.0 | (414) | 32.7 |
| 만40-49세 여성 | 2.1 | 14.1 | 5.6 | 26.4 | 2.5 | 27.5 | 21.7 | 100.0 | (435) | 30.0 |
| $X^2$(df)/F | 113.002(30)*** | | | | | | | | | 12.0***(a) |
| 학력 | | | |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3 | 12.8 | 5.9 | 22.6 | 2.3 | 29.4 | 22.6 | 100.0 | (393) | 30.1 |
| 대학교 재학 이상 | 2.2 | 15.1 | 4.8 | 27.3 | 2.7 | 26.3 | 21.7 | 100.0 | (1,087) | 29.7 |
| 대학원 재학 이상 | 2.2 | 16.0 | 4.6 | 27.6 | 0.9 | 26.8 | 21.8 | 100.0 | (196) | 29.8 |
| $X^2$(df)/F | 12.955(12) | | | | | | | | | 0.1 |
| 자녀 유무 | | | | | | | | | | |
| 유자녀 | 2.2 | 14.9 | 6.5 | 28.6 | 2.3 | 26.2 | 19.3 | 100.0 | (1,122) | 29.1 |
| 무자녀 | 3.8 | 14.2 | 2.1 | 21.4 | 2.5 | 28.8 | 27.2 | 100.0 | (554) | 31.3 |
| $X^2$(df)/t | 35.926(6)*** | | | | | | | | | -3.2** |
| 취업 여부 | | | | | | | | | | |
| 취업중 | 2.0 | 15.6 | 5.0 | 27.8 | 2.2 | 26.4 | 20.8 | 100.0 | (1,179) | 29.5 |
| 학업중 | 9.4 | 14.7 | 1.3 | 10.7 | 0.0 | 32.2 | 31.7 | 100.0 | (75) | 31.7 |
| 구직중 | 2.8 | 12.8 | 6.2 | 23.3 | 3.4 | 25.1 | 26.5 | 100.0 | (213) | 30.8 |
| 미취업 | 3.9 | 11.0 | 5.4 | 25.7 | 3.2 | 30.9 | 19.8 | 100.0 | (208) | 30.0 |
| $X^2$(df)/F | 57.996(18)*** | | | | | | | | | 1.2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맞벌이 가구 | 1.1 | 18.4 | 6.6 | 31.0 | 1.4 | 23.8 | 17.7 | 100.0 | (648) | 28.2 |
| 외벌이 가구 | 2.8 | 11.2 | 6.1 | 26.7 | 2.8 | 30.2 | 20.2 | 100.0 | (532) | 30.1 |
| 기타 | 4.6 | 13.5 | 2.0 | 19.4 | 3.2 | 28.0 | 29.3 | 100.0 | (496) | 31.7 |
| $X^2$(df)/F | 78.443(12)*** | | | | | | | | | 10.6***(a) |
| 혼인 상태 | | | | | | | | | | |
| 미혼 | 4.3 | 13.4 | 1.8 | 18.3 | 3.2 | 28.6 | 30.2 | 100.0 | (432) | 32.0 |
| 기혼 | 1.9 | 15.2 | 6.3 | 29.1 | 2.0 | 26.7 | 18.8 | 100.0 | (1,180) | 29.1 |
| $X^2$(df)/F | 55.400(6)*** | | | | | | | | | 3.9*** |
| 거주 지역 | | | | | | | | | | |
| 대도시 | 4.1 | 13.8 | 5.6 | 26.2 | 2.8 | 27.2 | 20.2 | 100.0 | (688) | 29.2 |
| 중소도시 | 1.1 | 14.6 | 4.9 | 25.2 | 1.9 | 27.8 | 24.4 | 100.0 | (769) | 30.8 |
| 농어촌 | 3.6 | 17.7 | 3.7 | 29.9 | 2.6 | 23.9 | 18.6 | 100.0 | (218) | 28.2 |
| $X^2$(df)/F | 26.253(12)* | | | | | | | | | 4.5*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 | |
| 공무원 | 2.3 | 17.3 | 7.1 | 30.4 | 1.7 | 26.0 | 15.2 | 100.0 | (128) | 27.7 |
| 공공기관 | 3.2 | 19.6 | 4.3 | 26.1 | 2.5 | 26.3 | 18.0 | 100.0 | (120) | 28.1 |
| 대기업 | 1.6 | 17.4 | 3.1 | 39.8 | 2.2 | 20.6 | 15.3 | 100.0 | (129) | 27.5 |
| 중소기업 | 2.1 | 13.2 | 5.5 | 26.1 | 2.3 | 27.9 | 23.0 | 100.0 | (532) | 30.4 |
| 기타 | 1.2 | 17.9 | 4.1 | 23.8 | 2.4 | 28.0 | 22.4 | 100.0 | (166) | 30.1 |
| 근로자 외 | 2.0 | 15.4 | 4.8 | 27.3 | 1.9 | 24.2 | 24.4 | 100.0 | (104) | 30.1 |
| $X^2$(df)/F | 27.588(30) | | | | | | | | | 2.1 |

| 전체 | 0~6 개월 | 7~12 개월 | 13~18 개월 | 19~24 개월 | 25~30 개월 | 31~36 개월 | 37개월 이상 | 계 | 사례수 | 평균 |
|---|---|---|---|---|---|---|---|---|---|---|
| 본인 직무 | | | |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0.6 | 11.2 | 4.2 | 27.5 | 1.2 | 27.2 | 28.1 | 100.0 | (168) | 32.1 |
| 경영/행정/사무직 | 2.7 | 13.6 | 5.2 | 29.4 | 2.8 | 27.7 | 18.5 | 100.0 | (401) | 29.2 |
| 영업/판매직 | 4.3 | 20.4 | 6.1 | 22.3 | 0.0 | 34.8 | 12.1 | 100.0 | (50) | 27.2 |
| 서비스직 | 2.6 | 19.1 | 5.8 | 24.1 | 2.6 | 26.9 | 18.9 | 100.0 | (152) | 28.6 |
| 관리/연구직/전문직 | 0.8 | 18.6 | 4.7 | 28.9 | 3.0 | 24.9 | 19.1 | 100.0 | (235) | 28.9 |
| 단순직 등 기타 | 2.8 | 17.3 | 4.8 | 28.6 | 0.0 | 18.9 | 27.6 | 100.0 | (70) | 29.8 |
| 근로자 외 | 2.0 | 15.4 | 4.8 | 27.3 | 1.9 | 24.2 | 24.4 | 100.0 | (104) | 30.1 |
| $X^2$(df)/F | 32.388(36) | | | | | | | | | 1.7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 |
| 200만원 미만 | 8.1 | 14.5 | 4.1 | 20.3 | 1.4 | 26.5 | 25.1 | 100.0 | (75) | 29.4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 | 11.8 | 3.4 | 23.2 | 3.3 | 31.2 | 24.1 | 100.0 | (338) | 31.2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2.0 | 13.9 | 4.7 | 27.5 | 2.4 | 27.9 | 21.6 | 100.0 | (572) | 30.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9 | 17.8 | 7.6 | 24.4 | 1.6 | 27.4 | 19.4 | 100.0 | (256) | 28.8 |
| 900만원 이상 | 2.9 | 16.1 | 5.5 | 28.9 | 2.3 | 22.8 | 21.5 | 100.0 | (435) | 29.0 |
| $X^2$(df)/F | 33.282(24) | | | | | | | | | 1.9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 | |
| 부정적 | 2.8 | 9.8 | 4.7 | 26.4 | 2.7 | 29.8 | 23.8 | 100.0 | (258) | 31.3 |
| 긍정적 | 2.7 | 15.5 | 5.1 | 26.2 | 2.3 | 26.6 | 21.6 | 100.0 | (1,417) | 29.6 |
| $X^2$(df)/t | 6.608(6) | | | | | | | | | 2.0* |
| 자녀 계획 | | | |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3.9 | 15.1 | 2.9 | 23.2 | 2.3 | 27.7 | 24.9 | 100.0 | (658) | 30.4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1.9 | 14.3 | 6.0 | 28.3 | 1.7 | 27.5 | 20.3 | 100.0 | (772) | 29.6 |
| 미정 | 1.6 | 14.5 | 8.1 | 28.0 | 5.0 | 23.9 | 18.9 | 100.0 | (246) | 28.9 |
| $X^2$(df)/F | 28.589(12)** | | | | | | | | | 1.5(a)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 | |
| 영아(1-4세) | 2.1 | 22.3 | 13.4 | 36.5 | 2.7 | 16.0 | 7.0 | 100.0 | (254) | 23.4 |
| 유아(5-7세) | 2.5 | 19.2 | 6.4 | 29.4 | 3.1 | 27.4 | 12.1 | 100.0 | (167) | 27.0 |
| 초등 저학년 | 2.8 | 7.1 | 3.5 | 38.0 | 1.9 | 25.5 | 21.1 | 100.0 | (243) | 30.5 |
| 초등 고학년 | 1.1 | 16.5 | 6.0 | 19.2 | 1.7 | 33.8 | 21.8 | 100.0 | (189) | 30.7 |
| 중학생 | 1.4 | 11.2 | 3.0 | 19.4 | 1.5 | 33.0 | 30.4 | 100.0 | (137) | 33.3 |
| 고등학생 | 2.3 | 11.4 | 2.5 | 19.9 | 2.3 | 22.5 | 39.2 | 100.0 | (82) | 34.1 |
| 성인자녀 | 4.0 | 10.6 | 4.2 | 14.9 | 4.3 | 37.4 | 24.7 | 100.0 | (49) | 32.3 |
| $X^2$(df)/F | 161.430(36)*** | | | | | | | | | 17.2***(a) |

* p < .05, ** p < .01, *** p < .001

## 나.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전체 응답자에게 '맞벌이 가구에서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을 질문한 결과, 육아시간 확보가 4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16.2%, 배우자 간 평등한 육아 분담 14.4%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았을 때, 남녀 모두 육아시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았으나,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응답하였으며, 1순위 응답 중 두 번째 순위는 남성의 경우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인 한편 여성의 경우 '배우자 간 평등한 육아 분담'으로 차이가 있었음.
- 응답자 연령에 따라 비교해보면 모든 연령에서 육아시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특히 만25-29세에서 이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한 것이 만25-29세는 배우자 간 평등한 육아 분담, 30대는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40대는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 기회 및 시간 보장으로 차이가 있었음.
-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육아시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와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 상대적으로 배우자 간 평등한 육아 분담에 대한 요구가 높아 차이가 있었음.

**〈표 Ⅲ-1-2〉 맞벌이 가구에서 일·가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1순위)**

단위: %, (명)

| 전체 응답자 | 육아시간 확보 | 기관 돌봄이용 시간보장 | 돌봄인력 지원확대 | 배우자간 평등한 육아 분담 | 육아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 자녀유무 상관없는 유연 근무제 이용 | 기타 | 계 | 사례수 |
|---|---|---|---|---|---|---|---|---|---|
| 2024년 3월 1순위 전체 | 38.8 | 15.7 | 6.5 | 14.9 | 18.3 | 5.2 | 0.6 | 100.0 | (2,011) |
| 2024년 9월 1+2순위 전체 | 60.6 | 36.0 | 17.7 | 25.1 | 41.5 | 17.2 | 1.9 | - | (2,592) |
| 2024년 9월 1순위 전체 | 40.7 | 13.6 | 6.5 | 14.4 | 16.2 | 7.4 | 1.2 | 100.0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 | | |
| 남성 | 43.1 | 15.9 | 8.7 | 6.3 | 17.1 | 7.4 | 1.5 | 100.0 | (1,337) |
| 여성 | 38.2 | 11.2 | 4.1 | 23.1 | 15.1 | 7.4 | 0.8 | 100.0 | (1,255) |
| $X^2$(df) | 166.815(6)*** | | | | | | | | |

| 전체 응답자 | 육아시간 확보 | 기관 돌봄이용 시간보장 | 돌봄인력 지원확대 | 배우자간 평등한 육아 분담 | 육아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 자녀유무 상관없는 유연 근무제 이용 | 기타 | 계 | 사례수 |
|---|---|---|---|---|---|---|---|---|---|
| 응답자 연령 | | | | | | | | | |
| 만25-29세 | 43.6 | 8.0 | 3.6 | 18.5 | 16.9 | 8.6 | 0.7 | 100.0 | (489) |
| 만30-39세 | 40.8 | 15.1 | 5.6 | 12.6 | 18.0 | 6.6 | 1.3 | 100.0 | (964) |
| 만40-49세 | 39.5 | 14.8 | 8.4 | 14.1 | 14.3 | 7.6 | 1.2 | 100.0 | (1,139) |
| $X^2$(df) | 44.143(12)*** | | | | | | |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 |
| 만25-29세 남성 | 48.2 | 9.8 | 6.6 | 6.8 | 19.0 | 8.6 | 1.0 | 100.0 | (256) |
| 만25-29세 여성 | 38.6 | 6.0 | 0.4 | 31.4 | 14.6 | 8.6 | 0.4 | 100.0 | (233) |
| 만30-39세 남성 | 42.9 | 16.8 | 7.1 | 6.7 | 18.5 | 6.2 | 1.8 | 100.0 | (502) |
| 만30-39세 여성 | 38.4 | 13.3 | 4.0 | 19.1 | 17.4 | 7.0 | 0.8 | 100.0 | (462) |
| 만40-49세 남성 | 41.1 | 17.9 | 11.0 | 5.7 | 15.1 | 7.8 | 1.4 | 100.0 | (579) |
| 만40-49세 여성 | 37.8 | 11.7 | 5.8 | 22.9 | 13.5 | 7.3 | 1.1 | 100.0 | (560) |
| $X^2$(df) | 225.723(30)*** | | | | | | | | |
| 학력 | | |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8.6 | 13.8 | 8.5 | 15.9 | 14.9 | 7.9 | 0.3 | 100.0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41.4 | 13.9 | 5.6 | 13.6 | 16.3 | 7.6 | 1.6 | 100.0 | (1,668) |
| 대학원 재학 이상 | 41.8 | 11.4 | 7.0 | 15.6 | 18.3 | 5.2 | 0.7 | 100.0 | (275) |
| $X^2$(df) | 20.894(12) | | | | | | | | |
| 자녀 유무 | | | | | | | | | |
| 유자녀 | 43.9 | 15.4 | 7.5 | 11.5 | 15.2 | 5.5 | 1.0 | 100.0 | (1,122) |
| 무자녀 | 38.3 | 12.3 | 5.7 | 16.6 | 16.9 | 8.8 | 1.3 | 100.0 | (1,470) |
| $X^2$(df) | 35.311(6)*** | | | | | | | | |
| 취업 여부 | | | | | | | | | |
| 취업중 | 41.5 | 13.9 | 7.1 | 13.5 | 15.3 | 7.2 | 1.4 | 100.0 | (1,778) |
| 학업중 | 38.1 | 13.6 | 7.7 | 14.1 | 19.9 | 5.7 | 1.0 | 100.0 | (102) |
| 구직중 | 42.6 | 12.0 | 5.0 | 15.5 | 16.4 | 7.5 | 1.0 | 100.0 | (416) |
| 미취업 | 34.5 | 14.6 | 4.2 | 18.3 | 19.5 | 8.9 | 0.0 | 100.0 | (295) |
| $X^2$(df) | 23.997(18) | | | | | | | |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맞벌이 가구 | 44.6 | 14.3 | 7.7 | 11.4 | 15.4 | 5.3 | 1.2 | 100.0 | (724) |
| 외벌이 가구 | 40.4 | 17.2 | 7.2 | 10.2 | 17.1 | 6.6 | 1.2 | 100.0 | (578) |
| 기타 | 38.7 | 11.7 | 5.5 | 18.0 | 16.2 | 8.9 | 1.1 | 100.0 | (1,290) |
| $X^2$(df) | 48.382(12)*** | | | | | | | | |
| 혼인 상태 | | | | | | | | | |
| 미혼 | 38.2 | 11.9 | 5.3 | 18.2 | 16.2 | 9.1 | 1.1 | 100.0 | (1,207) |
| 기혼 | 42.8 | 15.6 | 7.5 | 10.9 | 16.2 | 5.9 | 1.2 | 100.0 | (1,302) |
| 이혼/사별 | 45.6 | 8.9 | 8.2 | 14.8 | 15.1 | 6.2 | 1.3 | 100.0 | (82) |
| $X^2$(df) | 44.916(6)*** | | | | | | | | |
| 거주 지역 | | | | | | | | | |
| 대도시 | 41.5 | 13.9 | 6.4 | 14.5 | 15.4 | 7.6 | 0.7 | 100.0 | (1,132) |

| 전체 응답자 | 육아시간 확보 | 기관 돌봄이용 시간보장 | 돌봄인력 지원확대 | 배우자간 평등한 육아 분담 | 육아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 자녀유무 상관없는 유연 근무제 이용 | 기타 | 계 | 사례수 |
|---|---|---|---|---|---|---|---|---|---|
| 중소도시 | 40.5 | 13.2 | 6.3 | 13.9 | 17.1 | 7.4 | 1.7 | 100.0 | (1,140) |
| 농어촌 | 39.2 | 14.0 | 7.6 | 16.1 | 15.6 | 6.6 | 1.0 | 100.0 | (320) |
| $X^2$(df) | 9.034(12) | | | | | | |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 |
| 공무원 | 40.7 | 11.6 | 6.5 | 18.1 | 14.4 | 6.8 | 1.9 | 100.0 | (162) |
| 공공기관 | 40.6 | 14.6 | 9.5 | 9.6 | 16.5 | 7.4 | 1.8 | 100.0 | (182) |
| 대기업 | 44.1 | 16.0 | 7.7 | 9.7 | 13.3 | 6.6 | 2.6 | 100.0 | (186) |
| 중소기업 | 41.1 | 13.8 | 6.6 | 12.8 | 16.9 | 7.8 | 1.0 | 100.0 | (859) |
| 기타 | 39.1 | 13.2 | 4.3 | 18.9 | 15.6 | 8.0 | 0.9 | 100.0 | (238) |
| 근로자 외 | 46.3 | 14.0 | 12.1 | 13.7 | 8.0 | 4.1 | 1.8 | 100.0 | (151) |
| $X^2$(df) | 41.120(30) | | | | | | | | |
| 본인 직무 | | |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41.7 | 17.9 | 10.4 | 6.3 | 16.8 | 6.1 | 0.7 | 100.0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40.8 | 15.5 | 5.0 | 13.6 | 15.6 | 7.9 | 1.5 | 100.0 | (627) |
| 영업/판매직 | 45.8 | 12.8 | 8.1 | 8.1 | 11.8 | 12.0 | 1.4 | 100.0 | (76) |
| 서비스직 | 39.4 | 11.6 | 7.1 | 18.1 | 15.2 | 7.0 | 1.6 | 100.0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42.2 | 10.3 | 5.9 | 15.1 | 19.4 | 5.3 | 1.8 | 100.0 | (322) |
| 단순직 등 기타 | 37.8 | 11.3 | 8.0 | 18.1 | 11.4 | 13.3 | 0.0 | 100.0 | (107) |
| 근로자 외 | 46.3 | 14.0 | 12.1 | 13.7 | 8.0 | 4.1 | 1.8 | 100.0 | (151) |
| $X^2$(df) | 67.269(36)** | | | | | | |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
| 200만원 미만 | 36.2 | 14.1 | 6.8 | 19.9 | 12.5 | 10.0 | 0.6 | 100.0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9.3 | 12.2 | 5.8 | 14.5 | 18.9 | 8.4 | 1.1 | 100.0 | (65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40.0 | 15.7 | 6.8 | 12.9 | 16.0 | 7.6 | 0.9 | 100.0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44.8 | 11.7 | 6.0 | 14.7 | 15.6 | 5.1 | 2.0 | 100.0 | (377) |
| 900만원 이상 | 42.3 | 13.4 | 7.1 | 14.5 | 14.7 | 6.7 | 1.2 | 100.0 | (556) |
| $X^2$(df) | 28.809(24) | | | | | | |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 |
| 부정적 | 29.9 | 11.5 | 6.4 | 25.5 | 14.7 | 10.3 | 1.7 | 100.0 | (738) |
| 긍정적 | 45.0 | 14.5 | 6.5 | 10.0 | 16.8 | 6.3 | 1.0 | 100.0 | (1,854) |
| $X^2$(df) | 134.329(6)*** | | | | | | | | |
| 자녀 계획 | | |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48.8 | 13.3 | 6.2 | 9.3 | 16.2 | 5.3 | 0.9 | 100.0 | (658)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38.1 | 13.4 | 6.5 | 17.8 | 15.2 | 7.9 | 1.1 | 100.0 | (1,136) |
| 미정 | 38.0 | 14.2 | 6.7 | 13.8 | 17.5 | 8.5 | 1.4 | 100.0 | (798) |
| $X^2$(df) | 44.281(12)*** | | | | | | |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 |
| 영아(1~4세) | 51.3 | 13.3 | 8.6 | 4.3 | 17.0 | 3.9 | 1.6 | 100.0 | (254) |
| 유아(5~7세) | 45.0 | 18.8 | 7.0 | 10.9 | 12.9 | 4.7 | 0.6 | 100.0 | (167) |
| 초등 저학년 | 46.0 | 17.1 | 5.2 | 12.6 | 14.0 | 4.2 | 0.8 | 100.0 | (243) |

| 전체 응답자 | 육아시간 확보 | 기관 돌봄이용 시간보장 | 돌봄인력 지원확대 | 배우자간 평등한 육아 분담 | 육아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 자녀유무 상관없는 유연 근무제 이용 | 기타 | 계 | 사례수 |
|---|---|---|---|---|---|---|---|---|---|
| 초등 고학년 | 38.4 | 13.3 | 8.7 | 15.1 | 16.8 | 6.6 | 1.1 | 100.0 | (189) |
| 중학생 | 38.0 | 15.0 | 7.5 | 15.6 | 13.5 | 8.9 | 1.5 | 100.0 | (137) |
| 고등학생 | 33.7 | 18.4 | 7.5 | 13.7 | 18.1 | 8.6 | 0.0 | 100.0 | (82) |
| 성인자녀 | 45.8 | 10.7 | 10.4 | 16.4 | 12.5 | 4.2 | 0.0 | 100.0 | (49) |
| $X^2$(df) | 44.338(36) | | | | | | | | |

** p 〈 .01, *** p 〈 .001

□ 다음은 맞벌이 가구에서 일·가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을 맞벌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 맞벌이 응답자가 생각하는 일·가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1순위로 '육아시간 확보'로 응답한 응답자가 44.6%로 가장 많았고, '육아지원제도 사용이 자유로운 직장문화'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5.4%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맞벌이 응답자가 생각하는 '일·가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1+2순위는 '육아시간 확보'가 65.1%, '육아지원제도 사용이 자유로운 직장문화'가 42.3%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돌봄 이용시간보장'이 38.4%로 다음으로 높음.
- 특히, 응답한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나, 만25-29세 남성의 경우 '육아시간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만25-29세 여성의 경우 '육아지원제도 자유로운 직장문화'와 '기관돌봄 이용시간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음.

**〈표 Ⅲ-1-3〉 맞벌이 가구에서 일·가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1순위) - 맞벌이 응답자만**

단위: %, (명)

| 전체 응답자 | 육아시간 확보 | 기관 돌봄이용 시간보장 | 돌봄인력 지원확대 | 배우자간 평등한 육아 분담 | 육아지원 제도사용 자유로운 직장문화 | 자녀유무 상관없는 유연 근무제 이용 | 기타 | 계 | 사례수 |
|---|---|---|---|---|---|---|---|---|---|
| 2024년 9월 1+2순위 전체 | 65.1 | 38.4 | 20.5 | 19.4 | 42.3 | 12.4 | 1.9 | - | (724) |
| 2024년 9월 1순위 전체 | 44.6 | 14.3 | 7.7 | 11.4 | 15.4 | 5.3 | 1.2 | 100.0 | (724) |
| 응답자 성별 | | | | | | | | | |
| 남성 | 44.5 | 18.8 | 10.0 | 5.0 | 15.7 | 4.5 | 1.4 | 100.0 | (360) |
| 여성 | 44.8 | 9.7 | 5.5 | 17.7 | 15.1 | 6.1 | 1.1 | 100.0 | (364) |
| $X^2$(df) | 166.815(6)*** | | | | | | | | |

| 전체 응답자 | 육아시간 확보 | 기관 돌봄이용 시간보장 | 돌봄인력 지원확대 | 배우자간 평등한 육아 분담 | 육아지원 제도사용 자유로운 직장문화 | 자녀유무 상관없는 유연 근무제 이용 | 기타 | 계 | 사례수 |
|---|---|---|---|---|---|---|---|---|---|
| 응답자 연령 | | | | | | | | | |
| 만25-29세 | 42.5 | 23.0 | 3.5 | 11.1 | 15.9 | 4.0 | 0.0 | 100.0 | (25) |
| 만30-39세 | 46.7 | 14.5 | 8.6 | 6.6 | 17.1 | 4.5 | 2.0 | 100.0 | (293) |
| 만40-49세 | 43.3 | 13.5 | 7.3 | 14.9 | 14.2 | 6.0 | 0.8 | 100.0 | (405) |
| $X^2$(df) | 44.143(12)*** | | | | | | |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 |
| 만25-29세 남성 | 61.0 | 29.4 | 9.6 | 0.0 | 0.0 | 0.0 | 0.0 | 100.0 | (9) |
| 만25-29세 여성 | 31.8 | 19.3 | 0.0 | 17.5 | 25.1 | 6.3 | 0.0 | 100.0 | (16) |
| 만30-39세 남성 | 45.3 | 17.5 | 11.4 | 5.1 | 14.3 | 3.2 | 3.2 | 100.0 | (155) |
| 만30-39세 여성 | 48.2 | 11.1 | 5.5 | 8.4 | 20.1 | 5.9 | 0.7 | 100.0 | (138) |
| 만40-49세 남성 | 43.0 | 19.3 | 8.9 | 5.3 | 17.6 | 5.8 | 0.0 | 100.0 | (195) |
| 만40-49세 여성 | 43.5 | 8.1 | 5.8 | 23.8 | 11.1 | 6.2 | 1.5 | 100.0 | (210) |
| $X^2$(df) | 225.723(30)*** | | | | | | | | |
| 자녀 유무 | | | | | | | | | |
| 유자녀 | 46.7 | 14.0 | 7.7 | 11.8 | 14.6 | 4.3 | 0.9 | 100.0 | (567) |
| 무자녀 | 37.2 | 15.3 | 7.6 | 9.9 | 18.5 | 8.9 | 2.5 | 100.0 | (157) |
| $X^2$(df) | 35.311(6)*** | | | | | | | | |
| 본인 직무 | | |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45.2 | 18.9 | 6.2 | 4.9 | 17.1 | 7.7 | 0.0 | 100.0 | (81) |
| 경영/행정/사무직 | 45.9 | 15.7 | 5.7 | 10.4 | 15.5 | 5.2 | 1.5 | 100.0 | (265) |
| 영업/판매직 | 41.7 | 15.7 | 15.4 | 7.9 | 15.2 | 4.0 | 0.0 | 100.0 | (26) |
| 서비스직 | 41.4 | 13.4 | 5.7 | 17.7 | 12.9 | 6.7 | 2.3 | 100.0 | (90) |
| 관리/연구직/전문직 | 42.6 | 8.4 | 9.2 | 14.4 | 21.1 | 2.9 | 1.4 | 100.0 | (143) |
| 단순직 등 기타 | 46.2 | 11.6 | 7.6 | 11.7 | 11.4 | 11.6 | 0.0 | 100.0 | (44) |
| 근로자 외 | 47.5 | 17.5 | 13.4 | 9.6 | 8.1 | 2.7 | 1.3 | 100.0 | (75) |
| $X^2$(df) | 67.269(36)** | | | | | | |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 |
| 부정적 | 36.5 | 13.5 | 7.8 | 20.2 | 11.5 | 9.6 | 0.9 | 100.0 | (106) |
| 긍정적 | 46.0 | 14.4 | 7.7 | 9.9 | 16.1 | 4.6 | 1.3 | 100.0 | (618) |
| $X^2$(df) | 134.329(6)*** | | | | | | | | |

주: 학력, 거주지역, 본인 직장유형, 막내자녀연령대에 대해서는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삭제함.
** $p < .01$, *** $p < .001$

# 2.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

## 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게 최근 3개월 이내에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여부와 서비스(이용시간, 이용비용, 서비스 내용과 질)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72%가 이용 경험이 있었고, 서비스 만족도는 5점 척도 중 3.9~4.1점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이용률의 차이를 보았을 때, 응답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높았고, 막내 자녀 연령대가 유아인 경우 91.9%, 영아인 경우는 62.4%로 차이가 있었음.
- 맞벌이 가구의 이용률은 75.2%로 외벌이 가구 68.5%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서비스 내용과 질에 대해 약간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만족도가 약간 더 높았음.

**〈표 Ⅲ-2-1〉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단위: (명), %, 점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응답자 | 영유아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 어린이집·유치원 | | | | | |
|---|---|---|---|---|---|---|
| | 사례수 | 이용 여부 | 만족도 | | | |
| | | | 이용시간 | 이용비용 | 서비스내용과 질 | 사례수 |
| 2024년 9월 전체 | (569) | 72.0 | 4.1 | 3.9 | 4.1 | (410)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297) | 72.5 | 4.0 | 3.9 | 4.0 | (215) |
| 여성 | (271) | 71.5 | 4.1 | 4.0 | 4.2 | (194) |
| $X^2$(df)/t | | 0.064(1) | -0.9 | -0.8 | -2.1*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15) | 55.8 | 4.3 | 4.2 | 4.4 | (8) |
| 만30-39세 | (374) | 69.1 | 4.1 | 3.9 | 4.1 | (258) |
| 만40-49세 | (180) | 79.5 | 4.0 | 3.9 | 4.1 | (143) |
| $X^2$(df)/F | | 8.635(2)* | 0.8 | 0.4 | 1.0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만25-29세 남성 | (7) | 43.7 | 4.0 | 4.0 | 3.6 | (3) |
| 만25-29세 여성 | (8) | 65.5 | 4.5 | 4.3 | 4.8 | (5) |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응답자 | 영유아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 어린이집·유치원 | | | | | |
|---|---|---|---|---|---|---|
| | 사례수 | 이용 여부 | 만족도 | | | |
| | | | 이용시간 | 이용비용 | 서비스내용과 질 | 사례수 |
| 만30-39세 남성 | (189) | 70.2 | 4.1 | 3.9 | 4.1 | (133) |
| 만30-39세 여성 | (184) | 68.0 | 4.1 | 4.0 | 4.1 | (125) |
| 만40-49세 남성 | (101) | 78.7 | 4.0 | 3.9 | 4.0 | (79) |
| 만40-49세 여성 | (79) | 80.5 | 4.1 | 4.0 | 4.2 | (64) |
| X²(df)/F | | 10.059(5) | 0.6 | 0.4 | 2.1 | |
| 학력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98) | 73.4 | 4.0 | 3.8 | 4.0 | (72) |
| 대학교 재학 이상 | (366) | 71.7 | 4.1 | 4.0 | 4.1 | (262) |
| 대학원 재학 이상 | (105) | 71.9 | 4.1 | 3.9 | 4.1 | (75) |
| X²(df)/F | | 0.154(2) | 0.3 | 0.7 | 0.1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424) | 71.9 | 4.1 | 4.0 | 4.1 | (305) |
| 학업중 | (3) | 100.0 | 4.0 | 3.7 | 3.7 | (3) |
| 구직중 | (53) | 81.1 | 4.0 | 3.9 | 4.1 | (43) |
| 미취업 | (89) | 66.3 | 4.2 | 3.8 | 4.1 | (59) |
| X²(df)/F | | 4.759(3) | 0.7 | 0.6 | 0.4 |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가구 | (307) | 75.2 | 4.1 | 4.0 | 4.1 | (231) |
| 외벌이 가구 | (250) | 68.5 | 4.1 | 3.9 | 4.0 | (171) |
| 기타 | (12) | 66.2 | 4.4 | 4.5 | 4.5 | (8) |
| X²(df)/F | | 3.949(2) | 0.7 | 2.6 | 2.0 | |
| 혼인 상태 | | | | | | |
| 미혼 | (4) | 49.5 | 4.0 | 3.5 | 3.5 | (2) |
| 기혼 | (556) | 72.2 | 4.1 | 3.9 | 4.1 | (401) |
| 이혼/사별 | (8) | 74.5 | 4.5 | 4.8 | 4.8 | (6) |
| X²(df)/F | | 0.989(2) | 0.9 | 3.1* | 3.3* | |
| 거주 지역 | | | | | | |
| 대도시 | (258) | 71.4 | 4.0 | 3.9 | 4.1 | (184) |
| 중소도시 | (243) | 72.6 | 4.1 | 3.9 | 4.1 | (177) |
| 농어촌 | (68) | 72.2 | 4.3 | 4.2 | 4.3 | (49) |
| X²(df)/F | | 0.088(2) | 2.0 | 2.5 | 1.3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54) | 81.5 | 4.2 | 4.3 | 4.2 | (44) |
| 공공기관 | (45) | 74.5 | 4.1 | 4.2 | 4.2 | (33) |
| 대기업 | (59) | 77.8 | 3.9 | 3.8 | 4.0 | (46) |
| 중소기업 | (171) | 67.4 | 4.1 | 3.9 | 4.1 | (115) |
| 기타 | (51) | 64.3 | 4.2 | 4.0 | 4.0 | (33) |
| 근로자 외 | (45) | 75.9 | 4.1 | 4.0 | 4.2 | (34) |
| X²(df)/F | | 6.859(5) | 1.0(a) | 2.2 | 0.7 | |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응답자 | 영유아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 어린이집·유치원 | | | | | |
|---|---|---|---|---|---|---|
| | 사례수 | 이용 여부 | 만족도 | | | |
| | | | 이용시간 | 이용비용 | 서비스내용과 질 | 사례수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44) | 75.6 | 3.8 | 3.6 | 3.8 | (34) |
| 경영/행정/사무직 | (147) | 73.1 | 4.2 | 4.1 | 4.2 | (108) |
| 영업/판매직 | (18) | 77.6 | 3.9 | 4.1 | 4.0 | (14) |
| 서비스직 | (60) | 70.4 | 4.2 | 4.1 | 4.3 | (43) |
| 관리/연구직/전문직 | (89) | 63.0 | 3.9 | 3.8 | 4.0 | (56) |
| 단순직 등 기타 | (20) | 85.5 | 4.2 | 3.9 | 4.1 | (17) |
| 근로자 외 | (45) | 75.9 | 4.1 | 4.0 | 4.2 | (34) |
| $X^2$(df)/F | | 6.287(6) | 1.5 | 2.2* | 1.9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7) | 42.9 | 4.7 | 4.3 | 4.3 | (3)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99) | 69.0 | 4.2 | 4.0 | 4.2 | (68)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194) | 70.8 | 4.0 | 3.8 | 4.0 | (137)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99) | 77.8 | 4.1 | 4.1 | 4.2 | (77) |
| 900만원 이상 | (169) | 73.1 | 4.1 | 4.0 | 4.1 | (124) |
| $X^2$(df)/F | | 5.307(4) | 1.3 | 2.0(a) | 1.1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68) | 85.1 | 3.6 | 3.7 | 3.8 | (58) |
| 긍정적 | (501) | 70.3 | 4.2 | 4.0 | 4.2 | (352) |
| $X^2$(df)/t | | 6.541(1)* | -4.1*** | -2.4* | -3.2** | |
| 자녀 계획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89) | 66.7 | 4.2 | 3.9 | 4.2 | (60)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325) | 76.8 | 4.1 | 3.9 | 4.1 | (249) |
| 미정 | (154) | 65.1 | 4.0 | 4.0 | 4.1 | (100) |
| $X^2$(df)/F | | 9.694(2)** | 1.3 | 0.1 | 1.2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영아(1-4세) | (383) | 62.4 | 4.1 | 3.9 | 4.1 | (239) |
| 유아(5-7세) | (185) | 91.9 | 4.0 | 3.9 | 4.0 | (170) |
| $X^2$(df)/F | | 54.311(1)*** | 0.7 | 0.0 | 2.3 | |

주: 1) 이용여부 비율은 이용경험이 있는 비율임.
2)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매우 만족한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나.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게 최근 3개월 이내에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시간제 보육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여부와 서비스(이용시간, 이용비용, 서비스 내용과 질)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15.7%가 이용 경험이 있었고, 서비스 만족도는 5점 척도 중 3.5~3.6점으로 보통에서 만족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이용률의 차이를 보았을 때,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률이 높았고, 막내 자녀 연령대가 유아인 경우 21.0%로 가장 많았음.
-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20.8%로 높아 차이가 있었으며, 추가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30.9%로 추가출산의향이 없거나(13.3%) 미정(17.1%)인 경우에 비해 높았음.
- 한편,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이용률이 26.2%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해 약간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출산의향이 있는 경우와 막내 자녀가 영아인 경우 서비스의 모든 측면에 대해 만족도가 더 높았음.

**〈표 Ⅲ-2-2〉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단위: (명), %, 점

|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 |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시간제 보육기관 또는 (공공)아이돌봄서비스 | | | | | |
|---|---|---|---|---|---|---|
| | 사례수 | 이용 여부 | 만족도 | | | |
| | | | 이용시간 | 이용비용 | 서비스내용과 질 | 사례수 |
| 2024년 9월 전체 | (1,264) | 15.7 | 3.6 | 3.5 | 3.5 | (199)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615) | 16.6 | 3.6 | 3.5 | 3.5 | (102) |
| 여성 | (648) | 14.9 | 3.5 | 3.5 | 3.4 | (97) |
| $X^2$(df)/t | | 0.923(1) | 0.5 | -0.3 | 0.2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24) | 34.0 | 3.6 | 3.6 | 3.4 | (8) |
| 만30-39세 | (523) | 18.4 | 3.6 | 3.6 | 3.6 | (96) |
| 만40-49세 | (717) | 13.2 | 3.5 | 3.4 | 3.3 | (94) |
| $X^2$(df)/F | | 11.193(2)** | 0.4 | 1.6 | 1.3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만25-29세 남성 | (7) | 43.7 | 4.0 | 4.0 | 3.6 | (3) |

|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 |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시간제 보육기관 또는 (공공)아이돌봄서비스 | | | | | |
|---|---|---|---|---|---|---|
| | 사례수 | 이용 여부 | 만족도 | | | |
| | | | 이용시간 | 이용비용 | 서비스내용과 질 | 사례수 |
| 만25-29세 여성 | (17) | 30.2 | 3.5 | 3.5 | 3.3 | (5) |
| 만30-39세 남성 | (246) | 18.3 | 3.7 | 3.6 | 3.6 | (45) |
| 만30-39세 여성 | (277) | 18.5 | 3.6 | 3.7 | 3.5 | (51) |
| 만40-49세 남성 | (362) | 15.0 | 3.5 | 3.4 | 3.3 | (54) |
| 만40-49세 여성 | (354) | 11.3 | 3.5 | 3.4 | 3.4 | (40) |
| $X^2$(df)/F | | 14.182(5)* | 0.4 | 0.8 | 0.7 | |
| 학력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59) | 16.5 | 3.7 | 3.5 | 3.5 | (43) |
| 대학교 재학 이상 | (822) | 15.0 | 3.6 | 3.6 | 3.5 | (124) |
| 대학원 재학 이상 | (182) | 17.8 | 3.5 | 3.2 | 3.1 | (32) |
| $X^2$(df)/F | | 0.953(2) | 0.6 | 2.3 | 2.0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926) | 15.6 | 3.6 | 3.5 | 3.5 | (144) |
| 학업중 | (24) | 13.1 | 3.3 | 3.6 | 3.0 | (3) |
| 구직중 | (120) | 15.3 | 3.7 | 3.6 | 3.6 | (18) |
| 미취업 | (194) | 17.0 | 3.6 | 3.4 | 3.2 | (33) |
| $X^2$(df)/F | | 0.263(3) | 0.1 | 0.1 | 0.8 |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가구 | (687) | 15.5 | 3.5 | 3.5 | 3.4 | (107) |
| 외벌이 가구 | (533) | 16.4 | 3.7 | 3.6 | 3.5 | (87) |
| 기타 | (43) | 11.7 | 2.8 | 2.8 | 2.8 | (5) |
| $X^2$(df)/F | | 0.767(2) | 2.2 | 1.5 | 1.3 | |
| 혼인 상태 | | | | | | |
| 미혼 | (4) | 0.0 | - | - | - | (0) |
| 기혼 | (1,220) | 15.9 | 3.6 | 3.5 | 3.5 | (194) |
| 이혼/사별 | (39) | 12.9 | 2.8 | 2.8 | 2.8 | (5) |
| $X^2$(df)/F | | 1.017(2) | 3.1 | 2.6 | 2.1 | |
| 거주 지역 | | | | | | |
| 대도시 | (519) | 20.8 | 3.5 | 3.5 | 3.3 | (108) |
| 중소도시 | (563) | 12.7 | 3.8 | 3.6 | 3.6 | (71) |
| 농어촌 | (182) | 10.7 | 3.4 | 3.5 | 3.4 | (19) |
| $X^2$(df)/F | | 17.178(2)*** | 2.6 | 0.5 | 1.6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101) | 12.6 | 3.9 | 3.6 | 4.0 | (13) |
| 공공기관 | (83) | 14.4 | 3.4 | 3.4 | 3.6 | (12) |
| 대기업 | (125) | 20.8 | 3.5 | 3.6 | 3.3 | (26) |
| 중소기업 | (404) | 14.6 | 3.6 | 3.5 | 3.6 | (59) |
| 기타 | (122) | 14.3 | 3.6 | 3.5 | 3.4 | (17) |
| 근로자 외 | (91) | 18.8 | 3.3 | 3.5 | 3.2 | (17) |
| $X^2$(df)/F | | 4.532(5) | 0.5(a) | 0.1 | 1.0(a) | |

|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 |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시간제 보육기관 또는 (공공)아이돌봄서비스 | | | | | |
|---|---|---|---|---|---|---|
| | 사례수 | 이용 여부 | 만족도 | | | |
| | | | 이용시간 | 이용비용 | 서비스내용과 질 | 사례수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115) | 17.4 | 3.1 | 3.1 | 3.1 | (20) |
| 경영/행정/사무직 | (324) | 16.7 | 3.8 | 3.7 | 3.7 | (54) |
| 영업/판매직 | (39) | 10.4 | 2.5 | 2.7 | 2.5 | (4) |
| 서비스직 | (120) | 14.1 | 4.0 | 4.0 | 3.9 | (17) |
| 관리/연구직/전문직 | (186) | 12.9 | 3.5 | 3.6 | 3.5 | (24) |
| 단순직 등 기타 | (50) | 16.4 | 3.4 | 3.0 | 3.5 | (8) |
| 근로자 외 | (91) | 18.8 | 3.3 | 3.5 | 3.2 | (17) |
| $X^2$(df)/F | | 3.443(6) | 2.5*(a) | 2.2*(a) | 2.0(a)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19) | 26.2 | 4.2 | 4.0 | 4.2 | (5)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187) | 17.3 | 3.8 | 3.6 | 3.5 | (32)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455) | 13.3 | 3.3 | 3.3 | 3.2 | (61)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239) | 12.7 | 3.9 | 3.8 | 3.7 | (30) |
| 900만원 이상 | (363) | 19.4 | 3.6 | 3.6 | 3.4 | (70) |
| $X^2$(df)/F | | 9.158(4) | 3.1* | 1.9(a) | 2.2(a)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197) | 16.5 | 3.2 | 3.3 | 3.3 | (33) |
| 긍정적 | (1,066) | 15.6 | 3.6 | 3.6 | 3.5 | (166) |
| $X^2$(df)/t | | 0.078(1) | −2.2* | −1.7 | −1.2 | |
| 자녀 계획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117) | 30.9 | 4.1 | 4.0 | 3.9 | (36)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871) | 13.3 | 3.4 | 3.4 | 3.3 | (116) |
| 미정 | (276) | 17.1 | 3.6 | 3.5 | 3.4 | (47) |
| $X^2$(df)/F | | 24.772(2)*** | 6.6** | 4.9** | 5.5**(a)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영아(1-4세) | (413) | 16.6 | 3.9 | 3.8 | 3.8 | (69) |
| 유아(5-7세) | (270) | 21.0 | 3.6 | 3.5 | 3.4 | (57) |
| 초등 저학년 | (362) | 16.7 | 3.3 | 3.4 | 3.1 | (60) |
| 초등 고학년 | (218) | 6.0 | 3.0 | 2.9 | 3.3 | (13) |
| $X^2$(df)/F | | 21.147(3)*** | 5.4** | 3.6* | 5.3** | |

주: 1) 이용여부 비율은 이용경험이 있는 비율임.
2)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매우 만족한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다. 초등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게 최근 3개월 이내에 초등돌봄서비스(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여부와 서비스(이용시간, 이용비용, 서비스 내용과 질)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39.5%가 이용 경험이 있었고, 서비스 만족도는 5점 척도 중 3.6~3.7점으로 보통에서 만족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이용률의 차이를 보았을 때, 맞벌이 가구인 경우 51.1%로 외벌이 가구(25.8%)보다 높았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2.4%로 낮게 나타났으며, 막내 자녀 연령대가 영아인 경우 59.7%의 이용률을 나타냈음.
- 추가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55.8%로 추가출산의향이 없거나(37.1%), 미정(46.8%)인 경우에 비해 높았음.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이용률이 49.1%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경우 서비스 이용비용과 서비스 내용과 질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해 만족도가 더 높았음.

**〈표 Ⅲ-2-3〉 초등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단위: (명), %, 점

|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응답자 | 초등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 | | | | |
|---|---|---|---|---|---|---|
| | 사례수 | 이용 여부 | 만족도 | | | |
| | | | 이용시간 | 이용비용 | 서비스내용과 질 | 사례수 |
| 2024년 9월 전체 | (695) | 39.5 | 3.6 | 3.7 | 3.6 | (275)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318) | 39.3 | 3.6 | 3.6 | 3.4 | (125) |
| 여성 | (377) | 39.7 | 3.7 | 3.8 | 3.7 | (149) |
| $X^2$(df)/t | | 0.001(1) | -0.8 | -1.6 | -2.2*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9) | 32.5 | 4.4 | 4.6 | 4.6 | (3) |
| 만30-39세 | (150) | 46.3 | 3.9 | 3.9 | 3.9 | (69) |
| 만40-49세 | (537) | 37.7 | 3.6 | 3.6 | 3.5 | (203) |
| $X^2$(df)/F | | 3.741(2) | 4.4*(a) | 6.0**(a) | 8.9***(a)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만25-29세 여성 | (9) | 32.5 | 4.4 | 4.6 | 4.6 | (3) |
| 만30-39세 남성 | (57) | 48.2 | 4.0 | 3.9 | 3.9 | (27) |

|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응답자 | 초등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 | | | | |
|---|---|---|---|---|---|---|
| | 사례수 | 이용 여부 | 만족도 | | | |
| | | | 이용시간 | 이용비용 | 서비스내용과 질 | 사례수 |
| 만30-39세 여성 | (93) | 45.2 | 3.8 | 4.0 | 3.9 | (42) |
| 만40-49세 남성 | (262) | 37.4 | 3.5 | 3.5 | 3.3 | (98) |
| 만40-49세 여성 | (275) | 38.0 | 3.6 | 3.7 | 3.6 | (105) |
| $X^2$(df)/F | | 3.886(4) | 2.5*(a) | 3.4*(a) | 5.3***(a) | |
| 학력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61) | 42.0 | 3.7 | 3.8 | 3.7 | (68) |
| 대학교 재학 이상 | (456) | 37.9 | 3.6 | 3.6 | 3.5 | (173) |
| 대학원 재학 이상 | (78) | 43.8 | 3.7 | 3.9 | 3.6 | (34) |
| $X^2$(df)/F | | 1.316(2) | 0.4 | 2.2 | 0.5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502) | 45.2 | 3.6 | 3.7 | 3.6 | (227) |
| 학업중 | (21) | 19.9 | 4.2 | 4.0 | 4.0 | (4) |
| 구직중 | (67) | 33.0 | 3.8 | 4.1 | 3.9 | (22) |
| 미취업 | (105) | 20.6 | 3.4 | 3.4 | 3.4 | (22) |
| $X^2$(df)/F | | 26.438(3)*** | 1.2 | 1.8 | 1.1(a) |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가구 | (381) | 51.1 | 3.6 | 3.7 | 3.6 | (195) |
| 외벌이 가구 | (284) | 25.8 | 3.7 | 3.7 | 3.6 | (73) |
| 기타 | (31) | 22.4 | 3.4 | 3.6 | 3.7 | (7) |
| $X^2$(df)/F | | 46.729(2)*** | 0.2 | 0.1 | 0.1 | |
| 혼인 상태 | | | | | | |
| 기혼 | (664) | 40.3 | 3.7 | 3.7 | 3.6 | (268) |
| 이혼/사별 | (31) | 22.4 | 3.4 | 3.6 | 3.7 | (7) |
| $X^2$(df)/F | | 3.941(1)* | 0.9 | 0.1 | 0.2 | |
| 거주 지역 | | | | | | |
| 대도시 | (262) | 32.4 | 3.6 | 3.6 | 3.5 | (85) |
| 중소도시 | (319) | 42.2 | 3.7 | 3.7 | 3.6 | (135) |
| 농어촌 | (114) | 48.3 | 3.5 | 3.7 | 3.7 | (55) |
| $X^2$(df)/F | | 9.848(2)** | 0.9 | 0.2 | 1.0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47) | 38.3 | 3.9 | 3.9 | 3.9 | (18) |
| 공공기관 | (38) | 46.4 | 3.7 | 3.8 | 3.5 | (18) |
| 대기업 | (66) | 39.7 | 3.6 | 3.7 | 3.5 | (26) |
| 중소기업 | (233) | 48.6 | 3.6 | 3.6 | 3.5 | (113) |
| 기타 | (71) | 42.1 | 3.8 | 3.8 | 3.7 | (30) |

|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응답자 | 초등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 | | | | |
|---|---|---|---|---|---|---|
| | 사례수 | 이용 여부 | 만족도 | | | |
| | | | 이용시간 | 이용비용 | 서비스내용과 질 | 사례수 |
| 근로자 외 | (46) | 46.7 | 3.6 | 3.5 | 3.4 | (21) |
| $X^2$(df)/F | | 3.200(5) | 0.4 | 0.4 | 0.7 |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71) | 54.2 | 3.4 | 3.5 | 3.3 | (38) |
| 경영/행정/사무직 | (176) | 49.5 | 3.9 | 3.8 | 3.7 | (87) |
| 영업/판매직 | (21) | 47.5 | 3.4 | 3.2 | 3.3 | (10) |
| 서비스직 | (60) | 35.7 | 3.6 | 3.7 | 3.6 | (21) |
| 관리/연구직/전문직 | (97) | 33.8 | 3.7 | 3.8 | 3.7 | (33) |
| 단순직 등 기타 | (30) | 50.0 | 3.2 | 3.4 | 3.3 | (15) |
| 근로자 외 | (46) | 46.7 | 3.6 | 3.5 | 3.4 | (21) |
| $X^2$(df)/F | | 10.819(6) | 2.0 | 1.3(a) | 1.1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12) | 49.1 | 3.3 | 3.5 | 3.8 | (6)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89) | 31.0 | 3.9 | 4.1 | 4.0 | (28)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261) | 40.1 | 3.5 | 3.6 | 3.5 | (104)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40) | 40.6 | 3.4 | 3.4 | 3.3 | (57) |
| 900만원 이상 | (194) | 41.3 | 3.9 | 3.9 | 3.8 | (80) |
| $X^2$(df)/F | | 3.015(4) | 2.8* | 3.6** | 3.7**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130) | 34.9 | 3.4 | 3.3 | 3.2 | (45) |
| 긍정적 | (566) | 40.6 | 3.7 | 3.8 | 3.7 | (229) |
| $X^2$(df)/t | | 1.311(1) | -1.6 | -2.7** | -2.7** | |
| 자녀 계획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27) | 55.8 | 4.2 | 4.1 | 3.9 | (15)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546) | 37.1 | 3.6 | 3.6 | 3.6 | (202) |
| 미정 | (122) | 46.8 | 3.6 | 3.7 | 3.5 | (57) |
| $X^2$(df)/F | | 7.572(2)* | 3.1* | 1.9 | 1.5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영아(1-4세) | (30) | 59.7 | 3.9 | 3.9 | 3.7 | (18) |
| 유아(5-7세) | (85) | 48.6 | 4.0 | 4.2 | 4.0 | (41) |
| 초등 저학년 | (362) | 43.5 | 3.6 | 3.6 | 3.5 | (157) |
| 초등 고학년 | (218) | 26.6 | 3.5 | 3.4 | 3.4 | (58) |
| $X^2$(df)/F | | 25.099(3)*** | 4.0**(a) | 5.5** | 4.3**(a) | |

주: 1) 이용여부 비율은 이용경험이 있는 비율임.
2)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매우 만족한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Ⅳ

#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대한 인식과 수요

01 저출생 대책 발표에 대한 인지도와 중요도

02 저출생 대책 3대 분야의 인지도 및 기대효과 인식

03 3대 분야 정책 강화의 필요도

# Ⅳ.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대한 인식과 수요

## 1. 저출생 대책 발표에 대한 인지도와 중요도

### 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 및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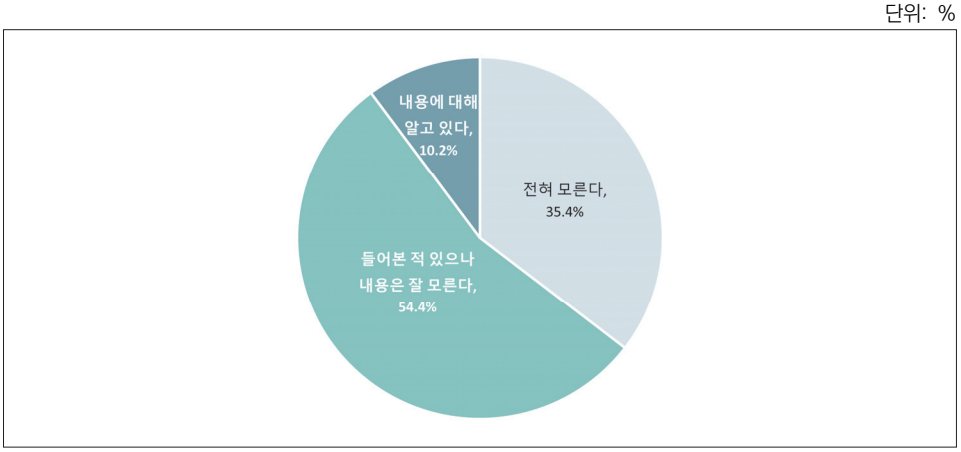
#### 1) 저출생 대책의 전반적 인지도

□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를 알기 위해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가칭)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로 응답함.

-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와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를 합산하여, 인지도 비율로 나타내면, ‘저출산 추세 반전 대책’의 인지도는 64.6%(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10.2%,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54.4%)로 나타났으며, ‘인구국가비상사태 선언’과 ‘(가칭)인구 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는 각각 76.2%와 46.0%가 인지함.

**[그림 Ⅳ-1-1]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인지 여부**

단위: %



**〈표 Ⅳ-1-1〉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전반적 인지도(전체)**

단위: %, (명)

| 구분 | 전혀 모른다 |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 계 | (수) |
|---|---|---|---|---|---|
|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35.4 | 54.4 | 10.2 | 100.0 | (2,592) |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 23.7 | 56.7 | 19.5 | 100.0 | (2,592) |
| (가칭)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 | 54.0 | 38.3 | 7.7 | 100.0 | (2,592) |

□ '저출산 추세 반전 대책'의 인지도에 대한 그룹별 차이를 살펴보았음.

- '저출산 추세 반전 대책'의 인지도는 남성이 61.3%, 만25-29세에서 55.7%로 낮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가구소득 400만원 이하, 단순직 등과 생산/제조/현장기술직 및 무자녀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반면에 막내자녀 연령이 영아인 가구에서 인지도 77.9%, 유자녀 가구에서 70.7%, 맞벌이 가구에서 인지도 73.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인구국가비상사태 선언'의 인지도에 대한 그룹별 차이를 살펴보았음.

- '인구국가비상사태 선언'의 인지도는 전체평균 76.2%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 다만, 대학원 재학 이상, 학업중, 가구소득 900만원 이상의 응답자, 결혼에 긍정적인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나타냄.

□ '(가칭)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의 인지도에 대한 그룹별 차이를 살펴보았음.

- '(가칭)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의 인지도는 전체평균 46.0%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남성, 대학원 재학 이상 학력, 맞벌이 가구, 학업중, 가구소득 900만원 이상 응답자, 공무원의 경우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영업/판매직이나 단순직 직무 응답자의 경우, 결혼에 부정적이거나,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낮은 인지도를 보였음.

**〈표 Ⅳ-1-2〉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전반적 인지도 - 인지비율**

단위: (명), %

| 구분 | 사례수 |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 (가칭)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 |
|---|---|---|---|---|
| 전체 | (2,592) | 64.6 | 76.2 | 46.0 |
| 응답자 성별 | | | | |
| 남성 | (1,337) | 61.3 | 77.1 | 50.0 |
| 여성 | (1,255) | 68.0 | 75.5 | 41.7 |
| $X^2$(df) | | 13.855(2)** | 5.532(2) | 22.681(2)*** |
| 응답자 연령 | | | | |
| 만25-29세 | (489) | 55.7 | 79.0 | 45.7 |
| 만30-39세 | (964) | 64.5 | 75.4 | 45.2 |
| 만40-49세 | (1,139) | 68.4 | 75.9 | 46.8 |
| $X^2$(df) | | 29.343(4)*** | 2.658(4) | 3.504(4)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만25-29세 남성 | (256) | 51.9 | 81.0 | 49.5 |
| 만25-29세 여성 | (233) | 59.8 | 76.8 | 41.5 |
| 만30-39세 남성 | (502) | 61.1 | 76.6 | 49.3 |
| 만30-39세 여성 | (462) | 68.2 | 74.1 | 40.6 |
| 만40-49세 남성 | (579) | 65.7 | 75.9 | 50.9 |
| 만40-49세 여성 | (560) | 71.3 | 75.9 | 42.5 |
| $X^2$(df) | | 43.819(10)*** | 11.265(10) | 30.715(10)** |
| 학력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650) | 58.9 | 75.1 | 44.3 |
| 대학교 재학 이상 | (1,668) | 65.6 | 75.7 | 45.2 |
| 대학원 재학 이상 | (275) | 71.5 | 82.7 | 54.5 |
| $X^2$(df) | | 26.801(4)*** | 18.042(4)** | 13.935(4)** |
| 자녀 유무 | | | | |
| 유자녀 | (1,122) | 70.7 | 77.2 | 48.4 |
| 무자녀 | (1,470) | 59.9 | 75.5 | 44.1 |
| $X^2$(df) | | 34.261(2)*** | 1.182(2) | 9.290(2)* |
| 취업 여부 | | | | |
| 취업중 | (1,778) | 65.4 | 76.4 | 47.5 |
| 학업중 | (102) | 67.0 | 81.7 | 52.3 |
| 구직중 | (416) | 62.2 | 78.1 | 44.5 |
| 미취업 | (295) | 61.9 | 71.5 | 36.7 |
| $X^2$(df) | | 13.918(6)* | 15.933(6)* | 17.258(6)** |
| 맞벌이 여부 | | | | |
| 맞벌이 가구 | (724) | 73.0 | 77.9 | 51.3 |
| 외벌이 가구 | (578) | 67.2 | 76.7 | 44.1 |
| 기타 | (1,290) | 58.7 | 75.2 | 43.8 |
| $X^2$(df) | | 58.412(4)*** | 4.594(4) | 14.707(4)** |
| 혼인 상태 | | | | |
| 미혼 | (1,207) | 58.8 | 75.1 | 43.9 |
| 기혼 | (1,302) | 70.5 | 77.4 | 48.1 |

| 구분 | 사례수 |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 (가칭)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 |
|---|---|---|---|---|
| 이혼/사별 | (82) | 55.7 | 75.4 | 42.0 |
| $X^2$(df) | | 42.503(2)*** | 2.096(2) | 6.421(2)* |
| 거주 지역 | | | | |
| 대도시 | (1,132) | 64.6 | 77.1 | 47.1 |
| 중소도시 | (1,140) | 63.9 | 76.5 | 45.4 |
| 농어촌 | (320) | 66.9 | 72.7 | 43.9 |
| $X^2$(df) | | 8.310(4) | 3.298(4) | 2.996(4)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공무원 | (162) | 73.5 | 79.5 | 56.4 |
| 공공기관 | (182) | 72.0 | 78.9 | 54.5 |
| 대기업 | (186) | 63.8 | 74.5 | 49.5 |
| 중소기업 | (859) | 64.8 | 77.0 | 45.8 |
| 기타 | (238) | 61.9 | 72.9 | 39.7 |
| 근로자 외 | (151) | 60.0 | 74.1 | 48.6 |
| $X^2$(df) | | 23.811(10)** | 7.375(10) | 27.255(10)** |
| 본인 직무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251) | 57.1 | 76.3 | 47.5 |
| 경영/행정/사무직 | (627) | 70.7 | 77.1 | 51.0 |
| 영업/판매직 | (76) | 60.2 | 70.9 | 27.6 |
| 서비스직 | (244) | 63.1 | 75.0 | 44.5 |
| 관리/연구직/전문직 | (322) | 72.1 | 80.8 | 50.8 |
| 단순직 등 기타 | (107) | 50.5 | 69.1 | 35.5 |
| 근로자 외 | (151) | 60.0 | 74.1 | 48.6 |
| $X^2$(df) | | 58.514(12)*** | 16.701(12) | 33.740(12)**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200만원 미만 | (178) | 50.3 | 73.7 | 44.5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659) | 59.0 | 74.2 | 42.1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822) | 65.8 | 74.7 | 43.1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377) | 67.3 | 77.7 | 49.3 |
| 900만원 이상 | (556) | 72.0 | 80.9 | 53.1 |
| $X^2$(df) | | 55.403(8)*** | 28.560(8)*** | 28.950(8)***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부정적 | (738) | 58.4 | 71.8 | 38.9 |
| 긍정적 | (1,854) | 67.1 | 78.1 | 48.7 |
| $X^2$(df) | | 19.033(2)*** | 15.480(2)*** | 20.458(2)*** |
| 자녀 계획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658) | 64.2 | 79.5 | 50.4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1,136) | 68.1 | 76.9 | 45.7 |
| 미정 | (798) | 59.9 | 72.8 | 42.7 |
| $X^2$(df) | | 15.801(4)** | 14.339(4)** | 15.156(4)**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영아(1-4세) | (254) | 77.9 | 79.3 | 52.1 |
| 유아(5-7세) | (167) | 68.3 | 77.2 | 50.4 |

| 구분 | 사례수 |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 (가칭)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 |
|---|---|---|---|---|
| 초등 저학년 | (243) | 64.5 | 77.4 | 45.5 |
| 초등 고학년 | (189) | 68.2 | 79.0 | 45.8 |
| 중학생 | (137) | 69.4 | 78.7 | 48.8 |
| 고등학생 | (82) | 78.8 | 73.7 | 45.8 |
| 성인자녀 | (49) | 71.2 | 62.2 | 50.0 |
| $X^2$(df) | | 22.695(12)* | 13.234(12) | 7.277(12) |

주: 인지율은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응답을 합산한 비율임.
* p 〈 .05, ** p 〈 .01, *** p 〈 .001

## 2) 저출생 대책 인지 경로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알게 된 경로는 포털이나 커뮤니티 등 인터넷 45.2%, TV 33.6%, 소셜 미디어(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13.1%, 신문 3.4% 순으로 응답함.

- 저출생 대책 인지 경로가 TV인 경우 만40-49세 응답자가 40.7%,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41.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인지 경로가 인터넷인 경우 만25-29세 남성 응답자가 47.4%, 유자녀 가구 응답자가 48.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을 비롯한 세부 집단 간 경로 차이가 나타남.

**〈표 Ⅳ-1-3〉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인지 경로**

단위: %, (명)

| 구분 | TV | 라디오 | 신문 | 잡지·도서 등 인쇄물 | 인터넷(포털, 커뮤니티 등) | 소셜미디어(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등) | 기타 | 사례수 |
|---|---|---|---|---|---|---|---|---|
| 전체 | 33.6 | 1.9 | 3.4 | 0.8 | 45.2 | 13.1 | 1.9 | (1,674) |
| 응답자 성별 | | | | | | | | |
| 남성 | 32.0 | 2.3 | 4.4 | 1.1 | 46.3 | 12.3 | 1.6 | (820) |
| 여성 | 35.1 | 1.5 | 2.5 | 0.5 | 44.2 | 13.9 | 2.3 | (854) |
| $X^2$(df) | 10.509(6) | | | | | | | |
| 응답자 연령 | | | | | | | | |
| 만25-29세 | 22.6 | 1.4 | 6.1 | 0.6 | 45.5 | 21.7 | 2.1 | (272) |
| 만30-39세 | 29.6 | 1.8 | 4.2 | 0.5 | 48.0 | 14.3 | 1.6 | (622) |
| 만40-49세 | 40.7 | 2.2 | 1.8 | 1.0 | 43.0 | 9.2 | 2.1 | (779) |
| $X^2$(df) | 66.621(12)*** | | | | | | | |

| 구분 | TV | 라디오 | 신문 | 잡지·도서 등 인쇄물 | 인터넷(포털, 커뮤니티 등) | 소셜미디어(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등) | 기타 | 사례수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
| 만25-29세 남성 | 23.4 | 1.4 | 7.5 | 0.6 | 47.4 | 17.5 | 2.0 | (133) |
| 만25-29세 여성 | 21.8 | 1.3 | 4.8 | 0.6 | 43.6 | 25.7 | 2.2 | (140) |
| 만30-39세 남성 | 27.2 | 2.3 | 5.5 | 1.0 | 49.8 | 13.0 | 1.3 | (307) |
| 만30-39세 여성 | 32.0 | 1.3 | 3.0 | 0.0 | 46.1 | 15.7 | 1.9 | (315) |
| 만40-49세 남성 | 38.9 | 2.7 | 2.4 | 1.3 | 43.0 | 10.0 | 1.6 | (380) |
| 만40-49세 여성 | 42.3 | 1.8 | 1.3 | 0.8 | 42.9 | 8.4 | 2.6 | (399) |
| $X^2$(df) | 83.576(30)*** | | | | | | | |
| 학력 | |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1.7 | 1.3 | 1.8 | 1.5 | 41.7 | 10.8 | 1.1 | (383) |
| 대학교 재학 이상 | 31.3 | 2.0 | 4.5 | 0.6 | 45.8 | 13.8 | 2.0 | (1,095) |
| 대학원 재학 이상 | 30.9 | 2.6 | 0.5 | 0.0 | 48.8 | 14.2 | 3.1 | (196) |
| $X^2$(df) | 33.921(12)** | | | | | | | |
| 자녀 유무 | | | | | | | | |
| 유자녀 | 34.1 | 2.4 | 2.1 | 1.0 | 48.0 | 10.1 | 2.2 | (793) |
| 무자녀 | 33.1 | 1.5 | 4.6 | 0.5 | 42.7 | 15.8 | 1.7 | (881) |
| $X^2$(df) | 23.861(6)** | | | | | | | |

주: 취업 여부, 맞벌이 여부, 혼인 상태, 거주 지역, 본인 직장 유형, 본인 직무, 가구소득에 따른 수치는 〈부록표 1〉에 수록.
** $p < .01$, *** $p < .001$

## 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중요도 인식

### 1) 저출생 대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묻기 전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주요 분야 및 관련 세부과제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살펴봄.

□ 일·가정 양립, 양육지원, 주거 등 결혼·출산지원의 중요도를 7점 척도로 물었을 때, 5점 이상 응답 비율은 각각 85.7%, 85.6%, 84.1%로 높게 나타남.

**〈표 Ⅳ-1-4〉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주요 영역별 중요도 인식(전체)**

단위: %, (명), 점

| 구분 | 부정 | 보통 | 긍정 | 계 | (수) | 평균 |
|---|---|---|---|---|---|---|
| 일·가정 양립 | 3.9 | 10.5 | 85.7 | 100.0 | (2,592) | 5.9 |
| 양육지원 | 4.6 | 9.8 | 85.6 | 100.0 | (2,592) | 6.0 |
| 주거 등 결혼·출산지원 | 5.4 | 10.5 | 84.1 | 100.0 | (2,592) | 5.9 |

주: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부정은 1~3점 응답 합산 비율, 보통은 4점 응답 비율, 긍정은 5~7점 응답 합산한 비율임.
3) 7점 척도 중요도 인식의 점수별 응답비율은 〈부록표 2〉에 수록.

□ 전반적으로 유자녀, 기혼, 결혼에 긍정적이거나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응답자, 막내자녀 연령이 영아인 경우 대부분의 영역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며, 특히, '일·가정 양립지원', '양육지원'에 대한 중요도는 3,40대 여성이, '주거 등 결혼·출산지원'에 대한 중요도는 2,30대 남성에서 높게 나타남.

**〈표 Ⅳ-1-5〉 저출생 대책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도 - 긍정비율**

단위: %, (명)

| 구분 | 일·가정 양립 | 양육지원 | 주거 등 결혼·출산지원 | 사례수 |
|---|---|---|---|---|
| 전체 | 85.7 | 85.6 | 84.1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남성 | 82.6 | 83.8 | 85.0 | (1,337) |
| 여성 | 88.9 | 87.6 | 83.1 | (1,255) |
| $X^2$(df) | 50.668(6)*** | 15.966(6)* | 4.377(6) | |
| 응답자 연령 | | | | |
| 만25-29세 | 84.7 | 83.3 | 81.9 | (489) |
| 만30-39세 | 88.4 | 86.5 | 85.6 | (964) |
| 만40-49세 | 83.7 | 86.0 | 83.8 | (1,139) |
| $X^2$(df) | 28.769(12)** | 31.000(12)** | 29.160(12)**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만25-29세 남성 | 81.1 | 81.7 | 85.3 | (256) |
| 만25-29세 여성 | 88.6 | 85.0 | 78.1 | (233) |
| 만30-39세 남성 | 86.4 | 85.1 | 87.0 | (502) |
| 만30-39세 여성 | 90.7 | 88.0 | 84.1 | (462) |
| 만40-49세 남성 | 80.0 | 83.7 | 83.1 | (579) |
| 만40-49세 여성 | 87.6 | 88.3 | 84.4 | (560) |
| $X^2$(df) | 90.533(30)*** | 53.075(30)** | 47.736(30)* | |
| 학력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80.7 | 81.7 | 82.3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87.1 | 86.7 | 84.5 | (1,668) |

| 구분 | 일·가정 양립 | 양육지원 | 주거 등 결혼·출산지원 | 사례수 |
|---|---|---|---|---|
| 대학원 재학 이상 | 88.6 | 88.7 | 85.5 | (275) |
| $X^2$(df) | 44.564(12)*** | 17.246(12) | 13.328(12) | |
| 취업 여부 | | | | |
| 취업중 | 86.8 | 86.8 | 85.1 | (1,778) |
| 학업중 | 86.4 | 88.6 | 83.7 | (102) |
| 구직중 | 83.1 | 81.7 | 80.9 | (416) |
| 미취업 | 82.2 | 83.4 | 82.4 | (295) |
| $X^2$(df) | 42.146(18)** | 32.922(18)* | 29.741(18)* | |
| 자녀 유무 | | | | |
| 유자녀 | 87.7 | 89.0 | 86.2 | (1,122) |
| 무자녀 | 84.1 | 83.1 | 82.5 | (1,470) |
| $X^2$(df) | 24.060(6)** | 35.203(6)*** | 10.623(6) | |
| 맞벌이 여부 | | | | |
| 맞벌이 가구 | 88.7 | 88.9 | 86.7 | (724) |
| 외벌이 가구 | 86.3 | 89.2 | 87.4 | (578) |
| 기타 | 83.6 | 82.2 | 81.1 | (1,290) |
| $X^2$(df) | 42.358(12)*** | 49.613(12)*** | 20.452(12) | |
| 혼인 상태 | | | | |
| 미혼 | 83.7 | 82.0 | 81.2 | (1,207) |
| 기혼 | 87.6 | 89.0 | 87.0 | (1,302) |
| 이혼/사별 | 83.0 | 85.0 | 80.0 | (82) |
| $X^2$(df) | 26.222(6)*** | 49.505(6)*** | 18.796(6)**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200만원 미만 | 79.1 | 78.6 | 77.7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83.7 | 84.8 | 84.8 | (65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86.2 | 86.2 | 84.5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89.1 | 87.5 | 84.2 | (377) |
| 900만원 이상 | 87.0 | 86.7 | 84.6 | (556) |
| $X^2$(df) | 46.363(24)** | 36.384(24) | 30.347(24)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부정적 | 79.5 | 77.6 | 74.6 | (738) |
| 긍정적 | 88.1 | 88.8 | 87.9 | (1,854) |
| $X^2$(df) | 46.644(6)*** | 76.896(6)*** | 97.636(6)*** | |
| 자녀 계획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90.1 | 90.9 | 91.5 | (658)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85.7 | 84.7 | 81.2 | (1,136) |
| 미정 | 82.0 | 82.7 | 82.0 | (798) |
| $X^2$(df) | 32.537(12)** | 34.422(12)** | 59.140(12)***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영아(1-4세) | 94.1 | 92.9 | 89.6 | (254) |
| 유아(5-7세) | 87.5 | 87.8 | 86.4 | (167) |

| 구분 | 일·가정 양립 | 양육지원 | 주거 등 결혼·출산지원 | 사례수 |
|---|---|---|---|---|
| 초등 저학년 | 88.4 | 89.8 | 86.3 | (243) |
| 초등 고학년 | 82.3 | 88.6 | 80.2 | (189) |
| 중학생 | 85.1 | 85.1 | 88.8 | (137) |
| 고등학생 | 85.0 | 87.5 | 85.1 | (82) |
| 성인자녀 | 83.4 | 83.3 | 85.4 | (49) |
| $X^2$(df) | 45.182(36) | 65.801(36)** | 54.387(36)* | |

주: 1) 긍정비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 척도 중 5~7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2) 표에서 제외된 학력, 거주 지역, 본인 직장 유형, 본인 직무에 대한 수치는 〈부록표 3〉에 수록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 2) 저출생 대책에 대한 세부정책 중요도

### 가)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중요도

□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중요도를 7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5점 이상 응답 비율을 중요도 인식 긍정비율로 나타내었고, 세 항목의 중요도 인식 긍정비율은 각각 87.5~88.1%로 높게 나타남.

-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88.1%,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제도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은 87.5%로 중요도 인식에 대한 긍정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Ⅳ-1-6〉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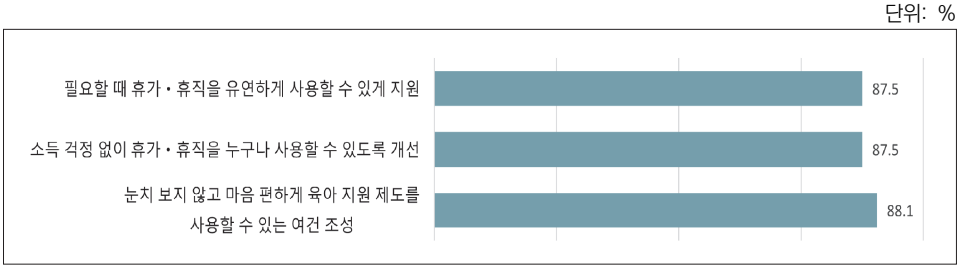
단위: %, (명), 점

| 구분 | 부정 | 보통 | 긍정 | 계 | (수) | 평균 |
|---|---|---|---|---|---|---|
|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 | 4.1 | 8.4 | 87.5 | 100.0 | (2,592) | 6.0 |
|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3.6 | 8.9 | 87.5 | 100.0 | (2,592) | 6.1 |
|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3.2 | 8.7 | 88.1 | 100.0 | (2,592) | 6.1 |

주: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부정은 1~3점 응답 합산 비율, 보통은 4점 응답 비율, 긍정은 5~7점 응답 합산한 비율임.
3) 7점 척도 중요도 인식의 점수별 응답비율은 〈부록표 4〉에 수록.

**[그림 Ⅳ-1-2]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중요도 - 긍정비율(전체)**

단위: %




주: 긍정비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 척도 중 5~7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세 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그룹별 인식을 살펴봄.

□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중요도 인식 긍정비율은 자녀를 낳을 계획인 경우, 막내자녀 영아가구에서 각각 92.1%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여성 응답자가 89.9%, 유자녀 가구 89.2%, 맞벌이 가구 89.6%, 결혼에 긍정적인 응답자 90.1%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반면,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함.

□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중요도 인식 긍정비율은 막내자녀 영아가구에서 9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만25-29세 여성 90.4%, 만30-39세 남성 90.0%, 만30-39세 여성 응답자가 89.1%로 높게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 91.9%, 기혼 89.2%, 결혼에 긍정적 응답자 90.2%, 자녀를 낳을 계획인 응답자가 90.3%로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 응답자가 77.3%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함.

□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중요도 인식 긍정비율은 막내자녀 영아가구에서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여성 90.9%, 유자녀 가구 90.1%, 맞벌이 가구 90.5%, 기혼 응답자 90.2%, 결혼에 긍정적 응답자 90.4%, 자녀를 낳을 계획인 응답자가 91.5%로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 응답자가 80.1%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함.

**〈표 Ⅳ-1-7〉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방안별 중요도 – 긍정비율**

단위: %, (명)

| 구분 |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 |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례수 |
|---|---|---|---|---|
| 전체 | 87.5 | 87.5 | 88.1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남성 | 85.2 | 86.2 | 85.4 | (1,337) |
| 여성 | 89.9 | 88.9 | 90.9 | (1,255) |
| $X^2$(df) | 51.728(6)*** | 23.496(6)** | 47.107(6)*** | |
| 응답자 연령 | | | | |
| 만25-29세 | 88.6 | 86.9 | 87.9 | (489) |
| 만30-39세 | 87.6 | 89.5 | 88.9 | (964) |
| 만40-49세 | 86.9 | 86.0 | 87.4 | (1,139) |
| $X^2$(df) | 15.329(12) | 20.121(12) | 12.546(12)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만25-29세 남성 | 86.3 | 83.7 | 84.5 | (256) |
| 만25-29세 여성 | 91.2 | 90.4 | 91.7 | (233) |
| 만30-39세 남성 | 86.9 | 90.0 | 87.5 | (502) |
| 만30-39세 여성 | 88.3 | 89.1 | 90.4 | (462) |
| 만40-49세 남성 | 83.3 | 84.1 | 84.0 | (579) |
| 만40-49세 여성 | 90.7 | 88.1 | 90.9 | (560) |
| $X^2$(df) | 80.135(30)*** | 57.105(30)** | 66.514(30)*** | |
| 자녀 유무 | | | | |
| 유자녀 | 89.2 | 89.4 | 90.1 | (1,122) |
| 무자녀 | 86.2 | 86.1 | 86.5 | (1,470) |
| $X^2$(df) | 23.508(6)** | 24.090(6)** | 17.959(6)** | |
| 취업 여부 | | | | |
| 취업중 | 87.6 | 88.8 | 88.5 | (1,778) |
| 학업중 | 87.6 | 86.1 | 85.7 | (102) |
| 구직중 | 86.8 | 85.2 | 86.5 | (416) |
| 미취업 | 87.8 | 83.2 | 88.9 | (295) |
| $X^2$(df) | 16.699(18) | 33.030(18)* | 16.258(18) | |
| 맞벌이 여부 | | | | |
| 맞벌이 가구 | 89.6 | 91.9 | 90.5 | (724) |
| 외벌이 가구 | 88.5 | 88.0 | 89.7 | (578) |
| 기타 | 85.8 | 84.8 | 86.0 | (1,290) |
| $X^2$(df) | 31.392(12)** | 45.361(12)*** | 29.906(12)** | |
| 혼인 상태 | | | | |
| 미혼 | 85.7 | 84.8 | 86.1 | (1,207) |
| 기혼 | 89.2 | 90.2 | 90.2 | (1,302) |
| 이혼/사별 | 87.4 | 85.1 | 84.2 | (82) |
| $X^2$(df) | 27.592(6)*** | 35.561(6)*** | 25.766(6)***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200만원 미만 | 80.2 | 77.3 | 80.1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86.6 | 86.6 | 88.6 | (65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88.1 | 88.5 | 87.4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89.6 | 89.6 | 90.8 | (377) |
| 900만원 이상 | 88.5 | 89.0 | 89.0 | (556) |
| $X^2$(df) | 38.635(24)* | 45.752(24)** | 44.748(24)** | |

| 구분 |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 |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례수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부정적 | 81.0 | 80.4 | 82.4 | (738) |
| 긍정적 | 90.1 | 90.3 | 90.4 | (1,854) |
| $X^2$(df) | 51.990(6)*** | 65.006(6)*** | 53.580(6)*** | |
| 자녀 계획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92.1 | 92.3 | 91.5 | (658)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86.5 | 86.3 | 88.0 | (1,136) |
| 미정 | 85.2 | 85.2 | 85.4 | (798) |
| $X^2$(df) | 44.093(12)*** | 33.230(12)** | 43.354(12)***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영아(1-4세) | 92.1 | 94.4 | 92.9 | (254) |
| 유아(5-7세) | 91.1 | 88.7 | 91.7 | (167) |
| 초등 저학년 | 87.2 | 89.5 | 88.4 | (243) |
| 초등 고학년 | 86.5 | 85.5 | 87.8 | (189) |
| 중학생 | 88.8 | 88.8 | 90.3 | (137) |
| 고등학생 | 88.8 | 90.0 | 91.3 | (82) |
| 성인자녀 | 89.6 | 81.3 | 85.6 | (49) |
| $X^2$(df) | 34.473(36) | 64.929(36)** | 27.980(36) | |

주: 1) 긍정비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 척도 중 5~7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2) 표에서 제외된 학력, 거주 지역, 본인 직장 유형, 본인 직무에 대한 수치는 〈부록표 5〉에 수록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 나) 교육·돌봄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도

□ '0~11세 아동의 돌봄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도를 7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5점 이상 응답 비율을 중요도 인식 긍정비율로 나타내었고, 세 항목의 중요도 인식 긍정비율은 각각 79.2~82.1%로 나타남.

- '출·퇴근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 82.1%,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등 돌봄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81.4%, '교육·돌봄을 0~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79.2%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Ⅳ-1-8〉 돌봄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전체)**

단위: %, (명), 점

| 구분 | 부정 | 보통 | 긍정 | 계 | (수) | 평균 |
|---|---|---|---|---|---|---|
| 교육·돌봄을 0~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7.8 | 13.0 | 79.2 | 100.0 | (2,592) | 5.7 |
| 출·퇴근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 | 6.4 | 11.5 | 82.1 | 100.0 | (2,592) | 5.8 |
|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등 돌봄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 6.4 | 12.2 | 81.4 | 100.0 | (2,592) | 5.7 |

주: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부정은 1~3점 응답 합산 비율, 보통은 4점 응답 비율, 긍정은 5~7점 응답 합산한 비율임.
3) 7점 척도 중요도 인식의 점수별 응답비율은 〈부록표 6〉에 수록.

□ ‘교육·돌봄 환경 조성’ 다섯 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그룹별 인식을 살펴봄.

□ ‘교육·돌봄을 0~11세 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방안’의 중요도를 중요도 인식 긍정비율은 막내자녀 영아자녀와 유아가구에서 87.3%와 87.0%로 높게 나타남.

- 만25-29세 및 해당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유자녀 가구 84.3%, 기혼 응답자 83.7%, 결혼에 긍정적이고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응답자가 82.6%와 83.0%로 중요도를 더 높게 인식함.

□ ‘출·퇴근시각, 방학, 휴일 등 틈새보육을 촘촘하게 보장하는 방안’의 중요도 인식 긍정비율은 막내자녀 영아가구에서 91.2%로 높게 나타남.

- 여성 83.6%, 유자녀 가구 87.2%, 결혼에 긍정적인 응답자 85.4%, 기혼 응답자가 86.6%로 중요도를 더 높게 인식함.

□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등 돌봄서비스의 선택권 확대’의 중요도 인식 긍정비율은 막내자녀 영아가구와 유아가구에서 89.2%와 86.2%로 높게 나타남.

- 만25-29세의 중요도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유자녀가구 84.5%, 기혼 84.1%, 결혼에 긍정적인 응답자 85.0%,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응답자 86.7%로 중요도를 더 높게 인식함.

**〈표 Ⅳ-1-9〉 0-11세 돌봄환경 조성방안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도 - 긍정비율**

단위: %, (명)

| 구분 | 0~11세아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틈새돌봄 보장 (출퇴근시간, 방학, 휴일 등) |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등 선택권 확대 | 사례수 |
|---|---|---|---|---|
| 전체 | 79.2 | 82.1 | 81.4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남성 | 78.2 | 80.7 | 80.6 | (1,337) |
| 여성 | 80.4 | 83.6 | 82.2 | (1,255) |
| $X^2$(df) | 7.913(6) | 21.184(6)** | 5.838(6) | |
| 응답자 연령 | | | | |
| 만25-29세 | 74.4 | 74.1 | 76.9 | (489) |
| 만30-39세 | 79.8 | 84.1 | 82.6 | (964) |
| 만40-49세 | 80.8 | 83.9 | 82.2 | (1,139) |
| $X^2$(df) | 44.523(12)*** | 43.259(12)*** | 25.835(12)*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만25-29세 남성 | 73.6 | 73.4 | 77.2 | (256) |
| 만25-29세 여성 | 75.3 | 74.8 | 76.5 | (233) |
| 만30-39세 남성 | 78.4 | 82.3 | 81.1 | (502) |

| 구분 | 0~11세아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틈새돌봄 보장 (출퇴근시간, 방학, 휴일 등) |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등 선택권 확대 | 사례수 |
|---|---|---|---|---|
| 만30-39세 여성 | 81.4 | 85.9 | 84.2 | (462) |
| 만40-49세 남성 | 80.0 | 82.4 | 81.6 | (579) |
| 만40-49세 여성 | 81.7 | 85.4 | 82.9 | (560) |
| $X^2$(df) | 66.688(30)*** | 76.800(30)*** | 37.929(30) | |
| 자녀 유무 | | | | |
| 유자녀 | 84.3 | 87.2 | 84.5 | (1,122) |
| 무자녀 | 75.4 | 78.2 | 79.0 | (1,470) |
| $X^2$(df) | 50.668(6)*** | 63.179(6)*** | 22.597(6)** | |
| 취업 여부 | | | | |
| 취업중 | 79.1 | 82.5 | 82.0 | (1,778) |
| 학업중 | 79.9 | 79.5 | 82.4 | (102) |
| 구직중 | 79.2 | 79.1 | 79.5 | (416) |
| 미취업 | 80.0 | 84.7 | 79.9 | (295) |
| $X^2$(df) | 24.345(18) | 22.504(18) | 20.761(18) | |
| 맞벌이 여부 | | | | |
| 맞벌이 가구 | 82.7 | 87.0 | 83.9 | (724) |
| 외벌이 가구 | 85.1 | 86.1 | 84.3 | (578) |
| 기타 | 74.7 | 77.6 | 78.6 | (1,290) |
| $X^2$(df) | 54.806(12)*** | 69.816(12)*** | 27.711(12)** | |
| 혼인 상태 | | | | |
| 미혼 | 74.2 | 76.9 | 78.2 | (1,207) |
| 기혼 | 83.7 | 86.6 | 84.1 | (1,302) |
| 이혼/사별 | 81.2 | 88.5 | 85.3 | (82) |
| $X^2$(df) | 55.595(6)*** | 69.657(6)*** | 25.955(6)***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200만원 미만 | 74.3 | 76.9 | 75.2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79.5 | 82.0 | 82.2 | (65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78.8 | 81.8 | 81.9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80.0 | 83.7 | 80.8 | (377) |
| 900만원 이상 | 80.6 | 83.3 | 81.8 | (556) |
| $X^2$(df) | 27.287(24) | 31.669(24) | 34.544(24)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부정적 | 70.7 | 73.8 | 72.1 | (738) |
| 긍정적 | 82.6 | 85.4 | 85.0 | (1,854) |
| $X^2$(df) | 71.400(6)*** | 61.056(6)*** | 71.436(6)*** | |
| 자녀 계획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83.0 | 84.5 | 86.7 | (658)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78.6 | 82.2 | 79.6 | (1,136) |
| 미정 | 77.1 | 80.0 | 79.5 | (798) |
| $X^2$(df) | 19.682(12) | 18.604(12) | 34.764(12)**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영아(1-4세) | 87.3 | 91.2 | 89.0 | (254) |
| 유아(5-7세) | 87.0 | 86.9 | 86.2 | (167) |
| 초등 저학년 | 81.8 | 84.9 | 82.2 | (243) |

| 구분 | 0~11세아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틈새돌봄 보장 (출퇴근시간, 방학, 휴일 등) |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등 선택권 확대 | 사례수 |
|---|---|---|---|---|
| 초등 고학년 | 82.3 | 85.9 | 83.0 | (189) |
| 중학생 | 80.8 | 84.5 | 77.8 | (137) |
| 고등학생 | 85.1 | 87.6 | 87.5 | (82) |
| 성인자녀 | 87.6 | 89.6 | 85.4 | (49) |
| $X^2$(df) | 60.023(36)** | 49.771(36) | 57.942(36)* | |

주: 1) 긍정비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 척도 중 5~7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2) 표에서 제외된 학력, 거주 지역, 본인 직장 유형, 본인 직무에 대한 수치는 〈부록표 7〉에 수록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 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도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도를 7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5점 이상 응답 비율을 중요도 인식 긍정비율로 나타내었고, 다섯 항목의 중요도 인식 긍정비율은 각각 72.1~83.3%로 나타남.

-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가 83.3%로 가장 높고, '결혼 친화적 세금지원을 통한 결혼에 대한 메리트 확대'는 72.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Ⅳ-1-10〉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환경조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전체)**

단위: %, (명), 점

| 구분 | 부정 | 보통 | 긍정 | 계 | (수) | 평균 |
|---|---|---|---|---|---|---|
|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 확대 | 7.9 | 10.7 | 81.4 | 100.0 | (2,592) | 5.8 |
| 결혼 친화적 세금지원을 통해 결혼에 대한 메리트 확대 | 13.5 | 14.5 | 72.1 | 100.0 | (2,592) | 5.3 |
|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 | 7.7 | 11.3 | 81.0 | 100.0 | (2,592) | 5.7 |
|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 9.1 | 11.5 | 79.4 | 100.0 | (2,592) | 5.7 |
|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 6.5 | 10.1 | 83.3 | 100.0 | (2,592) | 5.8 |

주: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부정은 1~3점 응답 합산 비율, 보통은 4점 응답 비율, 긍정은 5~7점 응답 합산한 비율임.
3) 7점 척도 중요도 인식의 점수별 응답비율은 〈부록표 8〉에 수록.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환경조성' 다섯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그룹별 인식을 살펴봄.

□ '결혼이나 출산할 때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중요도 인식 긍정비율은 막내자녀 영아가구에서 8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만25-29세남성과 만30-39세 남성이 83.0%와 83.1%로 같은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 중요도를 더 높게 인식하며, 결혼에 대한 긍정 응답자가 85.4%,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응답자가 89.9%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함.

□ '결혼친화적 세제지원을 통한 결혼에 대한 메리트 확대 방안'의 중요도 인식 긍정비율은 막내자녀 영아가구에서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성 응답자가 75.6%로 여성 응답자에 비해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며, 결혼에 대한 긍정 응답자가 77.9%,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응답자가 84.9%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함.

□ '유자녀가구 대상 혜택'의 중요도 인식 긍정비율은 막내자녀 영아가구에서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성 응답자가 83.1%로 여성 응답자에 비해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며, 만30-39세 남성이 85.4%, 결혼에 대한 긍정 응답자 86.9%,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응답자 90.8%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함.

□ '다자녀가구 대상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중요도 인식 긍정비율은 막내자녀 영아가구에서 87.6%로 높게 나타남.

- 남성 응답자가 82.3%로 여성 응답자에 비해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며, 유자녀가구가 86.4%, 결혼에 대한 긍정 응답자 85.0%,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응답자 88.7%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함.

□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의 중요도 인식 긍정비율은 유아자녀 가구에서 88.0%로 높게 나타남.

- 남성 응답자가 84.4%, 만40-49세 여성 86.3%,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자 88.2%,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응답자 89.0%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며,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응답자는 85~86%선의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임.

**〈표 Ⅳ-1-11〉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대책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도 – 긍정비율**

단위: %, (명)

| 구분 | 결혼·출산 주거지원 강화 | 결혼친화적 세제지원 강화 | 유자녀가구 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혜택 강화 | 난임부부 지원 강화 | 사례수 |
|---|---|---|---|---|---|---|
| 전체 | 81.4 | 72.1 | 81.0 | 79.4 | 83.3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82.3 | 75.6 | 83.1 | 82.3 | 84.4 | (1,337) |
| 여성 | 80.3 | 68.3 | 78.8 | 76.3 | 82.1 | (1,255) |
| $X^2$(df) | 8.031(6) | 26.454(6)*** | 17.306(6)** | 28.682(6)*** | 14.934(6)*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81.6 | 71.3 | 76.9 | 74.4 | 77.0 | (489) |
| 만30-39세 | 82.4 | 74.7 | 81.4 | 79.3 | 84.3 | (964) |
| 만40-49세 | 80.4 | 70.2 | 82.4 | 81.7 | 85.3 | (1,139) |
| $X^2$(df) | 22.530(12)* | 22.939(12)* | 22.888(12)* | 34.141(12)** | 53.086(12)***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만25-29세 남성 | 83.0 | 78.1 | 81.4 | 81.7 | 80.3 | (256) |
| 만25-29세 여성 | 79.9 | 63.9 | 72.0 | 66.4 | 73.3 | (233) |
| 만30-39세 남성 | 83.1 | 77.3 | 85.4 | 83.7 | 86.8 | (502) |
| 만30-39세 여성 | 81.6 | 71.9 | 77.1 | 74.5 | 81.5 | (462) |
| 만40-49세 남성 | 81.4 | 73.1 | 81.9 | 81.4 | 84.2 | (579) |
| 만40-49세 여성 | 79.4 | 67.2 | 82.9 | 82.0 | 86.3 | (560) |
| $X^2$(df) | 44.676(30)* | 67.866(30)*** | 61.874(30)** | 89.447(30)*** | 93.595(30)*** | |
| 자녀 유무 | | | | | | |
| 유자녀 | 81.8 | 73.7 | 88.6 | 86.4 | 87.2 | (1,122) |
| 무자녀 | 81.0 | 70.8 | 75.3 | 74.1 | 80.4 | (1,470) |
| $X^2$(df) | 2.445(6) | 13.432(6)* | 103.951(6)*** | 76.673(6)*** | 31.884(6)***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81.6 | 72.1 | 81.1 | 79.8 | 83.7 | (1,778) |
| 학업중 | 77.6 | 74.7 | 80.4 | 77.2 | 82.3 | (102) |
| 구직중 | 80.9 | 73.5 | 80.5 | 78.9 | 81.4 | (416) |
| 미취업 | 81.7 | 69.0 | 81.2 | 78.4 | 83.8 | (295) |
| $X^2$(df) | 10.730(18) | 13.181(18) | 22.007(18) | 25.068(18) | 15.820(18) |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가구 | 81.4 | 74.3 | 88.2 | 86.1 | 87.1 | (724) |
| 외벌이 가구 | 81.7 | 72.4 | 87.1 | 84.2 | 87.1 | (578) |
| 기타 | 81.2 | 70.7 | 74.3 | 73.5 | 79.5 | (1,290) |
| $X^2$(df) | 14.622(12) | 30.624(12)** | 106.211(12)*** | 80.712(12)*** | 43.961(12)*** | |
| 혼인 상태 | | | | | | |
| 미혼 | 81.0 | 70.5 | 73.9 | 73.2 | 79.2 | (1,207) |
| 기혼 | 81.6 | 73.4 | 87.7 | 85.3 | 87.1 | (1,302) |
| 이혼/사별 | 83.7 | 73.6 | 80.3 | 79.0 | 84.3 | (82) |
| $X^2$(df) | 7.430(6) | 18.132(6)** | 108.454(6)*** | 75.953(6)*** | 43.350(6)*** | |

| 구분 | 결혼·출산 주거지원 강화 | 결혼친화적 세제지원 강화 | 유자녀가구 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혜택 강화 | 난임부부 지원 강화 | 사례수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81.0 | 73.5 | 75.0 | 70.5 | 78.8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84.3 | 71.6 | 80.7 | 78.6 | 81.7 | (65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81.2 | 72.0 | 81.7 | 80.6 | 85.5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80.7 | 74.5 | 84.0 | 80.9 | 86.5 | (377) |
| 900만원 이상 | 78.6 | 70.6 | 80.2 | 80.6 | 81.3 | (556) |
| $X^2$(df) | 23.684(24) | 34.133(24) | 36.756(24)* | 41.177(24)* | 36.733(24)*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71.2 | 57.5 | 66.2 | 65.4 | 71.2 | (738) |
| 긍정적 | 85.4 | 77.9 | 86.9 | 85.0 | 88.2 | (1,854) |
| $X^2$(df) | 95.002(6)*** | 138.635(6)*** | 192.199(6)*** | 173.086(6)*** | 153.524(6)*** | |
| 자녀 계획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89.9 | 84.9 | 90.8 | 88.7 | 89.0 | (658)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76.8 | 65.0 | 77.7 | 76.3 | 81.2 | (1,136) |
| 미정 | 80.7 | 71.5 | 77.6 | 76.3 | 81.7 | (798) |
| $X^2$(df) | 80.429(12)*** | 107.444(12)*** | 87.484(12)*** | 72.854(12)*** | 52.223(12)***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영아(1-4세) | 84.4 | 79.3 | 94.1 | 88.6 | 87.8 | (254) |
| 유아(5-7세) | 80.0 | 72.2 | 89.3 | 86.9 | 88.0 | (167) |
| 초등 저학년 | 82.2 | 72.3 | 86.7 | 84.6 | 87.1 | (243) |
| 초등 고학년 | 79.6 | 68.7 | 88.8 | 88.1 | 86.4 | (189) |
| 중학생 | 79.9 | 71.0 | 87.3 | 83.6 | 86.6 | (137) |
| 고등학생 | 81.9 | 76.9 | 82.5 | 86.2 | 87.4 | (82) |
| 성인자녀 | 85.5 | 79.1 | 79.1 | 83.3 | 85.5 | (49) |
| $X^2$(df) | 33.964(36) | 41.007(36) | 69.160(36)** | 40.148(36) | 53.366(36)* | |

주: 1) 긍정비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 척도 중 5~7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2) 표에서 제외된 학력, 거주 지역, 본인 직장 유형, 본인 직무에 대한 수치는 〈부록표 9〉에 수록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 라) 국민인식과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중요도

□ 국민인식과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중요도를 7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5점 이상 응답 비율을 중요도 인식 긍정비율로 나타내었고, 다섯 항목의 중요도 인식 긍정비율은 각각 77.5~83.3%로 나타남.

- '좋은 일자리 창출' 83.3%, '사교육비 부담 완화' 81.8% 순으로 높고, '수도권 집중 완화'는 72.1%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Ⅳ-1-12〉 국민 인식과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중요도 인식(전체)**

단위: %, (명), 점

| 구분 | 부정 | 보통 | 긍정 | 계 | (수) | 평균 |
|---|---|---|---|---|---|---|
| 1.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8.0 | 12.6 | 79.3 | 100.0 | (2,592) | 5.7 |
| 2. 기업, 지자체 등의 주도적인 참여 | 6.8 | 12.1 | 81.1 | 100.0 | (2,592) | 5.7 |
| 3. 좋은 일자리 창출 | 5.7 | 11.0 | 83.3 | 100.0 | (2,592) | 5.8 |
| 4. 수도권 집중 완화 | 7.9 | 14.7 | 77.5 | 100.0 | (2,592) | 5.6 |
| 5. 사교육비 부담 완화 | 7.0 | 11.2 | 81.8 | 100.0 | (2,592) | 5.8 |

주: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부정은 1~3점 응답 합산 비율, 보통은 4점 응답 비율, 긍정은 5~7점 응답 합산한 비율임.
3) 7점 척도 중요도 인식의 점수별 응답비율은 〈부록표 10〉에 수록.

□ '결혼 및 출산에 인식 개선'에 대한 중요도는 만25-29세 여성에서 69.0%로 낮고, '기업 및 지자체 주도적인 참여'는 유자녀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서 85.7%와 87.3%로 높고, '좋은 일자리 창출'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표 Ⅳ-1-13〉 사회구조적 원인별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도 – 긍정비율**

단위: %, (명)

| 구분 |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기업, 지자체 등의 주도적인 참여 | 좋은 일자리 창출 | 수도권 집중 완화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사례수 |
|---|---|---|---|---|---|---|
| 전체 | 79.3 | 81.1 | 83.3 | 77.5 | 81.8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79.8 | 80.6 | 83.4 | 78.4 | 81.6 | (1,337) |
| 여성 | 78.9 | 81.6 | 83.2 | 76.5 | 82.1 | (1,255) |
| $X^2$(df) | 8.489(6) | 18.204(6)** | 6.818(6) | 11.561(6) | 2.518(6)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74.1 | 80.5 | 83.1 | 79.9 | 79.6 | (489) |
| 만30-39세 | 80.2 | 81.1 | 83.1 | 76.9 | 80.2 | (964) |
| 만40-49세 | 80.8 | 81.4 | 83.6 | 76.9 | 84.1 | (1,139) |
| $X^2$(df) | 29.431(12)** | 36.450(12)*** | 14.297(12) | 24.324(12)* | 32.939(12)**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만25-29세 남성 | 78.8 | 82.3 | 83.7 | 77.8 | 80.0 | (256) |
| 만25-29세 여성 | 69.0 | 78.6 | 82.5 | 82.2 | 79.0 | (233) |
| 만30-39세 남성 | 80.8 | 80.2 | 83.6 | 78.6 | 80.3 | (502) |
| 만30-39세 여성 | 79.6 | 82.0 | 82.4 | 75.1 | 80.1 | (462) |
| 만40-49세 남성 | 79.4 | 80.4 | 83.1 | 78.4 | 83.3 | (579) |

| 구분 |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기업, 지자체 등의 주도적인 참여 | 좋은 일자리 창출 | 수도권 집중 완화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사례수 |
|---|---|---|---|---|---|---|
| 만40-49세 여성 | 82.3 | 82.5 | 84.1 | 75.3 | 84.9 | (560) |
| $X^2$(df) | 62.917(30)*** | 66.181(30)*** | 25.617(30) | 57.250(30)** | 42.836(30) | |
| 자녀 유무 | | | | | | |
| 유자녀 | 45.0 | 85.7 | 85.6 | 77.6 | 85.6 | (1,122) |
| 무자녀 | 38.8 | 77.5 | 81.6 | 77.3 | 78.9 | (1,470) |
| $X^2$(df) | 27.163(6)*** | 35.452(6)*** | 8.336(6) | 3.804(6) | 31.902(6)***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79.4 | 81.7 | 83.2 | 78.3 | 81.2 | (1,778) |
| 학업중 | 81.7 | 81.5 | 82.9 | 81.8 | 84.0 | (102) |
| 구직중 | 77.8 | 80.6 | 85.1 | 77.0 | 83.3 | (416) |
| 미취업 | 80.6 | 77.8 | 81.3 | 71.4 | 82.6 | (295) |
| $X^2$(df) | 11.542(18) | 19.247(18) | 13.985(18) | 27.361(18) | 19.601(18) |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가구 | 82.0 | 87.3 | 85.5 | 80.6 | 84.9 | (724) |
| 외벌이 가구 | 83.4 | 83.8 | 83.9 | 74.2 | 86.1 | (578) |
| 기타 | 76.0 | 76.4 | 81.8 | 77.2 | 78.1 | (1,290) |
| $X^2$(df) | 20.182(12) | 56.784(12)*** | 9.899(12) | 14.088(12) | 36.083(12)*** | |
| 혼인 상태 | | | | | | |
| 미혼 | 75.9 | 76.3 | 81.5 | 77.0 | 77.6 | (1,207) |
| 기혼 | 82.6 | 85.7 | 84.8 | 77.7 | 85.5 | (1,302) |
| 이혼/사별 | 78.8 | 78.8 | 86.1 | 80.5 | 85.3 | (82) |
| $X^2$(df) | 19.395(6)** | 50.756(6)*** | 6.435(6) | 4.180(6) | 36.873(6)***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74.5 | 75.1 | 81.3 | 76.1 | 78.6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79.4 | 80.2 | 85.4 | 79.2 | 82.5 | (65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80.3 | 81.3 | 83.4 | 76.7 | 80.7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80.0 | 82.6 | 86.2 | 76.2 | 84.9 | (377) |
| 900만원 이상 | 79.0 | 82.7 | 79.4 | 77.9 | 81.7 | (556) |
| $X^2$(df) | 20.639(24) | 29.165(24) | 32.075(24) | 26.043(24) | 22.509(24)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66.9 | 69.3 | 76.2 | 71.6 | 74.6 | (738) |
| 긍정적 | 84.3 | 85.8 | 86.1 | 79.8 | 84.7 | (1,854) |
| $X^2$(df) | 125.253(6)*** | 126.741(6)*** | 50.634(6)*** | 27.089(6)*** | 49.397(6)*** | |
| 자녀 계획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86.7 | 88.0 | 87.4 | 82.1 | 85.8 | (658)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76.4 | 79.4 | 82.3 | 75.8 | 81.0 | (1,136) |
| 미정 | 77.5 | 77.9 | 81.3 | 76.0 | 79.7 | (798) |
| $X^2$(df) | 68.708(12)*** | 35.816(12)*** | 20.785(12) | 32.447(12)** | 25.291(12)*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영아(1-4세) | 86.3 | 91.3 | 84.2 | 78.3 | 83.6 | (254) |
| 유아(5-7세) | 78.3 | 81.3 | 85.3 | 74.9 | 84.7 | (167) |

| 구분 |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기업, 지자체 등의 주도적인 참여 | 좋은 일자리 창출 | 수도권 집중 완화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사례수 |
|---|---|---|---|---|---|---|
| 초등 저학년 | 81.8 | 87.3 | 85.1 | 78.0 | 87.6 | (243) |
| 초등 고학년 | 85.9 | 82.8 | 88.8 | 78.8 | 83.1 | (189) |
| 중학생 | 84.3 | 82.0 | 85.1 | 75.3 | 88.8 | (137) |
| 고등학생 | 85.1 | 87.6 | 88.7 | 78.8 | 87.5 | (82) |
| 성인자녀 | 87.4 | 83.3 | 79.1 | 81.5 | 87.5 | (49) |
| $X^2$(df) | 34.361(36) | 44.782(36) | 50.698(36) | 35.844(36) | 40.970(36) | |

주: 1) 긍정비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 척도 중 5~7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2) 표에서 제외된 학력, 거주 지역, 본인 직장 유형, 본인 직무에 대한 수치는 〈부록표 11〉에 수록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 2. 저출생 대책 3대 분야의 인지도 및 기대효과 인식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주요 영역인 '일·가정 양립 지원', '교육·돌봄에 대한 지원',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에 대해 영역별 인지도를 살펴보았음.

- 그 결과,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을 잘 모른다'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를 합한 응답은 '일·가정 양립 지원' 72.1%, '교육·돌봄에 대한 지원' 71.5%,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74.5%로 전 항목에 걸쳐 전반적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Ⅳ-2-1〉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주요 3대 분야에 대한 인지 여부(전체)**

단위: %, (명)

| 전체 | 전혀 모른다 |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 계 | (수) |
|---|---|---|---|---|---|
| 일·가정 양립 지원 | 27.8 | 58.4 | 13.7 | 100.0 | (2,592) |
| 교육·돌봄에 대한 지원 | 28.5 | 56.9 | 14.6 | 100.0 | (2,592) |
| 주거 및 결혼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 25.5 | 60.0 | 14.5 | 100.0 | (2,592) |

□ '일·가정 양립 지원'의 인지도에 대한 그룹별 차이를 살펴보았음.

- 만25-29세, 고등학교 졸업이하,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하 가구, 미혼, 단순직 등과 생산/제조/현장기술직 응답자, 결혼에 부정적인 응답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

□ '교육·돌봄 지원'의 인지도에 대한 그룹별 차이를 살펴보았음.

- 남성, 만25-29세,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하 가구, 미혼, 단순직 등과 생산/제조/현장기술직 응답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지원'의 인지도에 대한 그룹별 차이를 살펴보았음.

- 만25-29세, 미혼, 결혼에 부정적인 응답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Ⅳ-2-2〉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주요 3대 분야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 일·가정 양립 지원 | 교육·돌봄 지원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 사례수 |
|---|---|---|---|---|
| 전체 | 72.1 | 71.5 | 74.5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남성 | 72.6 | 67.7 | 73.5 | (1,337) |
| 여성 | 71.7 | 75.6 | 75.7 | (1,255) |
| $X^2$(df) | 0.124(2) | 20.212(2)*** | 6.134(2)* | |
| 응답자 연령 | | | | |
| 만25-29세 | 68.4 | 65.7 | 71.0 | (489) |
| 만30-39세 | 72.8 | 69.0 | 75.2 | (964) |
| 만40-49세 | 73.2 | 76.2 | 75.4 | (1,139) |
| $X^2$(df) | 24.194(4)*** | 29.266(4)*** | 15.183(4)**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만25-29세 남성 | 69.8 | 64.0 | 71.0 | (256) |
| 만25-29세 여성 | 66.9 | 67.6 | 70.9 | (233) |
| 만30-39세 남성 | 74.1 | 66.0 | 75.3 | (502) |
| 만30-39세 여성 | 71.4 | 72.2 | 75.4 | (462) |
| 만40-49세 남성 | 72.5 | 70.9 | 73.0 | (579) |
| 만40-49세 여성 | 74.0 | 81.6 | 77.9 | (560) |
| $X^2$(df) | 27.604(10)** | 59.457(10)*** | 27.375(10)** | |
| 학력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67.3 | 71.3 | 72.0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73.1 | 71.0 | 74.9 | (1,668) |
| 대학원 재학 이상 | 77.6 | 75.7 | 78.0 | (275) |
| $X^2$(df) | 61.729(4)*** | 22.214(4)*** | 11.985(4)* | |
| 자녀 유무 | | | | |
| 유자녀 | 76.4 | 78.4 | 78.9 | (1,122) |
| 무자녀 | 69.0 | 66.3 | 71.2 | (1,470) |
| $X^2$(df) | 18.950(2)*** | 47.975(2)*** | 20.940(2)*** | |
| 취업 여부 | | | | |
| 취업중 | 74.1 | 72.2 | 75.3 | (1,778) |

| 구분 | 일·가정 양립 지원 | 교육·돌봄 지원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 사례수 |
|---|---|---|---|---|
| 학업중 | 80.5 | 76.3 | 77.0 | (102) |
| 구직중 | 66.5 | 70.1 | 72.2 | (416) |
| 미취업 | 65.1 | 68.0 | 72.0 | (295) |
| $X^2$(df) | 40.248(6)*** | 14.440(6)* | 11.016(6) | |
| 맞벌이 여부 | | | | |
| 맞벌이 가구 | 78.7 | 77.7 | 79.4 | (724) |
| 외벌이 가구 | 71.5 | 74.0 | 76.5 | (578) |
| 기타 | 68.8 | 67.0 | 70.9 | (1,290) |
| $X^2$(df) | 29.393(4)*** | 29.231(4)*** | 21.435(4)*** | |
| 혼인 상태 | | | | |
| 미혼 | 68.6 | 66.1 | 70.0 | (1,207) |
| 기혼 | 75.5 | 76.0 | 78.1 | (1,302) |
| 이혼/사별 | 70.3 | 81.3 | 82.5 | (82) |
| $X^2$(df) | 16.251(2)*** | 31.462(2)*** | 21.827(2)*** | |
| 거주 지역 | | | | |
| 대도시 | 73.1 | 70.6 | 74.1 | (1,132) |
| 중소도시 | 71.5 | 72.5 | 74.9 | (1,140) |
| 농어촌 | 71.0 | 71.7 | 74.8 | (320) |
| $X^2$(df) | 2.600(4) | 4.580(4) | 1.678(4)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공무원 | 85.4 | 80.1 | 87.3 | (162) |
| 공공기관 | 87.7 | 76.5 | 77.2 | (182) |
| 대기업 | 79.0 | 64.3 | 79.3 | (186) |
| 중소기업 | 70.6 | 71.3 | 72.6 | (859) |
| 기타 | 67.3 | 72.7 | 71.7 | (238) |
| 근로자 외 | 70.9 | 72.9 | 76.9 | (151) |
| $X^2$(df) | 88.854(10)*** | 37.158(10)*** | 37.925(10)*** | |
| 본인 직무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70.7 | 68.3 | 70.7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79.2 | 71.1 | 77.6 | (627) |
| 영업/판매직 | 64.5 | 74.8 | 72.2 | (76) |
| 서비스직 | 70.4 | 74.7 | 73.1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77.4 | 75.5 | 77.9 | (322) |
| 단순직 등 기타 | 62.6 | 69.9 | 69.8 | (107) |
| 근로자 외 | 70.9 | 72.9 | 76.9 | (151) |
| $X^2$(df) | 45.749(12)*** | 23.725(12)* | 15.476(12)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200만원 미만 | 66.5 | 69.3 | 70.6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66.2 | 66.8 | 71.0 | (659) |

| 구분 | 일·가정 양립 지원 | 교육·돌봄 지원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 사례수 |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74.7 | 71.9 | 74.4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73.2 | 73.3 | 74.6 | (377) |
| 900만원 이상 | 76.6 | 76.1 | 80.0 | (556) |
| $X^2$(df) | 44.604(8)*** | 23.557(8)** | 17.628(8)*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부정적 | 65.4 | 64.7 | 64.3 | (738) |
| 긍정적 | 74.8 | 74.2 | 78.6 | (1,854) |
| $X^2$(df) | 33.450(2)*** | 30.502(2)*** | 66.395(2)*** | |
| 자녀 계획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73.9 | 74.6 | 78.9 | (658)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72.2 | 73.6 | 73.3 | (1,136) |
| 미정 | 70.7 | 66.1 | 72.7 | (798) |
| $X^2$(df) | 22.825(4)*** | 26.438(4)*** | 21.580(4)***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영아(1-4세) | 79.0 | 71.2 | 79.2 | (254) |
| 유아(5-7세) | 82.0 | 78.8 | 79.0 | (167) |
| 초등 저학년 | 74.0 | 78.2 | 76.4 | (243) |
| 초등 고학년 | 72.3 | 80.0 | 79.8 | (189) |
| 중학생 | 73.8 | 80.6 | 77.9 | (137) |
| 고등학생 | 80.0 | 90.0 | 82.4 | (82) |
| 성인자녀 | 72.9 | 83.3 | 83.3 | (49) |
| $X^2$(df) | 17.532(12) | 30.011(12)** | 17.148(12) | |

* p 〈 .05, ** p 〈 .01, *** p 〈 .001

## 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인지도 및 기대효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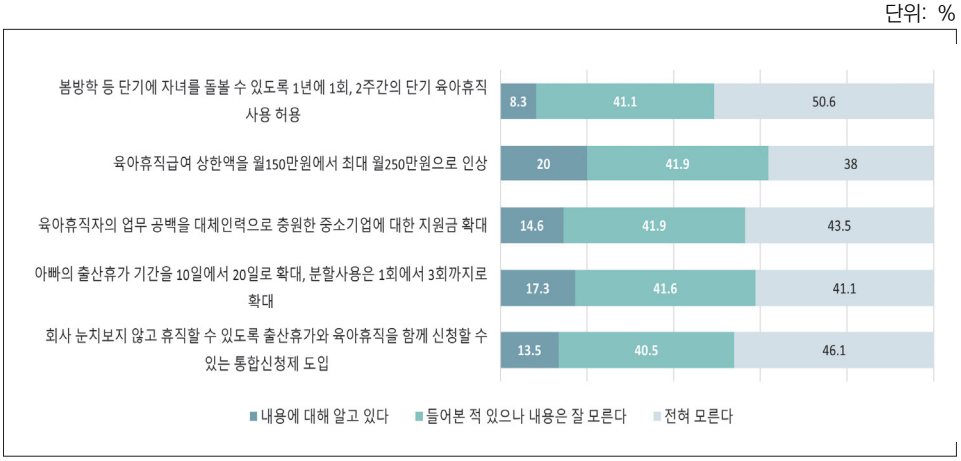
### 1)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 세부정책의 인지도

□ 일·가정 양립지원 분야의 다섯 개 세부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알지 못한다’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여 49.4~61.9%로, 전반적인 인지도 72.1%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육아휴직제도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이 61.9%로 가장 높고,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은 1회에서 3회 까지 확대’ 58.9%,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확대’ 56.5%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Ⅳ-2-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인지 여부(전체)**

단위: %




□ 저출생 대책 중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인지정도를 세부그룹별로 살펴봄.

- 전반적으로는 만25-29세의 인지도가 낮고, 만30-39세 남성과 맞벌이 가구의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며, 성별에 따라서는 단기 육아휴직 사용 허용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특히, 일·가정 양립 지원 영역에서 인지도가 61.9%로 가장 높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250만원으로 인상'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인 가구의 인지도가 49.5%로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단순직 등 기타 영역 직무인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제'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의 현상은 정책이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그룹에서의 정책인지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Ⅳ-2-3〉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 세부정책의 인지비율**

단위: %, (명)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1년 2주간 단기 육아 휴직 허용 | ②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250만원으로 인상 | ③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중소기업 지원금확대 | ④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⑤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제 | |
| 전체 | 49.4 | 61.9 | 56.5 | 58.9 | 54.0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52.3 | 62.4 | 56.2 | 57.9 | 55.6 | (1,337) |
| 여성 | 46.5 | 61.4 | 56.8 | 60.0 | 52.2 | (1,255) |
| $X^2$(df) | 7.498(2)* | 2.601(2) | 0.566(2) | 1.593(2) | 3.049(2)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45.9 | 54.3 | 49.0 | 54.4 | 49.8 | (489) |
| 만30-39세 | 47.6 | 66.2 | 58.5 | 59.2 | 53.3 | (964) |
| 만40-49세 | 52.6 | 61.7 | 58.1 | 60.7 | 56.2 | (1,139) |
| $X^2$(df) | 24.123(4)*** | 57.841(4)*** | 27.501(4)*** | 47.034(4)*** | 15.136(4)**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만25-29세 남성 | 47.6 | 55.9 | 48.7 | 53.0 | 50.0 | (256) |
| 만25-29세 여성 | 44.0 | 52.5 | 49.2 | 55.9 | 49.7 | (233) |
| 만30-39세 남성 | 51.5 | 66.3 | 58.6 | 59.3 | 55.8 | (502) |
| 만30-39세 여성 | 43.3 | 66.0 | 58.1 | 59.2 | 50.6 | (462) |
| 만40-49세 남성 | 54.8 | 61.9 | 57.3 | 58.9 | 58.0 | (579) |
| 만40-49세 여성 | 50.0 | 61.3 | 58.9 | 62.5 | 54.5 | (560) |
| $X^2$(df) | 34.671(10)*** | 61.412(10)*** | 28.901(10)** | 51.448(10)*** | 19.393(10)* | |
| 학력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8.4 | 56.5 | 52.2 | 55.6 | 52.0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49.0 | 62.9 | 57.4 | 58.7 | 54.2 | (1,668) |
| 대학원 재학 이상 | 54.9 | 69.7 | 61.3 | 68.4 | 57.3 | (275) |
| $X^2$(df) | 8.965(4) | 38.491(4)*** | 12.186(4)* | 20.713(4)*** | 10.760(4)* | |
| 자녀 유무 | | | | | | |
| 유자녀 | 53.5 | 67.5 | 61.4 | 64.7 | 57.9 | (1,122) |
| 무자녀 | 46.4 | 57.8 | 52.7 | 54.6 | 50.9 | (1,470) |
| $X^2$(df) | 13.647(2)** | 27.996(2)*** | 20.549(2)*** | 31.480(2)*** | 13.496(2)**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50.0 | 64.9 | 59.0 | 60.8 | 55.1 | (1,778) |
| 학업중 | 59.7 | 60.0 | 59.0 | 62.9 | 61.8 | (102) |
| 구직중 | 47.1 | 56.3 | 49.0 | 53.8 | 52.3 | (416) |
| 미취업 | 46.0 | 53.2 | 51.2 | 54.1 | 46.5 | (295) |
| $X^2$(df) | 20.790(6)** | 36.815(6)*** | 24.856(6)*** | 21.278(6)** | 19.451(6)** |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가구 | 55.4 | 73.0 | 66.3 | 67.9 | 60.9 | (724) |
| 외벌이 가구 | 51.0 | 63.0 | 58.0 | 60.5 | 53.5 | (578)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1년 2주간 단기 육아 휴직 허용 | ②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250만원 으로 인상 | ③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중소기업 지원금확대 | ④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⑤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제 | |
| 기타 | 45.3 | 55.3 | 50.2 | 53.3 | 50.2 | (1,290) |
| $X^2$(df) | 24.676(4)*** | 78.987(4)*** | 57.682(4)*** | 65.164(4)*** | 25.194(4)*** | |
| 혼인 상태 | | | | | | |
| 미혼 | 44.8 | 55.1 | 50.4 | 53.0 | 50.1 | (1,207) |
| 기혼 | 53.6 | 68.6 | 62.7 | 64.6 | 57.6 | (1,302) |
| 이혼/사별 | 53.1 | 57.4 | 46.9 | 56.7 | 53.0 | (82) |
| $X^2$(df) | 20.014(2)*** | 54.947(2)*** | 39.656(2)*** | 47.202(2)*** | 15.236(2)*** | |
| 거주 지역 | | | | | | |
| 대도시 | 49.5 | 61.9 | 55.5 | 59.1 | 55.2 | (1,132) |
| 중소도시 | 49.6 | 62.5 | 57.0 | 58.7 | 52.5 | (1,140) |
| 농어촌 | 49.0 | 60.1 | 57.9 | 59.2 | 54.8 | (320) |
| $X^2$(df) | 2.450(4) | 3.028(4) | 2.354(4) | 0.476(4) | 3.010(4)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55.2 | 75.5 | 60.4 | 72.1 | 64.5 | (162) |
| 공공기관 | 57.0 | 76.7 | 71.5 | 75.3 | 62.7 | (182) |
| 대기업 | 47.8 | 69.2 | 61.2 | 68.4 | 54.4 | (186) |
| 중소기업 | 48.2 | 61.3 | 57.9 | 56.2 | 53.2 | (859) |
| 기타 | 47.2 | 60.3 | 51.4 | 57.3 | 50.6 | (238) |
| 근로자 외 | 52.7 | 61.2 | 58.0 | 53.3 | 54.7 | (151) |
| $X^2$(df) | 20.695(10)* | 56.624(10)*** | 28.306(10)** | 50.062(10)*** | 23.609(10)** |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49.3 | 62.1 | 54.3 | 57.6 | 51.7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52.2 | 68.9 | 63.7 | 63.2 | 58.0 | (627) |
| 영업/판매직 | 54.1 | 57.7 | 55.2 | 53.8 | 57.9 | (76) |
| 서비스직 | 46.8 | 61.2 | 54.5 | 62.1 | 53.3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49.4 | 70.2 | 63.3 | 67.6 | 55.8 | (322) |
| 단순직 등 기타 | 40.7 | 50.1 | 43.3 | 45.3 | 46.3 | (107) |
| 근로자 외 | 52.7 | 61.2 | 58.0 | 53.3 | 54.7 | (151) |
| $X^2$(df) | 28.645(12)** | 52.767(12)*** | 34.176(12)** | 35.438(12)*** | 17.557(12)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53.9 | 49.5 | 46.7 | 50.8 | 54.1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45.2 | 58.4 | 52.3 | 54.7 | 48.6 | (65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49.7 | 61.5 | 54.6 | 58.1 | 53.9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47.9 | 63.7 | 57.5 | 59.9 | 53.7 | (377) |
| 900만원 이상 | 53.7 | 69.6 | 66.7 | 67.1 | 60.4 | (556) |
| $X^2$(df) | 17.846(8)* | 52.736(8)*** | 41.551(8)*** | 38.759(8)*** | 24.408(8)**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41.1 | 52.1 | 47.2 | 51.4 | 46.6 | (738)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1년 2주간 단기 육아 휴직 허용 | ②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250만원 으로 인상 | ③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중소기업 지원금확대 | ④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⑤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제 | |
| 긍정적 | 52.7 | 65.8 | 60.2 | 62.0 | 56.8 | (1,854) |
| $X^2$(df) | 33.898(2)*** | 53.631(2)*** | 38.511(2)*** | 34.280(2)*** | 29.376(2)*** | |
| 자녀 계획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56.1 | 67.8 | 62.2 | 63.2 | 59.7 | (658)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46.8 | 59.9 | 54.8 | 58.0 | 52.6 | (1,136) |
| 미정 | 47.7 | 60.0 | 54.1 | 56.6 | 51.1 | (798) |
| $X^2$(df) | 31.426(4)*** | 23.735(4)*** | 21.486(4)*** | 25.155(4)*** | 33.231(4)***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영아(1-4세) | 55.5 | 77.7 | 65.0 | 69.4 | 60.1 | (254) |
| 유아(5-7세) | 48.3 | 70.2 | 61.6 | 63.6 | 55.1 | (167) |
| 초등 저학년 | 47.8 | 62.0 | 55.5 | 62.2 | 54.2 | (243) |
| 초등 고학년 | 53.7 | 65.0 | 60.4 | 64.7 | 57.5 | (189) |
| 중학생 | 54.6 | 62.6 | 59.9 | 61.4 | 55.4 | (137) |
| 고등학생 | 67.3 | 63.8 | 72.6 | 70.0 | 70.0 | (82) |
| 성인자녀 | 60.5 | 60.2 | 60.4 | 56.2 | 62.5 | (49) |
| $X^2$(df) | 34.768(12)** | 56.047(12)*** | 29.392(12)** | 44.176(12)*** | 29.308(12)** | |

주: 1) 각 항목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응답을 합산한 비율임.
2) ①봄방학 등 단기에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1년에 1회,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 허용, ②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150만원에서 최대 월250만원으로 인상, ③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확대, ④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분할사용은 1회에서 3회까지로 확대, ⑤회사 눈치보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제 도입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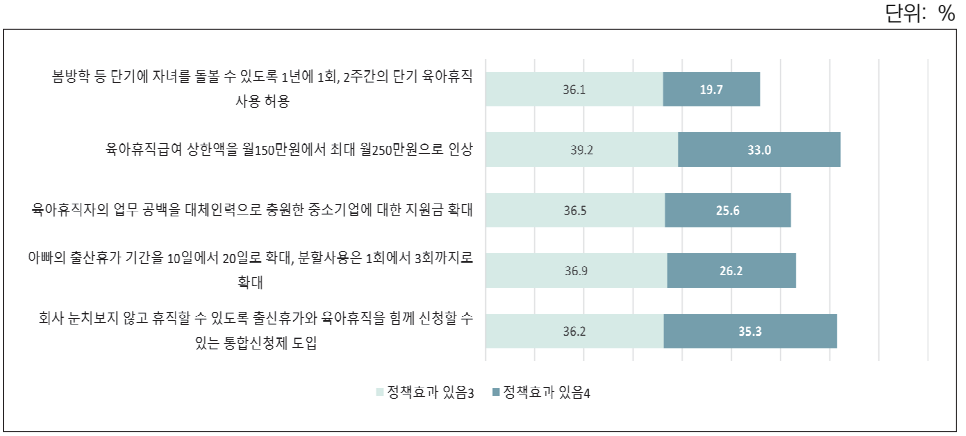
### 2)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 세부정책의 기대효과 인식

□ 일·가정 양립지원 분야의 다섯 개 세부 정책에 대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3점 이상 긍정 응답은 62.1~72.2%로 나타남.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150만원에서 최대 월250만원 인상'이 72.7%, '회사 눈치 보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제 도입'이 71.5%로 기대효과가 높게 나타남.

**[그림 Ⅳ-2-2]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인식 – 긍정비율(전체)**

단위: %




주: 긍정비율은 '효과 없음' 1점~'효과 있음' 4점 척도 중 3~4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 저출생 대책 중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에 대한 기대효과 인식 정도를 세부그룹별로 살펴봄.

- 전반적으로는 만30-39세 남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이고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응답자, 막내자녀 영아가구에서 기대효과가 높게 나타남.
- 특히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150만원에서 최대 월25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만30-39세 남녀,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의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및 분할 사용의 1회에서 3회까지로 확대'에 대해서는 만25-29세의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150만원에서 최대 월25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인 경우, 직무가 영업판매직인 경우, 취업상태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효과를 보임.
- 결혼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거나, 자녀를 낳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 경우 일·가정 양립지원 분야의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결혼 및 자녀출산에 대한 신념이 정책 기대효과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

**〈표 Ⅳ-2-4〉 일·가정 양립지원 분야 세부정책의 기대효과 인식 – 긍정비율**

단위: %, (명)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1년 2주간 단기 육아 휴직 허용 | ②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250만원으로 인상 | ③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중소기업 지원금확대 | ④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⑤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제 | |
| 전체 | 55.8 | 72.2 | 62.1 | 63.1 | 71.5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56.1 | 72.2 | 59.9 | 63.3 | 69.6 | (1,337) |
| 여성 | 55.4 | 72.2 | 64.4 | 63.0 | 73.5 | (1,255) |
| $X^2$(df) | 14.881(3)** | 1.883(3) | 17.065(3)** | 11.616(3)** | 13.224(3)**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58.2 | 70.6 | 60.4 | 69.8 | 73.2 | (489) |
| 만30-39세 | 56.4 | 74.9 | 61.6 | 64.8 | 72.3 | (964) |
| 만40-49세 | 54.2 | 70.6 | 63.2 | 58.9 | 70.1 | (1,139) |
| $X^2$(df) | 9.852(6) | 19.890(6)** | 17.532(6)** | 27.457(6)*** | 17.108(6)**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만25-29세 남성 | 59.9 | 69.6 | 58.9 | 70.8 | 74.4 | (256) |
| 만25-29세 여성 | 56.4 | 71.7 | 62.0 | 68.7 | 72.0 | (233) |
| 만30-39세 남성 | 58.9 | 75.9 | 60.5 | 66.1 | 71.3 | (502) |
| 만30-39세 여성 | 53.6 | 73.8 | 62.7 | 63.4 | 73.4 | (462) |
| 만40-49세 남성 | 51.9 | 70.2 | 59.7 | 57.6 | 66.1 | (579) |
| 만40-49세 여성 | 56.5 | 71.0 | 66.8 | 60.2 | 74.3 | (560) |
| $X^2$(df) | 32.901(15)** | 26.699(15)* | 40.764(15)*** | 41.488(15)*** | 41.752(15)*** | |
| 학력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56.1 | 70.5 | 65.3 | 63.8 | 72.0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55.5 | 72.5 | 60.9 | 63.0 | 71.7 | (1,668) |
| 대학원 재학 이상 | 56.7 | 74.1 | 61.7 | 62.2 | 69.3 | (275) |
| $X^2$(df) | 4.481(6) | 9.838(6) | 9.581(6) | 8.917(6) | 12.138(6) | |
| 자녀 유무 | | | | | | |
| 유자녀 | 58.8 | 73.5 | 64.4 | 61.6 | 72.0 | (1,122) |
| 무자녀 | 53.4 | 71.2 | 60.3 | 64.3 | 71.2 | (1,470) |
| $X^2$(df) | 28.618(3)*** | 9.552(3)* | 14.206(3)** | 4.895(3) | 6.940(3)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54.6 | 73.7 | 61.2 | 62.3 | 70.7 | (1,778) |
| 학업중 | 58.7 | 66.3 | 60.3 | 66.7 | 70.4 | (102) |
| 구직중 | 61.1 | 70.8 | 63.8 | 64.4 | 72.8 | (416) |
| 미취업 | 53.8 | 67.3 | 65.4 | 65.5 | 75.2 | (295) |
| $X^2$(df) | 8.707(9) | 11.427(9) | 13.423(9) | 8.253(9) | 8.208(9) |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가구 | 59.0 | 76.4 | 61.9 | 64.1 | 72.3 | (724) |
| 외벌이 가구 | 52.9 | 71.5 | 63.4 | 58.6 | 70.8 | (578) |
| 기타 | 55.2 | 70.2 | 61.5 | 64.6 | 71.4 | (1,290) |
| $X^2$(df) | 20.691(6)** | 18.385(6)** | 13.401(6)* | 14.008(6)* | 5.804(6) |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1년 2주간 단기 육아 휴직 허용 | ②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250만원으로 인상 | ③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중소기업 지원금확대 | ④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⑤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제 | |
| 혼인 상태 | | | | | | |
| 미혼 | 54.6 | 69.9 | 60.6 | 64.5 | 70.8 | (1,207) |
| 기혼 | 56.3 | 74.2 | 62.6 | 61.7 | 71.6 | (1,302) |
| 이혼/사별 | 64.9 | 73.9 | 75.0 | 66.3 | 80.5 | (82) |
| $X^2$(df) | 17.002(3)** | 10.466(3)* | 7.619(3) | 5.543(3) | 3.261(3) | |
| 거주 지역 | | | | | | |
| 대도시 | 56.0 | 71.5 | 62.6 | 62.8 | 71.6 | (1,132) |
| 중소도시 | 56.6 | 72.9 | 61.7 | 62.5 | 71.8 | (1,140) |
| 농어촌 | 51.8 | 72.3 | 61.2 | 66.6 | 70.1 | (320) |
| $X^2$(df) | 5.560(6) | 4.689(6) | 1.192(6) | 6.990(6) | 8.288(6)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60.8 | 81.4 | 69.7 | 72.2 | 80.5 | (162) |
| 공공기관 | 58.3 | 73.6 | 65.3 | 62.7 | 69.9 | (182) |
| 대기업 | 54.2 | 71.1 | 55.9 | 58.0 | 62.3 | (186) |
| 중소기업 | 52.7 | 73.1 | 59.4 | 60.5 | 69.1 | (859) |
| 기타 | 56.0 | 75.1 | 63.6 | 64.4 | 75.0 | (238) |
| 근로자 외 | 53.0 | 69.4 | 60.7 | 63.3 | 73.3 | (151) |
| $X^2$(df) | 31.541(15)** | 33.678(15)** | 31.227(15)** | 26.792(15)* | 40.668(15)*** |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57.0 | 73.8 | 62.1 | 63.2 | 66.7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52.2 | 75.2 | 59.3 | 61.3 | 70.8 | (627) |
| 영업/판매직 | 41.7 | 67.4 | 59.4 | 56.6 | 65.9 | (76) |
| 서비스직 | 55.0 | 73.1 | 61.9 | 62.3 | 70.4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60.5 | 74.9 | 62.0 | 62.2 | 70.9 | (322) |
| 단순직 등 기타 | 56.3 | 72.5 | 68.5 | 68.7 | 79.2 | (107) |
| 근로자 외 | 53.0 | 69.4 | 60.7 | 63.3 | 73.3 | (151) |
| $X^2$(df) | 28.412(18) | 16.010(18) | 13.125(18) | 16.503(18) | 22.403(18)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55.3 | 64.9 | 55.8 | 62.5 | 72.6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56.5 | 73.7 | 64.5 | 63.9 | 73.8 | (65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54.6 | 72.1 | 62.3 | 63.1 | 71.0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55.6 | 73.7 | 61.3 | 62.2 | 71.1 | (377) |
| 900만원 이상 | 56.8 | 71.9 | 61.3 | 63.3 | 69.5 | (556) |
| $X^2$(df) | 15.598(12) | 19.052(12) | 17.196(12) | 18.563(12) | 34.479(12)**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41.4 | 60.5 | 52.8 | 51.7 | 59.7 | (738) |
| 긍정적 | 61.5 | 76.9 | 65.8 | 67.7 | 76.2 | (1,854) |
| $X^2$(df) | 99.897(3)*** | 114.534(3)*** | 62.358(3)*** | 88.327(3)*** | 84.965(3)*** | |
| 자녀 계획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67.9 | 83.0 | 72.2 | 77.1 | 82.2 | (658)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1년 2주간 단기 육아휴직 허용 | ②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250만원으로 인상 | ③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중소기업 지원금확대 | ④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⑤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제 |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51.1 | 67.5 | 59.0 | 56.8 | 67.2 | (1,136) |
| 미정 | 52.4 | 70.0 | 58.1 | 60.7 | 68.9 | (798) |
| $X^2$(df) | 63.977(6)*** | 78.225(6)*** | 57.411(6)*** | 98.539(6)*** | 59.548(6)***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영아(1-4세) | 63.9 | 79.0 | 65.8 | 67.4 | 74.6 | (254) |
| 유아(5-7세) | 59.0 | 74.6 | 65.1 | 59.5 | 68.6 | (167) |
| 초등 저학년 | 56.3 | 74.1 | 61.1 | 58.1 | 70.7 | (243) |
| 초등 고학년 | 60.3 | 67.5 | 66.9 | 59.0 | 71.0 | (189) |
| 중학생 | 49.5 | 67.9 | 55.2 | 58.2 | 71.8 | (137) |
| 고등학생 | 59.0 | 73.7 | 71.2 | 61.2 | 77.4 | (82) |
| 성인자녀 | 64.3 | 77.0 | 76.9 | 76.9 | 70.9 | (49) |
| $X^2$(df) | 24.854(18) | 31.210(18)* | 26.779(18) | 26.227(18) | 26.333(18) | |

주: 1) 긍정비율은 각 항목에 대해 '효과 없음' 1점~'효과 있음' 4점 척도 중 3~4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2) ①봄방학 등 단기에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1년에 1회,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 허용, ②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150만원에서 최대 월250만원으로 인상, ③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확대, ④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분할사용은 1회에서 3회까지로 확대, ⑤회사 눈치보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제 도입

* p < .05, ** p < .01, *** p < .001

## 나. 교육·돌봄 지원정책 인지도 및 기대효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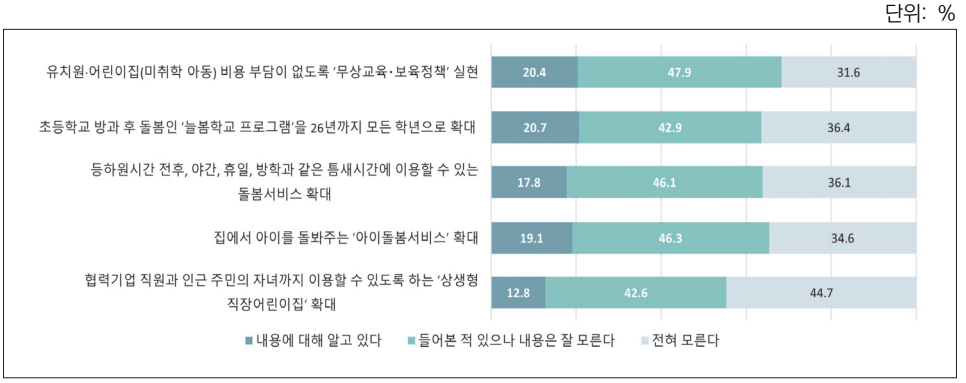
### 1) 교육·돌봄 지원 분야 세부정책의 인지도

□ '교육·돌봄 지원' 분야의 다섯 개 세부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알지 못한다'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여 55.4~68.3%로, 전반적인 인지도 71.5%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유치원·어린이집(미취학아동) 비용부담이 없도록 무상교육·보육실현'이 68.3%로 가장 높고, '협력기업 직원과 인근 주민의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가 55.4%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임.

**[그림 Ⅳ-2-3] 교육·돌봄 지원정책의 인지 여부(전체)**

단위: %




주: 각 항목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응답을 합산한 비율임.

□ 저출생 대책 중 교육·돌봄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정도를 세부그룹별로 살펴봄.

- 남성 응답자, 만25-29세 남성, 단순직 등과 생산/제조/현장기술직 응답자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반면, 결혼에 긍정적이고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응답자와 막내자녀 유아가구 및 초등저학년가구에서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 본인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차이가 없었고 본인 직장유형에 따라서는 대기업 근무자의 경우 '초등돌봄 전학년 확대', '휴일 돌봄 서비스',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Ⅳ-2-5〉 교육·돌봄지원 분야 세부정책의 인지비율**

단위: %, (명)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미취학무상 교육보육 정책실현 | ② 초등 늘봄학교 전학년확대 | ③ 휴일 등 돌봄서비스 확대 | ④ 아이돌봄 서비스확대 | ⑤ 상생형직장 어린이집 확대 | |
| 전체 | 68.3 | 63.6 | 63.9 | 65.4 | 55.4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65.6 | 59.1 | 60.6 | 60.8 | 54.9 | (1,337) |
| 여성 | 71.3 | 68.4 | 67.2 | 70.3 | 55.9 | (1,255) |
| $X^2$(df) | 18.762(2)*** | 28.629(2)*** | 14.982(2)** | 35.250(2)*** | 0.515(2)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62.6 | 53.2 | 57.5 | 59.1 | 52.5 | (489) |
| 만30-39세 | 65.7 | 61.5 | 61.2 | 62.8 | 51.8 | (964)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미취학무상 교육보육 정책실현 | ② 초등 늘봄학교 전학년확대 | ③ 휴일 등 돌봄서비스 확대 | ④ 아이돌봄 서비스확대 | ⑤ 상생형직장 어린이집 확대 | |
| 만40-49세 | 73.1 | 69.9 | 68.8 | 70.3 | 59.6 | (1,139) |
| $X^2$(df) | 26.791(4)*** | 46.043(4)*** | 31.013(4)*** | 31.056(4)*** | 21.569(4)***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만25-29세 남성 | 61.4 | 52.0 | 55.1 | 57.9 | 52.1 | (256) |
| 만25-29세 여성 | 63.9 | 54.4 | 60.2 | 60.4 | 53.1 | (233) |
| 만30-39세 남성 | 64.8 | 58.7 | 59.8 | 59.2 | 53.9 | (502) |
| 만30-39세 여성 | 66.6 | 64.6 | 62.8 | 66.6 | 49.4 | (462) |
| 만40-49세 남성 | 68.1 | 62.7 | 63.9 | 63.3 | 56.8 | (579) |
| 만40-49세 여성 | 78.3 | 77.3 | 73.9 | 77.5 | 62.4 | (560) |
| $X^2$(df) | 51.793(10)*** | 88.368(10)*** | 51.909(10)*** | 76.190(10)*** | 29.550(10)** | |
| 학력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68.0 | 63.2 | 63.9 | 65.6 | 54.1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68.3 | 63.3 | 63.3 | 65.3 | 56.3 | (1,668) |
| 대학원 재학 이상 | 69.2 | 66.5 | 66.8 | 65.7 | 52.9 | (275) |
| $X^2$(df) | 10.123(4)* | 7.281(4) | 5.810(4) | 8.279(4) | 8.080(4) | |
| 자녀 유무 | | | | | | |
| 유자녀 | 76.6 | 74.7 | 72.1 | 76.0 | 61.3 | (1,122) |
| 무자녀 | 62.0 | 55.1 | 57.6 | 57.3 | 50.8 | (1,470) |
| $X^2$(df) | 69.178(2)*** | 114.234(2)*** | 61.704(2)*** | 100.487(2)*** | 28.897(2)***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68.9 | 63.1 | 63.7 | 64.7 | 55.4 | (1,778) |
| 학업중 | 70.0 | 70.5 | 71.5 | 74.6 | 59.8 | (102) |
| 구직중 | 66.6 | 62.1 | 64.7 | 65.0 | 58.2 | (416) |
| 미취업 | 67.1 | 66.5 | 60.9 | 66.7 | 49.3 | (295) |
| $X^2$(df) | 10.264(6) | 8.125(6) | 6.278(6) | 4.773(6) | 11.526(6) |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가구 | 74.8 | 72.2 | 71.2 | 73.2 | 60.3 | (724) |
| 외벌이 가구 | 72.9 | 70.9 | 67.7 | 69.9 | 57.8 | (578) |
| 기타 | 62.7 | 55.5 | 58.0 | 59.0 | 51.4 | (1,290) |
| $X^2$(df) | 40.357(4)*** | 79.077(4)*** | 43.265(4)*** | 49.588(4)*** | 18.500(4)** | |
| 혼인 상태 | | | | | | |
| 미혼 | 61.6 | 54.5 | 57.3 | 58.1 | 51.0 | (1,207) |
| 기혼 | 73.9 | 71.6 | 69.7 | 71.7 | 59.2 | (1,302) |
| 이혼/사별 | 78.7 | 71.5 | 69.0 | 72.6 | 59.2 | (82) |
| $X^2$(df) | 46.426(2)*** | 86.003(2)*** | 44.440(2)*** | 53.801(2)*** | 17.571(2)*** |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미취학무상 교육보육 정책실현 | ② 초등 늘봄학교 전학년확대 | ③ 휴일 등 돌봄서비스 확대 | ④ 아이돌봄 서비스확대 | ⑤ 상생형직장 어린이집 확대 | |
| 거주 지역 | | | | | | |
| 대도시 | 67.6 | 62.3 | 63.2 | 61.5 | 53.7 | (1,132) |
| 중소도시 | 68.5 | 64.4 | 64.2 | 68.1 | 56.9 | (1,140) |
| 농어촌 | 70.5 | 65.4 | 64.9 | 69.1 | 55.3 | (320) |
| $X^2$(df) | 1.636(4) | 1.768(4) | 3.613(4) | 12.505(4)* | 2.353(4)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81.1 | 79.9 | 73.6 | 74.6 | 63.3 | (162) |
| 공공기관 | 72.1 | 71.0 | 72.9 | 70.5 | 64.3 | (182) |
| 대기업 | 64.4 | 55.8 | 56.9 | 56.8 | 52.7 | (186) |
| 중소기업 | 65.9 | 57.9 | 61.6 | 62.6 | 52.2 | (859) |
| 기타 | 71.1 | 67.9 | 61.8 | 68.5 | 53.9 | (238) |
| 근로자 외 | 70.9 | 66.4 | 64.9 | 63.4 | 60.1 | (151) |
| $X^2$(df) | 37.259(10)*** | 65.071(10)*** | 41.166(10)*** | 42.599(10)*** | 27.497(10)** |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68.6 | 60.5 | 58.3 | 57.1 | 55.0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69.1 | 63.2 | 64.3 | 63.9 | 55.1 | (627) |
| 영업/판매직 | 64.2 | 54.7 | 57.7 | 64.6 | 53.7 | (76) |
| 서비스직 | 67.6 | 63.2 | 62.2 | 67.4 | 51.6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70.4 | 66.1 | 70.1 | 71.4 | 59.5 | (322) |
| 단순직 등 기타 | 67.0 | 60.8 | 59.4 | 64.1 | 48.9 | (107) |
| 근로자 외 | 70.9 | 66.4 | 64.9 | 63.4 | 60.1 | (151) |
| $X^2$(df) | 15.142(12) | 18.686(12) | 22.846(12)* | 22.467(12)* | 11.088(12)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62.1 | 57.3 | 60.5 | 62.8 | 51.4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64.5 | 59.7 | 59.8 | 60.1 | 50.7 | (65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69.2 | 64.6 | 63.3 | 67.0 | 56.2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69.1 | 66.2 | 65.3 | 66.7 | 58.8 | (377) |
| 900만원 이상 | 73.4 | 67.1 | 69.6 | 69.3 | 58.4 | (556) |
| $X^2$(df) | 17.541(8)* | 21.480(8)** | 15.158(8) | 17.336(8)* | 16.159(8)*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63.1 | 58.7 | 58.0 | 57.7 | 47.5 | (738) |
| 긍정적 | 70.5 | 65.5 | 66.2 | 68.4 | 58.4 | (1,854) |
| $X^2$(df) | 21.137(2)*** | 27.122(2)*** | 20.850(2)*** | 35.181(2)*** | 36.206(2)*** | |
| 자녀 계획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69.4 | 61.3 | 64.2 | 65.3 | 57.9 | (658)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미취학무상 교육보육 정책실현 | ② 초등 늘봄학교 전학년확대 | ③ 휴일 등 돌봄서비스 확대 | ④ 아이돌봄 서비스확대 | ⑤ 상생형직장 어린이집 확대 |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69.5 | 67.6 | 66.1 | 67.7 | 54.3 | (1,136) |
| 미정 | 65.7 | 59.7 | 60.4 | 62.2 | 54.8 | (798) |
| $X^2$(df) | 11.067(4)* | 30.542(4)*** | 11.062(4)* | 11.110(4)* | 10.543(4)*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영아(1-4세) | 71.0 | 65.2 | 65.4 | 72.5 | 57.1 | (254) |
| 유아(5-7세) | 78.3 | 77.3 | 71.7 | 78.9 | 60.3 | (167) |
| 초등 저학년 | 75.5 | 81.6 | 78.6 | 75.4 | 59.5 | (243) |
| 초등 고학년 | 77.4 | 73.7 | 70.9 | 77.0 | 59.3 | (189) |
| 중학생 | 78.6 | 72.3 | 71.6 | 74.8 | 66.7 | (137) |
| 고등학생 | 86.2 | 82.5 | 78.6 | 82.5 | 74.9 | (82) |
| 성인자녀 | 81.4 | 77.1 | 70.8 | 75.0 | 64.6 | (49) |
| $X^2$(df) | 18.953(12) | 41.899(12)*** | 23.399(12)* | 22.840(12)* | 24.592(12)* | |

주: 1) 각 항목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응답을 합산한 비율임.
2) ①유치원·어린이집(미취학 아동) 비용 부담이 없도록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 ②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26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 ③등하원시간 전후, 야간, 휴일, 방학과 같은 틈새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확대, ④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⑤협력기업 직원과 인근 주민의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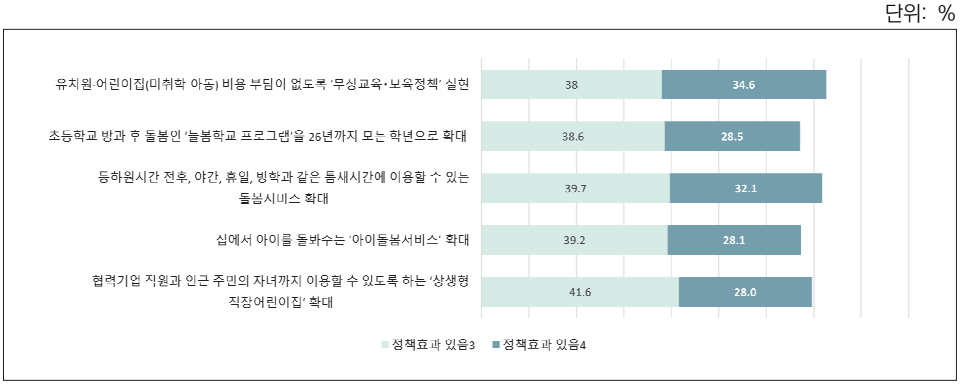
### 2) 교육·돌봄 지원 분야 세부정책의 기대효과 인식

□ 교육·돌봄지원 분야의 다섯 개 세부 정책에 대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3점 이상 긍정 응답은 67.1~72.5%로 고르게 나타남.

- '유치원·어린이집(미취학 아동) 비용 부담이 없도록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 72.5%, '등·하원시간 전·후, 야간, 휴일, 방학과 같은 틈새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확대' 71.8%, '협력기업 직원과 인근 주민의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69.6%,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67.3%,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2027년 모든 학년으로 확대' 67.1%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Ⅳ-2-4] 교육·돌봄 지원정책의 기대효과 인식 - 긍정비율(전체)**

단위: %




주: 긍정비율은 각 항목에 대해 '효과 없음' 1점~'효과 있음' 4점 척도 중 3~4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 저출생 대책 중 교육·돌봄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효과 인식 정도를 세부그룹별로 살펴봄.

- 막내자녀 영아~초등저학년 가구에서 전반적으로 기대효과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특히 '유치원·어린이집(미취학 아동) 비용 부담이 없도록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은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응답자에서 76.9%로 높게 나타남.
- 결혼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거나, 자녀를 낳지 계획이라고 한 경우 교육·돌봄 지원 정책 분야의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결혼 및 자녀출산에 대한 신념이 정책 기대효과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

**〈표 Ⅳ-2-6〉 교육·돌봄 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인식 - 긍정비율**

단위: %, (명)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미취학 무상교육 보육정책실현 | ② 초등늘봄 학교전학년 확대 | ③ 휴일 등 돌봄서비스 확대 | ④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⑤ 상생형직장 어린이집 확대 | |
| 전체 | 72.5 | 67.1 | 71.8 | 67.3 | 69.6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72.8 | 67.2 | 69.7 | 66.0 | 67.2 | (1,337) |
| 여성 | 72.2 | 67.0 | 74.0 | 68.8 | 72.3 | (1,255) |
| $X^2$(df) | 2.383(3) | 1.020(3) | 6.677(3) | 3.542(3) | 7.326(3)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72.6 | 65.5 | 68.7 | 63.3 | 71.5 | (489)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미취학 무상교육 보육정책실현 | ② 초등늘봄 학교전학년 확대 | ③ 휴일 등 돌봄서비스 확대 | ④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⑤ 상생형직장 어린이집 확대 | |
| 만30-39세 | 74.7 | 68.3 | 73.9 | 69.1 | 70.5 | (964) |
| 만40-49세 | 70.6 | 66.7 | 71.4 | 67.6 | 68.2 | (1,139) |
| $X^2$(df) | 25.069(6)*** | 15.238(6)* | 12.426(6) | 10.028(6) | 15.058(6)*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만25-29세 남성 | 72.6 | 64.4 | 68.5 | 64.8 | 72.2 | (256) |
| 만25-29세 여성 | 72.7 | 66.8 | 68.9 | 61.7 | 70.6 | (233) |
| 만30-39세 남성 | 75.8 | 69.1 | 70.5 | 67.6 | 69.1 | (502) |
| 만30-39세 여성 | 73.4 | 67.4 | 77.5 | 70.8 | 71.9 | (462) |
| 만40-49세 남성 | 70.1 | 66.8 | 69.6 | 65.1 | 63.3 | (579) |
| 만40-49세 여성 | 71.1 | 66.7 | 73.2 | 70.1 | 73.2 | (560) |
| $X^2$(df) | 33.193(15)** | 27.715(15)* | 30.343(15)* | 19.815(15) | 35.853(15)** | |
| 학력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75.0 | 71.8 | 72.3 | 70.7 | 71.8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71.3 | 65.7 | 71.0 | 65.9 | 69.1 | (1,668) |
| 대학원 재학 이상 | 73.8 | 64.0 | 75.2 | 67.9 | 67.7 | (275) |
| $X^2$(df)/F | 4.628(6) | 13.659(6)* | 6.988(6) | 15.112(6)* | 15.961(6)* | |
| 자녀 유무 | | | | | | |
| 유자녀 | 74.5 | 69.5 | 74.4 | 69.4 | 70.0 | (1,122) |
| 무자녀 | 71.0 | 65.2 | 69.8 | 65.8 | 69.4 | (1,470) |
| $X^2$(df)/t | 13.894(3)** | 19.304(3)*** | 13.445(3)** | 17.542(3)** | 1.326(3)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72.3 | 67.1 | 72.3 | 67.3 | 68.6 | (1,778) |
| 학업중 | 71.3 | 66.5 | 69.7 | 69.0 | 72.5 | (102) |
| 구직중 | 75.6 | 68.3 | 72.4 | 68.3 | 75.1 | (416) |
| 미취업 | 70.1 | 65.4 | 68.9 | 65.9 | 67.2 | (295) |
| $X^2$(df) | 12.458(9) | 6.170(9) | 5.562(9) | 12.331(9) | 11.630(9) |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가구 | 74.0 | 68.1 | 76.0 | 69.4 | 70.9 | (724) |
| 외벌이 가구 | 73.0 | 69.8 | 70.7 | 68.6 | 68.0 | (578) |
| 기타 | 71.5 | 65.3 | 69.9 | 65.6 | 69.7 | (1,290) |
| $X^2$(df) | 16.857(6)* | 20.139(6)** | 20.491(6)** | 19.955(6)** | 7.757(6) | |
| 혼인 상태 | | | | | | |
| 미혼 | 70.9 | 64.5 | 69.4 | 65.1 | 69.7 | (1,207) |
| 기혼 | 73.5 | 68.9 | 73.7 | 69.0 | 69.6 | (1,302) |
| 이혼/사별 | 80.1 | 76.2 | 77.6 | 72.9 | 69.2 | (82) |
| $X^2$(df) | 17.384(3)** | 18.910(3)*** | 14.660(3)** | 18.866(3)*** | 3.923(3) | |
| 거주 지역 | | | | | | |
| 대도시 | 73.0 | 66.9 | 71.4 | 67.1 | 68.6 | (1,132) |
| 중소도시 | 72.7 | 67.4 | 72.4 | 67.7 | 70.6 | (1,140)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미취학 무상교육 보육정책실현 | ② 초등늘봄 학교전학년 확대 | ③ 휴일 등 돌봄서비스 확대 | ④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⑤ 상생형직장 어린이집 확대 | |
| 농어촌 | 70.1 | 66.6 | 71.0 | 67.1 | 69.9 | (320) |
| $X^2$(df) | 6.208(6) | 6.747(6) | 2.207(6) | 3.960(6) | 5.357(6)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78.9 | 61.2 | 75.0 | 74.8 | 72.1 | (162) |
| 공공기관 | 75.4 | 71.5 | 75.3 | 66.0 | 65.7 | (182) |
| 대기업 | 72.0 | 62.8 | 72.1 | 64.5 | 62.8 | (186) |
| 중소기업 | 69.9 | 67.4 | 69.7 | 65.8 | 68.6 | (859) |
| 기타 | 73.1 | 66.6 | 76.0 | 69.3 | 73.1 | (238) |
| 근로자 외 | 74.1 | 72.7 | 74.8 | 69.5 | 68.7 | (151) |
| $X^2$(df) | 30.367(15)* | 33.971(15)** | 28.090(15)* | 26.368(15)* | 16.688(15) |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71.5 | 69.1 | 65.9 | 67.6 | 68.3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72.0 | 66.8 | 71.8 | 65.3 | 66.4 | (627) |
| 영업/판매직 | 69.6 | 64.7 | 69.8 | 67.1 | 66.8 | (76) |
| 서비스직 | 72.0 | 64.0 | 71.7 | 65.6 | 70.1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72.0 | 66.3 | 75.8 | 71.5 | 72.3 | (322) |
| 단순직 등 기타 | 76.1 | 67.8 | 79.1 | 66.0 | 69.0 | (107) |
| 근로자 외 | 74.1 | 72.7 | 74.8 | 69.5 | 68.7 | (151) |
| $X^2$(df) | 13.137(18) | 14.743(18) | 15.226(18) | 22.588(18) | 17.292(18)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71.1 | 65.7 | 67.5 | 63.7 | 65.7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76.9 | 72.3 | 74.0 | 70.7 | 72.4 | (65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71.6 | 67.1 | 71.7 | 66.2 | 70.9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71.4 | 66.3 | 71.5 | 67.3 | 67.3 | (377) |
| 900만원 이상 | 69.8 | 61.8 | 71.1 | 66.3 | 67.4 | (556) |
| $X^2$(df) | 23.186(12)* | 19.129(12) | 16.987(12) | 13.657(12) | 13.209(12)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62.1 | 56.7 | 63.1 | 58.6 | 60.4 | (738) |
| 긍정적 | 76.7 | 71.2 | 75.3 | 70.8 | 73.3 | (1,854) |
| $X^2$(df) | 71.342(3)*** | 71.373(3)*** | 63.365(3)*** | 58.366(3)*** | 53.590(3)*** | |
| 자녀 계획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79.4 | 73.7 | 79.2 | 76.0 | 77.0 | (658)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69.4 | 63.6 | 70.1 | 64.1 | 66.4 | (1,136) |
| 미정 | 71.2 | 66.6 | 68.3 | 64.7 | 68.2 | (798) |
| $X^2$(df) | 34.187(6)*** | 36.306(6)*** | 41.560(6)*** | 44.982(6)*** | 34.797(6)***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영아(1-4세) | 79.9 | 73.5 | 81.4 | 74.4 | 70.9 | (254) |
| 유아(5-7세) | 77.7 | 73.4 | 76.9 | 69.3 | 68.1 | (167) |
| 초등 저학년 | 68.5 | 68.1 | 73.1 | 68.3 | 66.7 | (243)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미취학 무상교육 보육정책실현 | ② 초등늘봄 학교전학년 확대 | ③ 휴일 등 돌봄서비스 확대 | ④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⑤ 상생형직장 어린이집 확대 | |
| 초등 고학년 | 70.3 | 64.4 | 68.2 | 63.2 | 66.9 | (189) |
| 중학생 | 68.7 | 63.4 | 65.8 | 63.6 | 68.1 | (137) |
| 고등학생 | 82.4 | 72.4 | 77.5 | 79.4 | 80.3 | (82) |
| 성인자녀 | 83.4 | 75.0 | 79.3 | 73.1 | 87.6 | (49) |
| $X^2$(df) | 41.513(18)** | 29.393(18)* | 45.668(18)*** | 21.845(18) | 29.941(18)* | |

주: 1) 긍정비율은 각 항목에 대해 '효과 없음' 1점~'효과 있음' 4점 척도 중 3~4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2) ①유치원·어린이집(미취학 아동) 비용 부담이 없도록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 ②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26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 ③등하원시간 전후, 야간, 휴일, 방학과 같은 틈새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확대, ④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⑤협력기업 직원과 인근 주민의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 p 〈 .05, ** p 〈 .01, *** p 〈 .001

## 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정책 인지도 및 기대효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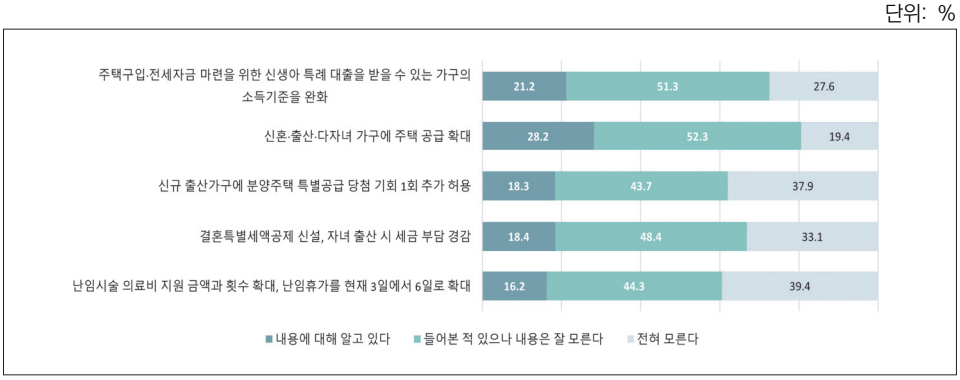
### 1)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지원 분야 세부정책의 인지도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지원' 분야의 다섯 개 세부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알지 못한다'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여 60.5~80.5%로 격차를 보임

-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인지도가 80.5%로 가장 높고, '주택구입·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는 72.5%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Ⅳ-2-5]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정책의 인지 여부(전체)**

단위: %



□ 저출생 대책 중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정도를 세부그룹별로 살펴봄.

- 전반적으로 남성 응답자, 만25-29세 남녀, 미혼, 결혼에 부정적인 응답자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반면, 영아자녀를 둔 가구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임.
- '주택구입·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와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주택공급 확대'의 인지도는 만30-39세 응답자에서 75.9%와 82.2%로 높고, 그 중에서도 만30-39세 여성에서 78.6%와 84.2%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임.

**〈표 Ⅳ-2-7〉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지원 분야 세부정책의 인지비율**

단위: %, (명)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완화 | ② 신혼 및 다자녀가구 주택공급확대 | ③ 출산가구특별 공급당첨기회 추가허용 | ④ 결혼특별세 공제,자녀출산 시세금경감 | ⑤ 난임시술비 확대, 휴가 6일로 확대 | |
| 전체 | 72.5 | 80.5 | 62.0 | 66.8 | 60.5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70.4 | 77.8 | 62.3 | 66.1 | 60.2 | (1,337) |
| 여성 | 74.7 | 83.5 | 61.9 | 67.7 | 61.0 | (1,255) |
| $X^2$(df) | 6.036(2)* | 13.822(2)** | 1.566(2) | 6.292(2)* | 0.138(2)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64.6 | 75.1 | 58.2 | 61.5 | 52.2 | (489) |
| 만30-39세 | 75.9 | 82.2 | 61.0 | 66.7 | 60.6 | (964) |
| 만40-49세 | 72.9 | 81.5 | 64.6 | 69.4 | 64.2 | (1,139) |
| $X^2$(df) | 59.114(4)*** | 31.291(4)*** | 32.709(4)*** | 28.944(4)*** | 29.098(4)***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만25-29세 남성 | 67.1 | 72.0 | 62.3 | 64.8 | 53.4 | (256) |
| 만25-29세 여성 | 61.9 | 78.5 | 53.7 | 57.8 | 50.9 | (233) |
| 만30-39세 남성 | 73.2 | 80.4 | 61.8 | 66.9 | 62.0 | (502) |
| 만30-39세 여성 | 78.6 | 84.2 | 60.2 | 66.5 | 59.1 | (462) |
| 만40-49세 남성 | 69.5 | 78.2 | 62.5 | 65.9 | 61.7 | (579) |
| 만40-49세 여성 | 76.5 | 84.9 | 66.7 | 72.8 | 66.8 | (560) |
| $X^2$(df) | 72.882(10)*** | 46.402(10)*** | 42.649(10)*** | 46.070(10)*** | 37.050(10)*** | |
| 학력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68.8 | 76.8 | 59.8 | 64.3 | 59.9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73.0 | 81.1 | 62.2 | 66.9 | 60.0 | (1,668)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완화 | ② 신혼 및 다자녀가구 주택공급확대 | ③ 출산가구특별 공급당첨기회 추가허용 | ④ 결혼특별세 공제,자녀출산 시세금경감 | ⑤ 난임시술비 확대, 휴가 6일로 확대 | |
| 대학원 재학 이상 | 77.6 | 86.0 | 66.9 | 72.8 | 65.9 | (275) |
| $X^2$(df) | 21.315(4)*** | 21.022(4)*** | 7.908(4) | 7.549(4) | 8.193(4) | |
| 자녀 유무 | | | | | | |
| 유자녀 | 78.7 | 85.4 | 68.6 | 73.6 | 67.9 | (1,122) |
| 무자녀 | 67.7 | 76.9 | 57.1 | 61.8 | 54.9 | (1,470) |
| $X^2$(df) | 39.891(2)*** | 30.250(2)*** | 37.025(2)*** | 42.538(2)*** | 45.710(2)***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73.7 | 81.3 | 62.1 | 67.8 | 62.4 | (1,778) |
| 학업중 | 70.3 | 80.7 | 70.2 | 67.6 | 62.3 | (102) |
| 구직중 | 68.5 | 79.8 | 63.3 | 64.8 | 55.9 | (416) |
| 미취업 | 71.3 | 76.7 | 57.5 | 64.1 | 55.6 | (295) |
| $X^2$(df) | 12.927(6)* | 11.819(6) | 8.667(6) | 10.135(6) | 17.281(6)** |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가구 | 78.8 | 84.8 | 67.0 | 72.8 | 69.1 | (724) |
| 외벌이 가구 | 78.3 | 84.6 | 68.3 | 73.2 | 65.4 | (578) |
| 기타 | 66.3 | 76.4 | 56.6 | 60.8 | 53.7 | (1,290) |
| $X^2$(df) | 58.039(4)*** | 32.461(4)*** | 35.544(4)*** | 46.246(4)*** | 55.586(4)*** | |
| 혼인 상태 | | | | | | |
| 미혼 | 65.8 | 76.1 | 56.1 | 60.7 | 53.0 | (1,207) |
| 기혼 | 78.6 | 84.7 | 67.5 | 73.0 | 67.4 | (1,302) |
| 이혼/사별 | 73.7 | 81.1 | 64.0 | 61.4 | 62.5 | (82) |
| $X^2$(df) | 57.976(2)*** | 32.855(2)*** | 36.366(2)*** | 44.995(2)*** | 54.714(2)*** | |
| 거주 지역 | | | | | | |
| 대도시 | 72.7 | 80.9 | 62.6 | 66.4 | 60.0 | (1,132) |
| 중소도시 | 72.3 | 80.8 | 62.0 | 67.2 | 61.2 | (1,140) |
| 농어촌 | 71.7 | 78.8 | 60.3 | 67.6 | 60.3 | (320) |
| $X^2$(df) | 2.658(4) | 1.289(4) | 0.892(4) | 1.123(4) | 0.505(4)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86.6 | 88.4 | 70.6 | 81.7 | 75.3 | (162) |
| 공공기관 | 79.2 | 86.8 | 70.1 | 73.0 | 69.8 | (182) |
| 대기업 | 71.7 | 79.8 | 63.4 | 66.4 | 61.3 | (186) |
| 중소기업 | 71.0 | 79.4 | 58.9 | 65.5 | 59.5 | (859) |
| 기타 | 73.3 | 81.1 | 55.7 | 62.2 | 58.7 | (238) |
| 근로자 외 | 71.5 | 81.2 | 69.5 | 70.1 | 63.5 | (151) |
| $X^2$(df) | 37.076(10)*** | 22.709(10)* | 28.250(10)** | 35.200(10)*** | 41.796(10)*** |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72.2 | 75.8 | 56.4 | 64.2 | 58.8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75.5 | 83.5 | 63.7 | 69.0 | 65.7 | (627)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완화 | ② 신혼 및 다자녀가구 주택공급확대 | ③ 출산가구특별 공급당첨기회 추가허용 | ④ 결혼특별세 공제,자녀출산 시세금경감 | ⑤ 난임시술비 확대, 휴가 6일로 확대 | |
| 영업/판매직 | 70.9 | 73.5 | 60.2 | 66.9 | 60.4 | (76) |
| 서비스직 | 68.7 | 80.2 | 57.5 | 61.7 | 55.8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77.6 | 86.5 | 66.5 | 73.1 | 66.5 | (322) |
| 단순직 등 기타 | 70.4 | 75.5 | 53.6 | 64.2 | 54.6 | (107) |
| 근로자 외 | 71.5 | 81.2 | 69.5 | 70.1 | 63.5 | (151) |
| $X^2$(df) | 21.076(12)* | 24.459(12)* | 18.860(12) | 18.803(12) | 30.752(12)**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64.5 | 69.4 | 58.0 | 59.0 | 54.2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69.4 | 77.3 | 58.7 | 61.5 | 55.1 | (65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73.0 | 81.6 | 61.7 | 66.7 | 60.9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72.1 | 81.9 | 62.9 | 69.0 | 61.9 | (377) |
| 900만원 이상 | 78.1 | 85.4 | 67.3 | 74.6 | 67.7 | (556) |
| $X^2$(df) | 26.710(8)** | 34.355(8)*** | 12.706(8) | 34.415(8)*** | 27.092(8)**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62.4 | 73.3 | 51.9 | 56.3 | 50.1 | (738) |
| 긍정적 | 76.4 | 83.5 | 66.2 | 71.1 | 64.7 | (1,854) |
| $X^2$(df) | 63.158(2)*** | 40.939(2)*** | 53.420(2)*** | 62.893(2)*** | 61.114(2)*** | |
| 자녀 계획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77.4 | 83.4 | 66.1 | 72.3 | 63.7 | (658)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70.8 | 81.3 | 60.4 | 66.1 | 60.1 | (1,136) |
| 미정 | 70.7 | 77.2 | 61.2 | 63.5 | 58.8 | (798) |
| $X^2$(df) | 34.856(4)*** | 24.497(4)*** | 31.042(4)*** | 36.845(4)*** | 21.009(4)***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영아(1-4세) | 85.5 | 90.6 | 69.0 | 74.4 | 67.5 | (254) |
| 유아(5-7세) | 79.4 | 84.9 | 68.6 | 70.3 | 72.2 | (167) |
| 초등 저학년 | 75.8 | 82.1 | 67.0 | 72.9 | 66.5 | (243) |
| 초등 고학년 | 74.1 | 84.2 | 68.2 | 75.6 | 64.7 | (189) |
| 중학생 | 77.8 | 85.2 | 71.8 | 75.7 | 70.3 | (137) |
| 고등학생 | 76.1 | 82.4 | 67.3 | 76.3 | 72.3 | (82) |
| 성인자녀 | 79.3 | 85.5 | 68.9 | 66.6 | 62.5 | (49) |
| $X^2$(df) | 43.674(12)*** | 21.095(12)* | 11.066(12) | 19.883(12) | 9.194(12) | |

주: 1) 각 항목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응답을 합산한 비율임.
2) ①주택구입·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 ②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③신규 출산가구에 분양주택 특별공급 당첨 기회 1회 추가 허용, ④결혼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 출산 시 세금 부담 경감, ⑤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금액과 횟수 확대, 난임휴가를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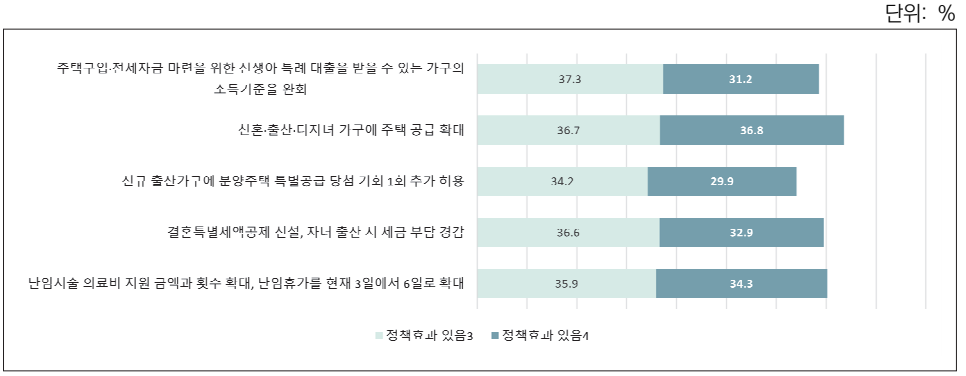
### 2)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분야 세부정책의 기대효과 인식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지원' 분야의 다섯 개 세부 정책에 대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3점 이상 긍정 응답은 64.1~73.6%로 나타남.

-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73.6%,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금액과 횟수 확대 및 난임휴가를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 70.2%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Ⅳ-2-6]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정책의 기대효과 인식 - 긍정비율(전체)**

단위: %




주: 긍정비율은 각 항목에 대해 '효과 없음' 1점~'효과 있음' 4점 척도 중 3~4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 저출생 대책 중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 인식 정도를 세부그룹별로 살펴봄.

- 전반적으로는 남성, 결혼에 긍정적이고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는 응답자에서 높은 기대효과 인식을 나타냄.
- 단, '결혼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 출산 시 세금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25~29세 남성이 78.4%로 높은 기대효과 인식을 나타냄.
- 또한 결혼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거나, 자녀를 낳지 계획이라고 한 경우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정책 분야의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Ⅳ-2-8〉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인식 – 긍정비율**

단위: %, (명)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신생아특례 대출소득 기준완화 | ② 신혼 및 다자녀가구 주택공급확대 | ③ 출산가구특별 공급당첨기회 추가허용 | ④ 결혼특별세액 공제자녀출산 시세금경감 | ⑤ 난임시술비 확대,난임휴가 6일로 확대 | |
| 전체 | 68.5 | 73.6 | 64.1 | 69.5 | 70.2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70.3 | 75.8 | 66.4 | 72.4 | 69.9 | (1,337) |
| 여성 | 66.8 | 71.2 | 61.6 | 66.3 | 70.5 | (1,255) |
| $X^2$(df) | 16.284(3)** | 16.326(3)** | 12.376(3)** | 19.186(3)*** | 1.065(3)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69.1 | 75.5 | 66.4 | 72.5 | 69.5 | (489) |
| 만30-39세 | 70.8 | 75.7 | 65.4 | 71.7 | 72.3 | (964) |
| 만40-49세 | 66.5 | 71.0 | 61.9 | 66.3 | 68.8 | (1,139) |
| $X^2$(df) | 15.311(6)* | 18.124(6)** | 22.658(6)** | 34.466(6)*** | 25.425(6)***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만25-29세 남성 | 73.7 | 81.3 | 71.8 | 78.4 | 72.1 | (256) |
| 만25-29세 여성 | 64.0 | 69.0 | 60.6 | 66.2 | 66.8 | (233) |
| 만30-39세 남성 | 74.7 | 77.7 | 67.8 | 74.2 | 73.6 | (502) |
| 만30-39세 여성 | 66.6 | 73.4 | 62.9 | 68.9 | 70.8 | (462) |
| 만40-49세 남성 | 65.0 | 71.7 | 62.8 | 68.2 | 65.7 | (579) |
| 만40-49세 여성 | 68.1 | 70.2 | 61.0 | 64.3 | 71.9 | (560) |
| $X^2$(df) | 51.908(15)*** | 46.726(15)*** | 42.333(15)*** | 69.615(15)*** | 39.810(15)*** | |
| 학력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68.5 | 73.3 | 68.8 | 71.1 | 70.0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68.2 | 73.7 | 62.4 | 68.9 | 70.2 | (1,668) |
| 대학원 재학 이상 | 71.2 | 73.3 | 63.4 | 69.3 | 70.8 | (275) |
| $X^2$(df) | 6.940(6) | 7.212(6) | 21.698(6)** | 8.346(6) | 10.218(6) | |
| 자녀 유무 | | | | | | |
| 유자녀 | 71.0 | 74.6 | 64.8 | 70.0 | 71.6 | (1,122) |
| 무자녀 | 66.8 | 72.8 | 63.5 | 69.1 | 69.1 | (1,470) |
| $X^2$(df) | 5.688(3) | 2.338(3) | 1.126(3) | 2.471(3) | 9.743(3)*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69.3 | 73.5 | 62.9 | 69.5 | 70.3 | (1,778) |
| 학업중 | 67.6 | 78.1 | 67.4 | 72.3 | 78.7 | (102) |
| 구직중 | 67.5 | 74.3 | 69.3 | 71.1 | 69.0 | (416) |
| 미취업 | 66.1 | 71.3 | 62.3 | 65.9 | 68.4 | (295) |
| $X^2$(df) | 17.926(9)* | 17.056(9)* | 16.722(9) | 12.958(9) | 12.075(9) |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가구 | 72.1 | 75.1 | 64.6 | 71.5 | 73.0 | (724) |
| 외벌이 가구 | 67.4 | 74.5 | 63.1 | 68.5 | 70.8 | (578)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신생아특례 대출소득 기준완화 | ② 신혼 및 다자녀가구 주택공급확대 | ③ 출산가구특별 공급당첨기회 추가허용 | ④ 결혼특별세액 공제자녀출산 시세금경감 | ⑤ 난임시술비 확대,난임휴가 6일로 확대 | |
| 기타 | 67.2 | 72.3 | 64.2 | 68.8 | 68.4 | (1,290) |
| $X^2$(df) | 11.583(6) | 5.876(6) | 7.153(6) | 9.584(6) | 13.724(6)* | |
| 혼인 상태 | | | | | | |
| 미혼 | 66.7 | 72.0 | 64.1 | 68.4 | 68.2 | (1,207) |
| 기혼 | 70.0 | 74.8 | 63.9 | 70.1 | 72.0 | (1,302) |
| 이혼/사별 | 73.7 | 76.6 | 66.7 | 75.1 | 71.5 | (82) |
| $X^2$(df) | 5.879(3) | 4.813(3) | 3.228(3) | 7.118(3) | 12.929(3)** | |
| 거주 지역 | | | | | | |
| 대도시 | 69.5 | 72.5 | 63.7 | 69.1 | 68.8 | (1,132) |
| 중소도시 | 69.5 | 74.9 | 65.4 | 70.9 | 71.2 | (1,140) |
| 농어촌 | 62.2 | 72.7 | 60.7 | 65.6 | 71.6 | (320) |
| $X^2$(df) | 11.872(6) | 4.092(6) | 4.956(6) | 5.527(6) | 3.718(6)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73.9 | 80.1 | 68.6 | 76.6 | 75.3 | (162) |
| 공공기관 | 77.4 | 77.9 | 67.1 | 73.0 | 75.0 | (182) |
| 대기업 | 67.0 | 70.3 | 57.0 | 68.3 | 63.2 | (186) |
| 중소기업 | 67.1 | 71.3 | 61.5 | 67.5 | 70.0 | (859) |
| 기타 | 69.5 | 74.1 | 65.0 | 72.5 | 69.0 | (238) |
| 근로자 외 | 70.2 | 76.6 | 64.1 | 65.9 | 72.0 | (151) |
| $X^2$(df) | 38.009(15)** | 36.346(15)** | 28.032(15)* | 12.107(15) | 15.724(15) |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68.4 | 74.7 | 65.0 | 68.7 | 67.6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69.1 | 71.3 | 59.2 | 69.2 | 70.5 | (627) |
| 영업/판매직 | 59.0 | 72.2 | 64.4 | 64.4 | 65.8 | (76) |
| 서비스직 | 70.5 | 73.7 | 66.2 | 72.6 | 69.6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70.4 | 73.9 | 63.6 | 71.6 | 71.8 | (322) |
| 단순직 등 기타 | 73.3 | 78.1 | 67.9 | 68.7 | 73.5 | (107) |
| 근로자 외 | 70.2 | 76.6 | 64.1 | 65.9 | 72.0 | (151) |
| $X^2$(df) | 18.941(18) | 20.232(18) | 31.640(18)* | 29.422(18)* | 17.215(18)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62.8 | 70.7 | 67.4 | 70.1 | 64.8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69.0 | 77.9 | 67.3 | 70.6 | 73.0 | (65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69.2 | 70.8 | 63.5 | 69.1 | 68.6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70.5 | 75.0 | 61.6 | 69.3 | 72.2 | (377) |
| 900만원 이상 | 67.8 | 72.5 | 61.8 | 68.6 | 69.6 | (556) |
| $X^2$(df) | 23.276(12)* | 20.279(12) | 17.635(12) | 12.143(12) | 15.099(12)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52.0 | 61.5 | 50.5 | 54.0 | 57.2 | (738)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신생아특례 대출소득 기준완화 | ② 신혼 및 다자녀가구 주택공급확대 | ③ 출산가구특별 공급당첨기회 추가허용 | ④ 결혼특별세액 공제자녀출산 시세금경감 | ⑤ 난임시술비 확대,난임휴가 6일로 확대 | |
| 긍정적 | 75.2 | 78.3 | 69.5 | 75.7 | 75.4 | (1,854) |
| $X^2$(df) | 155.137(3)*** | 121.477(3)*** | 115.850(3)*** | 143.351(3)*** | 115.911(3)*** | |
| 자녀 계획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80.8 | 83.6 | 76.8 | 83.2 | 79.6 | (658)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62.6 | 68.1 | 56.6 | 61.9 | 65.8 | (1,136) |
| 미정 | 67.1 | 73.1 | 64.3 | 69.0 | 68.7 | (798) |
| $X^2$(df) | 99.246(6)*** | 77.805(6)*** | 104.471(6)*** | 136.313(6)*** | 55.699(6)***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영아(1-4세) | 74.8 | 81.6 | 67.7 | 75.8 | 75.3 | (254) |
| 유아(5-7세) | 74.7 | 74.1 | 65.0 | 73.3 | 69.8 | (167) |
| 초등 저학년 | 66.6 | 72.5 | 65.3 | 65.5 | 65.4 | (243) |
| 초등 고학년 | 70.8 | 71.4 | 63.2 | 67.3 | 71.6 | (189) |
| 중학생 | 64.9 | 71.1 | 56.0 | 67.1 | 73.1 | (137) |
| 고등학생 | 70.0 | 69.0 | 63.9 | 67.5 | 75.0 | (82) |
| 성인자녀 | 79.4 | 81.4 | 79.3 | 73.1 | 79.2 | (49) |
| $X^2$(df) | 29.685(18)* | 27.149(18) | 26.325(18) | 37.411(18)** | 25.804(18) | |

주: 1) 긍정비율은 각 항목에 대해 '효과 없음' 1점~'효과 있음' 4점 척도 중 3~4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2) ①주택구입·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 ②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③신규 출산가구에 분양주택 특별공급 당첨 기회 1회 추가 허용, ④결혼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 출산 시 세금 부담 경감, ⑤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금액과 횟수 확대, 난임휴가를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

* p 〈 .05, ** p 〈 .01, *** p 〈 .001

## 라. 저출생 대책 3대 분야의 인지도와 정책 기대효과 비교

□ 저출생 대책 3대 분야의 15개 핵심과제별 인지 정도와 정책 기대효과를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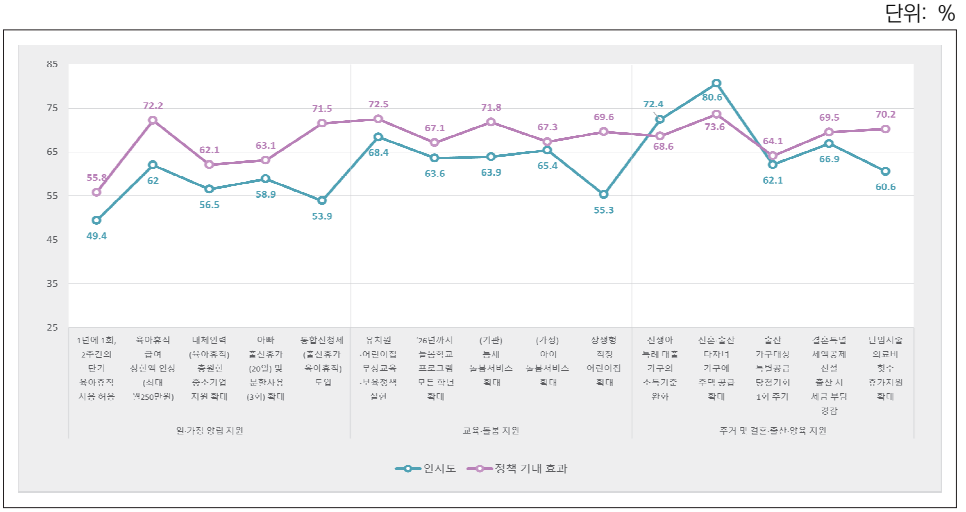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과 함께 '신혼출산 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와 '신생아 가구 특례대출 가구 소득기준완화'의 경우 인지도와 정책 기대효과가 둘 다 높은 편으로 나타나, 주거 및 결혼출산 양육지원 정책에 관심과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임.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와 '회사의 눈치보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는 통합신청제', '난임시술 의료비 금액과 횟수 확대 및 휴가 3일에서 6일로 확대'의 경우 정책 기대효과가 높은 것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나, 인지도 제고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제별 정책 혜택에 대한 구체적 내용, 이용방법, 실제 적용 시기 등을 함께 홍보와 정보공유를 통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Ⅳ-2-7]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별 정책 인지도 및 기대효과 비교**

단위: %




## 3. 3대 분야 정책 강화의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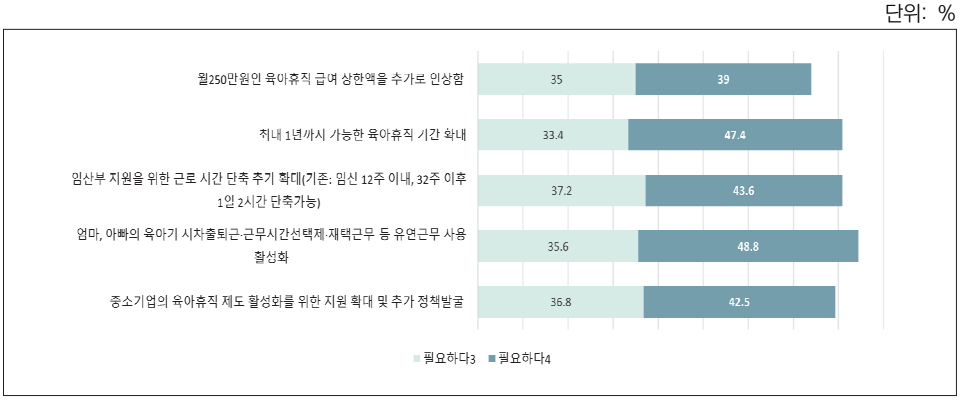
### 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강화의 필요도 인식

□ '일·가정 양립' 분야의 다섯 개 세부정책에 대해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얼마나 강화 또는 확대되어야 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3점 이상 긍정 응답은 74.1~84.4%로 나타남.

- '부모 모두 육아기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84.4%, '임산부 지원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추가 확대' 80.8%, '최대 1년까지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 확대' 80.8%,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추가정책 발굴' 79.3%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임.

**[그림 Ⅳ-3-1]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별 강화·확대 필요성 – 긍정비율(전체)**

단위: %




주: 긍정비율은 각 항목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 1점~'필요하다' 4점 척도 중 3~4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별 강화·확대의 필요성 정도를 세부그룹별로 살펴봄.

- 여성 응답자의 수요가 남성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단, '육아휴직급여 상한액(현행 250만원) 추가인상'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자가 77.5%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만25-29세 여성 응답자, 결혼에 긍정적이고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는 응답자, 막내자녀 영아가구 및 성인가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임.

**〈표 Ⅳ-3-1〉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별 강화·확대의 필요성 – 긍정비율**

단위: %, (명)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육아휴직 급여상한액 추가인상 | ② 육아휴직 기간확대 | ③ 임산부 근로단축 추가확대 | ④ 부모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 ⑤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 |
| 전체 | 74.0 | 80.8 | 80.8 | 84.4 | 79.3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77.5 | 79.0 | 80.9 | 83.0 | 78.0 | (1,337) |
| 여성 | 70.4 | 82.6 | 80.7 | 85.9 | 80.7 | (1,255) |
| $X^2$(df) | 17.176(3)** | 20.509(3)*** | 6.360(3) | 16.689(3)** | 12.750(3)**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74.7 | 82.5 | 83.0 | 85.6 | 79.0 | (489) |
| 만30-39세 | 78.2 | 82.6 | 83.2 | 85.8 | 79.7 | (964) |
| 만40-49세 | 70.3 | 78.4 | 77.8 | 82.7 | 79.1 | (1,139) |
| $X^2$(df) | 32.056(6)*** | 36.304(6)*** | 28.414(6)*** | 37.483(6)*** | 18.718(6)**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만25-29세 남성 | 74.1 | 82.6 | 84.6 | 85.6 | 77.8 | (256)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육아휴직 급여상한액 추가인상 | ② 육아휴직 기간확대 | ③ 임산부 근로단축 추가확대 | ④ 부모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 ⑤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 |
| 만25-29세 여성 | 75.3 | 82.4 | 81.3 | 85.5 | 80.3 | (233) |
| 만30-39세 남성 | 82.1 | 80.7 | 82.9 | 85.1 | 77.6 | (502) |
| 만30-39세 여성 | 74.0 | 84.7 | 83.5 | 86.6 | 81.9 | (462) |
| 만40-49세 남성 | 75.0 | 75.9 | 77.4 | 80.1 | 78.4 | (579) |
| 만40-49세 여성 | 65.4 | 81.0 | 78.1 | 85.4 | 79.8 | (560) |
| $X^2$(df) | 65.292(15)*** | 70.625(15)*** | 41.021(15)*** | 62.403(15)*** | 37.232(15)** | |
| 학력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74.5 | 79.3 | 80.2 | 83.0 | 81.6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73.8 | 81.2 | 81.1 | 85.2 | 77.9 | (1,668) |
| 대학원 재학 이상 | 74.6 | 81.2 | 80.4 | 82.6 | 82.2 | (275) |
| $X^2$(df) | 4.848(6) | 9.824(6) | 5.772(6) | 10.441(6) | 6.566(6) | |
| 자녀 유무 | | | | | | |
| 유자녀 | 76.4 | 82.3 | 81.3 | 85.4 | 79.4 | (1,122) |
| 무자녀 | 72.3 | 79.6 | 80.4 | 83.6 | 79.2 | (1,470) |
| $X^2$(df) | 7.660(3) | 6.444(3) | 10.470(3)* | 3.366(3) | 7.867(3)*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75.3 | 80.7 | 80.6 | 84.8 | 78.7 | (1,778) |
| 학업중 | 71.5 | 80.9 | 75.1 | 77.9 | 82.4 | (102) |
| 구직중 | 73.2 | 81.5 | 83.4 | 84.1 | 80.3 | (416) |
| 미취업 | 68.9 | 79.8 | 79.9 | 84.3 | 80.5 | (295) |
| $X^2$(df) | 11.740(9) | 4.897(9) | 10.508(9) | 14.989(9) | 7.129(9) |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가구 | 77.4 | 83.6 | 80.6 | 86.6 | 80.0 | (724) |
| 외벌이 가구 | 74.9 | 80.0 | 79.2 | 83.3 | 78.6 | (578) |
| 기타 | 71.8 | 79.5 | 81.6 | 83.6 | 79.2 | (1,290) |
| $X^2$(df) | 17.352(6)** | 16.932(6)* | 23.034(6)** | 16.133(6)* | 15.238(6)* | |
| 혼인 상태 | | | | | | |
| 미혼 | 71.2 | 79.3 | 81.5 | 83.3 | 78.6 | (1,207) |
| 기혼 | 76.3 | 82.0 | 80.0 | 85.1 | 79.4 | (1,302) |
| 이혼/사별 | 81.0 | 81.4 | 84.0 | 88.9 | 87.2 | (82) |
| $X^2$(df) | 17.442(3)** | 11.521(3)** | 21.792(3)*** | 7.959(3)* | 10.661(3)* | |
| 거주 지역 | | | | | | |
| 대도시 | 73.0 | 80.4 | 80.1 | 83.2 | 78.0 | (1,132) |
| 중소도시 | 75.8 | 81.2 | 82.6 | 86.0 | 81.4 | (1,140) |
| 농어촌 | 71.6 | 80.2 | 76.9 | 83.2 | 76.4 | (320) |
| $X^2$(df) | 5.088(6) | 8.096(6) | 9.221(6) | 6.727(6) | 9.462(6)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79.6 | 87.9 | 87.5 | 90.6 | 76.2 | (162) |
| 공공기관 | 82.3 | 84.1 | 80.6 | 86.4 | 79.7 | (182) |
| 대기업 | 77.4 | 80.2 | 74.0 | 82.3 | 71.2 | (186) |
| 중소기업 | 73.2 | 78.8 | 81.2 | 83.8 | 79.5 | (859) |
| 기타 | 74.7 | 82.1 | 81.8 | 86.9 | 82.1 | (238)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 육아휴직 급여상한액 추가인상 | ② 육아휴직 기간확대 | ③ 임산부 근로단축 추가확대 | ④ 부모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 ⑤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 |
| 근로자 외 | 72.0 | 78.1 | 76.6 | 82.6 | 79.5 | (151) |
| $X^2$(df) | 28.273(15)* | 32.966(15)** | 23.293(15) | 22.350(15) | 29.445(15)* |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77.1 | 80.2 | 81.6 | 80.1 | 79.4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73.6 | 80.5 | 80.1 | 85.5 | 75.6 | (627) |
| 영업/판매직 | 75.2 | 85.8 | 87.0 | 84.7 | 80.3 | (76) |
| 서비스직 | 72.8 | 78.4 | 78.5 | 84.2 | 76.3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79.1 | 84.4 | 82.5 | 88.5 | 83.9 | (322) |
| 단순직 등 기타 | 79.9 | 77.2 | 82.1 | 85.7 | 82.9 | (107) |
| 근로자 외 | 72.0 | 78.1 | 76.6 | 82.6 | 79.5 | (151) |
| $X^2$(df) | 14.195(18) | 31.856(18)* | 19.015(18) | 25.950(18) | 24.711(18)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67.7 | 75.8 | 77.5 | 76.4 | 76.4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76.4 | 81.3 | 84.2 | 87.3 | 82.3 | (65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74.0 | 80.6 | 81.7 | 83.9 | 78.5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72.7 | 83.8 | 80.1 | 85.5 | 79.7 | (377) |
| 900만원 이상 | 74.3 | 79.9 | 77.0 | 83.5 | 77.4 | (556) |
| $X^2$(df) | 16.069(12) | 16.625(12) | 21.389(12)* | 24.398(12)* | 14.865(12)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63.7 | 72.6 | 73.9 | 76.0 | 72.5 | (738) |
| 긍정적 | 78.2 | 84.0 | 83.5 | 87.7 | 82.0 | (1,854) |
| $X^2$(df) | 77.138(3)*** | 65.793(3)*** | 67.767(3)*** | 68.060(3)*** | 49.085(3)*** | |
| 자녀 계획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84.3 | 87.3 | 88.0 | 92.4 | 86.1 | (658)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68.4 | 77.8 | 75.7 | 81.4 | 75.8 | (1,136) |
| 미정 | 73.6 | 79.5 | 82.1 | 82.1 | 78.7 | (798) |
| $X^2$(df) | 76.071(6)*** | 46.318(6)*** | 58.277(6)*** | 59.173(6)*** | 40.251(6)***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영아(1-4세) | 84.2 | 89.5 | 86.2 | 89.7 | 82.5 | (254) |
| 유아(5-7세) | 80.2 | 82.4 | 85.6 | 86.2 | 80.0 | (167) |
| 초등 저학년 | 74.1 | 81.7 | 80.1 | 81.8 | 78.1 | (243) |
| 초등 고학년 | 70.3 | 76.8 | 77.0 | 84.4 | 75.3 | (189) |
| 중학생 | 69.4 | 73.8 | 71.9 | 81.4 | 76.0 | (137) |
| 고등학생 | 76.3 | 82.4 | 82.6 | 86.2 | 83.7 | (82) |
| 성인자녀 | 76.9 | 91.6 | 87.4 | 91.5 | 87.2 | (49) |
| $X^2$(df) | 53.505(18)*** | 55.194(18)*** | 48.547(18)*** | 59.355(18)*** | 23.681(18) | |

주: 1) 긍정비율은 각 항목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 1점~'필요하다' 4점 척도 중 3~4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2) ①월250만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추가로 인상함, ②최대 1년까지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 확대, ③임산부 지원을 위한 근로 단축 추가 확대, ④엄마, 아빠의 육아기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추가 정책발굴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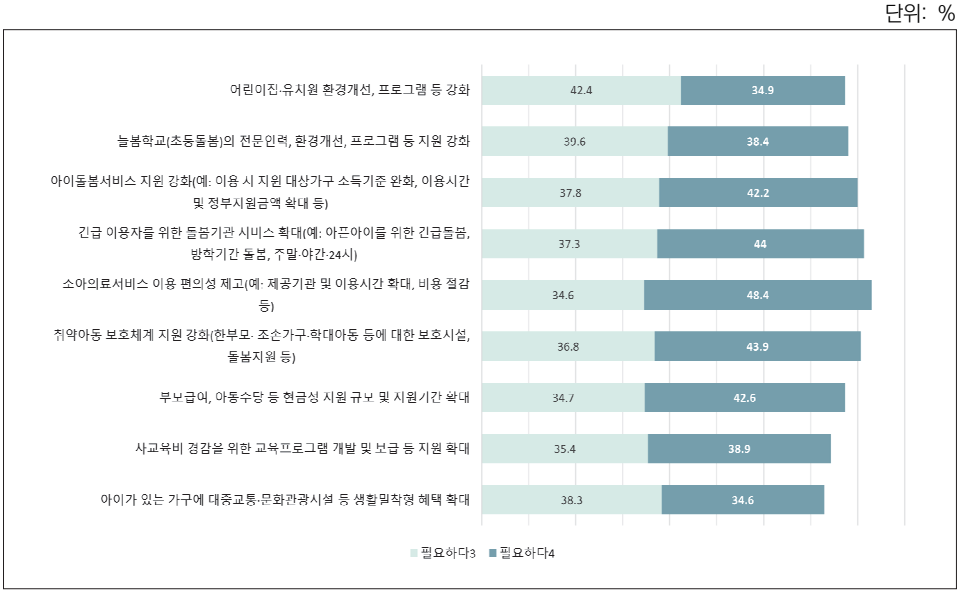
## 나. 교육·돌봄 지원정책 강화의 필요도 인식

□ ‘교육·돌봄’ 분야의 아홉 개 세부정책에 대해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얼마나 강화 또는 확대되어야 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3점 이상 긍정 응답은 72.9~83.0%로 고른 수요를 보임.

-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가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긴급 이용자를 위한 돌봄기관 서비스 확대’ 81.3%, ‘취약아동 보호체계 지원 강화(한부모·조손가구·학대피해아동 등에 대한 보호시설, 돌봄지원 등)’ 80.7%,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대상가구 소득기준 완화, 정부지원액 확대 등)’ 8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Ⅳ-3-2] 교육·돌봄지원 분야의 강화·확대 필요성 - 긍정비율(전체)**

단위: %




주: 긍정비율은 각 항목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 1점~‘필요하다’ 4점 척도 중 3~4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 교육·돌봄 지원 정책별 강화·확대의 필요성 정도를 세부그룹별로 살펴봄.

- 만25-29세와 만30-39세 여성 응답자, 결혼이 긍정적이고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응답자, 막내자녀 영유아가구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단,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의 필요도는 대도시 지역(81.8%)에 비해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 84.5%와 82.3%로 더 높고, '아동관련 현금지원(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은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응답자와 막내자녀 영아 및 고등학생 이상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남.

**〈표 Ⅳ-3-2〉 교육·돌봄 지원 정책별 강화·확대의 필요성 - 긍정비율1**

단위: %, (명)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어린이집 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 | ②늘봄학교 지원 강화 | ③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④긴급돌봄 서비스 강화 | ⑤소아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
| 전체 | 77.3 | 78.0 | 80.0 | 81.3 | 83.0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77.2 | 76.9 | 79.6 | 80.2 | 80.8 | (1,337) |
| 여성 | 77.5 | 79.0 | 80.5 | 82.6 | 85.4 | (1,255) |
| $X^2$(df) | 1.654(3) | 6.139(3) | 0.356(3) | 17.013(3)** | 13.877(3)**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75.8 | 74.1 | 79.1 | 80.8 | 82.1 | (489) |
| 만30-39세 | 79.4 | 79.9 | 82.3 | 83.2 | 86.2 | (964) |
| 만40-49세 | 76.2 | 77.9 | 78.5 | 80.0 | 80.7 | (1,139) |
| $X^2$(df) | 9.362(6) | 14.680(6)* | 23.312(6)** | 11.551(6) | 33.810(6)***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만25-29세 남성 | 77.0 | 75.0 | 80.7 | 81.1 | 79.8 | (256) |
| 만25-29세 여성 | 74.5 | 73.0 | 77.4 | 80.4 | 84.7 | (233) |
| 만30-39세 남성 | 78.9 | 79.7 | 82.7 | 82.9 | 85.0 | (502) |
| 만30-39세 여성 | 80.0 | 80.1 | 81.8 | 83.6 | 87.6 | (462) |
| 만40-49세 남성 | 75.7 | 75.3 | 76.5 | 77.4 | 77.7 | (579) |
| 만40-49세 여성 | 76.7 | 80.6 | 80.6 | 82.6 | 83.9 | (560) |
| $X^2$(df) | 16.298(15) | 32.856(15)** | 31.155(15)** | 34.503(15)** | 54.698(15)*** | |
| 학력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77.5 | 79.9 | 80.2 | 81.4 | 81.9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77.0 | 77.3 | 79.5 | 80.5 | 82.8 | (1,668) |
| 대학원 재학 이상 | 78.5 | 76.8 | 82.7 | 85.9 | 87.0 | (275) |
| $X^2$(df) | 7.649(6) | 10.414(6) | 14.332(6)* | 6.767(6) | 10.042(6) | |
| 자녀 유무 | | | | | | |
| 유자녀 | 80.5 | 80.9 | 82.2 | 82.6 | 85.6 | (1,122) |
| 무자녀 | 74.9 | 75.7 | 78.4 | 80.3 | 81.1 | (1,470) |
| $X^2$(df) | 24.446(3)*** | 35.316(3)*** | 19.854(3)*** | 18.662(3)*** | 23.856(3)***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76.9 | 77.2 | 79.4 | 81.6 | 83.2 | (1,778) |
| 학업중 | 73.0 | 74.0 | 82.0 | 77.9 | 85.6 | (102) |
| 구직중 | 78.6 | 79.6 | 82.6 | 83.4 | 84.5 | (416) |
| 미취업 | 79.7 | 81.1 | 79.3 | 78.2 | 79.3 | (295) |
| $X^2$(df) | 8.949(9) | 12.268(9) | 9.389(9) | 10.082(9) | 10.638(9) |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어린이집 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 | ②늘봄학교 지원 강화 | ③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④긴급돌봄 서비스 강화 | ⑤소아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가구 | 79.4 | 78.5 | 81.4 | 82.6 | 86.9 | (724) |
| 외벌이 가구 | 79.1 | 80.6 | 81.9 | 82.5 | 83.5 | (578) |
| 기타 | 75.3 | 76.4 | 78.4 | 80.1 | 80.7 | (1,290) |
| $X^2$(df) | 15.885(6)* | 26.923(6)*** | 28.468(6)*** | 31.404(6)*** | 37.534(6)*** | |
| 혼인 상태 | | | | | | |
| 미혼 | 74.8 | 75.9 | 78.0 | 80.1 | 80.2 | (1,207) |
| 기혼 | 79.3 | 79.4 | 81.6 | 82.6 | 85.4 | (1,302) |
| 이혼/사별 | 83.6 | 83.6 | 84.0 | 80.2 | 87.4 | (82) |
| $X^2$(df) | 18.325(3)*** | 31.753(3)*** | 28.690(3)*** | 30.941(3)*** | 35.846(3)*** | |
| 거주 지역 | | | | | | |
| 대도시 | 76.5 | 77.7 | 80.4 | 81.6 | 81.8 | (1,132) |
| 중소도시 | 78.4 | 77.9 | 79.7 | 81.6 | 84.5 | (1,140) |
| 농어촌 | 76.2 | 79.0 | 79.7 | 79.7 | 82.3 | (320) |
| $X^2$(df) | 3.575(6) | 3.090(6) | 2.006(6) | 6.174(6) | 13.026(6)*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75.2 | 75.7 | 80.8 | 82.5 | 88.6 | (162) |
| 공공기관 | 82.1 | 79.7 | 80.5 | 86.8 | 87.0 | (182) |
| 대기업 | 78.9 | 80.6 | 79.1 | 80.9 | 80.6 | (186) |
| 중소기업 | 75.9 | 75.8 | 78.4 | 80.2 | 81.6 | (859) |
| 기타 | 77.3 | 79.8 | 80.4 | 84.2 | 83.6 | (238) |
| 근로자 외 | 74.8 | 76.0 | 81.3 | 78.7 | 84.1 | (151) |
| $X^2$(df) | 17.176(15) | 31.525(15)** | 32.248(15)** | 23.814(15) | 20.321(15) |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78.2 | 79.6 | 76.2 | 76.4 | 77.8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76.3 | 78.3 | 80.4 | 83.4 | 84.6 | (627) |
| 영업/판매직 | 76.6 | 74.0 | 75.0 | 84.6 | 75.2 | (76) |
| 서비스직 | 75.8 | 74.2 | 78.8 | 79.5 | 85.1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78.0 | 77.3 | 80.2 | 85.0 | 85.2 | (322) |
| 단순직 등 기타 | 79.2 | 76.2 | 81.1 | 79.1 | 80.9 | (107) |
| 근로자 외 | 74.8 | 76.0 | 81.3 | 78.7 | 84.1 | (151) |
| $X^2$(df) | 15.269(18) | 15.792(18) | 21.644(18) | 25.160(18) | 25.829(18)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74.5 | 76.7 | 78.9 | 76.2 | 77.7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78.3 | 79.5 | 82.1 | 82.9 | 84.3 | (65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77.1 | 78.7 | 79.6 | 81.8 | 82.3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79.8 | 80.4 | 81.9 | 80.4 | 84.8 | (377) |
| 900만원 이상 | 75.7 | 73.7 | 77.3 | 81.1 | 83.2 | (556) |
| $X^2$(df) | 10.587(12) | 16.830(12) | 16.861(12) | 13.618(12) | 20.227(12)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67.7 | 70.8 | 71.2 | 74.1 | 73.8 | (738) |
| 긍정적 | 81.1 | 80.8 | 83.5 | 84.2 | 86.7 | (1,854) |
| $X^2$(df) | 65.618(3)*** | 53.721(3)*** | 61.281(3)*** | 52.618(3)*** | 83.463(3)*** |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어린이집 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 | ②늘봄학교 지원 강화 | ③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④긴급돌봄 서비스 강화 | ⑤소아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
| 자녀 계획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85.2 | 83.1 | 86.7 | 87.5 | 89.9 | (658)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75.3 | 76.0 | 77.2 | 79.0 | 81.5 | (1,136) |
| 미정 | 73.7 | 76.4 | 78.6 | 79.5 | 79.6 | (798) |
| $X^2$(df) | 36.442(6)*** | 20.358(6)** | 32.344(6)*** | 27.351(6)*** | 33.630(6)***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영아(1-4세) | 86.3 | 86.0 | 87.1 | 89.3 | 91.7 | (254) |
| 유아(5-7세) | 83.9 | 86.5 | 86.9 | 89.2 | 91.5 | (167) |
| 초등 저학년 | 77.8 | 81.1 | 81.7 | 81.2 | 84.2 | (243) |
| 초등 고학년 | 77.2 | 75.5 | 77.3 | 77.3 | 79.3 | (189) |
| 중학생 | 75.5 | 70.9 | 71.2 | 76.4 | 78.4 | (137) |
| 고등학생 | 82.5 | 83.8 | 87.5 | 77.5 | 85.1 | (82) |
| 성인자녀 | 74.8 | 76.9 | 83.3 | 78.9 | 85.2 | (49) |
| $X^2$(df) | 30.815(18)* | 41.678(18)** | 44.974(18)*** | 45.478(18)*** | 45.030(18)*** | |

주: 1) 긍정비율은 각 항목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 1점~'필요하다' 4점 척도 중 3~4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2) ①어린이집·유치원 환경개선, 프로그램 등 강화, ②늘봄학교(초등돌봄)의 전문인력, 환경개선, 프로그램 등 지원 강화, ③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④긴급 이용자를 위한 돌봄기관 서비스 확대, ⑤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p 〈 .05, ** p 〈 .01, *** p 〈 .001

**〈표 Ⅳ-3-3〉 교육·돌봄 지원 정책별 강화·확대의 필요성 - 긍정비율2**

단위: %, (명)

| 구분 | 세부 정책 | | | | 사례수 |
|---|---|---|---|---|---|
| | ①취약아동 보호체계 강화 | ②아동 관련 현금지원 확대 | ③사교육비 경감 대책 강화 | ④아동가구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 |
| 전체 | 80.7 | 77.4 | 74.3 | 72.9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 남성 | 79.5 | 79.0 | 74.3 | 73.3 | (1,337) |
| 여성 | 81.9 | 75.7 | 74.4 | 72.4 | (1,255) |
| $X^2$(df) | 8.824(3)* | 4.198(3) | 0.960(3) | 5.090(3) | |
| 응답자 연령 | | | | | |
| 만25-29세 | 79.2 | 76.4 | 70.4 | 73.7 | (489) |
| 만30-39세 | 82.3 | 79.6 | 75.3 | 74.2 | (964) |
| 만40-49세 | 80.0 | 75.9 | 75.1 | 71.3 | (1,139) |
| $X^2$(df) | 17.763(6)** | 24.923(6)*** | 13.275(6)* | 8.759(6)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만25-29세 남성 | 78.0 | 79.3 | 72.2 | 77.1 | (256) |
| 만25-29세 여성 | 80.6 | 73.2 | 68.5 | 70.0 | (233) |
| 만30-39세 남성 | 81.2 | 81.1 | 75.2 | 73.6 | (502) |
| 만30-39세 여성 | 83.4 | 77.9 | 75.5 | 74.9 | (462) |
| 만40-49세 남성 | 78.6 | 76.9 | 74.4 | 71.4 | (579) |

| 구분 | 세부 정책 | | | | 사례수 |
|---|---|---|---|---|---|
| | ①취약아동 보호체계 강화 | ②아동 관련 현금지원 확대 | ③사교육비 경감 대책 강화 | ④아동가구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 |
| 만40-49세 여성 | 81.3 | 74.9 | 75.9 | 71.2 | (560) |
| $X^2$(df) | 31.194(15)** | 33.381(15)** | 19.400(15) | 19.665(15) | |
| 학력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82.5 | 79.5 | 77.8 | 77.0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80.4 | 77.0 | 72.9 | 71.2 | (1,668) |
| 대학원 재학 이상 | 78.2 | 74.8 | 74.9 | 73.3 | (275) |
| $X^2$(df) | 7.102(6) | 7.014(6) | 16.799(6)* | 14.153(6)* | |
| 자녀 유무 | | | | | |
| 유자녀 | 82.0 | 80.5 | 80.1 | 77.3 | (1,122) |
| 무자녀 | 79.7 | 75.0 | 69.9 | 69.5 | (1,470) |
| $X^2$(df) | 10.245(3)* | 33.583(3)*** | 58.140(3)*** | 43.291(3)*** | |
| 취업 여부 | | | | | |
| 취업중 | 80.2 | 77.5 | 73.5 | 71.8 | (1,778) |
| 학업중 | 81.0 | 74.4 | 78.5 | 79.2 | (102) |
| 구직중 | 83.5 | 80.8 | 76.7 | 76.0 | (416) |
| 미취업 | 79.6 | 72.9 | 74.7 | 72.6 | (295) |
| $X^2$(df) | 7.971(9) | 12.829(9) | 8.211(9) | 9.796(9) | |
| 맞벌이 여부 | | | | | |
| 맞벌이 가구 | 80.3 | 79.1 | 77.6 | 74.8 | (724) |
| 외벌이 가구 | 81.8 | 79.4 | 78.7 | 75.2 | (578) |
| 기타 | 80.4 | 75.5 | 70.5 | 70.7 | (1,290) |
| $X^2$(df) | 8.498(6) | 28.084(6)*** | 39.572(6)*** | 35.043(6)*** | |
| 혼인 상태 | | | | | |
| 미혼 | 80.0 | 75.0 | 69.3 | 69.5 | (1,207) |
| 기혼 | 81.0 | 79.2 | 78.1 | 75.0 | (1,302) |
| 이혼/사별 | 86.5 | 83.5 | 87.5 | 87.9 | (82) |
| $X^2$(df) | 8.035(3)* | 32.219(3)*** | 45.234(3)*** | 38.273(3)*** | |
| 거주 지역 | | | | | |
| 대도시 | 77.2 | 77.7 | 73.8 | 71.6 | (1,132) |
| 중소도시 | 83.7 | 77.7 | 74.5 | 73.8 | (1,140) |
| 농어촌 | 82.1 | 75.3 | 75.5 | 74.0 | (320) |
| $X^2$(df) | 19.268(6)** | 2.299(6) | 4.596(6) | 4.241(6)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공무원 | 85.6 | 78.2 | 70.8 | 76.6 | (162) |
| 공공기관 | 80.0 | 75.2 | 73.9 | 72.3 | (182) |
| 대기업 | 77.7 | 79.2 | 73.3 | 68.6 | (186) |
| 중소기업 | 79.2 | 77.1 | 73.1 | 69.8 | (859) |
| 기타 | 84.4 | 78.8 | 75.2 | 75.6 | (238) |
| 근로자 외 | 76.7 | 77.3 | 75.3 | 75.3 | (151) |
| $X^2$(df) | 17.636(15) | 13.878(15) | 20.036(15) | 17.783(15) | |

| 구분 | 세부 정책 | | | | 사례수 |
|---|---|---|---|---|---|
| | ①취약아동 보호체계 강화 | ②아동 관련 현금지원 확대 | ③사교육비 경감 대책 강화 | ④아동가구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 |
| 본인 직무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82.4 | 77.6 | 77.4 | 73.3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80.8 | 76.4 | 72.3 | 68.0 | (627) |
| 영업/판매직 | 71.4 | 75.2 | 71.4 | 69.9 | (76) |
| 서비스직 | 81.4 | 78.0 | 74.8 | 77.3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79.4 | 78.2 | 70.8 | 70.2 | (322) |
| 단순직 등 기타 | 82.1 | 82.1 | 74.7 | 79.3 | (107) |
| 근로자 외 | 76.7 | 77.3 | 75.3 | 75.3 | (151) |
| $X^2$(df) | 21.294(18) | 14.427(18) | 24.748(18) | 24.320(18)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200만원 미만 | 78.1 | 71.1 | 70.9 | 73.9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84.1 | 80.1 | 77.2 | 77.7 | (65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80.8 | 78.0 | 75.6 | 70.8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80.8 | 77.7 | 71.0 | 72.9 | (377) |
| 900만원 이상 | 77.2 | 75.0 | 72.5 | 69.7 | (556) |
| $X^2$(df) | 26.239(12)* | 32.994(12)** | 13.446(12) | 21.413(12)*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부정적 | 74.2 | 67.1 | 63.8 | 61.4 | (738) |
| 긍정적 | 83.3 | 81.5 | 78.5 | 77.4 | (1,854) |
| $X^2$(df) | 41.737(3)*** | 91.674(3)*** | 64.121(3)*** | 82.362(3)*** | |
| 자녀 계획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86.2 | 86.0 | 80.0 | 82.2 | (658)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78.6 | 73.3 | 73.1 | 68.7 | (1,136) |
| 미정 | 79.1 | 76.1 | 71.4 | 71.1 | (798) |
| $X^2$(df) | 20.057(6)** | 45.941(6)*** | 24.496(6)*** | 53.584(6)***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영아(1-4세) | 82.2 | 88.6 | 84.3 | 81.6 | (254) |
| 유아(5-7세) | 84.8 | 79.2 | 81.6 | 77.2 | (167) |
| 초등 저학년 | 82.9 | 79.0 | 79.1 | 78.6 | (243) |
| 초등 고학년 | 79.4 | 77.5 | 76.8 | 74.9 | (189) |
| 중학생 | 77.9 | 69.0 | 74.8 | 69.5 | (137) |
| 고등학생 | 82.4 | 86.3 | 82.7 | 75.0 | (82) |
| 성인자녀 | 87.5 | 83.3 | 81.1 | 83.2 | (49) |
| $X^2$(df) | 16.395(18) | 73.845(18)*** | 14.266(18) | 29.789(18)* | |

주: 1) 긍정비율은 각 항목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 1점~'필요하다' 4점 척도 중 3~4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2) ⑥취약아동 보호체계 지원 강화, ⑦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규모 및 지원기간 확대, ⑧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지원 확대, ⑨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중교통·문화관광시설 등 생활밀착형 혜택 확대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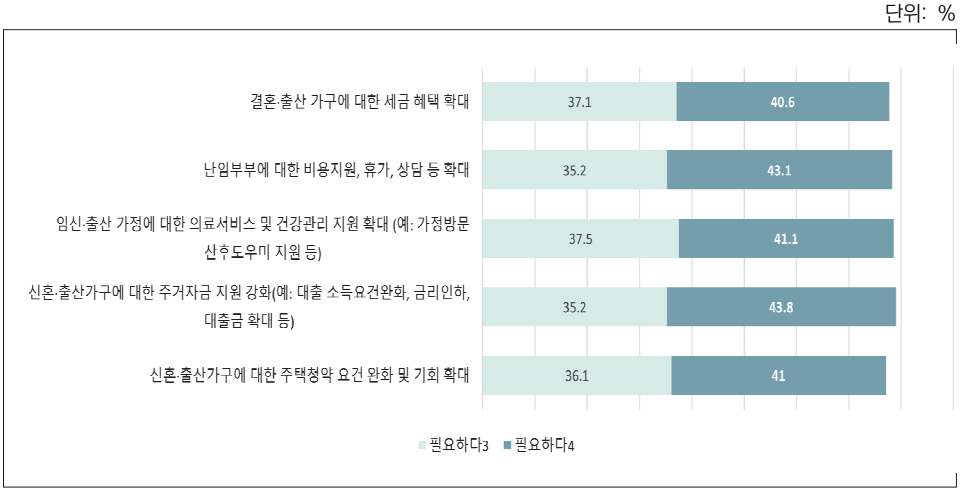
## 다. 결혼·출산·주거 지원 정책 강화의 필요도 인식

□ ‘결혼·출산·주거’ 분야의 다섯 개 세부정책에 대해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얼마나 강화 또는 확대되어야 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3점 이상 긍정 응답은 77.1~78.9%로 고른 수요를 보임.

-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 강화’가 79.0%로 높았고, ‘임신·출산 가정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 확대(가정방문 산후도우미 지원 등)’ 78.6%, ‘난임부부에 대한 비용지원, 휴가, 상담 등 확대’ 78.3%,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77.7%,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요건 완화 및 기회 확대’ 77.1%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Ⅳ-3-3]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지원 분야의 강화·확대 필요성 - 긍정비율(전체)**

단위: %




주: 긍정비율은 각 항목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 1점~‘필요하다’ 4점 척도 중 3~4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정책별 강화·확대의 필요성 정도를 세부그룹별로 살펴봄.

- 남성, 만25-29세와 만30-39세 및 남성, 단순직 등과 생산/제조/현장기술직, 결혼에 긍정적이고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응답자, 막내자녀 영아가구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Ⅳ-3-4〉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정책별 향후 강화·확대 필요성 – 긍정비율**

단위: %, (명)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결혼·출산 가구 세제지원 강화 | ②난임부부 지원 강화 | ③임신·출산 가정 의료 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 확대 | ④신혼·출산가구 주거비용 지원 강화 | ⑤신혼·출산가구 주택청약 요건 완화 및 기회 확대 | |
| 전체 | 77.7 | 78.3 | 78.6 | 79.0 | 77.1 | (2,592) |
| 응답자 성별 | | | | | | |
| 남성 | 81.5 | 78.5 | 79.7 | 81.3 | 79.0 | (1,337) |
| 여성 | 73.7 | 77.9 | 77.3 | 76.5 | 75.1 | (1,255) |
| $X^2$(df) | 25.858(3)*** | 2.323(3) | 6.613(3) | 12.364(3)** | 9.862(3)* | |
| 응답자 연령 | | | | | | |
| 만25-29세 | 79.7 | 72.5 | 77.5 | 80.1 | 79.6 | (489) |
| 만30-39세 | 78.9 | 80.7 | 80.3 | 80.9 | 78.7 | (964) |
| 만40-49세 | 75.9 | 78.6 | 77.5 | 76.8 | 74.7 | (1,139) |
| $X^2$(df)/F | 18.250(6)** | 32.560(6)*** | 18.015(6)** | 22.349(6)** | 23.240(6)** | |
| 응답자 성별×연령대 | | | | | | |
| 만25-29세 남성 | 84.9 | 73.3 | 80.5 | 84.0 | 82.8 | (256) |
| 만25-29세 여성 | 73.9 | 71.6 | 74.2 | 75.9 | 76.0 | (233) |
| 만30-39세 남성 | 81.9 | 83.9 | 81.7 | 83.5 | 80.2 | (502) |
| 만30-39세 여성 | 75.7 | 77.3 | 78.7 | 78.1 | 77.2 | (462) |
| 만40-49세 남성 | 79.7 | 76.2 | 77.5 | 78.1 | 76.3 | (579) |
| 만40-49세 여성 | 72.0 | 81.1 | 77.5 | 75.4 | 73.0 | (560) |
| $X^2$(df) | 58.388(15)*** | 54.064(15)*** | 42.159(15)*** | 44.926(15)*** | 43.757(15)*** | |
| 학력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78.0 | 78.9 | 79.6 | 79.7 | 78.0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77.4 | 77.3 | 78.0 | 78.7 | 76.6 | (1,668) |
| 대학원 재학 이상 | 79.0 | 82.5 | 79.7 | 78.5 | 78.4 | (275) |
| $X^2$(df) | 10.794(6) | 7.554(6) | 11.076(6) | 6.867(6) | 6.709(6) | |
| 자녀 유무 | | | | | | |
| 유자녀 | 80.6 | 80.8 | 79.7 | 81.4 | 78.3 | (1,122) |
| 무자녀 | 75.5 | 76.3 | 77.7 | 77.1 | 76.2 | (1,470) |
| $X^2$(df) | 24.644(3)*** | 14.157(3)** | 15.976(3)** | 13.830(3)** | 6.301(3) | |
| 취업 여부 | | | | | | |
| 취업중 | 78.0 | 77.9 | 78.2 | 79.3 | 77.5 | (1,778) |
| 학업중 | 77.8 | 75.4 | 76.9 | 79.1 | 83.1 | (102) |
| 구직중 | 78.9 | 78.5 | 80.4 | 79.4 | 77.6 | (416) |
| 미취업 | 74.0 | 81.2 | 78.6 | 76.1 | 72.0 | (295) |
| $X^2$(df) | 10.061(9) | 8.819(9) | 5.246(9) | 7.726(9) | 15.294(9) |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결혼·출산 가구 세제지원 강화 | ②난임부부 지원 강화 | ③임신·출산 가정 의료 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 확대 | ④신혼·출산가구 주거비용 지원 강화 | ⑤신혼·출산가구 주택청약 요건 완화 및 기회 확대 |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가구 | 81.3 | 80.7 | 81.3 | 81.4 | 79.2 | (724) |
| 외벌이 가구 | 79.0 | 81.9 | 79.5 | 79.6 | 75.8 | (578) |
| 기타 | 75.1 | 75.2 | 76.6 | 77.3 | 76.5 | (1,290) |
| $X^2$(df) | 37.937(6)*** | 31.567(6)*** | 26.510(6)*** | 23.790(6)** | 18.755(6)** | |
| 혼인 상태 | | | | | | |
| 미혼 | 74.6 | 75.1 | 76.3 | 76.8 | 76.3 | (1,207) |
| 기혼 | 80.3 | 81.2 | 80.5 | 80.6 | 77.7 | (1,302) |
| 이혼/사별 | 82.3 | 76.6 | 81.1 | 84.1 | 80.1 | (82) |
| $X^2$(df)/F | 37.963(3)*** | 32.029(3)*** | 25.839(3)*** | 23.597(3)*** | 15.926(3)** | |
| 거주 지역 | | | | | | |
| 대도시 | 76.5 | 77.4 | 77.8 | 77.2 | 75.7 | (1,132) |
| 중소도시 | 79.2 | 79.3 | 78.8 | 81.1 | 78.9 | (1,140) |
| 농어촌 | 77.0 | 77.4 | 79.9 | 77.6 | 75.8 | (320) |
| $X^2$(df) | 4.716(6) | 2.084(6) | 3.324(6) | 5.398(6) | 3.822(6)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82.9 | 79.0 | 82.9 | 81.2 | 81.4 | (162) |
| 공공기관 | 82.5 | 81.2 | 82.0 | 80.9 | 81.7 | (182) |
| 대기업 | 75.8 | 76.6 | 74.9 | 78.1 | 77.0 | (186) |
| 중소기업 | 76.8 | 76.6 | 77.6 | 78.5 | 75.5 | (859) |
| 기타 | 80.1 | 81.2 | 75.9 | 80.9 | 77.6 | (238) |
| 근로자 외 | 74.1 | 75.9 | 79.3 | 79.3 | 80.0 | (151) |
| $X^2$(df) | 16.126(15) | 12.948(15) | 12.872(15) | 17.646(15) | 17.432(15) |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81.6 | 79.0 | 81.5 | 84.0 | 78.4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75.6 | 77.3 | 77.2 | 76.2 | 75.5 | (627) |
| 영업/판매직 | 71.1 | 72.3 | 70.1 | 71.3 | 74.8 | (76) |
| 서비스직 | 81.3 | 73.1 | 79.2 | 82.9 | 79.6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79.4 | 82.8 | 78.2 | 80.5 | 78.4 | (322) |
| 단순직 등 기타 | 83.0 | 81.3 | 78.3 | 80.2 | 78.2 | (107) |
| 근로자 외 | 74.1 | 75.9 | 79.3 | 79.3 | 80.0 | (151) |
| $X^2$(df) | 31.521(18)* | 26.779(18) | 23.043(18) | 35.158(18)** | 34.485(18)*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200만원 미만 | 75.7 | 73.6 | 77.3 | 74.5 | 74.0 | (178)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78.7 | 79.6 | 79.7 | 82.4 | 80.2 | (659) |

| 구분 | 세부정책 | | | | | 사례수 |
|---|---|---|---|---|---|---|
| | ①결혼·출산 가구 세제지원 강화 | ②난임부부 지원 강화 | ③임신·출산 가정 의료 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 확대 | ④신혼·출산가구 주거비용 지원 강화 | ⑤신혼·출산가구 주택청약 요건 완화 및 기회 확대 |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76.0 | 78.0 | 77.4 | 76.7 | 75.4 | (822)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79.7 | 81.0 | 80.7 | 81.3 | 78.1 | (377) |
| 900만원 이상 | 78.5 | 76.7 | 77.8 | 78.0 | 76.5 | (556) |
| $X^2$(df) | 9.549(12) | 11.765(12) | 10.671(12) | 22.039(12)* | 20.084(12)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부정적 | 61.5 | 66.4 | 68.5 | 66.8 | 64.4 | (738) |
| 긍정적 | 84.2 | 83.0 | 82.5 | 83.8 | 82.2 | (1,854) |
| $X^2$(df) | 200.360(3)*** | 120.629(3)*** | 118.569(3)*** | 150.489(3)*** | 143.890(3)*** | |
| 자녀 계획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89.7 | 86.2 | 86.5 | 89.0 | 86.0 | (658)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71.0 | 74.2 | 74.6 | 73.5 | 71.6 | (1,136) |
| 미정 | 77.3 | 77.5 | 77.6 | 78.3 | 77.7 | (798) |
| $X^2$(df) | 117.424(6)*** | 53.200(6)*** | 64.009(6)*** | 95.708(6)*** | 93.762(6)***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영아(1-4세) | 89.5 | 86.3 | 84.9 | 86.7 | 84.8 | (254) |
| 유아(5-7세) | 74.7 | 81.5 | 82.0 | 79.1 | 78.2 | (167) |
| 초등 저학년 | 81.8 | 76.7 | 77.7 | 81.3 | 77.6 | (243) |
| 초등 고학년 | 77.8 | 81.1 | 73.4 | 81.0 | 77.1 | (189) |
| 중학생 | 78.5 | 78.6 | 79.8 | 76.1 | 71.8 | (137) |
| 고등학생 | 73.8 | 77.7 | 76.4 | 77.7 | 72.6 | (82) |
| 성인자녀 | 77.3 | 81.3 | 83.4 | 83.4 | 81.1 | (49) |
| $X^2$(df) | 64.949(18)*** | 40.363(18)** | 48.712(18)*** | 52.923(18)*** | 50.979(18)*** | |

주: 1) 긍정비율은 각 항목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 1점~'필요하다' 4점 척도 중 3~4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2) ①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②난임부부에 대한 비용지원, 휴가, 상담 등 확대, ③임신·출산 가정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 확대, ④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 강화, ⑤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요건 완화 및 기회 확대

* $p < .05$, ** $p < .01$, *** $p < .001$

# V

# 결과 및 시사점


01 결혼·출산·자녀 양육 인식과 이유에 대한 시사점

02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과 수요에 대한 시사점

03 종합적 분석 및 제안

# Ⅴ. 결론 및 시사점

## 1. 결혼·출산·자녀 양육 인식과 이유에 대한 시사점

### 가. 결혼 인식조사에 대한 성별차이 인식 필요

□ 전체 대상으로 질문한 결혼에 대한 인식은 71.5%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현재 기혼인 경우 긍정 83.6%, 현재 미혼인 경우 긍정 59.3%로 현재 상황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 여성이 66.2%로 남성(76.5%)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여성 중에서도 만25-29세 여성의 경우 57.4%로 매우 낮고, 같은 연령대의 남녀의 결혼의향에 18%p 차이가 나타나, 인식의 원인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결혼의향이 있으나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도 성별 간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일자리 또는 결혼자금 준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결혼 후의 변화에 대한 불안'이 높아, 여전히 성별에 따라 결혼에 대한 태도의 이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려고'가 7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결혼을 위해서는 결혼을 위한 자금형성을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정적 일자리 및 소득보장, 주거지원 등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특히, 미혼 남성들이 가장 우려하는 일자리마련, 결혼자금 및 주택마련 등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미혼 여성들이 우려하는 결혼 및 출산 등에서 오는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나. 결혼에 부정적이거나 결혼의향이 없을 경우, 정책효과 한계 가능성

□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 중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가 91.2%로 높게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결혼을 당연한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화·가치적인 이유로 인한 결과는 정책강화를 통해 결혼에 대한 선택을 변화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역할에 대한 부담도 90.7%로 높게 나타나, 결혼, 출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및 실질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결혼을 하면 내 직장생활 등 자아성취에 부담이 될까봐'의 이유는 성별 간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노동시장 참여 보장 정책 등이 중요한 시점임.

## 다. 출산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분위기 변화 필요

□ 미혼 무자녀 응답자 중 남성의 44.5%, 여성의 29.0%만 낳을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고, 남성의 18.1%, 여성의 33.2%가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응답함.

- 미혼 무자녀 응답자의 출산 생각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임신, 출산, 양육이 막연히 어려울 것 같아서'의 비율이 가장 높고, '자녀비용 부담', '아이가 행복하기 힘든 사회'의 이유 등이 그 다음을 차지하여, 미혼 무자녀 응답자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함.
- 무자녀 가구의 출산 결정을 위해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자녀 응답자 중 남성 13.1%, 여성 6.0%만 '낳을 생각이 있다'고 응답함.

- 추가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40대의 경우 '나이가 많아서'가 높았고, 2,30대의 경우 '자녀양육비용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양육지원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임.

## 라. 직접 돌봄이 가능한 제도마련을 위해 육아가구에 대한 이해 필요

□ 자녀를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기를 희망하는 연령이 평균 29.8개월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자녀가 만2세까지는 직접 돌보기를 원하는 경향을 보여,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이후에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지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맞벌이가구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을 물은 결과, 맞벌이 가구의 44.6%가 '육아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15.2%가 '육아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였음.

- 이를 통해서도 양육 시 일을 하더라도 자녀를 직접 돌봄 시간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이를 위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함.

## 2.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과 수요에 대한 시사점

### 가. 저출생 대책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 필요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청년층에서 낮은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인지 경로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여, 이를 반영하는 홍보 강화 전략이 필요함.

- 중장년의 인지 경로가 TV 비중이 높은 반면, 청년층의 경우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만25-29세 남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50%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정보 접근성의 제고를 위한 홍보 채널 다양화가 요구됨.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주요 영역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대에 그쳐 세부 과제별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 홍보 노력이 요구됨.

-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영역의 지원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7%~14.6% 정도로 나타나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나. 저출생 대책 주요 영역의 전반적인 강화와 대상별 차별화 병행 모색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3개 영역의 중요도는 전반적으로 80%대로 높게 나타나며, 대상별로 중요도 인식이 일부 달리 나타나므로, 우선지원 대상의 측면에서 방향성의 명료화가 요구됨.

-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영역의 중요성 인식비율이 84.1~85.7%로 높게 나타나, 제도별 사각지대 파악 및 해소 전략이 필요함.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3개 영역에 중요도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두드러진 대상을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효과성 진단을 통한 보완과제의 도출이 요구됨.

- '일·가정 양립 지원'의 중요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특히 만30-39세 여성의 경우는 90.7%에 달하여 높게 나타나므로, 여성의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노력의 강화가 요구됨.
- 반면에 '결혼·출산·양육 지원'의 중요도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안정적인 소득보장 노력이 요구됨.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주요 영역별로 중요도 인식을 반영하여 다음 세부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눈치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휴가·휴직 이용에 따른 소득보장이나 유연한 제도사용'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관련 제도의 실제이용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틈새보육 지원 강화'는 교육·돌봄의 비용지원보다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므로, 돌봄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마련의 노력이 요구됨.
- '결혼·출산에 따른 주거지원과 세제지원 강화 등 비용관련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만20-39세 남성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난임부부 지원 강화'의 중요도는 만40-49세 여성에서 높게 나타나므로, 출산을 희망하는 고연령대 여성의 출산지원 내실화가 요구됨.

## 다. 저출생 원인에 구조적 원인 및 대응

□ 저출생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중요도 긍정비율 83.3%), 성별과 연령대와 무관하게 고른 수요를 보이므로, 저출생 대책의 범위에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포괄하여 다룰 필요성이 제기됨.

- 성평등한 노동시장 참여와 더불어 출산 및 양육시기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소득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질 높은 일자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저출생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으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의 경우(중요도 긍정비율 81.8%), 전반적으로 막내자녀 영유아가구의 중요도가 높게 인식되는 것과 달리 막내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중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사교육비가 학령기 전반에 양육비용 부담의 주된 원인으로 추측됨.

## 라. 향후 저출생 대책의 우선과제와 추가과제

□ '일·가정 양립지원' 분야에서는 '육아기의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장시간근로 문화의 개선과 더불어 근로시간유연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부모의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등에 있어서 생산/제조. 현장 기술직 등에서 필요성이 낮게 나타나, 업종별, 직무별 근로시간유연제도의 적용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긴급돌봄서비스 강화'는 '아이돌봄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높은 수요를 나타내므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서비스 다양화 노력이 요구됨.

□ 저출생 대응을 위해 추가로 강화해야 하는 과제로는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와 '취약계층 아동 보호체계 강화'로 나타나므로, 저출생 대책에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함.

-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대도시 지역에 비해 높은 수요를 보여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이 요구됨.
- '취약계층 보호체계 강화'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내실화가 요구됨.
- '아동관련 현금지원'은 막내자녀 연령 기준으로 영아자녀와 고등학생 자녀 이상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므로 학령기 전반을 포괄하는 현금 급여제도를 모색함.
- '임신·출산가정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신혼·출산가구 주거공급 및 비용지원'은 결혼에 긍정적이고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이므로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3. 종합적 분석 및 제안

## 가. 결혼의향 및 출산의향과 저출생 대책 인지도의 관계 분석

### 1) 결혼의향과 저출생 대책 인지도 관계

□ 결혼의향에 정책에 대한 인지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미혼 대상 질문인 결혼의향에서 결혼의향[13]이 있다고 응답하는 데에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 및 정책인지도의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음[14].

- 먼저, 2장에서 결혼의향 조사 결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40대가 2,30대보다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그리고 취업유무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남성인 경우, 현재 취업중인 경우, 결혼의향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임.
- 전반적 정책인지도의 영향을 보기 위해, 나이, 성별, 취업유무를 통제한 후, 저출생 대책의 주요 영역에 대한 인지도의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결혼의향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임.
- 나이, 성별 취업유무, 3가지 핵심영역에 대한 인지도를 통제한 후 15가지 핵심과제에 대한 인지도의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교육·돌봄에 대한 지원' 중에서는 '등하원 시간 전후, 야간, 휴일, 방학과 같은 틈새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중에서는 '결혼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출산시 세금부담경감'에 대한 인지도가 결혼의향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임.

□ 저출생 대책에 대한 정책인지도만으로 결혼의향을 설명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정책내용 중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음.

- 결혼의향에는 '주거 및 결혼출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 영향력이 높아, 결혼을 원하고 준비하는 청년 대상으로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분야와 돌봄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

13) 본 회귀 분석에서 '결혼의향 있다'는 지금하고 싶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에 응답한 경우를 포함하였음.

14) 결혼의향 회귀분석 결과는 〈부록표 12〉에 수록

- 특히, 결혼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출산 시 세금부담 경감 및 돌봄공백시 기관돌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결혼 시 혜택 및 돌봄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나, 결혼지원과 양육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출산의향과 저출생 대책 인지도 관계

□ 출산의향에 미치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무자녀 대상[15] 출산의향 질문 중 출산의향이 있다[16]고 응답하는 데에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 및 정책 인지도의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음[17].

- 먼저, 나이, 성별, 취업유무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남성일수록, 현재 취업중일수록 출산의향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임.
- 또한, 전반적 정책인지도의 영향을 보기 위해, 나이, 성별, 취업유무를 통제한 후,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 중 저출생 대책의 주요 영역에 대한 인지도의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교육·돌봄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의향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음.
- 나이, 성별, 취업유무, 3가지 핵심영역에 대한 인지도를 통제한 후 15가지 핵심과제에 대한 인지도의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중 '주택구입·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출산의향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임.

□ 결혼의향과 마찬가지로 저출생 대책에 대한 정책인지도만으로 출산의향을 설명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정책내용 중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음.

- '주거 및 결혼출산에 대한 지원'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결혼을 원하고 준비하는 청년 대상으로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분야의 정책을 강화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출산의향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돌봄 지원'이 상대적 영향력이 있어 보이며, 주거지원 및 세금부담경감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

15) 유자녀 대상 추가출산의향은 9.3%로 높지 않아, 무자녀 대상 출산의향으로만 분석하였음.
16) 본 회귀 분석에서 '출산의향 있다'는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다'에 응답한 경우만 포함하였음.
17) 출산의향 회귀분석 결과는 〈부록표 13〉에 수록

## 나. 조사내용 주요 내용과 향후 제안

□ 저출생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6.19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의 핵심에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기업문화 조성, 중소기업에서의 대체인력 지원을 포함하여, 자영업자 등 비근로자 취업자가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조사에서 파악한 바대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마련 정책 중 3대 영역 15개 핵심과제의 인지도와 기대효과를 살펴본 결과, 정책효과 기대 정도는 높으나 인지도가 낮은 영역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

□ 또한 향후 강화하거나 확대 필요성 정도에 있어 높게 나타난 정책에 집중하여 향후 저출생 대책 확대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에 있어서 연령별 다양한 채널활용이 필요함.

**[그림 Ⅴ-3-1] 조사내용별 결과 요약 및 향후 제안**

| 구분 | 주요 조사내용 | 향후 제안 |
|---|---|---|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분위기 조성 | -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기를 원하는 평균월령 29.8개월로 만 평균 2세까지는 직접 돌보고자함<br>- 일·가정양립을 위해 육아시간 확보와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평등한 육아분담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일을 유지하면서도 자녀양육할 수 있는 분위기 지속적 마련 |
| 정책 기대효과 대비 낮은 인지도 | - 회사 눈치보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제 도입<br>- 협력기업 직원과 인근 주민의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br>-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금액과 횟수 확대, 난임휴가를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 | 중점적 정책추진과 함께 홍보 강화 |
| 향후 강화 확대 필요성 | -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br>- 엄마, 아빠의 육아기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br>- 긴급 이용자를 위한 돌봄기관 서비스 확대 | 향후 저출생 대책 확대 시 고려 |
| 홍보 채널 | - 3,40대가 TV,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20대가 SNS 유투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접함 | 연령별 다양한 홍보채널 활용 |

# 참고문헌

김지현·배윤진·김문정(2024).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육아정책연구소.

이소영·오신휘·황남희·최경덕·임준경(2023).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정·변수정·김은정·진화영·주보혜·남궁은하·김주현·정윤경(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24).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 6. 19.).

**【참고 사이트】**

통계청 2023년 출생통계: 지표누리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2024. 11. 6. 인출).

통계청 시도별 평균초혼연령(2024년 3월 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heckFlag=N (2024. 11. 6. 인출)

통계청(2020). 202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제1-1권 기본항목. 통계청, pp. 28-31.
통계청 홈페이지〉온라인간행물〉인구〉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https://kosis.kr/search/search.do (2024. 8. 20. 인출)

통계청(2020). 202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제1-4권 취업상태. 통계청, p. 28.
통계청 홈페이지〉온라인간행물〉인구〉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https://kosis.kr/search/search.do (2024. 8. 20.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4년 7월 기준).
https://jumin.mois.go.kr/#. (2024. 8. 20. 인출)

# 부록

## 부록 1. 설문지

#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대책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수탁과제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면서 결혼, 출산, 양육 및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관련 정책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윤리 및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024년 8월

| 조사 주관 기관 | 조사 수행 기관 (조사 문의) |
|---|---|
|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리서치 |
| 김문정 연구원 | 김달환 수석 |

**선문1. 귀하의 만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단수] [쿼터]]**

1. 만(　　)세

//만24세 미만, 만50세 이상 설문 중단//

**선문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단수] [쿼터]**

1. 남성
2. 여성

**// CAWI/CAMI에서 주로 사용하는 형식으로 구현 //**

**선문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쿼터]**

1. (　　) 시/도 (　　) 시/군/구(　　) 읍/면/동

**선문4.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단수]**

1. 미혼
2. 기혼(사실혼 포함)
3. 이혼/사별

**선문5. 귀하께서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단수]**

1. 있다　　-〉 선문5-1
2. 없다　　-〉 선문6-1

**[로직 : 선문5=1인 경우만 응답]**

**선문5-1. 귀하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오픈]**

**//지시문(선문5-1) : ※ 현재 임신 중인 자녀 포함함//**

1. (　)명 [로직 : 1 to 10]

**//아래 표를 선문5-1의 응답 명수만큼 구현해주세요.//**

**선문5-2. 자녀의 출생년도를 입력해주세요. [커스텀]**

| 자녀구분 | 출생연도 |
|---|---|
| 첫째자녀 | 1. (　　)년도 [로직 : 1990 to 2024] |
| 둘째자녀 | 2. (　　)년도 [로직 : 1990 to 2024] |
| 셋째자녀 | 3. (　　)년도 [로직 : 1990 to 2024] |
| ··· | |

**선문6-1. 귀하의 현재 학업 또는 취업 상황은 어떠합니까?[단수]**

1. 취업중(육아휴직 포함)
2. 학업중
3. 구직중
4. 미취업(미취업이나 현재 구직중이 아닌 경우)

**[로직 : 선문4=2인 경우만 응답]**

**선문6-2. 배우자의 현재 학업 또는 취업 상황은 어떠합니까? [단수]**

1. 취업중(육아휴직 포함)
2. 학업중
3. 구직중
4. 미취업(미취업이나 현재 구직중이 아닌 경우)

## A. 결혼·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

**문1.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단일척도]**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긍정적이다
4. 매우 긍정적이다

**[로직 : 선문4=1]**

**문2. 귀하의 결혼의향은 어떠신가요? [단수]**

1. 지금 하고 싶다
2.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
3.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
4. 생각해 본 적이 없다/잘 모르겠다
5.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로직 : 문2=1, 2]**

**문2-1. 지금 결혼 하고 싶거나, 언젠가 하고 싶다고 응답하셨는데, 현재 미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내용 중 해당 되는 이유가 있다면 체크해주십시오. [stepbystep]**

| 항목 | 그렇다 | 아니다 |
|---|---|---|
| | 1 | 2 |
| 1.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 | |
| 2. 아직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 | |
| 3. 지금은 다른 일(학업이나 직업 등)에 더 열중하고 싶어서 | | |
| 4.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려고 | | |
| 5. 결혼 후 일상생활이나 역할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 | |

**[로직 : 문2=3, 4]**

**문2-2.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다/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내용 중 해당 되는 이유가 있다면 체크해주십시오. [stepbystep]**

| 항목 | 그렇다 | 아니다 |
|---|---|---|
| | 1 | 2 |
| 1.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 | |
| 2.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혼수 준비 등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 | |
| 3.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 | | |
| 4. 결혼을 하면 내 직장생활 등 자아성취에 부담이 될까봐 | | |

**[로직 : 선문4=1인 경우만 응답]**

**문3. 귀하께서는 다음의 조건이 더해졌을 때, 결혼할 생각이 (더) 드십니까? [stepbystep]**

| "나는 ~ 라면 결혼할 마음이 (더) 생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 1 | 2 | 3 | 4 |
| 1. 주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면(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 | | | |
| 2. 만족할만한 일자리를 갖고 있다면 | | | | |
| 3. 결혼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결혼식장 비용 등) | | | | |
| 4. 결혼 후 결혼 전보다 제도적 혜택이 많다면(세액공제 등) | | | | |
| 5. 결혼 후에도 일(학업이나 직업 등)에 열중할 수 있다면 | | | | |
| 6.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 | | | |

## B.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문4. 한 가정에서(한 사람의 인생에서)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문5. 귀하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픈]**

1. (  )명 [로직 : 0 to 10]

**[로직 : 선문5=2인 경우만 응답]**

**문6-1.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1. 낳을 생각이 있다.
2. 낳지 않을 생각이다.
3.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생각 중이다)
4. 생각해본 적이 없다.

**[로직 : 선문5=1인 경우만 응답]**

**문6-2.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1. 더 낳을 생각이 있다.
2. 더 낳지 않을 생각이다.
3.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생각 중이다)
4. 생각해본 적이 없다.

**[로직 : 문6-1=2, 3인 경우만 응답]**

**문6-3.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시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MAXRANK : 3]**

1. 임신, 출산, 양육이 막연히 어려울 것 같아서(잘 키우기 힘듦, 스트레스가 높음 등)
2. 자녀로 인해 나/배우자의 일(학업)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3. 자녀로 인해 나/배우자의 여가생활 등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4. 나/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
5. 나/배우자가 난임이어서, 혹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6. 자녀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
7. 아이가 행복하게·안전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8. 특별한 이유 없음 [중복선택불가]

**[로직 : 문6-2=2, 3인 경우만 응답]**

**문6-4. 자녀를 더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시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MAXRANK : 3]**

1. 현재 자녀가 형제자매를 원하지 않아서/현재 자녀수로 충분해서
2. 자녀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잘 키우기 힘듦, 스트레스가 높음 등)
3. 자녀로 인해 나/배우자의 일(학업)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4. 자녀로 인해 나/배우자의 여가생활 등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5. 나/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
6. 나/배우자가 난임이어서, 혹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7. 자녀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
8. 아이가 행복하게·안전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9. 특별한 이유 없음 [중복선택불가]

**문7. 귀하께서는 아래의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드십니까? [척도] [STEPBYSTEP]**

| "나는 ~ 라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 1 | 2 | 3 | 4 |
| 1. 배우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한다면 | | | | |
| 2. 믿고 맡길만한 기관(어린이집 등)이나 사람(아이돌보미 등)이 있다면 | | | | |
| 3.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다면 | | | | |
| 4.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 | | | |
| 5. 육아기 단축근무(주당 15~35시간 근무, 근무시간 비례 급여 조정)를 할 수 있다면 | | | | |
| 6.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를 할 수 있다면 | | | | |
| 7.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 | | | |
| 8.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시간(1일 1~2시간, 유급)이 주어진다면 | | | | |
| 9.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 | | | |
| 10. 정부의 육아 수당(현금이나 바우처 지원)이 늘어난다면 | | | | |
| 11. 출산 후 혜택(세액공제, 할인 등)이 늘어난다면 | | | | |
| 12. 소득이 좀 더 많다면 | | | | |
| 13. 일자리가 좀 더 안정적이라면 | | | | |
| 14. 일찍 결혼한다면(지금 나이가 좀 더 어리다면) | | | | |
| 15. 좀 더 건강하다면 | | | | |

## C. 돌봄,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로직 : 선문5의 1 또는 선문5의 2 AND 문6-1=1인 경우만 응답]**

**문8. 귀하는 자녀를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어린이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언제까지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기를 희망하십니까? [오픈]**

**//지시문(문8) : ※ 현재 상황이 아닌 경우 가정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생후 (  )개월 [로직 : 1 to 48]

**문9. 귀하는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에서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RANK:2]**

1.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근무 시간을 줄이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확대)
2.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연장보육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장시간보육기관 확충, 초등 돌봄 확대 등)
3. 돌봄 인력 지원 확대(공공 아이돌보미 지원 강화 등)
4. 배우자 간 평등한 육아 분담
5.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6.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7. 기타 (  )

**//(로테이션 : 문10-1~문10-4) 선문5-1의 자녀수만큼 구현해주세요.//**

**문10. 귀하의 [제시: 자녀 출생년도] 자녀는 최근 3개월 이내 다음의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척도]**

| 항목 | 이용 경험 여부 | |
|---|---|---|
| | 있다 | 없다 |
| | 1 | 2 |
| 1. 영유아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로직 : 자녀 출생년도 2017 ~ 2024인 경우만 출력] | | |
| 2.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 시간제 보육 또는 (공공)아이돌봄서비스 [로직 : 자녀 출생년도 2012 ~ 2024인 경우만 출력] | | |
| 3. 초등돌봄서비스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로직 : 자녀 출생년도 2012 ~ 2017인 경우만 출력] | | |

//항목별 로직의 자녀 출생년도는 응답하는 자녀의 출생년도로 로직 걸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 로프에서는 둘째자녀의 년도로 해당되는 것만 응답//

**[로직 : 문10의 1이 하나라도 있는 항목만 출력]**

**문10-1. 귀하의 [제시: 자녀 출생년도] 자녀가 이용해 본 적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시간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척도] [STEPBYSTEP]**

| 항목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만족 한다 | 매우 만족한다 |
|---|---|---|---|---|---|
| | 1 | 2 | 3 | 4 | 5 |
| 1. 영유아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로직 : 자녀 출생년도 2017 ~ 2024인 경우만 출력] | | | | | |
| 2.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 시간제 보육 또는 (공공)아이돌봄서비스 [로직 : 자녀 출생년도 2012 ~ 2024인 경우만 출력] | | | | | |
| 3. 초등돌봄서비스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로직 : 자녀 출생년도 2012 ~ 2017인 경우만 출력] | | | | | |

//항목별 로직의 자녀 출생년도는 응답하는 자녀의 출생년도로 로직 걸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 로프에서는 둘째자녀의 년도로 해당되는 것만 응답//

**[로직 : 문10의 1이 하나라도 있는 항목만 출력]**

**문10-2. 귀하의 [제시: 자녀 출생년도] 자녀가 이용해 본 적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비용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척도] [STEPBYSTEP]**

| 항목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만족 한다 | 매우 만족한다 |
|---|---|---|---|---|---|
| | 1 | 2 | 3 | 4 | 5 |
| 1. 영유아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로직 : 자녀 출생년도 2017 ~ 2024인 경우만 출력] | | | | | |
| 2.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 시간제 보육 또는 (공공)아이돌봄서비스 [로직 : 자녀 출생년도 2012 ~ 2024인 경우만 출력] | | | | | |
| 3. 초등돌봄서비스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로직 : 자녀 출생년도 2012 ~ 2017인 경우만 출력] | | | | | |

//항목별 로직의 자녀 출생년도는 응답하는 자녀의 출생년도로 로직 걸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 로프에서는 둘째자녀의 년도로 해당되는 것만 응답//

//확인창(문10-2) : 모든 항목에 동일한 보기로 응답한 경우, 확인창 출력

모든 항목에 대해 '[제시 : 응답한 보기]'라고 응답하신 것이 맞습니까?//

**[로직 : 문10의 1이 하나라도 있는 항목만 출력]**

**문10-3. 귀하의 [제시: 자녀 출생년도] 자녀가 이용해 본 적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내용과 질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척도][STEPBYSTEP]**

| 항목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만족 한다 | 매우 만족한다 |
|---|---|---|---|---|---|
| | 1 | 2 | 3 | 4 | 5 |
| 1. 영유아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로직 : 자녀 출생년도 2017 ~ 2024인 경우만 출력] | | | | | |
| 2.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 시간제 보육 또는 (공공)아이돌봄서비스 [로직 : 자녀 출생년도 2012 ~ 2024인 경우만 출력] | | | | | |
| 3. 초등돌봄서비스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로직 : 자녀 출생년도 2012 ~ 2017인 경우만 출력] | | | | | |

//항목별 로직의 자녀 출생년도는 응답하는 자녀의 출생년도로 로직 걸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 로프에서는 둘째자녀의 년도로 해당되는 것만 응답//

## D. 저출산 대책발표내용에 대한 인식

**//카테고리(문11) :**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4년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의 내용입니다.**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6월 19일에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
**1)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2) 양육(0~11세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3) 주거(신혼·출산 가구대상 주택 공급 및 주택 자금 지원 확대, 결혼 비용 부담 완화 등)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문11. 귀하는 이와 같은 발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전혀 모른다 -〉 문12
2.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 문11-1
3.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 문11-1

**[로직 : 문11=2, 3인 경우만 응답]**

**문11-1. 귀하는 <u>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u>에 대한 내용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습니까?**

① TV
② 라디오
③ 신문
④ 잡지·도서 등 인쇄물
⑤ 인터넷(포털, 커뮤니티 등)
⑥ 소셜미디어(유투브,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등)
⑦ 기타( )

**문12.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척도]**

| 항목 | 전혀 모른다 |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
| | 1 | 2 | 3 |
| 1.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 | | |
| 2. (가칭)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 | | | |

**//카테고리(문13~문17) :**

**※ 다음은 저출생 대책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

**문13. 다음 저출생 대책 중에서 다음의 영역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 항목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 | | | | 매우 중요하다 |
|---|---|---|---|---|---|---|---|
| | 1 | 2 | 3 | 4 | 5 | 6 | 7 |
| 1. 일·가정양립 | | | | | | | |
| 2. 양육지원 | | | | | | | |
| 3. 주거 등 결혼·출산지원 | | | | | | | |

**문14. 다음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일·가정양립 여건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 항목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 | | | | 매우 중요하다 |
|---|---|---|---|---|---|---|---|
| | 1 | 2 | 3 | 4 | 5 | 6 | 7 |
| 1.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 | | | | | | | |
| 2.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 | | | | | |
| 3.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 | | | | |

**문15. 다음은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항목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 항목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 | | | | 매우 중요하다 |
|---|---|---|---|---|---|---|---|
| | 1 | 2 | 3 | 4 | 5 | 6 | 7 |
| 1. 교육·돌봄을 0~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 | | | | | |
| 2.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 | | | | | | | |
| 3.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등 돌봄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 | | | | | | |

**문16. 다음은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대책들입니다. 각각의 항목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 항목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 | | | | 매우 중요하다 |
|---|---|---|---|---|---|---|---|
| | 1 | 2 | 3 | 4 | 5 | 6 | 7 |
| 1.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 확대 | | | | | | | |
| 2. 결혼 친화적 세금지원을 통해 결혼에 대한 메리트 확대 | | | | | | | |
| 3.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 | | | | | | | |
| 4.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 | | | | | | |
| 5.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 | | | | | | |

**문17. 다음은 국민인식과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항목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 항목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 | | | | 매우 중요하다 |
|---|---|---|---|---|---|---|---|
| | 1 | 2 | 3 | 4 | 5 | 6 | 7 |
| 1.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 | | | | | |
| 2. 기업, 지자체 등의 주도적인 참여 | | | | | | | |
| 3. 좋은 일자리 창출 | | | | | | | |
| 4. 수도권 집중 완화 | | | | | | | |
| 5. 사교육비 부담 완화 | | | | | | | |

**//카테고리(문18~문20-2) :**

**※ 다음은 저출생 대책의 세부과제에 대한 인식과 기대효과(정책 효과성)를 묻는 질문입니다. //**

**문18.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일척도]**

1. 전혀 모른다
2.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3.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문18-1.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일가정 양립 지원" 세부 정책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척도] [STEPBYSTEP]**

| 항목 | 전혀 모른다 |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
|---|---|---|---|
| | 1 | 2 | 3 |
| 1. 봄방학 등 단기에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1년에 1회,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 허용 | | | |
| 2.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150만원에서 최대 월250만원으로 인상 | | | |
| 3.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확대 | | | |
| 4.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분할사용은 1회에서 3회까지로 확대 | | | |
| 5. 회사 눈치보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제 도입 | | | |

**문18-2.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실행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척도] [STEPBYSTEP]**

| 항목 | 정책 효과 없음 | ↔ | | 정책 효과 있음 |
|---|---|---|---|---|
| | 1 | 2 | 3 | 4 |
| 1. 봄방학 등 단기에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1년에 1회,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 허용 | | | | |
| 2.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150만원에서 최대 월250만원으로 인상 | | | | |
| 3.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확대 | | | | |
| 4.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분할 사용은 1회에서 3회까지로 확대 | | | | |
| 5. 회사 눈치보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제 도입 | | | | |

**문18-3. 다음은 일·가정양립 분야의 향후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각 항목이 강화/확대되거나 추가될 필요가 있는 정도를 1~4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척도] [STEPBYSTEP]**

| 항목 | 필요하지 않다 | ↔ | | 필요하다 |
|---|---|---|---|---|
| | 1 | 2 | 3 | 4 |
| 1. 월2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추가로 인상함 | | | | |
| 2. 최대 1년까지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 확대 | | | | |
| 3. 임산부 지원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 추가 확대(기존: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가능) | | | | |
| 4. 엄마, 아빠의 육아기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 | | | |
| 5.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추가 정책발굴 | | | | |

**문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교육돌봄에 대한 지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일척도]**

1. 전혀 모른다
2.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3.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문19-1.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교육돌봄에 대한 지원" 세부 정책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척도] [STEPBYSTEP]**

| 항목 | 전혀 모른다 |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
|---|---|---|---|
| | 1 | 2 | 3 |
| 1. 유치원·어린이집(미취학 아동) 비용 부담이 없도록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 | | | |
| 2.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26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 | | | |
| 3. 등하원시간 전후, 야간, 휴일, 방학과 같은 틈새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확대 | | | |
| 4.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 | |
| 5. 협력기업 직원과 인근 주민의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 | | |

**문19-2.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교육돌봄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실행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척도] [STEPBYSTEP]**

| 항목 | 정책 효과 없음 | ↔ | | 정책 효과 있음 |
|---|---|---|---|---|
| | 1 | 2 | 3 | 4 |
| 1. 유치원·어린이집(미취학 아동) 비용 부담이 없도록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 | | | | |
| 2.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27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 (학생의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제공) | | | | |
| 3. 등하원시간 전후, 야간, 휴일, 방학과 같은 틈새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확대 | | | | |
| 4.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 | | |
| 5. 협력기업 직원과 인근 주민의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 | | | |

**문19-3 다음은 교육돌봄 지원 분야의 향후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각 항목이 강화/확대되거나 추가될 필요가 있는 정도를 1~4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척도] [STEPBYSTEP]**

| 항목 | 필요하지 않다 | ↔ | | 필요하다 |
|---|---|---|---|---|
| | 1 | 2 | 3 | 4 |
| 1. 어린이집·유치원 환경개선, 프로그램 등 강화 | | | | |
| 2. 늘봄학교(초등돌봄)의 전문인력, 환경개선, 프로그램 등 지원 강화 | | | | |
|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예: 이용 시 지원 대상가구 소득기준 완화, 이용시간 및 정부지원금액 확대 등) | | | | |
| 4. 긴급 이용자를 위한 돌봄기관 서비스 확대(예: 아픈아이를 위한 긴급돌봄, 방학기간 돌봄, 주말·야간·24시) | | | | |
| 5.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예: 제공기관 및 이용시간 확대, 비용 절감 등) | | | | |
| 6. 취약아동 보호체계 지원 강화(한부모·조손가구·학대아동 등에 대한 보호시설, 돌봄지원 등) | | | | |
| 7.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규모 및 지원기간 확대 | | | | |
| 8.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지원 확대 | | | | |
| 9.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중교통·문화관광시설 등 생활밀착형 혜택 확대 | | | | |

**//카테고리(문19)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문20.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일척도]**

1. 전혀 모른다
2.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3.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문20-1.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세부 정책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척도] [STEPBYSTEP]**

| 항목 | 전혀 모른다 |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
|---|---|---|---|
| | 1 | 2 | 3 |
| 1. 주택구입·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 | | | |
| 2.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 | | |
| 3. 신규 출산가구에 분양주택 특별공급 당첨 기회 1회 추가 허용 | | | |
| 4. 결혼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 출산 시 세금 부담 경감 | | | |
| 5.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금액과 횟수 확대, 난임휴가를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 | | | |

**문20-2.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실행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척도] [STEPBYSTEP]**

| 항목 | 정책 효과 없음 | ↔ | | 정책 효과 있음 |
|---|---|---|---|---|
| | 1 | 2 | 3 | 4 |
| 1. 주택구입·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기준을 확대 | | | | |
| 2.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 | | | |
| 3. 신규 출산가구에 분양주택 특별공급 당첨 기회 1회 추가 인정 | | | | |
| 4. 결혼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 출산 시 세금 부담 경감 | | | | |
| 5.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금액과 횟수 확대, 난임휴가를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 | | | | |

**문20-3. 다음은 결혼·출산·주거 분야의 향후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각 항목이 강화/확대되거나 추가될 필요가 있는 정도를 1~4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척도] [STEPBYSTEP]**

| 항목 | 필요하지 않다 | ↔ | | 필요하다 |
|---|---|---|---|---|
| | 1 | 2 | 3 | 4 |
| 1.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 | | | |
| 2. 난임부부에 대한 비용지원, 휴가, 상담 등 확대 | | | | |
| 3. 임신·출산 가정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 확대 (예: 가정방문 산후도우미 지원 등) | | | | |
| 4.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 강화 (예: 대출 소득요건완화, 금리인하, 대출금 확대 등) | | | | |
| 5.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요건 완화 및 기회 확대 | | | | |

## F. 배경문항

**배문1. 귀 가구에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지시문(배문1) : ※ 본인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1. 가구원 수 ( )명 [로직 ; 1 to 10]

**[로직 : 배문1〉=2인 경우만 응답]**
**배문1-1. 귀하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1. 1인 가구 [로직 : 제시하지 않음] //배문1=1인 경우 자동 코딩//
2. 본인+부모/조부모
3. 본인+배우자 //선문4=1,3 OR 배문1〉=3인 경우 배문1-1_3 선택 불가//
4. 본인+배우자+자녀 //선문4=1,3 OR 선문5=2인 경우 배문1-1_4 선택 불가//
5. 본인+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선문4=1,3 OR 선문5=2인 경우 배문1-1_5 선택 불가//
6. 본인+친인척/지인
7. 기타

**배문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 재학 중
4. 대학 졸업
5. 대학원 재학 중
6. 대학원 졸업

**[로직 : 선문 6-1=1인 경우만 응답]**

**배문3.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상용(고용계약이 1년 이상)근로자 -〉 배문3-1
2. 임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1년 미만)근로자 -〉 배문3-1
3. 일용(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근로자 -〉 배문3-1
4. 자영업자 -〉 배문4
5. 고용주 -〉 배문4
6. 무급가족종사자 -〉 배문4

**[로직 : 배문3=1, 2, 3인 경우만 응답]**

**배문3-1. 귀하의 고용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전일제
2. 시간제

**[로직 : 배문3=1, 2, 3인 경우만 응답]**

**배문3-2.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직장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 공무원(정부기관, 교직공무원 등)
2.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 대기업
4. 중소기업
5. 기타

**[로직 : 배문3=1, 2, 3인 경우만 응답]**

**배문3-3. 귀하가 담당하시고 계신 직무는 무엇입니까?**

1. 생산/제조/현장기술직
2. 경영/행정/사무직
3. 영업/판매직
4. 서비스직
5. 관리/연구직/전문직
6. 단순직 등 기타 직무

**[로직 : 배문3=1, 2, 3인 경우만 응답]**

**배문3-4.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복수]**

1. 탄력근무제
2. 선택적시간근무제
3. 출퇴근시간 조정제
4. 재택/원격 근무제
5. 재량근무제
6. 기타 유연근무제
7. 유연근무제 활용하지 않음(복수선택불가)

**[로직 : 선문 6-2=1인 경우만 응답]**

**배문4. 귀하의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상용(고용계약이 1년 이상)근로자 -〉 배문4-1
2. 임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1년 미만)근로자 -〉 배문4-1
3. 일용(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근로자 -〉 배문4-1
4. 자영업자 -〉 배문5-1
5. 고용주 -〉 배문5-1
6. 무급가족종사자 -〉 배문5-1

**[로직 : 배문4=1, 2, 3인 경우만 응답]**

**배문4-1. 귀하의 배우자의 고용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전일제
2. 시간제

**[로직 : 배문4=1, 2, 3인 경우만 응답]**

**배문4-2. 귀하의 배우자가 근무하고 계신 직장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 공무원(정부기관, 교직공무원 등)
2.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 대기업
4. 중소기업
5. 기타

**[로직 : 배문4=1, 2, 3인 경우만 응답]**
**배문4-3. 귀하의 배우자가 담당하시고 계신 직무는 무엇입니까?**

1. 생산/제조/현장기술직
2. 경영/행정/사무직
3. 영업/판매직
4. 서비스직
5. 관리/연구직/전문직
6. 단순직 등 기타 직무

**[로직 : 배문4=1, 2, 3인 경우만 응답]**
**배문4-4. 귀하의 배우자는 다음 중 어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복수]**

1. 탄력근무제
2. 선택적시간근무제
3. 출퇴근시간 조정제
4. 재택/원격 근무제
5. 재량근무제
6. 기타 유연근무제
7. 유연근무제 활용하지 않음(복수선택불가)

**[로직: 선문6-1=1인 경우만 응답]**
**배문5-1. 귀하의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얼마입니까? [오픈]**

1. 월평균 ( )만원 [로직 : 0 to 100000][금액한글, 100000원]
//확인창(배문5-1) : 배문5-1〈100인 경우, 확인창 출력
'귀하의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개인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것이 맞습니까?'//

**[로직 : 선문 6-2=1인 경우만 응답]**
**배문5-2. 귀하의 배우자의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오픈]**

1. 월평균 ( )만원 [로직 : 0 to 100000][금액한글, 100000원]
//확인창(배문5-2) : 배문5-2〈100인 경우, 확인창 출력
'귀하의 배우자의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개인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것이 맞습니까?'//

**배문6. 귀하 가구의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연간 총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지시문(배문6) : ※ 가구 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및 이전 소득 등의 합계를 말합니다. //

1. 월 100만원 미만
2. 월 100만원 ~ 200만원 미만
3. 월 200만원 ~ 300만원 미만
4. 월 300만원 ~ 400만원 미만
5. 월 400만원 ~ 500만원 미만
6. 월 500만원 ~ 600만원 미만
7. 월 600만원 ~ 700만원 미만
8. 월 700만원 ~ 800만원 미만
9. 월 800만원 ~ 900만원 미만
10. 월 900만원 ~ 1,000만원 미만
11. 월 1,000만원 이상

//확인창(배문6) : 배문6=1인 경우, 확인창 출력

'지난 1년간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것이 맞습니까?'//

//확인창(배문6) : 배문6=11인 경우, 확인창 출력

'지난 1년간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것이 맞습니까?'/

# 부록 2.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표

**〈부록표 1〉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인지 경로**

단위: %, (명)

| 구분 | TV | 라디오 | 신문 | 잡지·도서 등 인쇄물 |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등) | 소셜미디어 (유투브,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등) | 기타 | 사례수 |
|---|---|---|---|---|---|---|---|---|
| 전체 | 33.6 | 1.9 | 3.4 | 0.8 | 45.2 | 13.1 | 1.9 | (1,674) |
| 취업 여부 | | | | | | | | |
| 취업중 | 32.3 | 2.4 | 4.0 | 0.7 | 46.5 | 12.0 | 2.1 | (1,163) |
| 학업중 | 32.5 | 0.0 | 1.5 | 0.0 | 40.2 | 23.2 | 2.7 | (69) |
| 구직중 | 37.2 | 0.8 | 2.4 | 1.2 | 43.1 | 13.8 | 1.6 | (259) |
| 미취업 | 37.1 | 1.1 | 2.2 | 1.1 | 41.9 | 15.5 | 1.1 | (183) |
| $X^2$(df) | 22.096(18) | | | | | | |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맞벌이 가구 | 32.7 | 2.9 | 3.1 | 0.8 | 48.6 | 9.8 | 2.3 | (529) |
| 외벌이 가구 | 37.5 | 1.8 | 2.0 | 0.8 | 46.2 | 10.1 | 1.6 | (389) |
| 기타 | 32.2 | 1.3 | 4.4 | 0.8 | 42.4 | 17.0 | 1.8 | (756) |
| $X^2$(df) | 29.931(12)** | | | | | | | |
| 혼인 상태 | | | | | | | | |
| 미혼 | 32.3 | 1.3 | 4.6 | 0.8 | 42.3 | 17.0 | 1.8 | (710) |
| 기혼 | 34.7 | 2.4 | 2.6 | 0.8 | 47.5 | 9.9 | 2.0 | (917) |
| 이혼/사별 | 31.3 | 2.2 | 2.3 | 0.0 | 44.4 | 17.6 | 2.3 | (46) |
| $X^2$(df) | 25.923(6)*** | | | | | | | |
| 거주 지역 | | | | | | | | |
| 대도시 | 33.8 | 2.7 | 3.2 | 0.9 | 43.9 | 13.7 | 1.7 | (731) |
| 중소도시 | 33.4 | 1.4 | 3.4 | 0.5 | 46.4 | 12.6 | 2.2 | (728) |
| 농어촌 | 33.5 | 0.9 | 4.2 | 0.9 | 45.7 | 12.9 | 1.9 | (214) |
| $X^2$(df) | 7.927(12) | | | | | |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
| 공무원 | 25.8 | 4.3 | 10.2 | 0.0 | 48.2 | 9.9 | 1.7 | (119) |
| 공공기관 | 28.2 | 2.4 | 4.0 | 0.7 | 49.3 | 12.4 | 3.0 | (131) |
| 대기업 | 28.3 | 3.3 | 6.0 | 2.4 | 48.1 | 8.4 | 3.5 | (119) |
| 중소기업 | 33.4 | 2.2 | 2.6 | 0.4 | 47.8 | 12.7 | 1.1 | (556) |
| 기타 | 39.2 | 1.4 | 2.1 | 0.0 | 39.9 | 14.0 | 3.5 | (147) |
| 근로자 외 | 34.5 | 2.2 | 4.5 | 2.2 | 41.2 | 12.0 | 3.3 | (91) |
| $X^2$(df) | 50.480(30)* | | | | | | | |
| 본인 직무 | |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40.8 | 2.8 | 5.6 | 0.0 | 41.2 | 8.2 | 1.4 | (143) |
| 경영/행정/사무직 | 30.7 | 2.5 | 4.0 | 0.2 | 48.6 | 12.5 | 1.6 | (443) |
| 영업/판매직 | 32.8 | 4.4 | 2.4 | 5.8 | 43.3 | 11.3 | 0.0 | (46) |
| 서비스직 | 33.5 | 0.7 | 1.2 | 0.7 | 45.1 | 16.2 | 2.7 | (15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28.6 | 3.5 | 5.7 | 0.4 | 51.0 | 8.6 | 2.2 | (232) |
| 단순직 등 기타 | 32.2 | 0.0 | 0.0 | 0.0 | 40.0 | 22.2 | 5.6 | (54) |

| 구분 | TV | 라디오 | 신문 | 잡지·도서 등 인쇄물 |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등) | 소셜미디어 (유투브,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등) | 기타 | 사례수 |
|---|---|---|---|---|---|---|---|---|
| 근로자 외 | 34.5 | 2.2 | 4.5 | 2.2 | 41.2 | 12.0 | 3.3 | (91) |
| $X^2$(df) | 67.130(36)** | | | | | |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 200만원 미만 | 39.8 | 0.0 | 3.4 | 1.2 | 34.3 | 17.9 | 3.4 | (90)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3.0 | 1.0 | 1.9 | 0.3 | 47.5 | 15.2 | 1.0 | (389) |
|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36.2 | 2.1 | 3.3 | 1.2 | 43.5 | 11.9 | 1.9 | (541) |
|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32.9 | 2.0 | 4.0 | 0.8 | 47.8 | 11.3 | 1.2 | (254) |
| 900만원 이상 | 29.8 | 3.0 | 4.8 | 0.5 | 46.1 | 12.9 | 3.0 | (400) |
| $X^2$(df) | 30.527(24) | | | | | | | |
| 결혼에 대한 생각 | | | | | | | | |
| 부정적 | 32.5 | 1.1 | 3.8 | 0.7 | 45.3 | 15.4 | 1.2 | (431) |
| 긍정적 | 34.0 | 2.2 | 3.3 | 0.8 | 45.2 | 12.3 | 2.2 | (1,243) |
| $X^2$(df) | 5.896(6) | | | | | | | |
| 자녀 계획 | | | | | | | | |
| 낳을 생각이 있다 | 30.4 | 1.9 | 4.9 | 1.2 | 30.4 | 17.3 | 1.6 | (422) |
| 낳지 않을 생각이다 | 36.4 | 2.4 | 2.9 | 0.6 | 36.4 | 11.1 | 1.7 | (774) |
| 미정 | 31.8 | 1.3 | 3.1 | 0.6 | 31.8 | 12.8 | 2.5 | (478) |
| $X^2$(df) | 20.917(12) | | | | | | | |
| 막내 자녀 연령대 | | | | | | | | |
| 영아(1-4세) | 25.8 | 2.6 | 0.3 | 1.5 | 53.9 | 14.0 | 2.0 | (198) |
| 유아(5-7세) | 31.7 | 3.5 | 4.4 | 0.0 | 52.3 | 7.2 | 0.9 | (114) |
| 초등 저학년 | 39.0 | 2.0 | 4.5 | 0.6 | 45.4 | 5.1 | 3.3 | (157) |
| 초등 고학년 | 36.8 | 1.6 | 2.4 | 0.7 | 43.8 | 11.6 | 3.2 | (129) |
| 중학생 | 41.1 | 2.2 | 1.1 | 3.2 | 46.0 | 6.4 | 0.0 | (95) |
| 고등학생 | 39.2 | 3.1 | 0.0 | 0.0 | 41.9 | 14.1 | 1.6 | (65) |
| 성인자녀 | 29.2 | 2.9 | 0.0 | 0.0 | 44.4 | 17.6 | 5.9 | (35) |
| $X^2$(df) | 50.283(36) | | | | | | | |

* $p < .05$, ** $p < .01$, *** $p < .001$

**〈부록표 2〉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주요 영역별 중요도 인식(7점 척도 점수별)**

단위: %, (명), 점

|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계 | (수) | 평균 |
|---|---|---|---|---|---|---|---|---|---|---|
| 일·가정 양립 | 0.9 | 0.7 | 2.3 | 10.5 | 19.9 | 19.1 | 46.6 | 100.0 | (2,592) | 5.9 |
| 양육지원 | 1.0 | 0.8 | 2.8 | 9.8 | 16.9 | 20.6 | 48.1 | 100.0 | (2,592) | 6.0 |
| 주거 등 결혼·출산지원 | 1.4 | 1.0 | 3.0 | 10.5 | 15.7 | 19.0 | 49.3 | 100.0 | (2,592) | 5.9 |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부록표 3〉 저출생 대책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도 – 긍정비율(그룹별)**

단위: %, (명)

| 구분 | 일·가정 양립 | 양육지원 | 주거 등 결혼·출산지원 | 사례수 |
|---|---|---|---|---|
| 전체 | 85.7 | 85.6 | 84.1 | (2,592) |
| 학력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80.7 | 81.7 | 82.3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87.1 | 86.7 | 84.5 | (1,668) |
| 대학원 재학 이상 | 88.6 | 88.7 | 85.5 | (275) |
| $X^2$(df) | 44.564(12)*** | 17.246(12) | 13.328(12) | |
| 거주 지역 | | | | |
| 대도시 | 83.7 | 84.0 | 84.3 | (1,132) |
| 중소도시 | 87.5 | 87.2 | 84.4 | (1,140) |
| 농어촌 | 85.9 | 85.7 | 82.2 | (320) |
| $X^2$(df) | 12.129(12) | 11.387(12) | 11.947(12)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공무원 | 92.1 | 90.9 | 85.7 | (162) |
| 공공기관 | 89.0 | 89.2 | 89.3 | (182) |
| 대기업 | 85.1 | 86.8 | 85.1 | (186) |
| 중소기업 | 86.6 | 85.8 | 83.9 | (859) |
| 기타 | 85.3 | 87.7 | 85.1 | (238) |
| 근로자 외 | 83.8 | 83.3 | 86.5 | (151) |
| $X^2$(df) | 35.904(30) | 28.545(30) | 20.615(30) | |
| 본인 직무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84.0 | 86.4 | 85.6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87.3 | 87.5 | 83.7 | (627) |
| 영업/판매직 | 85.9 | 83.3 | 79.1 | (76) |
| 서비스직 | 84.7 | 84.3 | 84.6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93.0 | 91.3 | 89.1 | (322) |
| 단순직 등 기타 | 81.0 | 82.9 | 83.8 | (107) |
| 근로자 외 | 83.8 | 83.3 | 86.5 | (151) |
| $X^2$(df) | 57.426(36)* | 41.394(36) | 33.072(36) | |

주: 긍정비율은 각 항목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 척도 중 5~7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 $p < .05$, *** $p < .001$

**〈부록표 4〉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7점척도 점수별)**

단위: %, (명), 점

|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계 | (수) | 평균 |
|---|---|---|---|---|---|---|---|---|---|---|
|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 | 0.7 | 0.8 | 2.6 | 8.4 | 19.4 | 20.8 | 47.3 | 100.0 | (2,592) | 6.0 |
|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0.5 | 0.9 | 2.2 | 8.9 | 15.2 | 19.6 | 52.7 | 100.0 | (2,592) | 6.1 |
|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0.6 | 0.7 | 1.9 | 8.7 | 13.8 | 18.7 | 55.6 | 100.0 | (2,592) | 6.1 |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부록표 5〉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_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방안별 중요도 – 긍정비율(그룹별)**

단위: %, (명)

| 구분 |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 |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례수 |
|---|---|---|---|---|
| 전체 | 87.5 | 87.5 | 88.1 | (2,592) |
| 학력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84.7 | 83.2 | 85.4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88.1 | 88.7 | 88.7 | (1,668) |
| 대학원 재학 이상 | 90.5 | 90.8 | 90.9 | (275) |
| $X^2$(df) | 24.677(12)* | 34.898(12)*** | 18.358(12) | |
| 거주 지역 | | | | |
| 대도시 | 86.8 | 86.3 | 87.7 | (1,132) |
| 중소도시 | 88.4 | 88.9 | 88.9 | (1,140) |
| 농어촌 | 86.7 | 86.8 | 86.7 | (320) |
| $X^2$(df) | 12.889(12) | 14.332(12) | 18.007(12)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공무원 | 93.3 | 94.5 | 93.2 | (162) |
| 공공기관 | 88.7 | 91.1 | 88.9 | (182) |
| 대기업 | 86.5 | 90.9 | 90.4 | (186) |
| 중소기업 | 86.8 | 87.7 | 87.8 | (859) |
| 기타 | 89.4 | 89.1 | 87.3 | (238) |
| 근로자 외 | 82.8 | 84.0 | 86.1 | (151) |
| $X^2$(df) | 33.803(30) | 38.426(30) | 36.037(30) | |
| 본인 직무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86.7 | 87.9 | 86.5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88.9 | 89.6 | 89.5 | (627) |
| 영업/판매직 | 84.4 | 87.3 | 87.1 | (76) |
| 서비스직 | 84.7 | 86.8 | 86.4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91.2 | 92.2 | 91.5 | (322) |
| 단순직 등 기타 | 86.5 | 89.5 | 86.7 | (107) |
| 근로자 외 | 82.8 | 84.0 | 86.1 | (151) |
| $X^2$(df) | 47.352(36) | 40.115(36) | 48.413(36) | |

주: 긍정비율은 각 항목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 척도 중 5~7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 $p < .05$, *** $p < .001$

**〈부록표 6〉 돌봄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7점척도 점수별)**

단위: %, (명), 점

|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계 | (수) | 평균 |
|---|---|---|---|---|---|---|---|---|---|---|
| 교육·돌봄을 0~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1.8 | 2.1 | 3.9 | 13.0 | 19.8 | 17.1 | 42.3 | 100.0 | (2,592) | 5.7 |
| 출·퇴근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 | 1.3 | 1.6 | 3.6 | 11.5 | 18.1 | 21.1 | 43.0 | 100.0 | (2,592) | 5.8 |
|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등 돌봄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 1.4 | 1.3 | 3.7 | 12.2 | 19.6 | 21.3 | 40.4 | 100.0 | (2,592) | 5.7 |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부록표 7〉 0-11세 돌봄환경 조성 방안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도 - 긍정비율(그룹별)**

단위: %, (명)

| 구분 | 0~11세아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틈새돌봄 보장 (출퇴근시간, 방학, 휴일 등) |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등 선택권 확대 | 사례수 |
|---|---|---|---|---|
| 전체 | 79.2 | 82.1 | 81.4 | (2,592) |
| 학력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79.6 | 82.1 | 80.8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78.6 | 81.5 | 81.0 | (1,668) |
| 대학원 재학 이상 | 82.2 | 85.8 | 84.9 | (275) |
| $X^2$(df) | 19.565(12) | 17.532(12) | 14.853(12) | |
| 거주 지역 | | | | |
| 대도시 | 80.3 | 83.3 | 81.9 | (1,132) |
| 중소도시 | 79.2 | 81.8 | 80.9 | (1,140) |
| 농어촌 | 75.5 | 78.8 | 80.9 | (320) |
| $X^2$(df) | 8.959(12) | 7.865(12) | 3.654(12)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공무원 | 73.8 | 81.2 | 82.9 | (162) |
| 공공기관 | 83.0 | 87.0 | 81.5 | (182) |
| 대기업 | 79.3 | 82.1 | 77.8 | (186) |
| 중소기업 | 78.6 | 81.2 | 82.2 | (859) |
| 기타 | 77.3 | 82.8 | 82.2 | (238) |
| 근로자 외 | 85.4 | 85.9 | 85.3 | (151) |
| $X^2$(df) | 31.088(30) | 30.269(30) | 31.722(30) | |
| 본인 직무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80.2 | 81.7 | 82.6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79.9 | 84.1 | 81.3 | (627) |
| 영업/판매직 | 75.1 | 77.9 | 76.6 | (76) |
| 서비스직 | 75.3 | 80.4 | 80.3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79.0 | 82.7 | 85.1 | (322) |
| 단순직 등 기타 | 74.3 | 78.1 | 78.2 | (107) |
| 근로자 외 | 85.4 | 85.9 | 85.3 | (151) |
| $X^2$(df) | 38.332(36) | 37.336(36) | 34.278(36) | |

주: 긍정비율은 각 항목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 척도 중 5~7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부록표 8〉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환경조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7점척도 점수별)**

단위: %, (명), 점

|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계 | (수) | 평균 |
|---|---|---|---|---|---|---|---|---|---|---|
|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 확대 | 1.7 | 2.1 | 4.1 | 10.7 | 17.1 | 19.8 | 44.5 | 100.0 | (2,592) | 5.8 |
| 결혼 친화적 세금지원을 통해 결혼에 대한 메리트 확대 | 3.9 | 3.7 | 5.8 | 14.5 | 19.9 | 18.7 | 33.5 | 100.0 | (2,592) | 5.3 |
|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 | 2.2 | 1.5 | 3.9 | 11.3 | 17.6 | 20.7 | 42.7 | 100.0 | (2,592) | 5.7 |
|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 2.7 | 2.3 | 4.0 | 11.5 | 16.8 | 20.0 | 42.6 | 100.0 | (2,592) | 5.7 |
|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 2.0 | 1.4 | 3.1 | 10.1 | 17.9 | 19.5 | 45.9 | 100.0 | (2,592) | 5.8 |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부록표 9〉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대책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도 – 긍정비율(그룹별)**

단위: %, (명)

| 구분 | 결혼·출산 주거지원 강화 | 결혼친화적 세제지원 강화 | 유자녀가구 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혜택 강화 | 난임부부 지원 강화 | 사례수 |
|---|---|---|---|---|---|---|
| 전체 | 81.4 | 72.1 | 81.0 | 79.4 | 83.3 | (2,592) |
| 학력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82.3 | 73.6 | 81.8 | 80.4 | 83.0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80.8 | 71.0 | 80.2 | 78.5 | 83.2 | (1,668) |
| 대학원 재학 이상 | 82.6 | 74.8 | 84.1 | 82.6 | 84.9 | (275) |
| $X^2$(df) | 9.666(12) | 13.827(12) | 11.835(12) | 28.380(12)** | 9.752(12) | |
| 거주 지역 | | | | | | |
| 대도시 | 82.0 | 71.9 | 80.3 | 77.8 | 83.3 | (1,132) |
| 중소도시 | 81.6 | 72.7 | 81.9 | 81.4 | 84.0 | (1,140) |
| 농어촌 | 78.3 | 70.5 | 80.5 | 78.3 | 81.1 | (320) |
| $X^2$(df) | 9.646(12) | 9.239(12) | 6.507(12) | 10.424(12) | 5.647(12)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84.0 | 82.5 | 85.0 | 80.7 | 83.6 | (162) |
| 공공기관 | 84.1 | 73.1 | 82.1 | 80.7 | 86.1 | (182) |
| 대기업 | 78.5 | 69.4 | 79.2 | 77.1 | 83.2 | (186) |
| 중소기업 | 81.9 | 70.8 | 79.8 | 79.2 | 82.4 | (859) |
| 기타 | 79.0 | 69.0 | 84.4 | 81.5 | 86.2 | (238) |
| 근로자 외 | 82.4 | 75.3 | 80.5 | 82.1 | 85.2 | (151) |
| $X^2$(df) | 36.152(30) | 34.633(30) | 22.405(30) | 30.813(30) | 28.726(30) |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84.4 | 74.8 | 86.1 | 83.5 | 87.4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80.5 | 70.9 | 78.9 | 78.0 | 82.9 | (627) |
| 영업/판매직 | 75.3 | 65.7 | 80.8 | 74.0 | 83.4 | (76) |
| 서비스직 | 81.0 | 75.5 | 80.1 | 79.1 | 78.9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80.9 | 70.3 | 81.5 | 79.5 | 86.2 | (322) |

| 구분 | 결혼·출산 주거지원 강화 | 결혼친화적 세제지원 강화 | 유자녀가구 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혜택 강화 | 난임부부 지원 강화 | 사례수 |
|---|---|---|---|---|---|---|
| 단순직 등 기타 | 88.6 | 70.6 | 84.9 | 85.8 | 82.2 | (107) |
| 근로자 외 | 82.4 | 75.3 | 80.5 | 82.1 | 85.2 | (151) |
| $X^2$(df) | 33.175(36) | 48.231(36) | 42.192(36) | 39.555(36) | 35.858(36) | |

주: 1) 긍정비율은 각 항목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 척도 중 5~7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2) ①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 확대, ②결혼 친화적 세금지원을 통해 결혼에 대한 메리트 확대, ③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 ④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의 지속적으로 확대, ⑤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 p 〈 .01,

**〈부록표 10〉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중요도 인식(7점척도 점수별)**

단위: %, (명), 점

|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계 | (수) | 평균 |
|---|---|---|---|---|---|---|---|---|---|---|
|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2.4 | 1.9 | 3.8 | 12.6 | 18.0 | 19.9 | 41.5 | 100.0 | (2,592) | 5.7 |
| 기업, 지자체 등의 주도적인 참여 | 1.8 | 1.7 | 3.3 | 12.1 | 17.4 | 22.0 | 41.6 | 100.0 | (2,592) | 5.7 |
| 좋은 일자리 창출 | 1.3 | 1.3 | 3.2 | 11.0 | 17.9 | 21.9 | 43.4 | 100.0 | (2,592) | 5.8 |
| 수도권 집중 완화 | 2.4 | 2.1 | 3.4 | 14.7 | 17.7 | 19.6 | 40.2 | 100.0 | (2,592) | 5.6 |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1.8 | 1.5 | 3.7 | 11.2 | 15.2 | 19.5 | 47.2 | 100.0 | (2,592) | 5.8 |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부록표 11〉 사회구조적 원인별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도 – 긍정비율(그룹별)**

단위: %, (명)

| 구분 |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기업, 지자체 등의 주도적인 참여 | 좋은 일자리 창출 | 수도권 집중 완화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사례수 |
|---|---|---|---|---|---|---|
| 전체 | 79.3 | 81.1 | 83.3 | 77.5 | 81.8 | (2,592) |
| 학력 | | |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79.9 | 79.8 | 82.1 | 75.1 | 82.9 | (650) |
| 대학교 재학 이상 | 78.7 | 81.1 | 83.6 | 78.0 | 81.1 | (1,668) |
| 대학원 재학 이상 | 81.6 | 84.3 | 84.0 | 79.8 | 83.7 | (275) |
| $X^2$(df) | 18.047(12) | 23.924(12)* | 6.597(12) | 21.450(12)* | 16.575(12) | |
| 거주 지역 | | | | | | |
| 대도시 | 78.0 | 79.9 | 82.5 | 75.1 | 81.5 | (1,132) |
| 중소도시 | 80.4 | 82.3 | 83.9 | 80.1 | 82.7 | (1,140) |
| 농어촌 | 80.2 | 81.1 | 84.2 | 76.3 | 79.8 | (320) |
| $X^2$(df) | 9.621(12) | 12.417(12) | 6.600(12) | 17.687(12) | 8.118(12) | |
| 본인 직장 유형 | | | | | | |
| 공무원 | 85.8 | 88.0 | 87.3 | 82.3 | 76.7 | (162) |
| 공공기관 | 83.9 | 83.6 | 87.2 | 80.9 | 85.7 | (182) |
| 대기업 | 79.2 | 81.9 | 80.3 | 75.1 | 82.0 | (186) |
| 중소기업 | 77.5 | 80.5 | 82.0 | 77.4 | 80.7 | (859) |
| 기타 | 80.3 | 78.8 | 85.3 | 77.7 | 82.7 | (238) |

| 구분 |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기업, 지자체 등의 주도적인 참여 | 좋은 일자리 창출 | 수도권 집중 완화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사례수 |
|---|---|---|---|---|---|---|
| 근로자 외 | 76.0 | 84.0 | 81.1 | 81.3 | 80.4 | (151) |
| $X^2$(df) | 35.707(30) | 27.646(30) | 22.161(30) | 26.188(30) | 31.124(30) | |
| 본인 직무 | | | | | | |
| 생산/제조/현장기술직 | 80.9 | 81.6 | 84.6 | 77.0 | 80.7 | (251) |
| 경영/행정/사무직 | 77.5 | 82.1 | 83.3 | 77.8 | 80.8 | (627) |
| 영업/판매직 | 72.9 | 74.2 | 75.2 | 79.2 | 81.0 | (76) |
| 서비스직 | 79.1 | 83.0 | 87.2 | 78.7 | 83.1 | (244) |
| 관리/연구직/전문직 | 84.1 | 81.6 | 81.3 | 79.7 | 81.4 | (322) |
| 단순직 등 기타 | 82.1 | 79.4 | 85.1 | 74.5 | 81.3 | (107) |
| 근로자 외 | 76.0 | 84.0 | 81.1 | 81.3 | 80.4 | (151) |
| $X^2$(df) | 41.267(36) | 40.849(36) | 30.098(36) | 22.245(36) | 25.411(36) | |

주: 긍정비율은 각 항목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매우 중요하다' 7점 척도 중 5~7점 응답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 p 〈 .05

**〈부록표 12〉 회귀분석 결과표 – 결혼의향과 저출생 대책 인지도 관계**

| 구분 | *β* | *S.E* |
|---|---|---|
| (상수) | .842*** | .070 |
| 응답자 만나이 | .062*** | .018 |
| 성별(1=남성, 2=여성) | .182*** | .027 |
| 취업유무(1=취업중, 2=미취업중) | .094*** | .028 |
| (상수) | 1.105*** | .086 |
| 응답자 만나이 | .056*** | .018 |
| 성별(1=남성, 2=여성) | .175*** | .027 |
| 취업유무(1=취업중, 2=미취업중) | .082** | .028 |
|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지도 | .021 | .025 |
| 저출생 대책 중 '일·가정양립 지원'에 대한 인지도 | -.037 | .026 |
| 저출생 대책 중 '교육·돌봄 지원'에 대한 인지도 | -.015 | .026 |
| 저출생 대책 중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인지도 | -.091*** | .028 |
| (상수) | 1.178*** | .087 |
| 응답자 만나이 | .058*** | .017 |
| 성별(1=남성, 2=여성) | .168*** | .027 |
| 취업유무(1=취업중, 2=미취업중) | .068* | .028 |
|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지도 | .041 | .025 |
| 저출생 대책 중 '일·가정양립 지원'에 대한 인지도 | -.014 | .029 |
| 저출생 대책 중 '교육·돌봄 지원'에 대한 인지도 | -.002 | .030 |
| 저출생 대책 중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인지도 | -.026 | .033 |
| '일·가정양립지원'-①1년 2주간 단기 육아 휴직 허용 | .001 | .032 |

| 구분 | β | S.E |
|---|---|---|
| '일·가정양립지원'-②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250만원으로 인상 | -.035 | .027 |
| '일·가정양립지원'-③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 -.013 | .028 |
| '일·가정양립지원'-④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018 | .030 |
| '일·가정양립지원'-⑤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제 | -.034 | .030 |
| '교육·돌봄 지원'-①미취학 무상교육 보육정책실현 | .002 | .030 |
| '교육·돌봄 지원'-②초등늘봄 학교전학년 확대 | .041 | .029 |
| '교육·돌봄 지원'-③휴일 등 틈새돌봄서비스 확대 | .075* | .033 |
| '교육·돌봄 지원'-④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070* | .030 |
| '교육·돌봄 지원'-⑤상생형직장 어린이집 확대 | -.038 | .029 |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①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완화 | -.036 | .031 |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②신혼 및 다자녀가구 주택공급확대 | -.009 | .028 |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③출산가구 특별공급 당첨기회 추가허용 | .043 | .029 |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④결혼특별세액공제 자녀출산시 세금경감 | -.080** | .031 |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⑤난임시술비 확대, 휴가 6일로 확대 | -.015 | .027 |
| $R1^2$=.049, $R2^2$=.073, $R3^2$=.099, F1=20.450***, F2=13.397***, F3=.5.916*** | | |

* p 〈 .05, ** p 〈 .01, *** p 〈 .001

**〈부록표 13〉 회귀분석 결과표 - 출산의향과 저출생 대책 인지도 관계**

| 구분 | β | S.E |
|---|---|---|
| (상수) | 1.120*** | .064 |
| 응답자 만나이 | .081*** | .016 |
| 성별(1=남성, 2=여성) | .163*** | .025 |
| 취업유무(1=취업중, 2=미취업중) | .083** | .027 |
| (상수) | 1.345*** | .079 |
| 응답자 만나이 | .077*** | .016 |
| 성별(1=남성, 2=여성) | .163*** | .025 |
| 취업유무(1=취업중, 2=미취업중) | .074** | .026 |
|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지도 | .026 | .023 |
| 저출생 대책 중 '일·가정양립 지원'에 대한 인지도 | -.002 | .025 |
| 저출생 대책 중 '교육·돌봄 지원'에 대한 인지도 | -.098*** | .025 |
| 저출생 대책 중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인지도 | -.037 | .026 |
| (상수) | 1.416*** | .080 |
| 응답자 만나이 | .080*** | .016 |
| 성별(1=남성, 2=여성) | .162*** | .025 |
| 취업유무(1=취업중, 2=미취업중) | .058* | .027 |
|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지도 | .046* | .023 |

| 구분 | β | S.E |
|---|---|---|
| 저출생 대책 중 '일·가정양립 지원'에 대한 인지도 | .029 | .026 |
| 저출생 대책 중 '교육·돌봄 지원'에 대한 인지도 | -.093*** | .029 |
| 저출생 대책 중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인지도 | .041 | .030 |
| '일·가정양립지원'-①1년 2주간 단기 육아 휴직 허용 | -.020 | .029 |
| '일·가정양립지원'-②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250만원으로 인상 | -.029 | .025 |
| '일·가정양립지원'-③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중소기업 지원금확대 | -.019 | .026 |
| '일·가정양립지원'-④아빠 출산휴가 20일로확대 | -.026 | .027 |
| '일·가정양립지원'-⑤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제 | -.008 | .027 |
| '교육·돌봄 지원'-①미취학 무상교육 보육정책실현 | -.004 | .028 |
| '교육·돌봄 지원'-②초등늘봄 학교전학년 확대 | .017 | .027 |
| '교육·돌봄 지원'-③휴일 등 돌봄서비스 확대 | .017 | .030 |
| '교육·돌봄 지원'-④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002 | .028 |
| '교육·돌봄 지원'-⑤상생형직장 어린이집 확대 | .038 | .027 |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①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완화 | -.071** | .028 |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②신혼 및 다자녀가구 주택공급확대 | -.005 | .026 |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③출산가구 특별공급 당첨기회 추가허용 | .009 | .027 |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④결혼특별세액공제 자녀출산시 세금경감 | -.053† | .028 |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⑤난임시술비 확대, 휴가 6일로 확대 | -.015 | .025 |
| $R1^2$=.046, $R2^2$=.070, $R3^2$=.095, *F1*=23.461***, *F2*=15.634***, *F3*=6.877*** | |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